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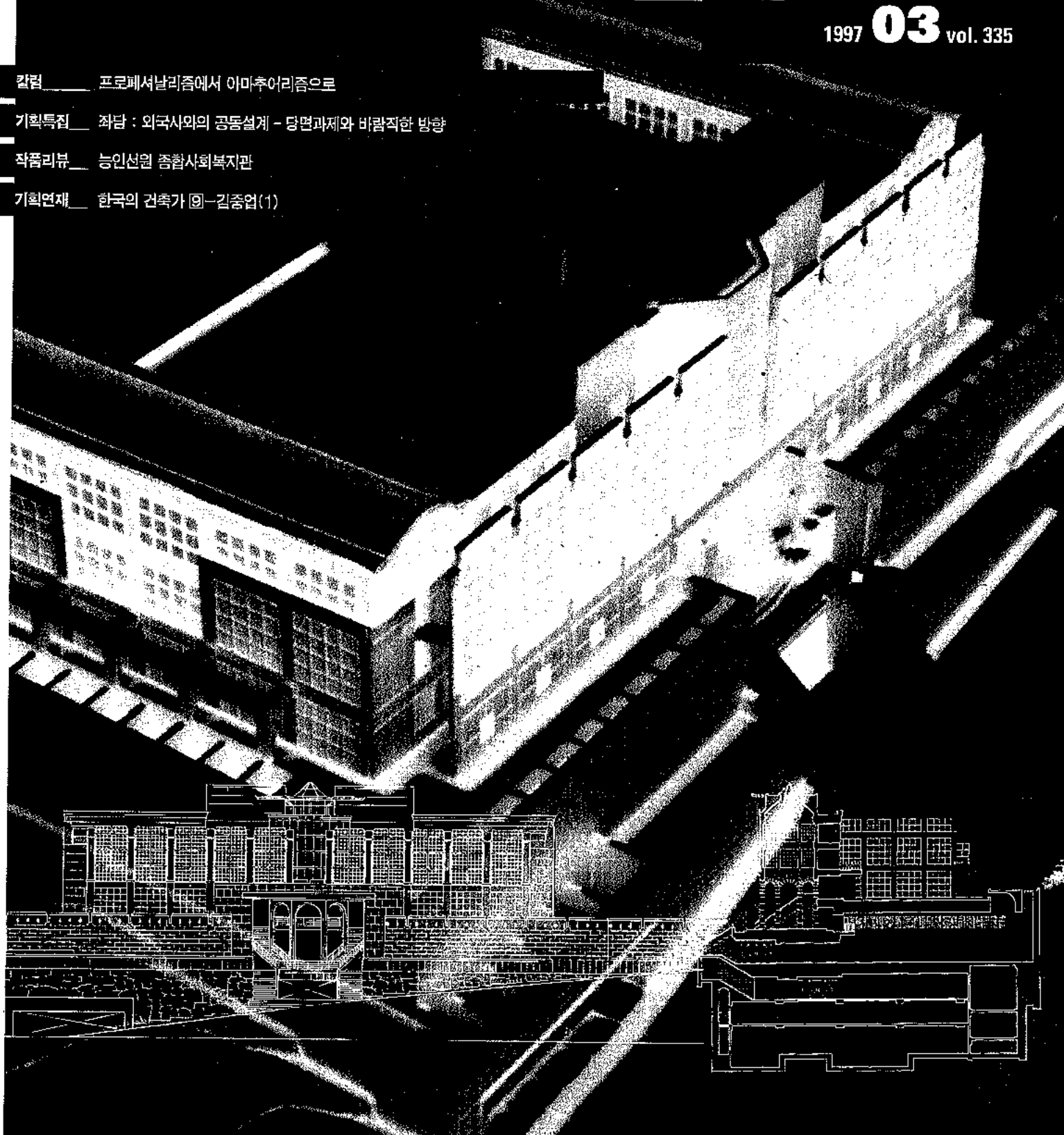
1997 **03** vol.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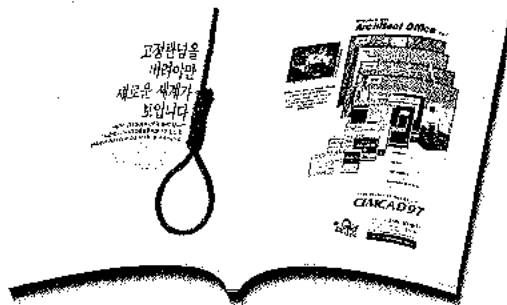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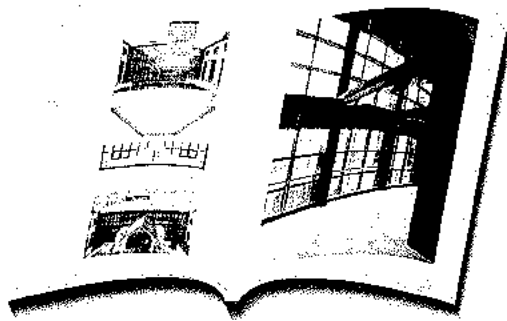
칼럼 _____ 프로페셔널리즘에서 아마추어리즘으로

기획특집 _____ 좌담 :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

작품리뷰 _____ 능인선원 종합사회복지관

기획연재 _____ 한국의 건축가 ⑨-김중업(1)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 사업부 : 581-5711~4
(주)이두컴 : 518-6856

원고모집안내

모집내용

수필, 건축기행문, 해외건축
건축관련 연구논문 또는 기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의 글
회원작품 (최근 1년 이내 준공된 작품)
계획작품 (현재 계획중이거나 계획으로만 끝난 미실현작품)
작품노트 (작품의 설계과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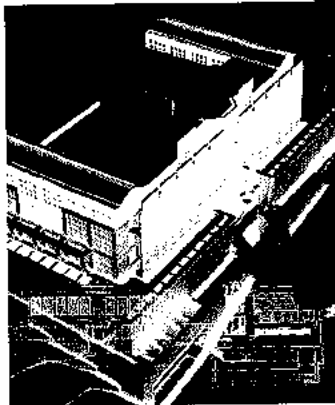
광고지면안내

광고요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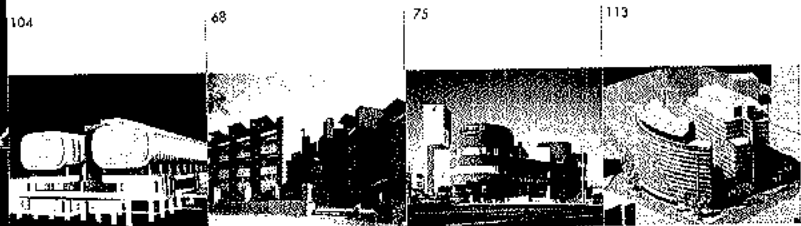
종별(지면)	구	격	금 액
표 지	2	국배판(220cm×300cm)	₩1,200,000
	3	"	₩1,000,000
	4	"	₩2,500,000
표 2대면		"	₩1,200,000
표 3대면		"	₩1,000,000
목차(국문)대면		"	₩1,200,000
목차(영문)대면		"	₩1,000,000
내지		"	₩ 700,000

※ 부가가치세 없음

차례 1997 03 335호



농인선원 종합사회복지관(황일인 작)



발행인 : 김영수
 편집기획 :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 방철린(위원장), 송호상(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 양원석, 정호상, 조한국, 윤태일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 1965년10월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인쇄인 :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 Kim Young-Soo
 Editor :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 Bang Chul-Lin, Seung Hchi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프로페셔널리즘에서 아마추어리즘으로	신기철	22
기획특집 ②	좌담/외국사와의 공동설계-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		25
작품리뷰 / 농인선원 종합사회복지관			
	작품-농인선원 종합사회복지관	황일인	36
	대담-자연과 도시 : 전통과 현대의 문맥으로	정만영	45
	비평-절충의 미학 : 우리에게 내재된 단편성	민선주	53
회원작품			
	성공회대학교 종합관	김석철	64
	분당 연립주택	故 장세양	68
	빌라트-오페라하우스	전병직	70
	인천철역원	안길원	72
	부천 YUSPO	여운택	74
	꽃마을 한방병원	문성운	78
	태경빌딩	김명준	80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④-김중업(1)	조인철	82
작품노트	미완의 빈 공간	조인숙	88
건축마당			
	협회소식		91
	건축계소식		93
	현상설계		99
	계획작품		115
	해외잡지동향		12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29
	신입회원		133
	게시판		137

Column

From Professionalism Toward Amateurism	Shin Ki-Cheol	22
--	---------------	----

Special Issue ㉒ / Discussion Meeting

The Sta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rchitectural Design		25
---	--	----

Review / Zen Buddhist's Social Welfare Center

Works - Zen Buddhist's Social Welfare Center	Hwang Il-In	36
Interview - Into the Context of Nature & City, Tradition & Today	Cheong Man-Young	45
Critique - Art of Compromise : Our Inherent Fragmentation	Min Sohn-Joo	53

Works

Sungkonghoe University General Hall	Kim Seok-Chul	64
Row House, Pundang	Chang Sea-Young	68
Villart-Opera House	Core Architets	70
Blood Bank at Incheon	Ahn Gil-Won	72
Pucheon YUSPO	Yeo Un-Taek	74
Kkotmaul Herb Medical Center	Moon Sung-Un	78
Taikyung Building	Kim Myeong-Joon	80

Serial

Korean Architect ㉑ - Kim Chung-Up	Zho In-Choul	82
-----------------------------------	--------------	----

Work Note

Unfinished	Cho In-Souk	88
------------	-------------	----

News & Information

KIRA News	91
News Wide	93
Competition	99
Process Works	115
Journal Trend	123
Statistics	129
Entrant	133
Conversation	137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
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004-7168 · 관악구건
축사회/(89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
회/(862-2275 · 노원구건축사회/(933-9076 · 동대문구건축사회
/(923-6213 · 등각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
/(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
/(552-8468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
/(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52-2892 · 영등포구건축사회
/(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
/(383-1480 · 종로구건축사회/(735-0305 · 중구건축사회/(231-
5749 · 중랑구건축사회/(437-7366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5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95-2813~7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
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
/(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3445 · 수원
지역건축사회/(0331)41-79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
4121 · 안산건축사회/(0345)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
/(0343)49-29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876-3458 · 이
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
/(0333)657-6149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
/(0394)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영월지역
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
7200 · 철원지역건축사회/(52-3307 ·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02 · 제천지역건축사회
/(0443)43-6253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1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
/(042)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
지역건축사회/(0455)64-8500 · 천안지역건축사회
/(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6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515 · 남원지역건축사회
/(0671)33-2000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8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5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
/(068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3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1)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
/(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문경지역건축사회
/(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5865 · 안동
지역건축사회/(0571)57-748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
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38)34-8258 · 칠곡지역건축사회
/(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8029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가령지역건축사회
/(066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892 · 밀양
지역건축사회/(0527)355-4348 · 삼천포지역건축사회
/(0593)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울산
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
/(0591)745-8403 · 창원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프로페셔널리즘에서 아마추어리즘으로

From Professionalism Toward Amateurism :

A Hope for Tomorrow's KIRA

건축사협회의 내일에 거는 기대

신기철 /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by Shin Ki-Cheol

에피소드

필자는 대학연구실에 육년 걸쳐 얻은 박사학위증은 걸어 놓고 있지 않아도 건축사 면허증은 걸어 놓고 있다. 명함에도 으레 건축사임을 밝힌다. 비록 실무를 떠나 있어도 건축사임을 자랑스레 여기는 한편, 언젠가 다시 실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자기확인의 한 방식이다. 아직 약관이라서 불러주는 데도 별로 없지만 가끔 부름을 받는다 해도 무슨 위원회나 하는 곳들에 필자는 되도록 끼지 않으려 한다. 그래도 지난 몇해 동안 건축사설계시험위원으로 불려온 일은 한번도 마다한 바 없다. 새롭고 유능한 건축사를 정성스레 가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뜻있는 일이라 보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 주변의 건축단체들 가운데 이 건축사들이 모인 건축사협회(그저 '협회'로 부르기로 함) 아마로 가장 큰 책임과 가능성을 지닌 전문가 집단으로 여긴다. 이는 건축사 잡지에 글을 올리노라 입치레로 하는 말은 아니다. 여러해전 고(故) 김희준 교수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과 함께 건축계의 관·산·학계(官·産·學界)를 묶는 연구집단을 설립하자는 준비모임을 가진 적이 있다. 이른바 '도시건축평의회' 설립준비모임이 그것이다." 그 때도 필자는 이 모임을 꾀는 측은 협회여야 함을 주장했고 많은 이들이 이에 공감하여 여러 차례 그 준비 모임을 협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렇게 협회에 관심을 가져 왔건만 필자에게 협회는 아직껏 암상자(black box)에 가린 듯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 혼한 건축사 잡지조차 보내 주지 않기에 협회 실정에 어둠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경로로 잡지를 보내 달라고 청탁을 하면 한 두어 달 오다가 끊어진다. 두어 해전 건교부 건축사시험위원회에서 협회장을 만나 불평을 했더니 어째 그런 일이 있는가라며 꼭 선처(?)해 주실 것으로 약속하셨으나 이 때는 한권도 오지 않았다. 눈앞에 놓인 설계현실의 동향과 문제를 아는 일은 설계실무에서뿐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협회잡지 하나 받아볼 수 없다는건 억울하다. 대한민국 대학에서 설계를 가르치는 교수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교수 건축사는 더욱더 몇 안된다. 협회는 이 몇 안되는 설계교수들을 제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다니 답답하다. 이런 사소한 억울함과 답답함을 갖는 아들이 때로는 협회와는 아예 인연을 끊겠다는 결심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협회가 꼭 필요할 때 반(反) 여론의 기수가 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원고 청탁을 가까이 받아 이글을 쓴다.

프로페셔널리즘과 아마추어리즘 : 부어스틴(Daniel Boorstin)의 아마추어 예찬론

협회는 전문가 집단이다. 그런데 왜 여기에 때론 답답하고 때론 억울한 심사를 갖는 이들이 생겨나는가? 전문가 집단은 그 속성이 '달한' 집단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잠깐 미국의 역사가 부어스틴의 '아마추어 예찬론'을 빌어 이 전문가 집단의 '달한 속성'을 들여다 보기로 한다.²⁾ 부어스틴에 따르면 "아마추어(amateur)의 어원이 라틴어 amator(lover)임을 지적하면서, 아마추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을 하며, 전문적 권위나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내린다."³⁾

이에 반해 '전문직업인'(professional)들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한다. 즉, "법은 법률가들을 위해 존재하며, 대학은 대학교수들을 위해 존재하며, 언론은 언론인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건축의 전문가들은 사전을 찍기에 좋은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 그들끼리 칭찬하며 흐뭇해 하지만, 그런 건축물엔 쓰레기를 버릴 곳도 없고 자전거 하나 세워둘 공간도 없다는 것이다."⁴⁾ 이 전문직업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집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향을 부어스틴은 "전문직업적 오류"라 부른다.

한편 '관료'(bureaucrat)의 어원은 'bureau,' 즉 18세기 프랑스 왕실 책상을 덮는 고급 천에서 왔는데 바로 이런 고급 천이 덮힌 책상에서 일하는 이를 관료라 불러 왔다 한다. 위의 '전문직업적 오류'에 대해서 "새로운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란 명제 아래 "극도의 조심, 절차의 정규성에 대한 집착, 결단의 회피"를 일삼는 관료주의 행태를 부어스틴은 "관료제적 오류"라 부른다.⁵⁾

부어스틴은 이 두 오류체계가 좁게는 아마추어 정신을 질식시키고 있고 넓게는 모든 사회병리 현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귀족주의 사회는 통치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통치했고, 전체주의 사회는 통치 전문직업인이 통치한 반면, 민주주의 사회는 일시적으로 나섰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아마추어가 통치하는 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시적으로 나섰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 아마추어의 세계란 바로 위의 두 오류가 겹친 '열린' 집단, '열린' 세계이다.

'달한' 도시, '달한' 집단

우리 대도시와 건축은 먼 산, 먼 발치에서 내려다 볼 때 가장 그럴싸하다. 자못 웅장해서 선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성 싶다. 우리 도시는 조감도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조감의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지면, 다시 말해 하늘에서 배치도로 보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맨땅과 녹지, 길과 집, 무채색과 유채색, 직선과 사선, 다시 말해서 도시의 부분과 전체를 엮는 질서가 갈갈이 찢긴 듯 한쪽 낙서가 되고 만다. 반대로 그 각도가 예각에 가까워지면, 다시 말해 땅위에서 눈높이로 보게 되면 어떠한가. 내집과 네집, 땅과 길, 사람과 차, 집터와 장사터, 그리고 입면과 간판, 보도블럭과 연석들—이 모든 것들이 서로 투정하듯, 토라진 듯 울퉁불퉁 도대체 어우러짐이러곤 찾아 볼 수가 없는 형국 일 때가 많다. 조감도로 볼 때 동경과 서울은 엇비슷하다. 그러나 눈높이로 볼 때 매우 다르다. 이 '다름'의 본질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는 도시의 '이것'과 '저것' 사이가 '나뉘' 즉 구획도시(區劃都市)의 현상에서 온다고 필자는 줄곧 주장해 왔다.⁶⁾ 이 구획도시의 현상이란 '이것'과 '저것' 사이를 없애는, 즉 '달한' 공간을 만드는 현상이다. 이 '사이'(間)없음의 현상은 넓게는 '건축'과 '도시', '건축'과 '사회문화' 사이, 좁게는 '내땅/네땅'과 '내집/네집' 사이 문을 걸어닫는 방식들로 나타난다. 위의 두 오류체계, 다시 말해서 전문가와 관료를 '달한' 집단 속에 가두는 일도 집단과 대중사이를 나누는 일에서 생겨난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나뉘현상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생존본능에서 비롯한다. 나뉘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이익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내땅은 한들 남에게 내주어선 안된다. 그래야 내사람, 내차만이 내땅을 쓸 수 있기에. 이래서 차츰 건축은 그 주변으로부터, 도시로부터, 그리고 그 사회문화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1) 저자의 '도시건축연구원'

2) Daniel Boorstin, The Discoverers: A History of Man's Search to Know His World and Himself (New York: Random House, 1983)을 강준만 '이미지'의 사랑에 빠진 현대인', 인물과 사상(서울: 도서출판 개마고원, 1997), pp. 267~286에서 소개하고 있음.

3) 강준만, 위의 책, p. 273에서 인용.

4) 위의 책, p. 273.

5) 위의 책, p. 274.

6) 이 주제를 담는 글은 '해체와 재구성: 도시건축운동을 향한 전향', 건축과 환경 No. 73(1990, 9): 108~110 / '도시/건축'에서 '도시건축'으로 - '건축과 도시의 만남' 기획전이 남긴 메시지, 건축가 No. 161(1995, 12): 69~71 / '자유주의가 현대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비판적 해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0:6(1995, 12): 277~291 등이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 건축계는 숨가쁘게 커왔다. 여기엔 협회를 비롯한 건축단체들의 힘이 컸다. 그런데 이들 단체들에 대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한 목소리를 내는 일을 보게 된다 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들 단체들이 아직도 서로 사이에, 그리고 도시사회와 대중문화 사이에 놓인 문을 활짝 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전문직업적 오류'와 '관료제적 오류'가 널리 통용되는 '달한' 집단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두 오류를 깨는 일보다 두 오류사이에 유착함으로써 '내' 집단의 이익을 꾀하는데 민감한 때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로 한참 사회가 떠들썩할 때, 건축법상 도시설계제도를 대신하여 도시계획법속에 '상세계획 제도'를 들여 놓으려 할 때, 또 정도 600년을 기린다고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서울의 도시와 건축을 되새기고 그려 나가려 할 때, 그리하여 건축 집단과 집단이, 건축과 도시가, 그리고 건축과 대중이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들에서 우리 전문가 집단, 특히 협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필자는 기억에 없다.

내일의 협회—프로페셔널리즘에서 아마추어리즘으로

필자는 여러 건축단체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 분야가 커가는데 협회가 가장 큰 일을 맡아낼 수 있고 또 맡아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보다도 큰 집과 돈, 그리고 많은 사람과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열린 집단일 수만 있다면 내일의 협회는 가장 큰 가능성을 지닌 건축단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을 열 것인가.

첫째로, 건축단체 서로간에 놓인 문을 열어야 한다. 수없이 논란해온 과제지만 건축가와 건축사의 구분은 몹시 애색하고 작위적인 바 있다. 등록 건축사가 아니면 교수건축사는 협회원 가입은 물론 협회지를 받는 일조차 그 문이 활짝 열려있지 않다. 필자의 에피소드 경우처럼, 산(産)으로서 협회와 학(學)은 더욱 가깝게 만나야 한다. 이러자면 협회가 연구기능을 갖춘가 건축학계의 연구기능을 지원하든가 하자. 심의의 심사다 해서 아쉬울 때에만 이른바 로비차원에서 서로가 만나선 곤란하다.

둘째로, 건축과 도시사이에 놓인 문을 열어야 한다. 20세기 문턱에서 미국 대도시들에서 이른바 '도시미화운동' (City Beautiful Movement)의 연쇄바람이 불었던 때가 있었다. 여기에는 등록 건축사집단의 힘이 컸다. 다시 말해 건축전문가 집단이 건축과 도시, 건축과 나라정책, 그리하여 건축과 시민사회를 엮는 '열린' 마을가짐을 발휘함으로써 워싱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대도시의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 연쇄바람따라 모르긴해도 많은 건축가들이 도시개조 차원의 큰 프로젝트 기회들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잔 이익을 쫓는 '전문직업적 오류'를 꾀으로써 도리어 큰 이익을 얻었던 얘기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요소가 찾아 올 듯 싶다. 여러해 끌던 '도시개발법'이 드디어 빛을 볼 것이라 한다. '도시다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명제아래 이 법은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도시개발과 관련한 어지럽고 잡다한 관계법들을 통합할 것이라 한다. 이에 따라 상세계획으로써 토지이용, 건축물 배치, 용적률, 건물의 용도 등 도시의 기본적인 물리적 구조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라 한다. 이로써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쁘게는 건축이 도시로 편입하는 현상으로, 좋게는 건축과 도시가 만나는 현상으로 매듭지워질 것이다. 건축이 도시로 편입한다 함은 건축현상이 도시현상의 하위-하청구조로 전락함을 뜻한다. 건축과 도시가 만난다 함은 다음 세기에 엄청난 규모로 우리에게 다가올 정보도시, 환경도시, 복합도시 개발의 역사(役事)가 우리 손에 달려 있게 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사회 사이에 놓인 문을 열어야 한다. 이러자면 평소에 산과 학이 힘을 모아 관을 돕고, 그리하여 관이 우리 산과 학을 돕도록 해야 한다. 우선 짓고보자는 성과주의, 개발주의를 반성하면서 건축사가 도시문화시대의 주역이란 사회 통념을 쌓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중이 고마워하고 언론에 회자(膾炙)할 일들을 꾸미고 투자하자. 한편 최근에 건축은 새세대에게 가장 인기있는 전공 분야가 되었다. 이 가장 똑똑한 새내기들을 제대로 길러 이 도시문화시대의 주역으로 키워야할 의무는 일차적으로 대학에 있긴 하다. 그러나 이들을 키우는데 협회가 도운 일이 그간 별로 없는 듯하다. 건축공모전을 통해 협회와 대학이 만날 수는 있어도 대학 쪽에서 보면 너무 잦은 공모전의 기회들은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설계과정을 소홀히 하게끔 하는 공해로 비칠 때가 있다. 보다 본질에서 도출 길을 찾아 이들을 키운다면 이 새세대들이 어느 때엔가는 산의 일원이자 협회의 주역으로 자라나 협회가 그들을 키웠던 고마운 기억을 되새기며 다음 세기 우리의 산과 학과 관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열린 전문가 단체란 전문가 정신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아마추어 정신으로 무장한 단체이다. 내일의 협회는 이 아마추어 정신으로 무장한 단체로 거듭나기를 삼가 기대한다.

좌담 :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

The Sta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rchitecture Design

본지는 지난 1월호에서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기획특집을 마련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에 대한 건축계 내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한편 실제 공동설계의 사례들을 모아 자료와 함께 게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호에서는 1월호 특집에 이어 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건축계내 인사들을 초청해 지상좌담을 개최하였다. 국내 건축설계분야의 시장개방과 함께 큰 이슈로 떠오른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문제는 선진 한국건축의 미래를 위해 넘어야 할 또하나의 산으로써 향후 우리 건축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지는 이번 좌담을 통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 작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건축설계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건축계의 대응 방안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일 시 / 1997. 2. 11(화) 14:00~16:30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참석자 / 심영섭(사회, 호서대 교수, 본지 편찬위원)

김병현(종합건축사사무소 장)

김영섭(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안길원(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범재(단국대 교수)

정기용(기웅건축사사무소)

장응재(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심영섭 _____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함께 자리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지에서는 지난 1월에 특집으로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건축계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본 바 있습니다.

오늘 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내용을 간략히 짚어 보면 우선 국제화·개방화 추세의 발전 과정에서 외국사와의 공동설계가 점차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 있어 왜곡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즉, 방식 자체는 여러 가지 당위성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활용할 만한 것이나 최근의 경향이 프로젝트 수주를 목적으로한 상업적 측면만이 강조된 나머지 건축가의 윤리의식이나 건축의 본질에 대한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담에서는 외국사와의 공동설계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현실에서 드러난 부분에 초점을 두고 건축계가 자세를 가다듬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시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히 한분씩 말씀들을 해 주시고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합니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해오신 이범재 교수께서 실마리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범재 _____ 제가 보기에 국제 설계공동작업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시대에 따라 항상 존재해 왔다고 봅니다. 추상적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들면, 신라시대에 탑이라든지 사찰 등 여러 건축적 행위에 있어 인접한 백제의 기술자들이 함께 참여 했다가 신라가 그들로부터 상당한 노하우를 받아들인 것도 일종의 국제적 교류였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작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다고 봤을 때 무작정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마땅히 선진기술이나 문화적 환경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란 면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방의 시대에 있어 건축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세계적 네트워크가 이뤄지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통신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고 상호간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않고는 발전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와있기에 유독 건축에서만만이 네것, 내것하고 편협하게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여기에서 한가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쉽게 종속적이나 아니냐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현대 정보화사회, 첨단산업사회에 있어 전세계가 네트워크화되도 각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과연 독립적인 값어치를 지니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은 디자인이 좋든지, 독일제품은 튼튼하다든지 또는 미국제품은 원가 신뢰할 수 있든지 하는 독자적 역할 내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로 이태리에서 디자인한 것을 가지고 홍콩에서 제작하고 또 그것을 미국시장에 내다팔고 그 과정에서의 개런티는 미국의 모 브랜드를 붙인다든지 해서 각자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완벽한 가치를 지니고 전반적인 국제성을 띄게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국제설계공동작업에 있어 과연 우리 건축이 자신만이 갖는 독자적인 값어치나 역할을 제대로 찾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값어치가 없는 종속적인 관계란 것은 결과적으로 앞서의 네트워크속에 당당히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다른 것을 차용해서 판매하는 시장화가 되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예로 각종 현상설계에서 보더라도,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네트워크속에 들어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화돼 완제품으로 갖춰져 있는 것을 사다가 포장만 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내는 형식, 다시말해 외국사의 체인점과 같은, 외국 건축사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국제설계공동작업은 큰 의미로 봤을 때 분명 좋은 것이지만 제가 언급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우리에게 심각성을 더해 준다고 봅니다.

김병현 _____ 제 경우 얼마전에 국제공동설계라기 보다는 오늘의 국내외사무소간의 협력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에 관하여 기고할 기회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면 국제공동설계가 필요하냐 아니냐, 옳은가 아니냐 등을 논의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국건축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면 그 결과로 우수한 건축을 이땅에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꼭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태도와 협력과정에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는 외국건축가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우리가 가진 어려운 과제들에 대한 해답이 저명한 외국건축가들로부터 쉽게 나오리라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우수한 건축의 배경에는 참가자 전원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노력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안길원 _____ 1월호에 게재된 여러 건축인들의 글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느꼈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 경우도 지난 93년도에 처음 외국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일을 했고 95년부터는 고숙전철역사를 외국사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93년에 했던 프로젝트는 아직 옴니맥트라는 특수한 시설이 국내에 없었으니까 아이스링크가 복합된 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런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외국사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일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또 여러 가지 의식이 틀려 술한 오류를 범하기도 했고 그로인해 많은 인력적 낭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접근방법을 달리해 앞으로의 시장개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95년부터 고숙전철역사 설계를 외국사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지금 역시도 언어와 문화, 의식구조의 차이 때문에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개방과 더불어 국내에 전보다 많은 외국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었고 공공건축이나 민간건축 가릴 것 없이 거의 시장화 되어버린 현실을 보면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시장의 냉엄한 현실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시대의 흐름에서 볼 때 어떻게보면 당연한 것이며 우리가 겪어야만 할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종속적 관계나, 결국은 디자인을 사오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런 아픔속에서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우리 건축물들이 근래 몇 년동안에 기능이 더욱 복잡해지고 또 매스가 커지고 볼륨이 다양해지면서 외국 건축가들이 국내에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과연 국내에 이를 지탱할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냉철하게 되짚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약간의 경험이라도 있다싶으면 서로 데려가려는 스카웃 경쟁이 심화되고 그로인해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파트의 능력있는 아들이 늘상 부족한 상황속에서 또 일찍 퇴직하는 조류현상까지 벌어져 기술이 제대로 축적되기도 전에 일을 놓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건축주들조차 국내 건축가들을 올바르게 평가해 주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 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개방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한 번은 필히 겪어야할 과정이라고 보며, 현실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긍정적인 측면을 잘 판단해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응재 이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로 제 경우는 무역센터프로젝트를 외국팀과 하면서 공동설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후에도 외국사와 공동으로 몇 개의 프로젝트를 했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건축

주 사이트에 있는 건축전문인들로부터 외국팀 초빙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주로 외국팀을 초빙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며 보다 아이디어한 계약방법은 어떤 것이냐는 식의 질문들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 역시 그런 종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못받는 국내건축가로서의 한정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설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몇분이 말씀하셨듯이 외국 설계팀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같은 질문을 지금 시점에서 받게된다면, 물론 건축주측의 문제가 첫 번째로 거론되겠지만 무엇보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좋은 건축가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건축가의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는, 지난 1월호 특집에서 김병현선생께서 초빙건축가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만 외국유능한 건축가를 초빙해서 국내에도 좋은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협력관계라면 배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기용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문제 또

는 설계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



고 오늘날도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유사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서 항상 이렇게 수세적인 입장에서 아만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논의에 앞서 이런 현상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의 핵심을

여러 건축활동 중 자유시장 원리에 근거하는 설계시장의 문제와 또 하나는 건축을 하나의 문화의 문제로 파악하는 입장입니다. 외국사와의 공동설계라는 것이 대체로 진행되어온 상황을 보면 바로 시장논리에 의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입장이 어떻게 하면 한국의 건축문화를 살찌울 수 있느냐 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사들이 진출하면서 스펙타클한 프리젠테이션으로 건축주들의 입을 벌여지게 하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국건축가들에 대한 불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 또 그들이 우리 설계시장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우리들의 치부까지 알고 접근한다는 사실들,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설계'라는 서비스업을 놓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전쟁에 휘말리기 전에 과연 우리들의 진정한 건축문화의 기틀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진짜 문제는 우리들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시장의 논리를 문화의 논리로 바꾸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_____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

셔서 제 얘기는 하나도 새로울게 없을 듯 싶습니다. 다만 정기용 소장님과 다소 시각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 '수류의 법칙'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 흐름을 두가지로 대별해 보면 하나는 '시장논리'로, 또 하나는 '문화논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경제논리에서부터 재고해 볼 때 제 개인적으로 과거 삼성그룹 기획설계실이란 곳에서 근무하면서 고 이병철회장이 70년대말부터 일본의 다이세이칸나 다케나카 고무텐, 미국의 벡트 인터네셔널 등과 같은 외국사와 함께 일을 하는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고경영자가 과연 어떤 의식을 갖고 프로젝트를 발주하는가를 살펴봤더니 크게 두가지가 있더군요. 그중 첫째는, 국내설계사무소의 디자인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근무하던 삼성그룹 기획설계실은 다스 트리뷰터 역할을 했습니다. 이회장은 한 때 이 그룹기획설계실을 운영하면서 국내 정상수준의 여러 설계사무소에 프로젝트를 의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고의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결과물이란 것이 최고경영자의 요구와 눈높이에 못미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호텔신라라든지 또 이 회장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 인포메이션 중심체로서 구상했던 중앙매스컴센터를 설계하는데 있어 국내에 대형프로젝트를 다뤄본 경험있는 설계사무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외국사무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자기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Regionalist적인 건축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웅인 종합연수원이나 호암미술관을 건립했는데 그 결과물을 보고 이회장이 느끼기에는 국내건축가들에게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라고 하면 바로 가와지붕을 얹어버리고 마는 수준밖에는 안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호암미술관 보다는 대성건설이 설계한 호텔신라가 훨씬 메타포가 있고 한국적인 공간으로 키워냈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축주라고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들의 생각이란 것이 강요된 오리엔탈리즘이어서 한시대 내지 두시대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러한 생각을 떨쳐내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기에 서구문화 내지는 국동아시아 지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일본문화에 대한 향수와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통하여 투자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축사무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저녁식사를 위해 장을 대신보아달라는



부탁처럼 같은 돈이면 모양 좋고 맛도 있는 음식이 준비되길 바라는 것과 같이 건축주는 설계행위를 통해 최대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기용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우리 건축계가 소홀히 했었던 것이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방장 즉, 건축주의 입맛에 맞을만한 건축가를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건축인들 스스로의 책임이기도 한데, 예로 일본처럼 어느정도 능력이 있고 천재성이 엿보이면 기업체가 협력을 해서 국제적인 디자이너로 양성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서로가 견제하고 밀로 끌어당기려는 자세로만 일관해 왔기 때문에 기업회장단이란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할만한 건축가가 김수근 이후에 누가 있느냐는 식의 물음을 던지곤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자인이 어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 디자인을 발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착시키는 엔지니어링 체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형설계 사무소라 하더라도 인원만 많을뿐이지 과연 그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프리젠테이션 능력까지도 아직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가내수공업 형태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을 정착하는 수단으로 본다면 Construction은 이를 구현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부실공사나 뭐니 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저차원의 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도가 되다보니까 외국의 감리단을 불러들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류의 법칙'이라 봅니다. 이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물밑에서 흘러다니다가 개방화 이후에 수면위에 떠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정도 큰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건축을 경제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디자인비가 총투자비용에 비해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전체 건축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디자인에 달려 있다라고 봤을 때 전체를 살리는 쪽으로 가겠다는 분명한 경제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외국사와의 공동설계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의 배경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면 우리 건축가들에게조차도 '강요된 일반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일제식민시대를 거쳐 해방을 맞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무에서 다시 시작할 때의 모더니즘에 대한 편중 즉, 서구의 것은 무조건 좋다는 식의 일반의식이 팽배했었고 그 외중에 우리의 부서진 전통과 서구 모더니즘시대에서 혼재된 파편들을 꿰맞춘 혼재된 디자인, 변형된 모더니즘 속에서 건축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하는 것이 가장 당면한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외국의 저명한 건축가들을 불러들이는 일보다는 국내의 우수한

건축가를 키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이것 역시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대형건축사사무소 역시 대형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엔지니어링 주체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제반법규나 제도, 여러 가지 관행 등 주변장치들을 고쳐서 정착시키는 일들이 하나의 개선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그들이 선진국이라고는 하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이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넥서스 월드라든지 알도 로시가 만든 일 팔라쵸와 같은 몇몇 외국수입 디자인을 가지고 개방화한 나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본건축이 외국의 것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준 것입니다. 이소자카나 안도타타오 같은 경우는 일본이 거국적으로 키워준 경우로 봐야 합니다. 최근 마리오 벨리니라든지 알도 로시가 일본 동경에 사무실을 냈다가 철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과거의 경우를 예로 들더라도 한창 외제과자에 대한 향수 때문에 탐닉을 했던 때가 있었지만 곧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 제과업체도 이에 대해 계속 연구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제일 많이 팔리는 수입과자 가운데 하나가 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설계작업에 있어서, 투시도나 프리젠테이션까지도 외국에서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따느냐 못따느냐 하는 시장논리로만 보아서는 영원한 종속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물의 흐름, 즉 '시장논리'와 '문화논리'로 보아 시장논리에는 따라가더라도 한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논리를 성실히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는 바뀌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도 국내 건축저널에 제 작품이 소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독일이나 호주쪽에서 매년 몇작품씩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경영자들이 국내 잡지에 소개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하고 우리 사무소를 소개했을 때보다도 외국 잡지에 실린 내용을 보내줬을 때 상당히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 우리 건축주나 우리들 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탈식민지시대에 우리들의 의식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심영섭 _____ 외국사와의 공동설계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들어 봤습니다. 작금의 여러 상황은 그동안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지내오던 국내 건축계가 시장이 개방

되고 외국사가 들어오면서 공동설계에 대한 경험과 자원,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는 우리 건축문화의 정체성 변질까지도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자유스럽게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중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서로 받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응재 _____ 앞서 정기용소장과 김영섭소장께서 외국사가 국내에 들어오는 문제와 그와 별도로 국내의 건축에 대한 문화적 측면이라든지 우리 것에 대한 정립에 대해 두가지를 결부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 이 중 우리 것에 대한 건축계 내부적인 문제는 또하나의 큰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외국건축가가 국내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아까 '수류의 법칙'이라는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 보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물론 건축가의 잘못도 있겠으나 건축주가 갖고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건축가를 초빙하는데 있어 어떻게 초빙하도록 유도를 해야하는지, 이 때 건축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초빙한 후 외국건축가와 국내건축가가 어떤 협력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저 배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논리는 결코 현실적일 수 없습니다.

정기용 _____ 외국의 건축가가 들어오고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다만 좋은 건축, 한국건축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해야 할 일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장응재 _____ 무역센터현상설계에서는 니켈 세케이가 당선을 하고 원도시와 정람이 가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세 회사가 설계단계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작업을 하게 됐지만 건축주측의 의지로 봐서는 처음부터 외국 회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이 국내에선 생소한 것이었고 있다해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니켈세케이가 도시적인 차원에서 테헤란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접근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임으로써 남덕우 회장조차 '이건 대학원생하고 중학생간의 싸움이다'라고 까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보기도 전에 동원된 참단의



Tool을 보고 게임이 안된다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서글픈 감정을 느끼기도 했지만 소위 건축주 사이드에 있는 돈을 전 사람들이 보는 시각속에는 없지않아 사대주의적인 근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것보다는 저 쪽이 낫다,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잘한다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포장을 한다거나 전시하는 것 이전에 건축주들이 내용적인 알맹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경험을 다른 몇몇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모형을 만드는 것도 국내에서는 하드보드위에다 드로잉한 것을 가지고 약간의 효과를 내는 스튜디오모델 정도인데 외국것은 기계적인 작업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 도시적인 차원에서 주변 볼륨들을 나열해서 여러 가지 알터너티브를 끼워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해 건축주가 느끼기에도 '역시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Tool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가들이 따라잡아야 한다고 보며 건축주들이 갖고 있는 관념에 대해서도 어떤 노력을 경주해서라도 바뀌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섭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저희 사무실에도 가끔 외국대학 졸업생들이 찾아옵니다. 그 학생들이 들고오는 포트폴리오 중에는 전문가를 뽑치는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선택을 해야하는 제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만 보서는 외국대학 졸업생의 것에만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쟁력인 셈이죠. 프리젠테이션에 있어서만 큼은 경쟁력을 갖추고 만약 그것이 단계적으로 안됐을 경우엔 해외에서라도 프리젠테이션 전문 용역회사를 찾아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규모 회사들과의 경쟁에 있어 작은 설계사무소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프리젠테이션에서 만큼은 뒤지지 않아야 하며 거기에 투자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포장이 잘돼 있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조차 좋게 보이듯이 건축에 있어서도 프리젠테이션이 완벽하므로써 그 속의 엔지니어링이나 모든 기능해석이 완벽해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돈을 내고도 좋은 제품을 갖고 싶어하는 구매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시장논리인 것입니다. 무조건 국산품만을 써야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동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라기보다는 공동설계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나아가 국내에서 외국설계사무소와의 경쟁력을 갖추고 또 어떻게 해외로 진출하느냐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까지도 폭넓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길원 오늘 좌담의 주제를 크게 두가

지로 본다면 '공동설계의 바람직한 방향' 과 '건축계의 대응방



안'이라고 봅니다.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만 현재 외국의 건축가가 국내에 들어와 많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국내 건축가들이 겪는 현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일을 Concept Design 정도로 끝냈기 때문에 준공

할때까지 Review를 하고 Follow up하는 과정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실을 깊이있게 보지못한채 "한국에 가니 대우도 좋고 모든 것이 좋더라"라는 식의 피상적인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일을 맡은 죄로 중간에 여러차례 설계가 변경되어도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끝까지 끌려가며 무상으로 일을 해야하는 그런 실정에서 복잡 다양한 Design을 처음서부터 준공때까지 해보지도 않은 외국 건축가들이 과연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게된다면 한국시장이 결코 쉽게 진출할 곳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리라 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가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링쪽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내 건축주들이 외국사가 분업화된 체계를 갖추고 완벽한 자료를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 모습을 보게되면 우리 건축가들을 상대적으로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외국사와 공동설계를 하는데 있어 문화적인, 외식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직원을 미국이나 유럽쪽에 보내 공부시킨 후 국내에서 외국팀과의 프로젝트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한 만큼 외국팀을 우리쪽에 흡수시켜 우리의 Leading에 따라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앞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공동설계도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덧붙여 시장개방의 흐름속에서 이제는 우리 건축가들도 우리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찾고 국내 Client에 대해서도 '왜 외국사를 찾는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건축가들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함께 연구 개발해 단계적으로 하나씩 쌓아나간다면 우리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제대로 소화해 중심을 가지고 해야할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심영섭 공동설계시 협력범위나 역할

분담 같은 설계과정상의 운영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 건전한 협력관계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병현 선생께서 여러 국내·외적 경험을 갖고 계신 줄로 아는데 외국에 계실 때 시각과 국내에서 작업하시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현 _____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국 사무실은 미국 사무실인데 그중에서도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사무실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교적 다방면의 능력을 고루 갖춘 대형 사무실이 많고 건축이라는 제품과 이의 제작과 전달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특유의 사업환경과 합리주의가 낳은 건축가의 업무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의 창작과 제작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성취하자면 우수한 서비스를 통하여야만 가능하므로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무실이 자연스럽게 성공한 것입니다. 신속한 제작과정과 제품위주의 우리의 경직된 업무 태도와는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합니다. 먼저 왜 이런 사무소를 우리 건축주들이 찾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자신을 개선해야 할 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축 제작 태도와 업무행태를 오늘의 것으로 만든 것에는 우리의 건설 산업과 건축주의 요구에 끌려만 온 건축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큼데 우리의 현실은 사회의 문제는 그대로 둔채 건축계의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건축계가 사회의 고질병적인 요구에 더 이상 수동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과 가치관에서 출발하였건 잘못된 관행에 무분별하게 휩쓸렸던, 우리 주변의 건축주 그것도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업주들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을 해외에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외국건축가 선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그 사업과 사업자가 가진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가장 적절한 건축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건축가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도시와 자연에 어떤 건축을 남길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을 해야하는 일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에 공론화 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협력상대로서 모든 설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외국 건축가가 그 분담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일단 참여시켰으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범재 _____ 얼마전에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는데 그분 얘기중에 최근 ○○○과 조인해 모 현상설계를 한적이 있는데 그때 ○○○이 말하길 앞으로 한국에 훌륭한 건축가가 많이 나올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은 환경이 좋다. 즉, 찬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분한테 진짜 훌륭한 건축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

더니 우리가 오리지날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 즉,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대에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다음세대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하시더군요.



건축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자세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 그분의 얘기이고 보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막연히 국산품을 애용해 달라고 주문

하기 보다는 진정한 건축의 본질을 찾기 위한 스티디를 할 수 있는 그룹이 먼저 생겨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 오피스도 필요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서로 견제하거나 본질적인 문제를 서로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룹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에 오염돼 버린 우리세대에 단기간내에 그런 그룹이 형성되기는 힘들다고 보며 앞서 하였던 말씀처럼 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이들을 포함해 인재들을 계속해 양성해 나가다보면 훗날에는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건축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건축주들의 판단하는 능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어느정도의 재투자와 노력만 기울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라고 낙관합니다.

외국팀과 일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건축의 본질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체의 노력외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즉, 나름대로 재투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본인의 장점을 살려나기면서 외국의 장점은 신속하게 판단해 취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외국사와의 공동설계가 단시간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을 기다리기 보다는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할지라도 그런 그룹이 형성이 되고 상호간에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비록 오프더 레코드로 흘러나오기는 하지만 실패한 경험까지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영섭 _____ 오늘의 좌담은 외국사와 함께 작업하는 일부 사무실들의 문제로 국한되거나 건축주와 일반 대중의 이해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건축계 전반의 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건축사로서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과도기적 혼란의 시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여러 상황들은 실질적으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까지 건축적 가치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기용 김병현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좋아하고 그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 따로놓고 서비스 따로놓고, 이 서비스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건축가라면 윤리적으로 제품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축계 내에 전반적으로 습관화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내지는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월호에 실린 김병현 선생의 글내용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져 공론화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국사와 공동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건축가들이 만든 작품이 우리 삶의 틀을 어떻게 바꿔 놓았으며 어떤 유행을 만들어 냈는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초기 개념상에 문제가 있는지, 도시환경에 적합한지를 직접 우리들이 평가해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전 불란서 정부가 한 여성 건축가를 한국에 보내서 한국시장을 면밀히 조사토록 한 후 보고서를 작성토록해 한국에 진출하는 다른 불란서 건축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창피하게도 이 보고서 내용중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사례와 손쉽게 심의를 통과하는 방법, 이과정에서의 한국건축가들의 행태 등에 대한 정보아닌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내부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 제도, 교육 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들을 마주하고 바람직한 협력 운운하면 우스운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문제가 건축의 본질까지도 거론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주들의 의식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돌이켜 생각하게끔 하고 젊은 건축학도들에게도 현실의 리얼리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김병현 언젠가 국내 건축사사무소에 식상하였다는 건축주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제법 규모있는 일을 부탁할 만한 사무소의 대표들을 만나 보면 건축가라기 보다 사업가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찾고 있는 사람은 건축전문인인데 알고보니 신뢰할 만한 전문인은 없고 젊은 직원들과 건축업의 경영인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들 모두가 훌륭한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의 건축업 행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할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건축의 외국종속화 현상 탈피도 경쟁력 제고도 건실한 중견 건축인의 두툼한 층이 우리 건축계에 형성되기 전에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의 젊은 세대가 제대로 성장하여 가능한 한 제발로 설 수 있는 중견 건축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김영섭 제 경우 작년부터 건축주교육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가톨릭 대학교 사제학교의 교회건축 강의를 맡고 있는데 제가 강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도 가톨릭교회라는 특수조직이긴 하지만 이 또한 한국건축의 중요한 Client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총 22시간의 강의가 끝난 후에 하나같이 질문하는 것이 “결국 좋은 건축가를 만나야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 같은데 아예 정답을 써 주시는게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이름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건축가를 추천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교회 건축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전문 건축가를 키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할만한 사람이 정말 몇분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는 서울교구의 교회건축 일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이러한 일들을 젊은 건축가들이 새롭게 말아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압구정동 앞의 부띠끄 숲이라든지 혜화동 패션스토아에서 일본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그쪽 젊은 건축가들을 찾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진부한 느낌을 탈피하지 못한 우리쪽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얻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다양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 건축디자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심도있게 재고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없어서 큰 회사에 고용되어 외국사와 협력사 창구담당을 한다거나 기획단계에서 Planning 정도만 하면서 시쳇말로 총집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런 정도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라도 실제 프로젝트를 맡겨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또 젊은 건축가들이 로비스트들의 전횡이라고까지 비약하고 있는 큰 설계경기에 미리 좌절해 버린 나머지 참여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건축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왜 외국사와 공동설계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과 방법론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우리 자체의 설계 경쟁력 향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즉, Case by Case로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선 사후평가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에선 한국시장을 '마케나의 황금' 정도로까지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년에 20만건이상의 설계건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수명이 짧아 우리 건축시장이 무한하다는 것을 외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나 외국사에게 있어 동등한 기회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만 한국건축의 정체성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엽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한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많은 직원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그중 하버드대학으로 간 직원한테 '년 왜 하버드를 선택했냐'고 물었더니 무엇보다 하버드가 지명도가 있고 예전에 라파엘 모네오란 저명한 건축가가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 하더군요. 결국 라파엘 모네오란 건축가를 보고 선택을 한거죠. 그리고 그후에 다른 직원이 간 것도 시리아나란 유명한 건축가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쯤 뒤에 내가 시리아나나 라파엘 모네오보다 더 유명해지면 년 다시 나한테 와서 공부하겠지?"라고 우스개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배우려는 학생이나 기업체의 총수들의 의식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즉, 한국에서 이만한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맡길만한 건축가가 있으면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사무실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엔지니어링 주체를 만들려고 하는 절실한 의지나 투자없이 자연히 시간이 가면 무엇인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몇몇 건축가들이 조금씩 투자해서 건축학교라도 하나 만들자고 할 때 대기업이나 대기업 설계사무소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국 건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투자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얘기지만 작년까지 원도시건축에서 서울건축학교에 상당한 지원과 투자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이야말로 나혼지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보다 나라 전체, 한국 건축디자인 전체를 발전시키는 자름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방법론상으로 공동설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하고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인 생각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외국대학의 초빙을 받고 외국에 진출해 일하는 건축가들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결국은 '수류의 법칙'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심영섭 시간관계상 이제 좌담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된 듯 합니다. 건축계의 자세나 앞으로의 개선행동 등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들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길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공동설계 내지는 협동설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 40~50대 세대들이 외국에 비해 교육을 받았던 환경이나 접근방법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김병현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비스부문에 대한 개념이 선진 외국팀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에 뿌리박혀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보다 디자인쪽의 영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에게나 유교사상이라고 하는 깊은 사상이 있고 협동을 하는 응집력은 그들보다 매우 뛰어나다고 봅니다.

이법재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네 학교에서도 이제는 교육하는 방법이 저희 세대 때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교육의 혁신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무한한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한예로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군사학교에서 외국인들을 교육시킬 때 한국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미국인과 똑같이 주었지만 그외 나라 사람들은 이보다 몇배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동양에서의 한국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뇌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40~50대가 되었을 때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전에 김영섭 소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도 장기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투자를 해야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가 앉고 있는 시장개방의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중 세대들을 위해 경쟁력이 생겨나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건축사지가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우리 젊은 건축가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장웅재 이 자리에서 나온 비판적인 얘기와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기대같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인 '협력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협력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디얼 하냐'라는 측면에서의 논의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협력설계를 하든 국내 건축가가 하든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 애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탁월한 건축물이 우리나라에 세워지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폐쇄적인 측면에서 이를 바라보기 보다는 보다 유능한 외국의 건축가와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외국 건축가들 중에서도 유능하고 실력있는 건축가들은 역시 Local Condition과 같은 부분에 대해, 국내

건축가와와의 협력에 대해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국건축가를 만나야 합니다. 가까운 동남아쪽만 가더라도 상당히 수준높은 건축물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건축물이 세워지지 않는가라는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유능한 건축가를 초빙해도 그 건축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점이나 건축주측의 기획력 부족, 좋은 물건을 보고도 좋은 물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입니다만, 그런식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 아무리 해봐도 좋은 건축물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 견해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다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건축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현 _____ 그동안 국제공동설계가 남긴 건축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많았음은 우리 건축인 뿐만아니고 사회에도 알려야 하고 그 문제점도 충분히 논의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외국사와의 공동설계에서 좀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지나치게 안일한 사고와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외국건축가를 너무 쉽게 선정하고 외국건축가는 우리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국내사무소는 이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 신중한 검증과정없이 그대로 실시설계에 옮기는 것 등 일입니다. 이것이 이십세기말의 한국건축의 풍토처럼 보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보다 성숙한 안목을 가지고 뛰어나면서도 우리 일을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건축가를 선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내외건축가는 모든 과정에서 협력상대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대에게 철저한 요구와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김영섭 _____ 저는 외국건축가를 선정하는 일이 건축주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는 건축주와 연관된 국내건축가의 천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건축주가 외국건축가를 선정해서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대부분 건축주와 관계가 있는 국내건축가가 실제 선정과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건축가가 직접 해외에까지 나가 현지 건축설계사무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수주능력이나 서비스 측면, 심지어 매너까지 살펴본 후에 건축주에게 어드바이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에대한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지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협력하기 쉬운 업체를 선정하기 보다는, 누가 선정되었든지간에 국내에 세계적으로 주목할만한 결

과물이 탄생될 수 있도록 좋은 건축가를 초빙해야겠다는 의식을 갖추는게 중요합니다.

심영섭 _____ 특히, 설계경기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파트너를 국내건축사들이 선정하고 있지만 특정사무소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단발적인 프로젝트별로 협력대상을 바꾸는 경향이 지난호의 분석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도 없이 이합집산하는 현상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기용 _____ 또 어떤 경우에는 대기업 회장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한 예로 어느 분은 백화점으로 했다가 후에 사무실로 바꿀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여러 외국 설계사무소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구조·전기·설비를 최소화해 바꿀 수 있는 고무줄 같은 설계를 요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분은 건물이란 돈을 벌어들이는 그릇이고 한 번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경제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건물을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시간으로 보아 처음 10년 동안은 이런 용도로, 이후 5년동안은 저런 용도로, 또 거기에 드는 투자비용은 얼마고 이것을 설계할 사람은 누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예로 어떤 분이 마리오 보타를 정한 과정을 들어보면 세계 유명 건축잡지를 잔뜩 쌓아놓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건축가를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5가지 정도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사무소와 협력하고 있는 현황을 철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사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들이 관여했던 기존의 건축물들은 어떠한 지 두가지 시각에서 평가해 보는 일입니다. 하나는 건축가들의 시각에서, 또 하나는 건축주측의 담당자 시각에서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건축주측 담당자들이 한 건물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다 털어놓으면 거기에 모든 문제들이 다 축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얘기가 될지 모르나 이런 것들을 담아 백서를 만들어서 현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응재 선생의 말씀처럼 외국의 건축가가 좋은 건축물을 만들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관리제도, 모든 심의 관련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문제들을 도시계획가들에게 기대하기 보다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건축가들이 국내에 와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바로 건축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의 문제인데 이 도시문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이념 내지는 도시 관련 제도 등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 좋은 건물들이 빛을 못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관련 제도, 모든 심의관련 제도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차제에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실제로 좋은 건물을 만드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차장법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제도정비와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세번째로, 건축이 비단 건축인 뿐만이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인데도, 이 땅에 30~40년동안 수십, 수백만채의 건축물을 지어놓고도 '건설' 과 '건축' 을 제대로 구분조차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좋은 건축이 나오길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축의 해' 를 제정해 건축가들이 사회적 운동을 통해 이슈를 만들고 좋은 건축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번째로는 앞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수세에만 물리지 말고 우리도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젊은 건축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드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매년 10명내외의 우수한 젊은 건축가를 선정해 소규모일지언정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맡기므로써 실전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이땅에서 외국의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을때는, 비록 그들이 능력이 있고 우수하다 하더라도 「외국건축가 선정위원회」란 것을 만들어 진정으로 실력있는 외국건축가들만이 진출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소 생각이 불충분한면이 없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건축가들이 국내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을 위원회가 나서서 중재해 주기도 하고 국내 건축주에게는 보다 우수한 건축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장응재 _____ 외국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종도 국제공항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외국사와 일해보고자 연락을 취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 만나 보니 생각했던 수준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우리 예상액의 약 다섯배 정도나 되어서 결국은 다른 외국사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될 수 있으면 건축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외국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상당히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외국사들이 국내에 많이 진출하고 그로인해 그다지 우수하지도 못한 건축물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외국건축가의 국내진출의 제어요소가 점차 제거되어 본격적으로 외국건축가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외국건축가의 초빙에 주된 역할을 하는 건축주측의 초빙의도가 분명하고도 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영역으로서의 「서비스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으로서의 건축 디자인 능력이 탁월한 건축가를 선정하는 건축주측의 안목이 이제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면밀한 기획없이 막연한 기대로 선정하고 더욱 건축설계 내용에 대한 몰이해에 의해 비합리적인 요구를 추진하여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는 초빙은 배제되어야 하겠습니다. 협력설계의 근본적인 목표를 탁월한 건축의 성취에 있다고 본다면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적 능력을 구사하는 건축가가 초빙되어야 하고 국내의 여러 조건과,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상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가장 이상적인 설계환경을 마련하여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건축환경의 미래를 위해 유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영섭 _____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 좌담이 당장의 큰 성과나 전환점이 되길 기대했던 자리라기 보다는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국사와의 공동설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린 것이니 만큼 앞으로 이땅에 세워지는 모든 건축물들이 우리 건축문화의 진정한 한부분으로 자리매김되길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능인선원 종합사회복지관 Zen Buddhist's Social Welfare Center

황일인 / (주)일건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wang Il-In

이 불사의 의미는 첫째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 자비행에 있으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복지 곧 자비행을 통한 불국토 건설에 있고, 둘째는 대부분의 종교시설물들이 특정한 날에만 사용되는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항상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도량으로 만들고자하는 것이다. 세번째 의미는 산사의 불교, 은둔자의 종교로부터 다시 태어나 생활속의 불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로서의 불교의 의미를 정립하는 계기를 삼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통과 창작」이라는 오랜 숙제가 다시 이번 불사의 가장 큰 건축적 명제로 대두되었다. 구체적 어휘로 정리해본 설계의 개념은

① 시대성 : 현대적 표현, 공존과 다양성 ② 기법의 전통성 : 가단, 마당, 향, 공간의 위계, 공간의 정형성 ③ 한국적 표현 : 소박함, 은근함 ④ 자연과의 조화 : 빛(채광), 바람(통풍), 나무(조경), 색조, 건물의 크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이 건물은 산사의 참호지 운을 통하여 느껴지는 내외 공간의 유연한 연결, 한적함 같은 분위기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었다. 다만 산사가 정적속에 던져진 변화 요소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 복잡한 도시 가운데 만들어진 청정한 빈 공간이 되어 잠시나마 도시인의 마음을 가라 앉히고 자아와 마주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정된 부지의 조건과 건축 행정상의 제한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시설의 내용을 보면.

지상 3층 : 독서실, 숙소, 지상 2층 : 교양교실, 직업훈련교실, 상담실, 지상 1층 : 노인학교, 유치원, 탁아소, 의무실, 사무실, 지하 1층 : 사무실, 강사실, 소강당, 지하 2층 : 대강당, 다용도 소강당, 지하 3층 : 식당, 기념품점, 장례예식장, 지하 4층 : 주차장, 전기실, 지하 5층 : 주차장, 기계실로 구성돼 있다.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진입도로인 양재대로측은 도시와의 관계로 볼때 당연히 이 대지의 주방향이고, 그 반대편인 구룡산측 또한 남향이며 시각적인 개방이 요구되는 쪽이므로 역시 중요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대지는 남·북측 두 방향의 정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대지는 도로로부터 약 10m의 높이에 있으므로 도로에서부터 대지까지의 접근방법을 포함해서 높이 차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 산과 도로 사이에 놓여질 건물과 주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전통 건축에서 쓰여온 다단식 가단과 마당의 개념은 이 경우 매우 적절한 건축 수법이다. 경사가 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궁궐, 사찰 등 대형 건축물에서는 물론 개인 주택에 이르기까지 대지의 높이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첩된 기단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자연의 일부라는 관념은 건물을 주변 자연과 조화내지 일체화 하도록 만들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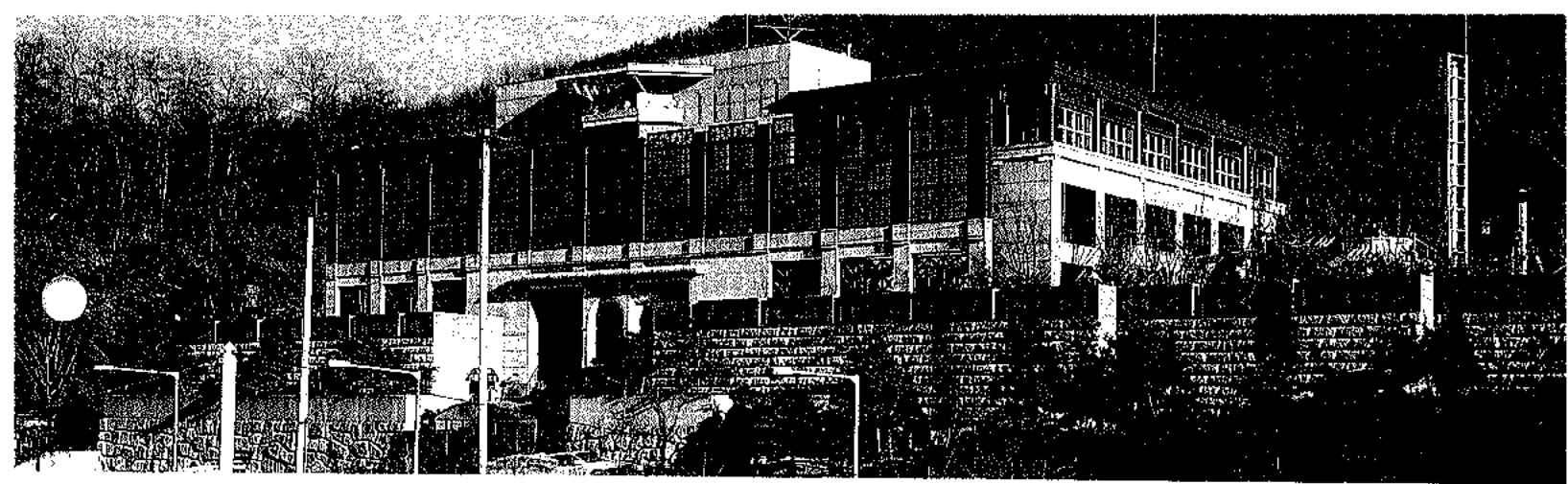
The direction from YangJae Grand Road which serves as the access path is, by relation with the city, the main axis of the site. The opposite side, facing Mt. GuRyong, is oriented to the south and requires visual openness, and is another important direction. Thus the site has two frontal aspects towards north and south. The height of the site is about 10m higher than the Grand Road, so the use of this difference in the design, including its method of approach,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ject and its surroundings were the first points of consideration in the planning.

In conclusion, the method of stepped bases and Madang i.e. the garden, those developed by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could be of great use in this situation. Since Korea is highly gradient, its architecture, from the palaces and the temples to the local housings, used the stepped garden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height differences within the site. And the idea that mankind is part of nature has influenced the architectural style that is in accordance and harmony with its surrounding nature. In this view, Madang serves as the medium space that connects the exterior and interior of a building.

The object of the Madang's design in this Welfare Center was to seek the effect of the BulKookSa Temple, where the Madang has an independent spatial meaning of its own. The Madang would form a connection between the building and Mt. GuRyong, and its use would be that of a semi interior space. The basic layout of the building was determined by this natural progression. The large spaces, for instance the large hall, become the steps, while the small spaces occupy the ground and form the walls that surround the Madang. The second purpose was to abstract the form of the building, so as not to display itself too conspicuously.

My belief was that the architecture which melts into its surrounding nature and contain pure void spaces should have geometric or cubic exterior form. It should also be reflective on the surface, so the changing sky and cloud and the mountains would be the expression of the face of the building. The purpose of this Welfare Center is, following the main lesson from Buddha which is benevolence, to put into practice the social welfar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and, through this activity, ultimately found the land of Buddha. Secondly, since most religious buildings are only used in certain occasions, to be of use ordinarily and provide a space for the discipline of body and soul.

And finally, to redefine the religion from the Buddhism of the hermit to the Buddhism of ordinary life. It will be the basic ground for enlighten the Buddhism of our day that meets the request of today's problems. With these aims, the old notion of 'tradition and creation' was again raised as the essential principle of this project. The concept can be epitomized in the following words: The presentation of time: modern expression, coexistence and variety. The traditionality of method: steps, Madang, orientation, hierarchy of spaces, typicality of spaces Korean expression: simplicity, discreteness Harmony with nature: light(natural lighting), wind(ventilation), woods(landscape), color, size



고, 마당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공간이 된다. 우리는 노인선원의 마당을 불국사의 경내와 같이 매우 독립된 영역을 가지는 건축적 공간으로 만들어 건축물과 구룡산을 연결하면서 반쯤은 옥내처럼 쓰이도록 하고자 했으므로 건물의 배치 방법은 자연스럽게 결정되었다. 따라서 대강당 등 큰 공간은 기단이 되고 작은 공간들만 지상에 두어 마당의 벽을 만들며 건축물로서 표현된다.

둘째로 건축물이 가능하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그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주변의 자연에 녹아들어버린, 단지 아주 담백한 빈 자리들만을 내부에 갖고 있는 그런 건축이기 위해서 외피는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격자의 반사체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항상 변하는 하늘과 구름과 주변의 산으로 표정을 만들게 될 것이다.

세번째는 빛의 처리와 도시 소음의 차단 문제이다. 건물의 성격상 이 두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자연의 빛을 최대한 지하로 끌어 들이는 것은 물론 인공조명들도 자연의 빛으로 느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양재대로 측으로부터의 도시소음은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배치형태에 의해 차단되도록 하되 별도로 유리로 된 차음벽을 설치하였다. 북측 도로변에서 볼때 건물의 파사드를 만드는 주요소가 되기도 하는 이 차음벽은 전통건축의 기둥과 창살을 추상화 한 것으로 아칸에는 전체가 커다란 조명판이 되어 불이 켜진 대웅전의 창살처럼 느끼도록 하고 있다.

다음, 건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나 색채는 가능한 단순화시켜 말씀을 통하여 부처님을 직접 느끼고 자아를 깨닫는데 건축물이 방해되지 않도록 빈 공간을 만든다는 일관된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주요한 공간들이 외부와 직접 연결되도록하여 다양한 기능들의 개별적 동시사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건축계획상 중요한 고려점이 되고 있다.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제2종미관지구
대지면적	3,017㎡
건축면적	570.18㎡
연 면 적	11,729.79㎡
건 폐 율	18.89%
용 적 륜	51.99%
규 모	지상 3층, 지하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 THK3 알루미늄 쉬트 위 세라믹도장 THK24 저반사 유리
내부마감	천정 : 알루미늄 패널, DI-NOC Film, 홍송 벽 : 화강석, 수성페인트, 홍송 바닥 : 화강석, Tile, 마루, 데코타일
주요설비	A.H.U 및 F.C.U
설계담당	김인수, 오을석, 이홍식
건 축 주	사회복지법인 노인선원
시 공 자	(주)우성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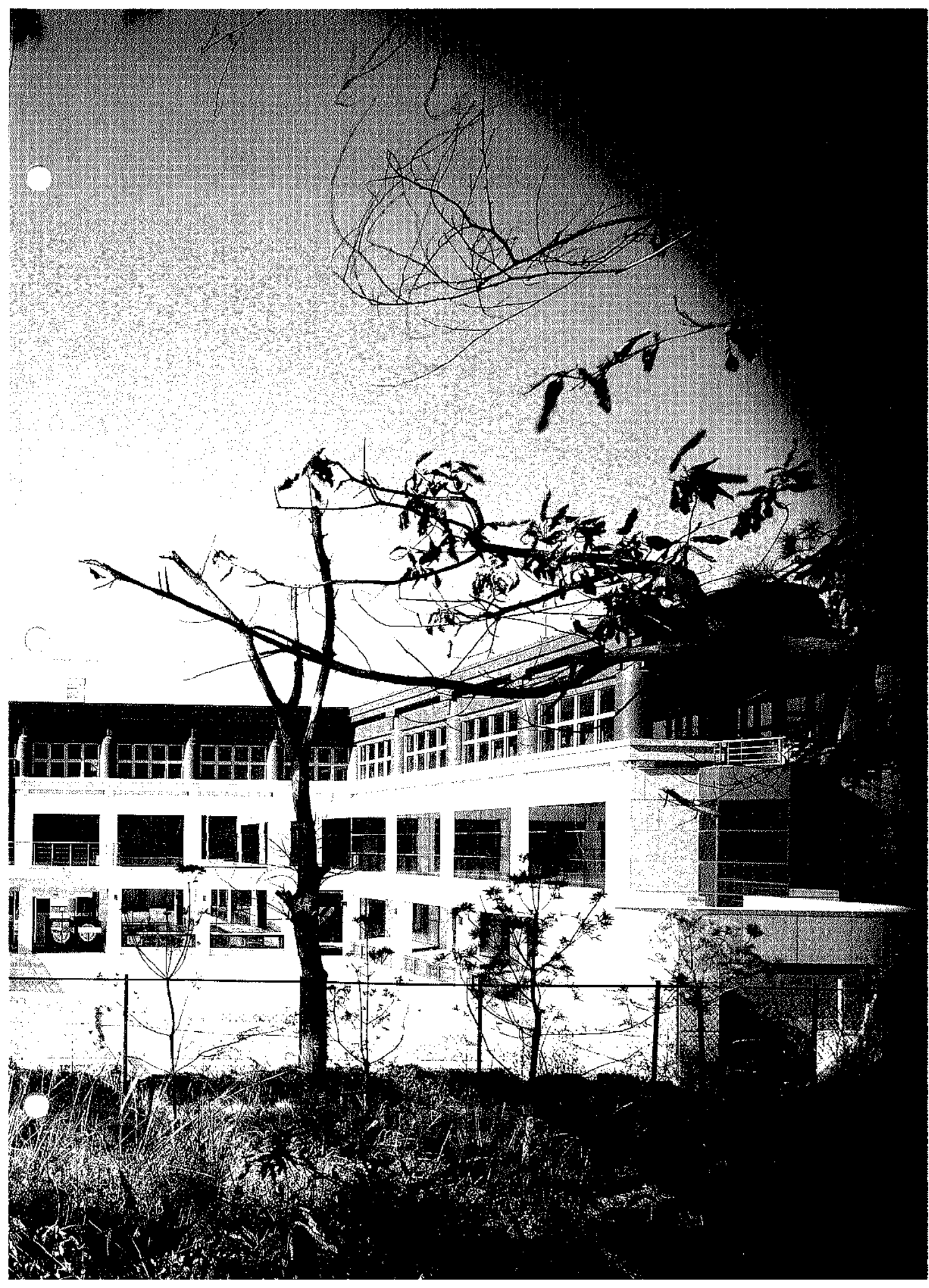
The organic connection of the exterior and interior spaces, along with the calm atmosphere, which can be found in the paper window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was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f one can view the Taiwanese temple as a variant among calmness, this Welfare Center will be a place of void within the complicated city, that provides a space for meditation and self-observation to the urban dwellers.

To meet these requests, under the restriction of the site and the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laws, the facilities were arranged in the following order: Classes for the aged and the infants, nursery and the office are on the first floor, the counseling room, classes for cultural studies and vocational education are the second, and the library and the lodgings are on the third. On the first basement floor there are the offices, the room for lecturers and the small hall. Another small hall for multi purpose use and the large hall are on the second basement, and the third basement floor consists of the cafeteria, souvenir shop, and the funeral hall. The fourth and fifth basement floor holds the parking spaces and machine ro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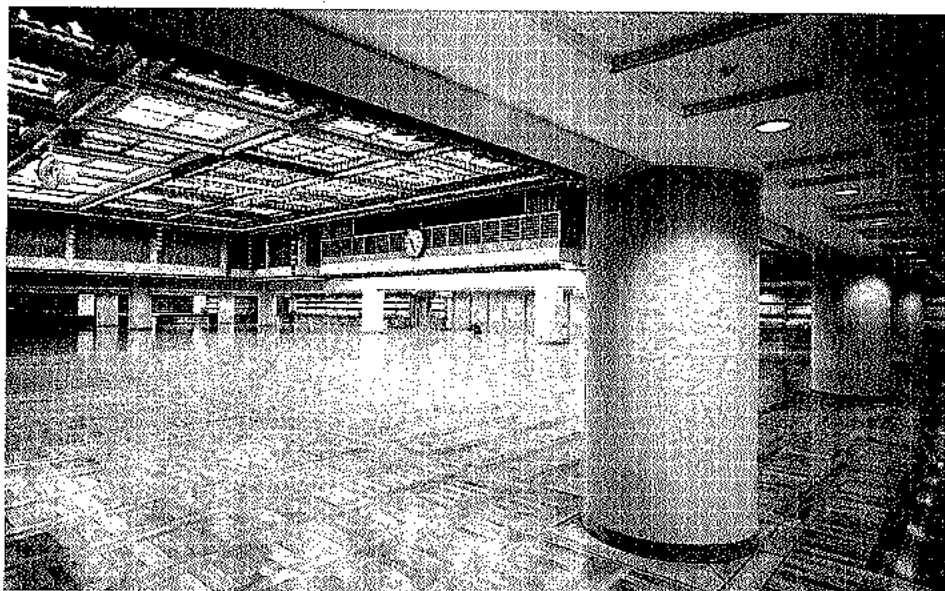
The third problem was the arrangement of lights and the exclusion of traffic noise. These aspects are of great importance considering the program of this project. Natural lights are invited into the basement floors, and even the artificial lights are arranged to give the feeling of natural light. The noise from the traffic of Yangjae Grand Road is blocked mainly by the layout of the building, and this is further enhanced by the glass walls. These glass walls, which acts as the main facade when viewed from the north road, are composed of abstracted forms of traditional architecture's column and rib-work of the window. At night the whole lights up and gives the impression of the ribwork of the lighted DaeWoongJun. The materials and colors used in the interior are purified lest the spaces should become an obstacle in the meditation. This resulted from the continuing effort to keep the principle of sympathizing directly with Buddha. The individual or simultaneous use of various facilities, enabled by the direct connection of main facilities to the outdoor spaces, was another important point in this project.

Site	Poyi-dong 55, Kangnam-gu, Seoul
Site Area	3,017㎡
Building Area	570.18㎡
Total Floor Area	11,729.79㎡
Building Coverage Ratio	18.89%
Gross Floor Ratio	51.99%
Total Floors	1~3F, B1-B5F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Main Exterior Finishings	Granite, Ceramic Painting over THK3 Aluminum Sheets, THK4 Low Reflection Glass
Main Interior Finishings	Ceiling-Aluminum Panels, DI-NOC Film, Wall-Granite, Water Painting, Floor-Granite, Tiles, Decotiles
Main Installation	A.H.U. and F.C.U.
Architects	Kim In-Soo, Oh Ul-Suk, Lee Hong-Sik
Owner	Zen Buddhist Social Welfare Foundation
General Contractor	WooSung Construction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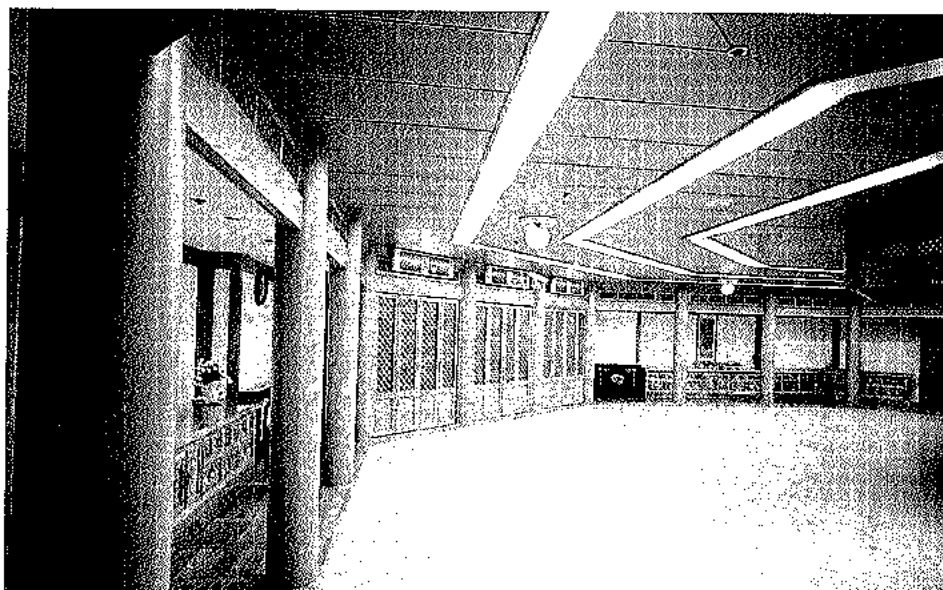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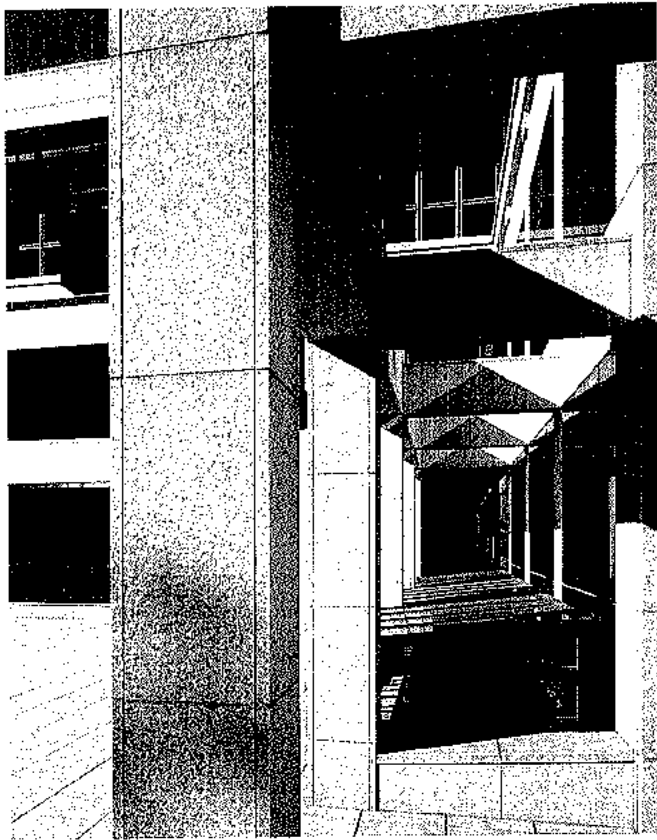
지하 2층 법당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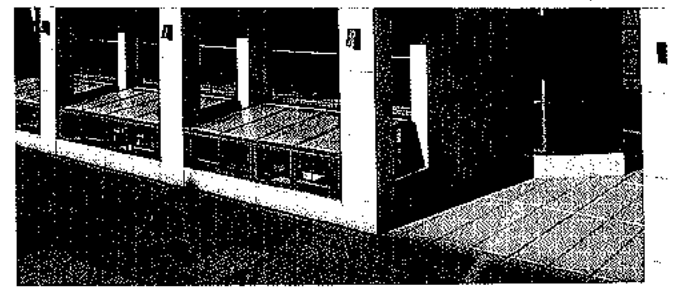
지하 2층 필라의 형상을 띤 소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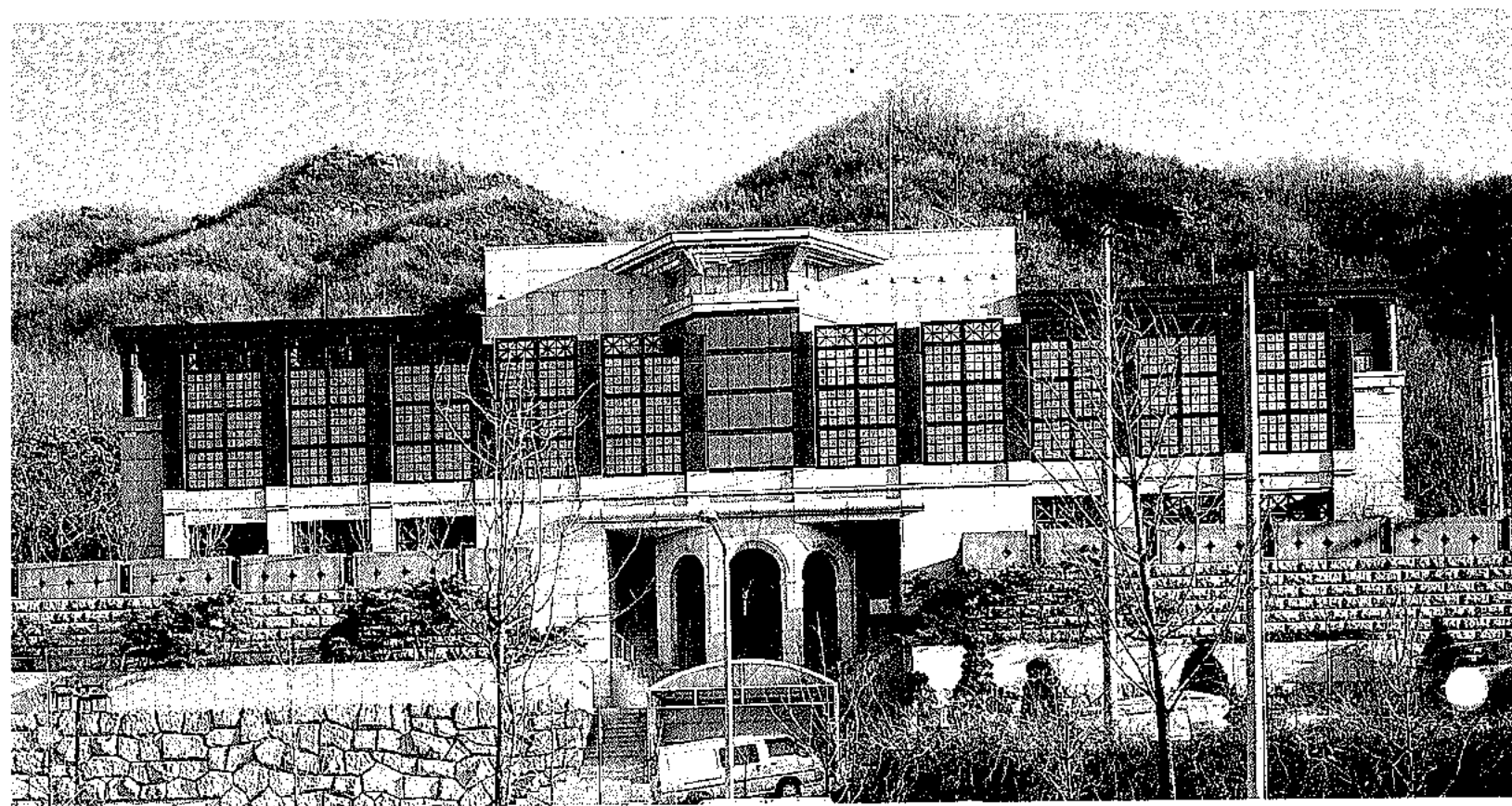
법당 출입구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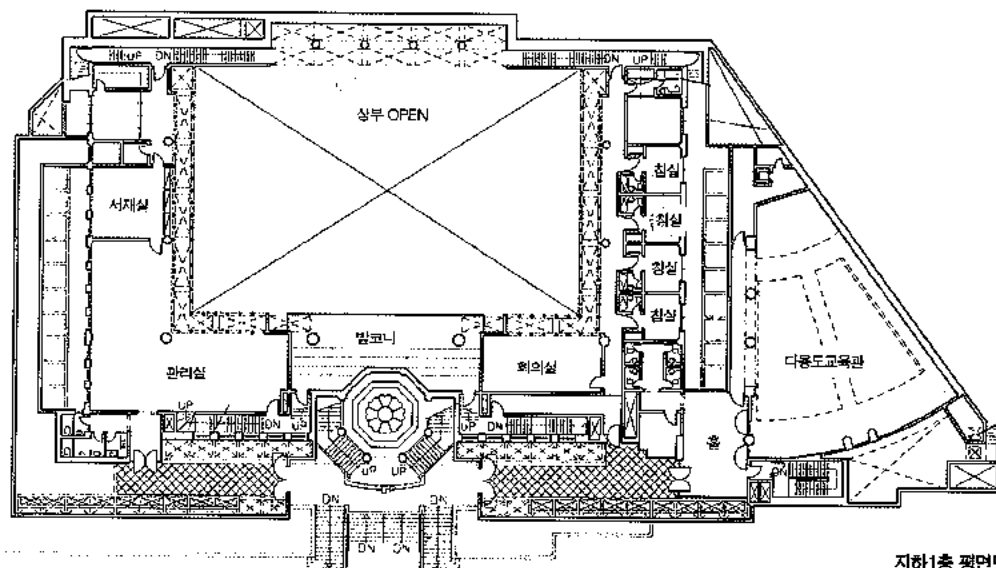
복합 문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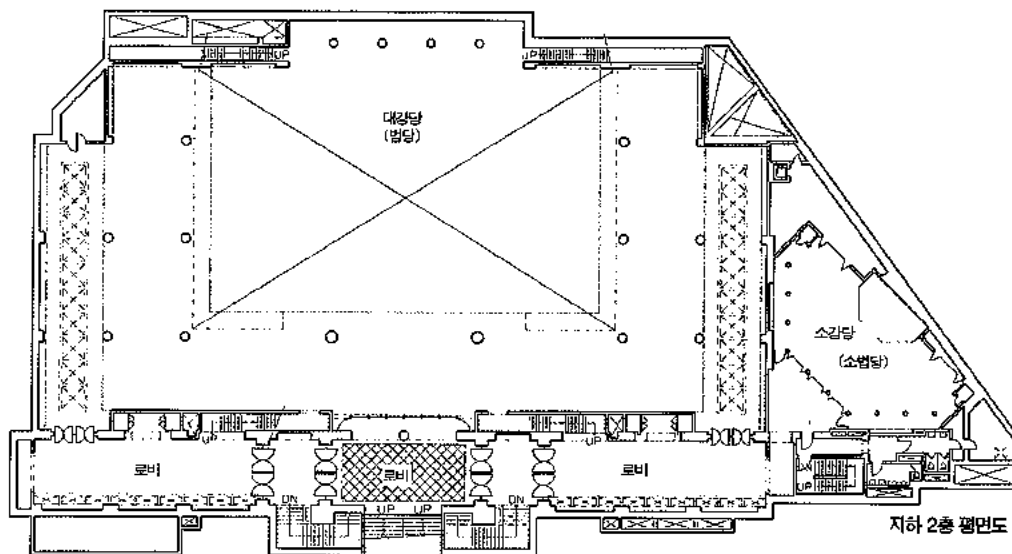
중정에서 본 복합 문화 공간(1층 경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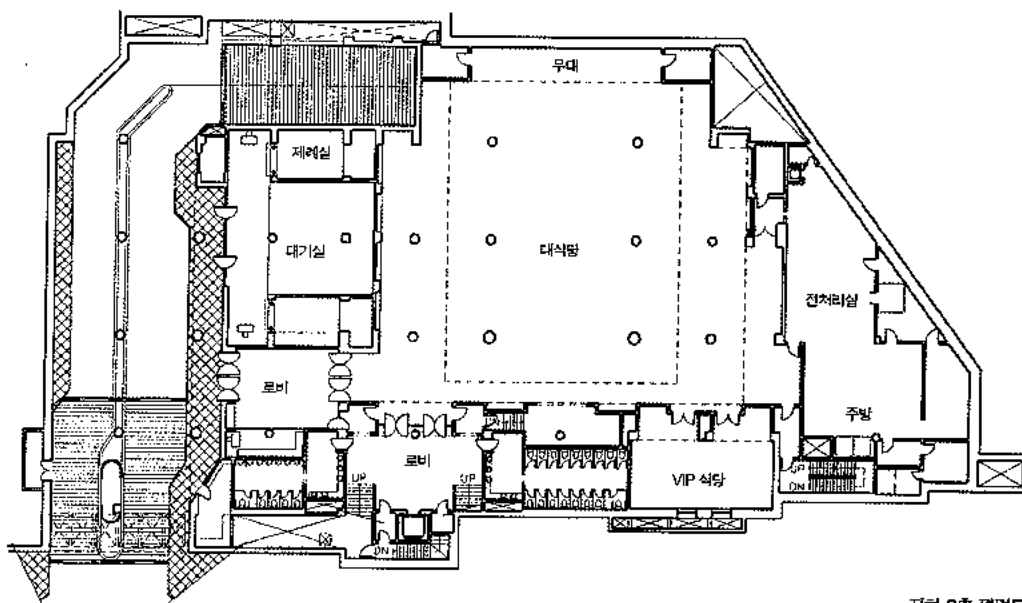
북쪽 양재대로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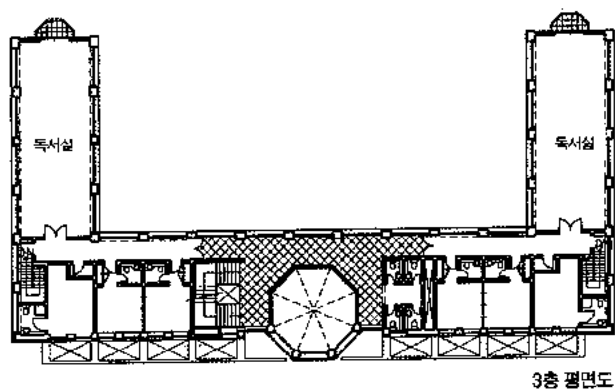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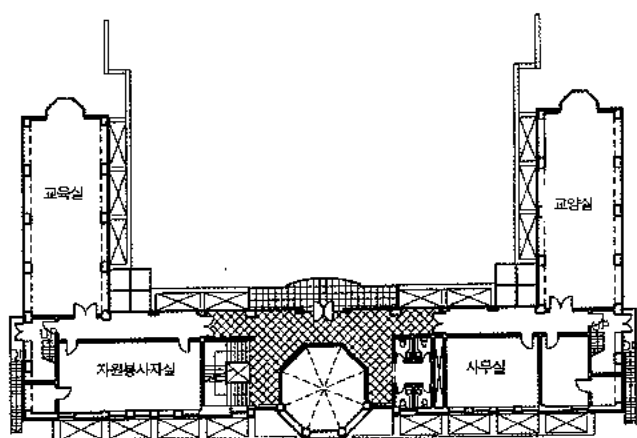
지하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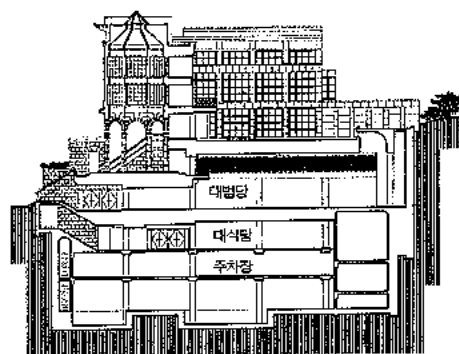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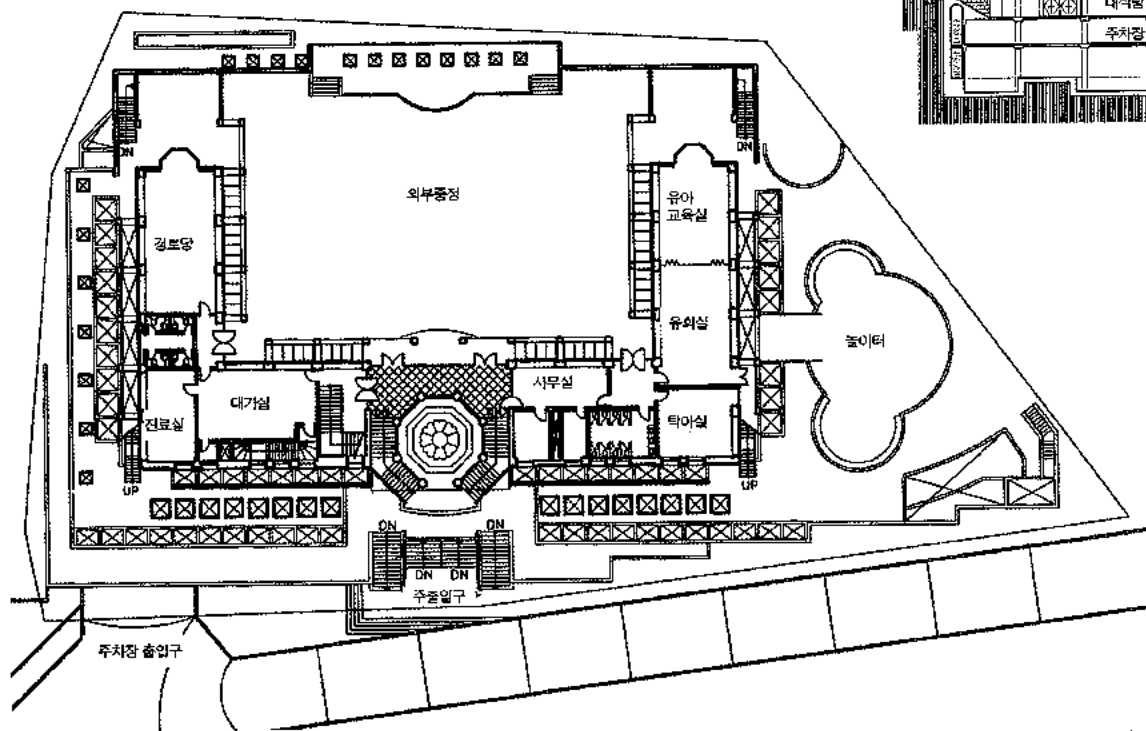
지하 1층 법당과 사무실 사이 공간



2층 평면도



단면도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자연과 도시, 전통과 현대의 문맥으로 Into the Context of Nature & City, Tradition & Today

설계자 / 황일인(일건건축) 대담자 / 정만영(서울산업대 교수)
Architect/Hwang Il-In & Cheong Man-Young
일 시 / 1997. 2. 13 18시, 장 소 / 일건건축사사무소



대담장경(좌: 황일인, 우: 정만영)

정만영 _____ 대담에 앞서 농인선원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황일인 _____ 제게 설계를 의뢰했던 지광 스님으로부터 농인 불사의 건립의미 세가지들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자비행에 있으므로 이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대부분의 종교시설처럼 특정일에만 사용되는 비효율성에서 벗어나서 항상 몸과 마음을 닦는 도량이 되어야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산사의 불교, 은둔자의 종교에서 다시 태어나서 생활속의 불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로서의 불교의 의미를 새로 새기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복지 시설과 불교의 교리를 강의하는 법당이 주요 기능이 됩니다. 사회복지 시설로는 유아원, 성인교육실, 독서실, 노약자 시설, 무료 급식소, 예식장, 장례예식장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스님은 이 건물이 가능하면 전통적인 절과 같은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몽둥그려서 표현했습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농인선원이 들어선 부지는 북쪽으로 양재대로라는 굉장히 빠른 도로에 면해 있고 남쪽으로 구룡산 자락이 닿아 있어서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보면서 우선 건물이 구룡산 쪽을 향하도록 해야겠

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입도로나 도시를 향한 정면과 사실상의 정면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땅은 도로에서 약 10m 높이에 있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지와 도로사이의 좁은 틈에서 높이차이를 극복하는 진입방법을 생각해야 했고,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들은 지하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지하실에 창을 낼 수도 없습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 이 대지가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님이 원했던 이 시대의 종교를 담은 건축이 되도록 하기 위해 4가지 정도로 건축적 명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시대성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표현으로 우리시대의 생각이 나타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그 기법이 전통성에 바탕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절과 같은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기단, 미당, 향, 공간의 위계, 공간의 정형성 등이 이 프로젝트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또 한가지는 가능하면 한국적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적 표현의 구체적 어휘로 소박함, 은근함 등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듯이 자연과의 조화였습니다. 채광(자연적인 빛), 바람, 나무(조경), 색조, 건물의 크기 등이 가능한 한 인공적, 기계적 힘을 빌리지 않고 해결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를 바란 것이지요.



농인선원 종합사회복지관, 전경



농인선원, 외부중정



농인선원, 법당 출입구 로비

이런 테마 외에 하나 더 보탠다면, 산사가 정적속에 던져진 변화요소로서의 인공적 오브제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 번잡한 도시 가운데 만들어진 청정한 빈 공간이 되어 잠시나마 도시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아와 마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색채를 거의 쓰지 않고 백색에 가까운 모노 톤으로 처리했습니다. 또 진입공간의 조도를 극히 낮추어 상대적으로 법당 내부에 도입된 자연채광들의 명도가 은은히 살아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둘러보았더니 조명이 굉장히 밝아지고 화려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의 감각으로는 그러한 정적감들이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더군요.

민선주 _____ 채광 효과는 상당히 살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환경도 되고요. 저는 어두울 때 실내를 보았는데 좀 어두운 듯 한 것이 오히려 자연조명 같아서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요.

황일인 _____ 일부만 손보면 다시 고쳐 놓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몇가지 장치들이 실현되지 못했죠.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벽으로 설치한 외부 유리면도 후면에서 조명을 비추면 산사의 창호지문처럼 야간에 은은한 채광판이 되도록 했던 것인데 만족스러운 만큼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전면의 돌도 불국사 전면의 막돌처럼 자연석같은 효과를 내고자 했지만 시공이 따라주지 않아서 불만스럽습니다. 또 마당에서 산을 향한 부분은 조경과 일부시설이 아직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는 거죠.

정만영 _____ 작품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큰 틀을 잡아보기 위해 먼저 평소에 설계하시면서 중요시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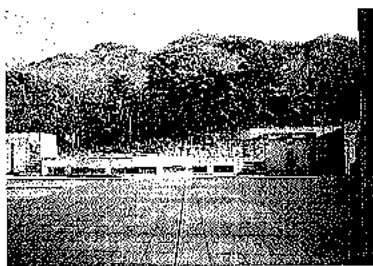
황일인 _____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변의 컨텍스트입니다. 건물과 그 주변이 서로 공존하면서 함

께 좋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를 설계할 때 저는 교회를 잘 짓는 것보다 교회 때문에 주변 환경이 나빠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교회 측면에는 아파트에 면해있고 전면에는 상업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곳에 일반 건물처럼 지으면 여유공지도 없고, 주변 아파트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 같았어요. 벽을 세우고, 마당은 주변과 격리된 내부에 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교회는 어느정도 마당을 확보하고 주거환경도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교회를 지하로 내려보내고, 빛이 가장 필요한 작은 실들을 위로 올렸어요. 우리가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컨텍스트의 문제입니다.

두번째로 저는 국제주의 건축처럼 아주 합리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설계를 시작합니다. 기능이 건축은 아니지만 건축이 시작하기 이전에 다 해결되어야 할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소화된 다음에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차례는 그렇게 되지요. 어찌보면 컨텍스트도 광범위한 의미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두가지는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도 사무소이지만, 다른 사람이 주택으로도 병원으로도 쓸 수 있겠죠. 이 건물이 좋은 건축이 되려면 그런 용도와 무관하게 공간들의 관계, 빛의 처리 등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감동을 주어야겠지요. 하지만 생각의 시작은 기능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합니다.

정만영 _____ 기능이나 컨텍스트가 어떤 건물을 발생시키기 위한 단서이고, 그 단서가 변화하더라도 건축물은 그 자체로 남아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건축적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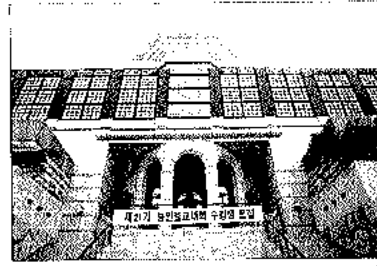
황일인 _____ 항상 주제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자연광선처럼 들어오는 빛,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의 느낌, 자연과 사람의 관계, 그런 것들처럼 건물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항상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능인선원. 중경에서 바라본 남쪽 산



능인선원. 법당 내부



능인선원. 주출입구 상세. 로툰다

또 다른 하나는 시대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죠. 건축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은 상당부분 재료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사용하는 재료가 상당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석재류를 주로 썼지만, 지금은 투명한 재료를 쓰고 싶거든요. 그로 인해 공간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부와 외부로 서로 관통시키는 생각은 같지만, 전에는 솔리드한 매체라든지 인식이 분명한 매개체를 통해 연결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점점 투명하다고 할까, 아주 앵스트랙트하고 덜 고정적인 것에 끌려요. 우리가 건축의 소재로 쓰이면서 가능해진 것이죠. 이제 건물의 외피는 거의 환경을 조정하는 피막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건물이 투명해서 대기 속에 떠있는 것 같은 상태에 매력을 느낍니다.

정만영 _____유리와 같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관에 있어서 골조를 표현한다던가, 덩어리로 매시브하게 표현한다던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황일인 _____그런 것 같아요. 국제주의 건축은 기하학적이고 추상적 건축이죠, 반면에 포스트 모던 건축은 사실적(구상적인)인 표현을 사용하죠.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정보매체 같아요. 그 미디어들은 앵스트랙트(추상적인 것) 정도가 아니라 사이버(가상적)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험타스틱하고, 항상 변하죠. 왜 건물이 딱딱하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공간관계를 플렉시블하게 만들어 주는데 유용한 재료 중 하나가 유리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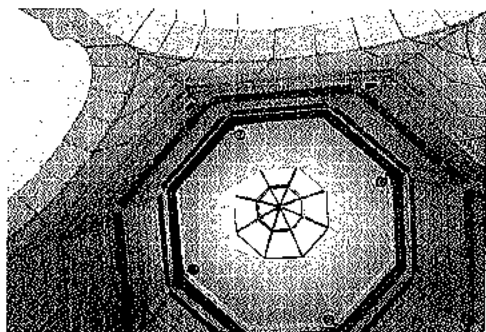
정만영 _____그렇게 급진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으니 놀랍습니다. 최근의 건축계는 하이테크에 대한 성향과 더불어 텍토닉한 특성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안도 다다오나 알베르토 시자 등의 작품은 땅에 굳건히 뿌리

를 내린 텍토닉한 물성이 오히려 건축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강조되는 이유도 건물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에 대한 반발인 셈인데요. 더구나 사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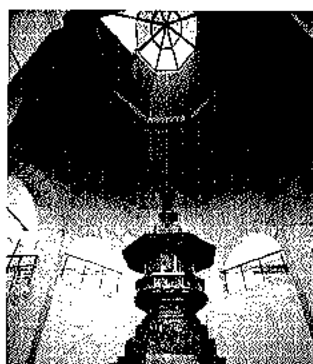
황일인 _____두 경향은 어떤 것이 나쁘고 좋고의 관계가 아니므로 공존할 겁니다.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겠죠. 저도 안도를 싫어하지 않고, 중첩된 벽같은 것은 저도 즐겨 쓰는 기법입니다. 공항 터미널에서도 주제는 중첩된 벽이었어요. 물론 안도와 표현은 전혀 다르지만, 네 개의 중첩된 벽을 관통해서 그 벽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어떻게 뚫고 연결시키느냐를 풀어보려고 했던거죠.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은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아이젠만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컴퓨터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그런 De-form도 자꾸 보면 익숙해지고 좋아지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투명한 공간에 많은 흥미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장 누벨의 까르티에르 재단같은 건물을 보면서 산업이 건축에 정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을 보면 그 큰 유리에 길 풍경도 비춰지고, 나무가 반사돼서 그게 안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벽을 열면 건물 안팎이 하나의 마당이 되기도 하죠.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산업기술이잖아요. 작은 돌을 쌓아서 큰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고딕건축에 영향을 주었듯이, 현대에도 새로운 소재나 공법들이 건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새로운 체험으로 다가온 것은 88, 89년쯤이었고, 지금도 저 자신은 변화해 가는 과정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실험도 하고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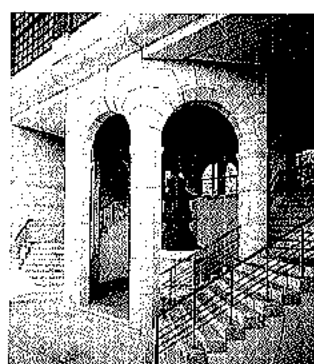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엔지니어링의 뒷받침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부족한 것이 엔지니어링 파트입니다. 국제적인 외국 건축가들과 합동으로 설계하는 것을 보면 일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건축적 아이디어보다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런데 기본설계를 외국 건축가가 하고 실시설계를 여기서 하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고



농인선원. 중앙부 계단실 팔각 천창



농인선원. 중앙부 계단실 내부



농인선원. 중앙부 계단실

있는거죠. 기본설계를 여기서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작업을 세계의 우수한 엔지니어링 회사에 맡겨야 그게 우리의 브랜드가 되죠. 우리는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취약한데 우리가 제일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 디자인을 외국 건축가에게 맡기고 있잖아요. 이걸 빨리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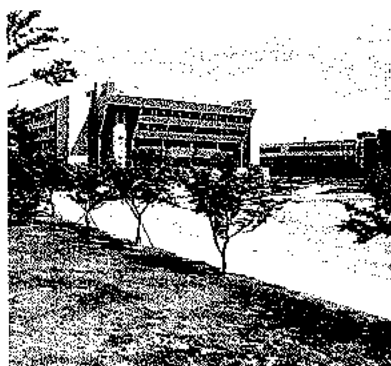
정만영 _____ 다소 허술하고 거친 듯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보이는 건축, 재료상으로도 석재류로 표현되었던 건축이 제가 예전에 접했던 선생님의 작품세계였습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라든가 깊이의 감각이 차갑고 매끄러운 재료로는 표현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료도 많이 변했지만 내부공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능인선원을 비교해 봐도 그런 점이 두드러집니다. 종교 건물인데다, 큰 시설을 지하에 둔 점에서 유사한, 이 두 건물은 선생님의 작품속의 어떤 시점 이전과 이후의 경향을 각각 대변해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속에서 공간이 연출되고, 빛의 처리도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하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라는 감정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공간의 유연한 흐름이 이 건물의 주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록의 구성이나 내부공간의 성격으로 볼 때 능인선원은 사랑의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블록의 구성을 외관에서 보면 상당히 기하학적이고 엄격한 박스로 시야에 들어옵니다. 산자락이 워낙 커서 그것을 압도하지는 않지만, 박스 그 자체로는 너무 견고해서 힐트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대칭적인 진입부도 다소 경직된 느낌을 줍니다. 내부공간에서도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주력하셨겠지만, 로비같은 부분의 공간연출에 대한 배려가 사랑의 교회에 비해 단조로워진 것 같습니다. 제게는 사랑의 교회에서 능인선원까지 변해온 과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중시하고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하던 구성에서, 다소 경직되고 고정적인 구성으로 바뀐 과정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작품을 살펴봐

도 상업건물이나 학교건물들에서 대칭적인 구성을 많이 쓰시고 계시더군요. 건축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황일인 _____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교건축에서 실제 대칭적인 건물을 두어개 설계했죠. 전에 설계했던 울산대학이나 경상대학에서는 사실 대지가 매우 정형적인 곳인데도 대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로 중고등학교와 같은 작은 건물에서 대칭을 사용했죠. 그 이유는 대칭적인 구성이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능이 건축은 아니지만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가운데 교사영역을 두고 주변에 교실을 두면 동선도 짧아지고, 중앙부에 큰공간을 만들기도 쉬워서 평면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창덕여고의 경우는 땅도 좁아서 아주 콤팩트하게 면적을 줄이면서 해법을 찾다가, 도달한 결과가 대칭적인 구성이었지요. 기능적인 타당성 때문이지 일부로 대칭을 고수한 것은 아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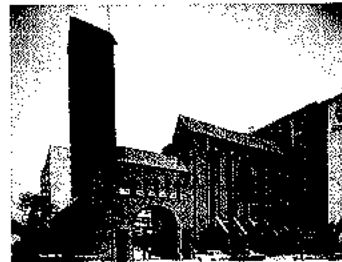
능인선원에서도 옛날 절차럼 여러 시설들을 자연스러운 형상으로 늘어놓을 수는 없었고, 마당을 크게 하려니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적 제한, 동선 거리의 단축에서도 상당히 유리하죠. 처음부터 대칭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칭적인 틀이 형성되었고, 이왕 대칭과 비슷해진 바에야 완벽한 대칭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웃음) 대칭 자체를 제가 즐겨쓰는 수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조직을 잘 정리된 어떤 질서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공식같은 것이 발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거죠. 요즘 진행하고 있는 학교 프로젝트에서도 복잡한 기능을 콘실과 작은 실들의 계열로 나눠 배열하면서, 마치 이 건물이 요구하고 있는 방정식같은 규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다소 압축되고, 엄격해 보이는 것 아닌가 싶군요. 예전 작품에서는 이에 비해 컨텍스트에 따라 자유롭게 배열하는 경향이 강했었죠.



경상대 학생회관



사랑의 교회 지하계단홀



사랑의 교회

이런 경향은 아마 재료와 공법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벽돌류를 쓰기는 참 어려워요. 금속, 석재(석재도 덩어리가 아니라 판석을 쓰죠), 유리 같은 재료들은 모두 규격이 필요하죠. 재료에서 오는 요구 즉 산업화의 요구를 건축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의 질을 현장작업에서 높이는 이미 어려워진 상황이니깐요. 분당 주택에서도 저는 산업화의 문제를 주제로 삼았었어요. 주택의 질을 높이려면 건축공법을 산업화해야 하고, 부재를 공산품으로 규격화시켜야죠. 아마 그런 점을 중시하다 보니 건물이 다소 리지드하게 보였을지 모르겠군요. 사실 공법의 산업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모듈화시키고 그 안에서 공간의 변화를 주려고는 하거든요. 저 자신도 상당히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긴 해요. 이 부분은 보완을 좀 해야겠군요.(웃음)

정만영 _____ 스스로 근대건축적이라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평면형으로 보면 근대건축에서 그토록 벗어나려고 애썼던 대칭적인 평면형을 취하면서 그것이 가장 기능적이고 근대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근대건축을 대표하는 유파로 꼽는 데 스타일, 바우하우스, 구성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칭성을 벗어나느냐를 화두로 삼았고, 근대적이라는 성격을 비대칭적인 구성으로 물고갔던 흐름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오히려 대칭적인 평면형을 취하면서 그것이 가장 기능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시에 대칭성을 비판했던 것은 보자르 류의 역사주의 건축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었지만요.

황일인 _____ 대칭적 평면은 사실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조금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2000년이 다 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서양에서는 1920년대에 이미 고민했던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업화에서 야기된 문제를 우리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60, 70, 80년대에 걸쳐 산업화를 어느정도 이루고 나니까 이제 비

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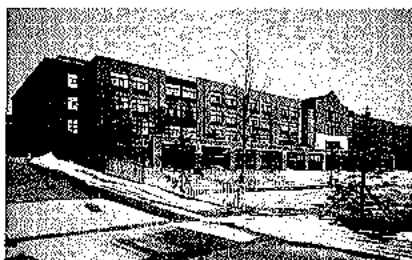
정만영 _____ 선생님 입장에서서는 진정한 근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황일인 _____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상황이 그때하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실제 근대건축에 대해 고민했던 세대가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근대건축을 갖고 고민하는 시기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만영 _____ 최근 작품에서는 건물을 하나의 덩어리로 다루신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 젊은 건축가들은 기본적으로 볼륨과 볼륨 또는 면을 개별적인 요소로 분리시켜 놓고, 그 요소들을 충돌시키거나 결합시키면서 긴장된 공간을 만들든지, 형태적인 모티프를 찾아내는 설계방법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는지요.

황일인 _____ 그것은 설계기법의 문제 같은데요. 건축공간을 만드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가는 건물이 원하는 바에 따라야죠. 저는 새로 지어졌다고 보다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기나 구성방법이든가 공간의 흐름이 주위와 잘 조화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표현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공간을 만드는 요소들을 이리저리 분할 또는 변형하는 기법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없는 부분을 최대한 없애 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정만영 _____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한국적인 특징을 들면서 소박, 은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민선원의 경우에는 주변에 건물도 없는데다가 건물의 윤곽선이 명료하게 분절되어 있어서, 강력하게 한정된 볼륨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것을 소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청덕여고



청덕여고 아파트



한국공화터미널

황일인 _____ 아니게 아니라 그 대목이 애매한 부분입니다.(웃음) 처음 의도는 뒤쪽의 산과 하늘의 색이 변하면 유리벽도 같이 변해서 산에 묻히기를 바랬어요. 건물이 너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거죠. 그 유리벽은 방음과 조명판이기도 하지만, 또 한가지는 하늘, 산의 색이 변하고 구름이 흐르고, 경관이 변하는 것을 비추면서 산과 한 덩어리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의외로 건물이 두드러진다고 느낄 때가 있긴 합니다.

민선주 _____ 소박함이 내부마감에서는 잘 살아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 개념도 건물 전체에 다 적용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겠죠. 이 경우에는 내부마감 위주로 더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황일인 _____ 그건 사실입니다. 내부 마감 재료는 아주 소박하고 간단한 재료들입니다. 외부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매끄러운 철판이나 유리같은 인공적 재료가 자연과 대비되면서 두드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끔은 프레임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투명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만영 _____ 최근 작품중 성대 600주년 기념관에서는 기둥을 크게 과장시켜 열주처럼 세웠는데 그것과 이 건물의 판벽이 많이 대비되더군요. 사실 그것도 구조재로서의 구축적인 힘보다는 구조를 장식적으로 사용한 스크린처럼 느껴지긴 했지만요. 재료가 달라지면서 외파의 성격이 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조와 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일인 _____ 성대의 경우 유리면과 기둥을 같은 위상에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리면은 커튼 열고 구조라인과는 분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기둥이 밖으로 나와있는 것이 내부공간을 더 플렉시블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외부 기둥이 상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정만영 _____ 능인선원에서는 진입부의 기단이 높이에 비해 폭이 너무 좁아서 석벽이 위압적으로 느껴지던데요.

황일인 _____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법규상의 문제도 있지만, 석벽없이 밑까지 건물이 내려왔다면 들어갈 기분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주 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상 건축물의 외벽이지만 외부에서는 대지의 일부로 인식되기를 바랬어요. 정자를 받치는 큰 바위처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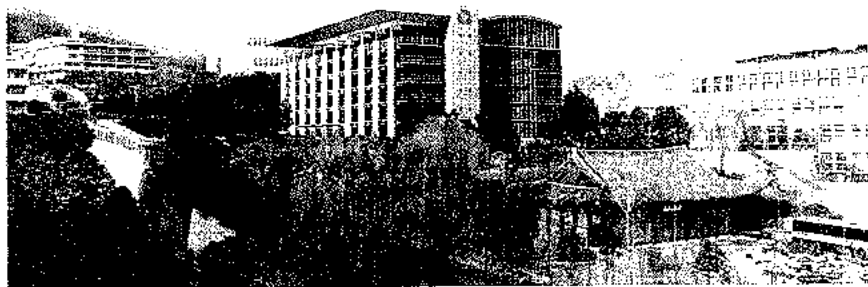
정만영 - 자연석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일부러 거칠게 처리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물치장 콘크리트 벽처럼 밋밋한 면으로 처리했다면 기단보다는 면적인 모티프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육중한 재질위에 너무 가벼운 재질이 얹혀져서 언발란스해 보이던데요. 상부에 쓰인 재료를 옆두에 두었다면 하부를 좀더 매끈하고 가벼운 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땠을까요?

황일인 _____ 그럴 지도 모르죠.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

정만영 _____ 전체 덩어리의 중앙부에서 레벨을 맞추고 정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가쪽이나 협소한 전면부가 너무 강조된 것 같습니다. 아마 대칭적인 블록플랜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겠지요. 대칭적인 구도를 무시하고 외부의 진입동선을 건물과 평행하게 따라 올라가게 해서 오른쪽 편에 입구를 뒀다면, 협소한 외부공간을 다소 여유있게 만들기도 하고, 초기 작품에서와 같은 내부공간연출이 가능했을텐데요.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문제가 외관의 문제, 입구의 문제, 내부공간의 문제 모두에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터미널 아트스페이스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황일인 _____ 제 생각에는 마당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옛사찰의 대웅전 앞마당에서처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안팎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이 마당의 중앙부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기단으로 감춰진 큰 강당의 입구, 상부건물의 입구, 마당의 진입로 등을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 건물의 마당은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앞산과 연결된 다용도 행사장이기도 하고요. 다소 무리하더라도 약간 상승해서 목적 공간에 도달하는 이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두산의 경우처럼 완만하고 길게 돌아서 들어가는 방법도 쓸 수 있지만, 이 부지에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국사처럼 청운교 백운교를 지나서 척 마당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많이 두었습니다.

정만영 _____ 마당자체가 건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신거군요.

황일인 _____ 건물전체를 마당을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에서 보면 누마루 밑으로 해서 마당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영주 부석사, 적지사에서도 보면 시선이 규제되고 있다가 갑자기 마당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실제 공간은 좁은데도 넓어 보이게 되죠.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셈이죠. 어떻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 것입니다. 아마 측면으로 진입한다면 마당이 별로 인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로 진입하는 부분이 좀긴 하죠. 내부의 큰공간으로 진입하는 외부공간으로서는 사실 타이팅하기 때문에 중압감을 줄이기 위해서 벽을 두단으로 만들었고, 중간 벽의 질감도 조금 변화시켰습니다.

정만영 _____ 내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내부의 색깔이 중성적이고 별로 드러내지지 않는 것도 빛과 공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당 주위로 상부를 오픈시켜 빛이 떨어지도록 한 것도 내부공간을 건축적

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장치라고요.

황일인 _____ 빛의 처리는 내부공간 계획의 가장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가능하면 자연광으로 해결하고 싶었고, 조명계획도 가끔씩 자연광처럼 느껴지도록 배려했습니다. 재료도 천연질감이 유지되도록 하고, 화학적인 색채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노톤으로 색채사용을 절제했습니다.

정만영 _____ 이 건물에서는 전통적 표현을 단순화시켜, 창살패턴이라든가 주두 디테일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전통을 해석할 때 이런 의장적인 모티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으셨는지요.

황일인 _____ 그것은 전통의 본질과는 다른 거죠. 그야말로 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건데요. 콜리어스토리의 경우 투명유리를 통과한 것보다 한번 걸러진 채광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오피스의 시선을 차단할 필요도 있었고요. 전통적인 창호지의 기능과 동일한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소를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따라갈 수 있는 다른 모티브들이 많더군요. 그런 것을 우리 건물에 재생해서 쓰는 것은 건축에서 말하는 전통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생각해요.

전통문제는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쟁력이 생기려면 다른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것을 찾아야지요. 노먼 포스터, 리처드 로저스, 파야노 등은 하이테크로 자기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어 세계에 통용시켰죠. 여기서 건축가의 경쟁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쇄원같은 곳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것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만들건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겠죠.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경쟁력을 잃을 것입니다. 전통적 모티프는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근원적인 전통의 문제는 국제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울산대 문수관 전면



울산대 대학회관



씨티빌딩

정만영 _____ 능안선원이 일단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면서 실패치방법에서도 혁신을 꾀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평범한 패턴을 완전히 벗어난 사례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기존의 교회건축에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이 건물이 계기가 되어서 현대적인 조형성이 위주가 되는 불사건축이 보다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꾸어서 선생님 세대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 건축계를 이끌었던 분들인데 최근에는 활동도 적어진 것 같고, 더 큰 문제겠지만, 건축적인 이슈를 별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역할을 후진들에게 넘겨버리고, 실하게 말하면 대형 프로젝트나 일거리 속에 안주한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황일인 _____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건축가가 일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된다고 봐요. 우리 세대는 일속에 묻혀 살았기 때문에 건축이 어떻게 가야되나 생각할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김중업 선생이나 김수근 선생은 그런 와중에서도 문화로서의 건축에 대해 발언하신 셀인데, 그 시대의 풍토에서 두 분이 나타난 것은 기적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생활이나 문화가 뭔가에 대해 반추해 보는 여유가 생긴 시대죠. 아마 이 시대에 맞는 모형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변명이 되겠지만, 저희 때의 여건은 너무 어려웠어요. 건축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했구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때죠. 저도 포함해서요.

정만영 _____ 건축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황일인 _____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자기 능력 이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 능력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공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공평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만영 _____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시군요. 장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선주 _____ 한가지만 여쭙볼께요. 스님의 불법을 들으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종교적인 행위, 절차,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건물과 불법강의 들으신 것과의 연관될만한 것이 없으신지요.

황일인 _____ 글썄요. 불교 교리의 의미를 건축화하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불교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까 등과 같은 건축 자체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교리나 정신이 어떤 점에서 보면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잖습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사람이 짓지만, 지어 놓으면, 주위와 어울려서 하나의 자연이 되는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컨텍스트가 되고, 그 옆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그것이 또 합쳐져서 자연으로 역할을 하겠지요. 집을 지을 때 주위의 도로나 자연과 어울리게 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할까? 그런 차원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_____ 능안선원 종합사회복지관 비평을 맡은 민선주(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 위가건축)씨도 이번 대담에 함께 참석했다.



대우전자 연구소



분당시범단지 연립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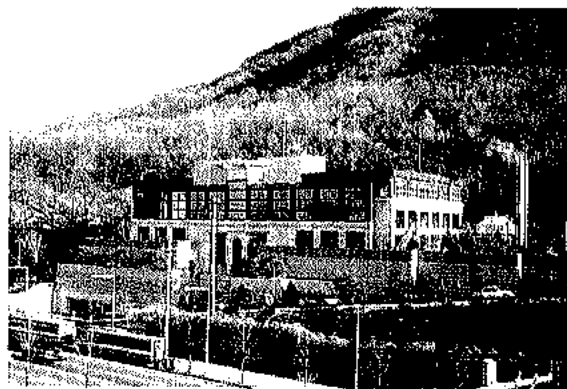


경안미술관

절충의 미학 : 우리에게 내재된 단편성

Art of Compromise : Our Inherent Fragmentation

민선주 / 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 위가 건축
Minn Sohn-Joo, Wega Architects,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Kyong-Ki University



“제거하고 싶은 비평은 우리 건축물의 좋은 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좋은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인지 지금까지 우리의 건축이 (진심으로) 어떤 점에서 잘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원로 건축가들은 어려운 중에 무척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나쁘다 하여도 그들의 작품 안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좋은 점을 찾아내려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사라지고(좋은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언젠가는 헐리겠죠.) 도면도 기억도 사라진 후 우리는 계속 우리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점을 찾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좋은 점을 찾아주겠습니까? 한국 건축의 자부심(개혁?)은 건축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 비평가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팔리는 신파크 뒤에는 잘나가는 변호사가 있듯이 말입니다. 물론 배우도 잘나가야하지만...”

그리고 저는 제가 모르는(건축가나 사용자나 같이 모르는) 서양철학에 비추어 이 건물을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또 건축가가 건축역사의 어느 부분에 속할 것을 목표로 설계하지 않은 이상, 건축사에 비추어 특히 세계건축사에 비추어 이 건물을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설계하는 이의 입장에서 또 사용하는 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필자 주)

“The kind of critique that I would like to do is to explain what the merits of our architectures are and why they are good. Maybe due to my lack of research, uptill now, I have not often heard comments on why our architecture is well designed. The elder architects that I have acquaintance with, however, are known to have put on their best efforts in rather difficult times. No matter how bad the conditions have been, I can not be convinced that there exists not one good point in their works. If, however, no one tries to find such good points, after the building disappears (it would someday be broken down for it is not considered a good building), and even the drawings have vanished in our memory, we would continuously feel sorry for ourselves. Who would search for our good merits when we ourselves are not? The pride (reform) of Korean architecture must be accomplished by architecture critics before architects. Just as there is famous orator behind sold out new-school play. Of course, the actor has to be well-known also.

Also, I will not understand this building by comparison to western philosophy that I, myself, do not comprehend (architect and user both do not know). And, as long as the architect has not designed with an objective to have it included in a part of architectural history, I will not look upon this building in reflection to architectural history, especially, world architectural history. I will endeavour my best to understand this build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designer and the user.” -Minn.SohnJoo-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필자가 취하고자 하는 위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간단하지 못한 설명에 독자의 이해를 바른다. 동시에 필자 주제적인 의견만을 사용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필자의 의견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유명한 이들의 말을 빌리고자 한다. 첫 번째, 비평이란 무엇인가? 원래 서구에서 비평에 해당하는 말 criticism(kritik: 獨, critique 佛)은 히랍어 krinein, 라틴어 criticus에서 나온 말로 krinein은 '분할' '구분' 또는 '결정한다' '식별한다' '관여 있는 의견을 말한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라틴어 criticus

Before I proceed to the main subject, I intend to explain above position that the writer desires to take. I ask for reader's understanding for rather not simple explanation. At the same time, because unfortunately, the reality is that writer's opinions alone lack power of persuasion, I would like to borrow some comments of several famous ones. Firstly, what is critique? Originally, the western word 'criticism' came from Greek 'krinein', meaning 'division', 'partition', or 'to decide', 'to distinguish', 'to say authoritative opinion', etc, and Latin 'criticus' meaning 'judge', 'appraiser', 'examiner', etc. (Koo, In Hwan, Koo, Chang Hwan,

는 재판관 감정이 '심사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구인환, 구정환, 문
화계론). 한자로 보면 批評의 批는 '치다, 손으로 치다(擊)' 밑다. 대다
(觸) 돌다(動) 비로잡다 '평(評)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評
은 論과 平의 합성으로서 '공평하게 말함'을 뜻하게 된다(강우종, 비평문학
론). 이것으로 보아 비평이란 작품을 해석하고, 분류하고, 평가하는 일체
의 활동을 가리키며, 모든 사물에 대하여 공평하게 따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평의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주된 역할
은 해석이라 생각된다(허드슨, 문학원론). 노스롭 프라이는 '비평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예술은 방어적이다'라고 하였다(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자칫 비평은 따지는 일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노력이나 의도를 오묘한 채 작품의 결점만을 지적해 내는
것이 비평이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평을 통하여 작가의 독자(사
용자, 건축학도)의 정신적 교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요, 비평가의 관여
로 인하여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가치가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
는 것이다. 해석은 단순히 건축가의 의도를 밝혀주는 것에 더불어 건축가
가 의식적으로 의도했거나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 잠재되어 있는 의
미를 해석하는 것이다(그레엄 하프, 비평론). 다음으로 중요한 비평의 역
할은 가치판단으로 그 평가의 기준을 비평가 자신이 마련해주어야 한다.
비평가란 결국 하나의 독자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일반 독자에게 올바른
가치 체계를 제시해 주는 일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평가의 궁극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법의 권
위와 전통의 권위를 준용할 수 있는 학문체계의 최고의 권위는 과연 무엇
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성이며 합리성의 것이다. 이는 나의 의식과
나의 일상생활 안에서 나의 경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말이 언어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합리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오부 세
계의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을 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 가운데
어떤 규칙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그 자체가 합리성의 요소이며, 따라서 궁극적
인 평가의 기준은 나의 상식, 나의 경험에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
다. 나의 상식, 나의 상식, 나의 경험에서 먼저 사물을 관찰하는 순간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평가 행위의 지름길이다. 어떤 권
위지나 전문가의 평가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나의 생각과 냉철한 이성과
상식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권위지나 전문가 역시 그 출발이 자신들의
경험과 냉철한 의식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질문하고
대화하는 순간을 기리고, 질문하고 도전하고 수정해 보고 그 이론을 확장
해 나아가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와 논문)

비평문학(건축)은 '보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 한 편
의 시(건물)을 보는 일, 한 편의 소설(도시)을 보는 일은 비평 작업의 첫
단계다. 작품을 쓴 이(건축가)도 보아야 하고 그 작품을 읽는 이(사용자)
도 보아야 한다. 작가와 작품이 쓰여진 시대와 사회도 보아야 한다. 무엇
을 보아야 하므로 무엇을 말하게 된다. 잘 보았을 때 잘 된 글을 얻을 수
있고 깊이 보았을 때 깊은 글을 얻을 수 있다. 속을 보면 속셈을 알 수 있
고 겉만 보면 겉들게 마련이다. 깨닫고(覺) 얻는(得) 일은 보고(見) 찾는
일에서 비롯된다. 보기 위해서는 눈(眼)이 필요하고 잘 보기 위해서는 맑
은 눈이어야 한다. 작품을 정확히 보고 깊이 있게 보려는 것은 정확한 눈
과 깊이 있는 눈을 지닌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 由 承 堉, 쓰는 이와 읽는 이 -

Introduction to Literature). When looking at the Chinese characters,
"from" "signifies" to hit, to hit with hand, "to push", "to touch",
to help, "to comment on", etc. and "as combination of " and " ,
means "to speak impartially".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criticizing is the whole act of interpreting, classifying and assessing
the work, and impartially evaluating every object. There exist many
opinions concerning the role of criticism. But, I believe the main role
to be interpretation. (Hudson, Principles of Literature) According to
Northrop Frye, "Though criticism can talk, all arts are mute".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Because criticism tend to pertain the
characteristic of demanding an explanation, it may be
misunderstood that criticizing is pointing out negative points of the
work, neglecting the effort or intention of the writer. However,
criticism enables mental correspondence between writer and reader
(user, architect). Through the writer's interferenc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work and its value can be conveyed to the
reader. Interpretation, in addition to revealing architect's intentions,
explains the hidden meanings that architect may or may not have
consciously intended. (Graham 하프, Theory on Criticism) Next
important role of criticism is judgment of values, the evaluating
standards of which, the critic, himself, must provide. A critic, in the
long run, is a reader himself; but, he holds the responsibility of
suggesting proper value system to general readers. What is the
ultimate standard of evaluation? What is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academic system that can dare to inquire about the authority of law
and that of tradition? The answer is rationality and reasoning. This is
what I can find through my experiences within my daily life and my
conscience. Our words can be so because they have rationality. We
are able to research on the phenomena of outer world and to draw
up theories, because we have learned that there exists certain
consistency and regularity in our experiences. Our common sense
and experience, themselves, work as the elements of rationality, and
therefore,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ultimate basis of my
evaluation lies in my common sense and my experience. To grow
habit of observing objects first based on my common sense and
experience would be the shortcut to proper evaluation act. Before
depending on the evaluation made by other authorities or experts,
first, my thoughts and cool-headed rationality and common sense
should be reflected. It is most likely that the authorities or experts,
also, started off from their own experiences and cool-headed
conscious. A habit to question their 'authority' and a capacity to
challenge, amend and expand their theories must be built.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and Thesis)

"Criticism Literature(architecture) begins with (the
act of looking). The act of looking at a piece of poetry(building), the
act of looking at a copy of novel(city) is the first stage of evaluation
process. Both the writer of the work(architect) and the reader of the
work(user) must look. The writer, the period and society at which it
was written, all must be looked. It is only when one sees something
that he speaks something. Well written work is obtained when well
looked and intense work is obtained when looked intensely. Looking
inside, one can figure out personal intentions and when looking just
the outside, one is ought to stay out and not mix together. Perceiving
and acquiring starts off with searching. In order to look, eyes are
needed and in order to look well, pure, they must be pure clean
eyes. To see a work accurately and intensely, in other words, means
to possess accurate and deep eyes".

- Back, Seung Kil, The One Writing and the One
Reading -

원고 청탁을 받기 전, 필자를 아끼주시는 어느 분께서 민 선주에게 비평을 맡기면 너무 좋게만 볼 것이라고 염원하셨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을 하디보니 전제가 너무 길어진 듯하다. 처음 비평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고, 황일인 선생님의 작품을 감히 비평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인자리 말을 것인지를 잠시 고민해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필자에게 있어 우리의 건축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비평을 시작했다.

느린 시작

처음, 불교 건축물이라길래 좋아하는 몇몇 사찰들만을 연상하고 있던 필자는 모 잡지에 발표된 작품사진을 접하고 이질감을 느꼈고, 어떻게 이해해 나갈 것인지 염려되었다. 게다가 사진에 덧붙여진 황일인 선생의 작품설명이 간략해서인지 건물과 연관짓기가 어려웠다. 난감하기만 했다. 건물을 찾아보거나 황선생을 뵈기 전에 참고자료를 미리 검토해보려고 일 건에 연락을 하니 자료를 얻는 것 또한 수월치가 않았고, 건물들을 내부까지 들여다보려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만 급한 채 능인 선원과의 시간 약속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일건으로부터 황일인 선생의 이전 작품자료들을 전해 받았다. 1981년 준공된 '평창동 주택'으로 부터 '울산대 대학회관', '국립 경상대학교 학생회관', '사랑의 교회', '서울 가든 호텔', '서울올림픽 선수촌', '기초과학 지원센터', '공항 터미널', 등 다양한 성격의 작품들에서 공통분모 역시 쉽게 파악되지 않았다.

능인 선원을 찾아서

그렇지만 우리 건축에 대한 깊이있는 식견도 부족한데다 시간여유도 없이 어려운 비평을 맡은 자신에 대하여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시작이 어려운 만큼, 더 열심히 좋은 점들을 찾아내야 하리라는 마음으로 '명심행 보살님'을 되려 나섰다. "구룡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회전하면 된다" 하여 좌회전 후 한참을 더 가야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능인 선원은 어느새 바로 눈앞에 다가서 있었다. 건물을 원경에서 미리 인지할 겨를이 없어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않았나 하고 당황했고, 마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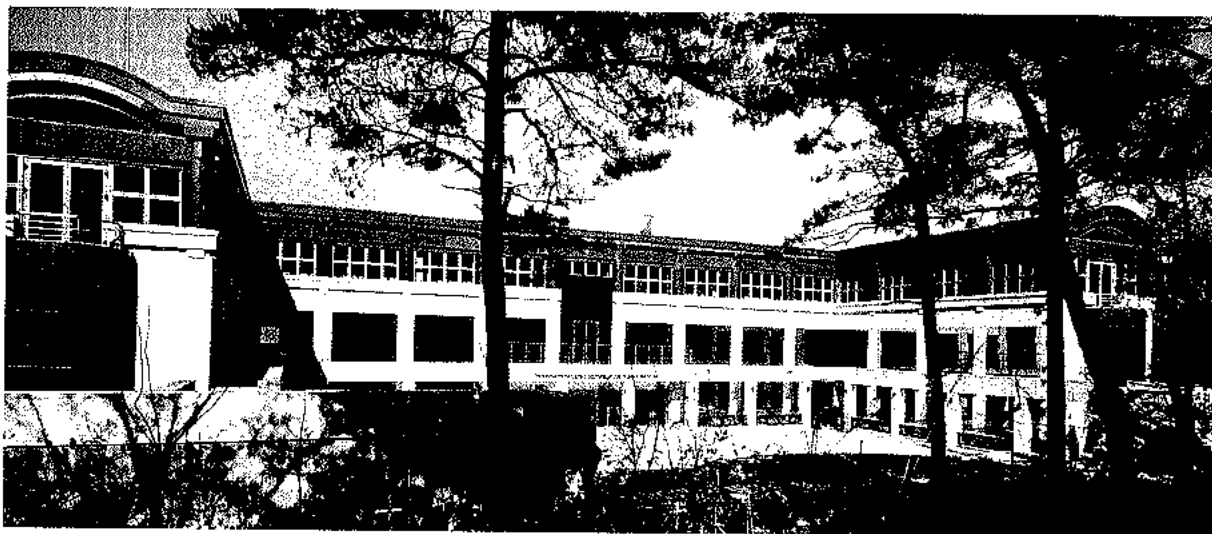
Before being requested to write this critique, I have heard that a close acquaintance of mine was concerned about my, Sohn Joo Minn's writing too nicely. In effort to provide my opinion on this matter, the premise part has become rather long. When I first received the call from Mr. Chung, Hyo Sang, the editor-in-chief, I had to worry for a while about what imposing work it would be to criticize the work of Mr. Hwang, Il In. However, because I felt that it is only through this kind of opportunity that I, myself, get to observe closely and specifically our architectures, I took in the offer in a sense of obligation.

Slow Start

Being informed it is a Buddhist architecture, I was imagining several of my favorite temples. However, when I came across a photograph of the project included in a magazine, I felt a sense of extraneousness, and did not know how I should go about understanding the work. Furthermore, the explanation by Mr. Hwang, Il In attached to the photo was very brief and thus, was rather difficult to relate it to the work. The process was very difficult. With intention to examine available reference materials before visiting the site or meeting Mr. Hwang, I contacted Il-Gun, but, that process, also, was not so easy. Also, in order to look into all details of the building, I had to ask for approval and make an appointment beforehand. However, it was only me that was in hurry, and Neung In Sun Won did not easily and quickly allow an appointment. In the meantime, materials on Mr. Hwang's previous works were forwarded to me from Il-Gun. 'Pyongchang-dong residence' completed in 1981, 'Wolsan University Student Center', 'Student Center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Kyungsang', 'Church of Love', 'Seoul Garden Hotel', 'Olympics Athletes' Village', 'Fundamental Science Support Center', 'City Air Terminal', etc. were included, but, grasping their common denominator, also, was not an easy work.

Toward Neung In Sun Won

I could not be sitting around just regretting about accepting such difficult critique request. From the beginning, I lacked much knowledge about our architecture, and at the same time, lacked time available. However, the more difficult the beginning is, the harder I should try to find



능인선원. 숲을 통해 본 외부중정

설법이 끝날 무렵인지라 불도들을 태우기 위한 버스가 건물 앞을 병풍치듯 가로막고 줄을 지어 서있는 것이 필자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했다. 전통적으로 유명한 사찰을 방문할 때는 산기슭에서 타고 간 버스를 내려 걸어 올라갔던 경험 탓에 더욱 생소하였던 것 같다. 버스를 틈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좌측 하단부에 위치한 주차장 입구부분이었다. 그 오른쪽으로 정문이 위치하였는데, 중앙에는 법당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고 중앙 양편 계단을 통해 상층의 여러 시설들로 올라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다. 관리실 안내 설명대로 올라가는 가면서 농인신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팔각공간을 지나쳐야 되는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명심행보살님의 안내로 건물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보살님은 건물에 대하여 건축가 머금가는 설명을 해주셨다. 유치원, 교육실, 노인병원, 독서실 등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개념지어진 일부 시설들을 거쳐서 사무실, 법당, 소법당, 지하 식당겸 다용도 연회실, 주방, 기타 부대시설들까지 세세히 안내를 받고, 불법이 끝나자 마치 교회의 성가대석 같이 만들어진 찬불가석까지 올라가 보았다. 보살님은 여유롭지 못한 대지 조건과 낮은 건폐율로 인해 많은 시설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된 것부터 시작하여, 대법당 내로 자연환기와 일부 자연채광을 유도하는 시설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또 그 위, 아래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중정이 주변 산세와 건물을 연결시키는 의미이며, 내부 설계에서 석굴암을 연상시키는 모티브를 사용한 것과 법당 내에서 되도록이면 자연소재를 사용한 것, 창살 무늬를 사용한 단순한 마감방식이 매달아 놓은 수많은 연꽃 모양의 등들 때문에 산만해 보인다는 것, 상층부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볼트형 지붕을 하였고, 법당 층은 바닥 난방으로 신을 벗어도 발이 시리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 신도들과 사무직원들 간의 분리된 동선이든가 하는 세밀한 설명으로 건축주 쪽에서 건축가의 기본의도를 무척 존중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최대한 지키려 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명심행보살님과 헤어진 후, 필자는 한번 더 건물을 둘러보았다. 밖에서 다시 보고 들어가려는 생각으로 나와 보니, 주차장 입구로부터 끊임없이 출차되는 중년 여인네들의 운전 행렬은 정말 보기 드문 경관이었다. 설법 중에 조심스러워 자세히 둘러보지 못한 대법당 내에는 설법이 끝났는데도 많은 여인들이 각자 절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나이 정도의 여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필자가 농인 선원으로부터 받은 첫 인상은,

1. 차량출입이 너무 단도직입적이다.
2. 건물의 앉음새가 어색하다. 전면의 공간 여유가 전혀 없고 경사가 전면에 형성되어서, 건물의 대칭성이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한다. (광화문과 세종로같이)
3. 전면 중앙의 두 방향(지하로, 지상으로)의 진입 방법이 산만한 편이다.
4. 대칭성과 정형 적인 형태가 의도한 한국적 소박함과 은근함보다는 사뭇 권위적으로 느껴졌다.
5. 화강석의 라스티케이션 마감, 상부 철제기둥과 유리 마감이 변형된 한국 전통적인 모티브들과 혼재되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6. 내부 동선, 특히 하층부와 상층부의 연결이

good points. With such determination, I visited Neung In Sun Won to meet 'Myungshimhaeng Buddhist priest'. As soon as I turned left at the entrance way to Koo Ryong Sa, Neung In Sun won was already right in front of my eyes. Because of sudden, unexpected arrival, I did not get a chance to obtain a distant view of the building. Also, even if I had prepared to see beforehand, because the building is sitting behind a slope next to the road, in case of approaching from Koo Ryong Sa street, it is not directly exposed. At the time of my arrival, the sermon had almost ended, and many buses were preparing to provide rides, lining up in front of the building as if to make a screen, to many believers who would soon pour out. This struck me as even more foreign, because I was more used to visiting temples in mountains, where I would have to get off the bus at the foot of the mountain and walk up quite a while. Approaching in between the buses, the first thing at Neung In Sun Won that caught my attention was the parking lot entrance at the left bottom side. To the right of it was the main entrance. In the middle, there was entrance going down to the main hall, and stairs on the sides led to educational facilities upstairs. Even when going up as indicated on the sign board, how to enter the building was not clear. Under the guidance of Buddhist priest, Myungshimhaeng whom I met at the administrative office, I looked around every little corner of the building. Starting from the part of 'from cradle to grave facilities such as nursery, education room, hospital for the old, and library, I pass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office, main hall, minor hall, cafeteria/banquet hall in the basement, kitchen, and other subsidiary facilities. Also, as soon as the sermon was over, I went up to Buddhist hymn chorus seats, which was similar to choir seats of church in balcony style. The priest explained how, due to not spacious conditions of the site and low building-to-land ratio, many facilities had to be sent down to the basement. He, also, described, in detail the facility that induces natural ventilation within and natural light into the main hall, and even showed me how it works. He commented on how the courtyard connects surrounding mountains and the building, how for interior design Sukgulum motive was used, how as many natural materials as possible were used, and how the simple finishing method that used lattice pattern came to look desultory due to numerous lotus flower shaped lanterns hanging. To give some change in the upper part, bolt-shaped roof was used, and at the level of Buddhist halls, floor heating was used to prevent the feet from getting cold, and also, the circulation of the believers was separated from that of the administrative staffs. Quite different from my visits to other buildings, such specific explanations on the owner's side were sufficient enough to make me feel that building owners have respect for the architect and are trying their best to maintain his intentions in which they have pride.

After parting from the priest, I looked around the building once more. With the intention to look from outside once more, I went out. The parade of cars, driven by middle aged women, coming out of the parking lot was a rare scene that can not easily be seen. Fearing I might interrupt, I had not been able to look around the main hall closely during the sermon, but, even after the sermon, there were many women about the age that have children preparing for college still bowing.

너무 복잡하다.

7. 중정과 자연이 마주보기만 하면 산세와 연결되는 것인가?

일건을 찾아서

위의 의문점들을 안고 황일인 선생을 뵈게 된 날은 마침 능인 선원에 관한 인터뷰를 하시는 날이었다. 직접 만나 뵈고 나서야 황선생이 건축계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를 드리면 항상 흔히 못시던 그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5시쯤 시작한 인터뷰가 9시가 넘도록 계속되었고, 황선생은 지치셨을텐데도 시종일관 미소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다. 건물이 지어지게 된 배경, 건축 전반적인 의견들, 현재의 건축적 관심사와 이전 작품들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위 의문점들의 일부는 설계 상에서도 역시 고민하였던 문제들이었고 그 중 최선의 안으로 결정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약 1,000평 규모의 대지에서 건폐율이 20%밖에 안되는 상황에 주공간이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지상의 약 170평되는 면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배치 대안의 한 예와 같이, 마당이 길을 향하게 되면 산만한 공간이 될 것이거나와 북향의 그늘진 공간이 될 것이다. 마당없이 건물이 대지 중간에 앉는 경우는 건물이 도시와 자연의 경계 역할을 할 뿐 남북의 오픈 스페이스는 흘러나가 버리고 쓸모있는 외부공간이 없다. 주어진 대지 내에서는 현재 앉음새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이해된다. (그래도 전면의 공간이 너무 협소한 듯 하지만, 1,000명의 신도를 수용해야 하는 대법당의 면적 때문에 더더욱 건물 전면에 밀려나온 것일 것이다.) 그런 매스의 배치에서 사람을 지하로 내려보내고

My first impressions of Neung In Sun Won are as follows.

1. The entrance for the vehicles is too direct and straightforward.

2. The building is situated rather awkwardly. Regardless of the symmetry of the facade, there is no space available in the front, and due to ramp in front, the symmetry of the building is not sufficiently revealed.

3. The entrance way dividing into two directions in the front gives quite unorganized feeling.

4. Symmetrical and definite characteristics made the building appear authoritative when compared to the artlessness and implicitness of traditional Korean style.

5. Rustication finishing of the granite, steel columns in the upper part and glass finishing are left colliding with Korean traditional motives.

6. Inner circulation, especially the connection between downstairs and upstairs is too complex.

7. Courtyard does not connect to the nature as intended.

Toward Il-Gun

With above enquiries, I visited Il-Gun to meet Mr. Hwang, Il In, and fortunately, that same day, he was being interviewed about Neung In Sun Won. It was only when I met him person to person that I realized that he was the one always brightly smiling at events of architectural field. The interview that started at 5 o'clock continued till after 9 o'clock, and though he should be quite tired, all through the time, he did not lose his smile. Listening to his explanation regarding the background of how the building got to be built, opinions on architecture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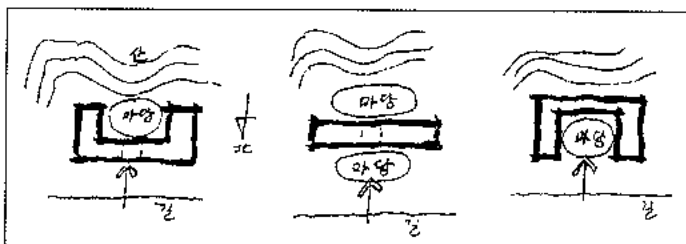
「도시속의 능인선원」 저녁 설법후 신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버스들과 주차장에 주차를 못시키고 길가에 서있는 신도들의 자가용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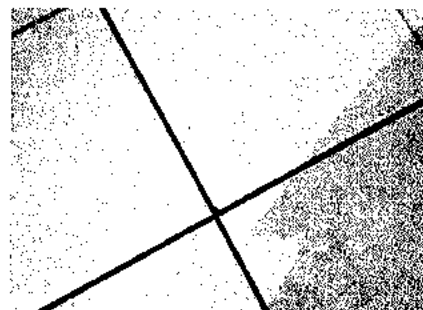
야간의 설법후 출차되는 차량들



질충된 기능과 절충된 양식



배치 대안들. 양재대로와 구룡산 자락이 맞닿아 있는 대지의 조건은 건물을 어떻게 앉히는 나를 결정하였다. 산을 싸안듯한 'c' 자형 배치는 도로의 소음을 차단함과 동시에 건물이 마당을 만드는 벽으로써 작용하여 산과 직접 닿게 하였다.



마당의 확장적 마감

또 마당으로 올려보내는 것을 동시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간 지점이 현재의 중앙 계단부였고, 그로 인해 대청의 필요성이 더욱 확고해진 듯하다. 물론 부처님이 계시는 건물인 만큼 대청에 의한 경건함은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지상의 건물 폭이 7m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계단을 균등한 길이로 해서 그 폭 안에서 동선이 해결되어야 했다.

이렇게 설명하다보면, 왜 그런 배치를 자신이 설정해놓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데 필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설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주어진 공간을 더 바람직하게 쓰도록 하는 사용자의 해석이 있을 뿐이다. 설계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을 충족시켜주는 기본안을 선택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갖고있는 해결 불가능한(부수적) 문제점을 가능한 완화시키거나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족한 설계이다. 건축가가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에 최선책을 강구한 경우에도 계속 그에 대하여 추궁을 하는 건축주는 애초에 다른 인간에 우선하여 다른 기본안을 선택하였어야 하고, 비평가의 경우에는 그 건축가와 건축주가 선택한 주요 인간에 대하여 의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하단부의 화강석 마감은 막돌쌓기를 희망하였으나 판재로 마감하다보니 판재의 정해진 규격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결과에 이른 것 같다. 건축의 시대성은 시대마다 쓰이는 재료가 달라지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언급하면서, 최근에 '유리'에 관해 매료되어 테크놀로지에 관한 관심을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열의로 볼 때 그가 젊은 정신의 소유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콜린 로우는 디자이너를 한 가지만 파고드는 '두더지타입'과 다양함을 추구하는 '여우타입'으로 분류하는데, 아마 황선생은 여우기질이 있으신 분이어서 그래서 그의 지난 프로젝트들에서 일관성보다는 끊임없는 변화가 뚜렷하였던 것 같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의 한 예로, 마당의 화강석 마감은 판재를 띄워서 밑으로 신속한 배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화강석 밑으로는 snow-melting coil이 깔려있어 겨울에도 항상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한국적인 소박함"이 건물 전체에서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내장 마감의 기본개념이었던 것 같다. 필자를 포함한 건축가들이 공유하는 개념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 마당이 산과 단순히 마주본다 하여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건물이 자연을 향하여 U자 형태를 취한다 하여도 자연이 포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녹색이 자연과 가장 어울리는 색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연과 잘 어울리는 구조물은 없다. 단지 자연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구조물이 있을 뿐이다. 파스텔핑크와 아광핑크가 어울리기 어렵듯이 자연 녹색과 인공 녹색도 어울리기 힘든 것이다.

절충의 예술

필자가 발견한 황일인선생은 인간적으로 풍부한 능력을 가진 건축가이다. 지금 건축초년생에 불과한 필자가

general, current interest in architecture and explanations of previous works, I realized that part of above enquiries had troubled him also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that his solutions were best alternatives. He had no choice but to place main spaces in the basement under such situation where only 20% building coverage was allowed in land of 3,300m². How should he go about site planning about 561m² area above ground? AS shown in one example of the site plan alternatives, if the court is located toward the road, not only would it be a rather unorganized space but also, would be a shaded space facing north. In case of situating the building in the middle of the land without a courtyard, the building would only work as the border between city and nature, and the open spaces in the north and south would flow away leaving no useful outer space. Under given circumstances of the site, current site plan can be understood to be most rational. (Still, the space in front seems rather too small; however, it probably resulted from increasing area of main hall that has to take in 1,000 believers.) Within such mass site plan, middle point selected to allow sending people down to the basement and bringing others up to the courtyard at the same time, is current central stairs core, and because of this part, necessity of symmetry was more evident. Also, because this is a building Buddha is, piety achieved through symmetry is considered a required condition. Another reason for such planning is that because the width of the building is only 7 meters, by making the stairs going up and coming down same length, the circulation had to be solved within that width.

Originally, random range ashlar masonry was intended for the granite finishing of the lower part, however, because the finishing was done with board materials, certain sizes of the boards were necessary, and as result, a rather foreign atmosphere was obtained. Mentioning how the epochal characteristic of architecture is much influenced by change in the materials used in each period, he revealed his recent interest in technology, especially that related to 'glass'. Judging from his enthusiasm for something new, he certainly is a proprietor of young spirit. Colin Rowe classifies designers into two groups, one being the 'mole type' that investigates into one thing, and the other being 'fox type' that pursues variety. Perhaps, Mr. Hwang is more of a 'fox type', his works showing endless changes rather than consistency. As one example of his interest in technology, for granite finishing of the courtyard, he set the boards afloat to allow quick drainage, and below the granite, he spread snow-melting coil to maintain it clean even in winters. "Korean simplicity" was not felt in all parts of the building, but, it was the concept for interior finishing. I found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concept that architects including myself also hold in common. They included the fact that just because the courtyard faces the mountain, that does not mean there is connection between them, the fact that even if the building faces the nature in U form, the nature is not embraced, and the fact that the green is not the color that goes best with the nature. There is no structure that goes well with the nature. There only exists structure that least destroys the nature. Just as pastel pink and fluorescent pink do not match, natural green and artificial green do not match.

Art of compromise

Mr. Hwang that I discovered was an architect of abundant humane capacity. What I, as a starter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것은 건축가의 역할이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규모와 복잡함의 차이는 있지만)건축은 오페라와 같다. 오케스트라단원들, 성악-연출가들, 안무-무용가들, 여러 디자이너들(의상, 무대, 조명, 그래픽, 등등)과 안내원들, 휴식시간의 음식준비와 웨이터들, 그 외의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작품으로 오페라를 계획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조화로운 협동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건축의 가장 어려운 부분 또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통솔함이다. 우리 건축학도들은 특하면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설계안들을 많이 내놓지만, 능인 선원이나 사랑의 교회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들을 지하로 내려보내도록 건축주측을 설득한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사랑의 교회를 착공할 때, 건축 반대 시위를 하는 인근 주민들을 건축안 설명으로 설득하여 돌려보냈다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다. 건축은 절충의 예술이다. 건축과 관련된 수많은 여건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절충하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건축가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한다면 아마 완성되는 건물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건축가는 사람을 다루는 예술가이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살리는 균형을 맞추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견을 남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이 예술적인 차원으로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안도 다다오'의 건물이 보기는 근사하고, 그의 건축주를 설득하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노출 콘크리트 건물은 사용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작가적의도가 더 중요시 여겨진 건물이라 생각한다. 그에 비하면 능인 선원은 건축주와 건축가의 의견이 절충된 건축물이다. 불교의 법식(장엄 장식)은 여간해서 변형시키기 어려운 격식이라 한다. 사실 도심 내의 많은 불교 건축물들이 전통적인 불교건축양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이유가 엄격한 법식 때문일 것이다. 능인 선원의 경우에도 건물이 절 같은 건물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필자는 가끔 다양한 실험적 형태의 도심내 현대 사찰계획안들을 접하지만,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 안들 중에서 실제 지어지는 안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막상 건축주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 절 같지 않은 건물들이 지어지겠지만, 맞은 편에 자리잡은 구룡사와 비교하더라도, 능인 선원의 가장 큰 의미는 현대도 시속에서도 고정된 사찰 형태를 벗어난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변형은 능인 선원이 격식으로부터 탈피한 것에 비하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유명한 능인 선원

황일인 선생님을 뵈고 며칠 후, 필자의 사촌을 케가 쓴 에세이집을 전해 받았다. 중년 여성의 일상에 관해 쓴 글들을 급히 훑어보던 중, "능인 선원"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을 옮겨보면, "설교로 유명하다는 어느 교회를 나가보고 능인 선원이란 절을 다녀도 보았다. 그뿐인가. 삼재가 들어온다는 해에는 서슴지 않고 점술가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능인 선원 스님, S대 공대를 나오시고 신문기자를 하셨다는 그 스님의 설법 역시 대학 강의를 방불케 하는 유머, 재치가 결집된 명설법이였다. 그리고 내 짧은 지식으로는 인과응보란 진리가 몹시 마음에 들었다. 현세에 불행을 당하더라도 '오, 이것도 내가 전생에 저지른 죄값이려니'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도 덜하지 않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sincerely feel is that the role of architect is not simply desiging and supervising beautiful architectures. Architecture is like an opera (though, of course, it is more complex). In planning out an opera, as a cooperative work of numerous people such as the orchestra members, singers, directors, choreographers, dancers, various designers(clothing, set, lighting, graphics, etc.), ushers, and waiters at cafeteria during intermission,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thing is accomplishing harmonized collaboration among all these people. In architecture, also, the most difficult thing is persuading and supervising people. We, architecture students, quite often find solutions for many projects in using basement spaces. However, persuading the building owners to send most facilities down to the basement as shown in Neung In Sun Won or Church of Love is not something that could be taken lightly. At the beginning of construction for Church of Love, the residents near by demonstrating against the building were persuaded to quiet down after hearing the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the project. This is something. Architecture is art of compromising. It is outcome obtained by compromising numerous architecture related conditions and opinions of numerous people. If the architect insists on only his own opinions, probably, there would be almost no building being completed. An architect is an artist that deals with people. Achieving a balance that saves to maximum his own opinions while at the same time accepts opinions of others, and making others understand his position when necessary are hard in the artistic dimension. For example, buildings of Ando Tadao appear 'cool' and he has excellent ability of persuading the building owners, but, his exposed concrete buildings are those that put more importance in the design value than in consideration of users. Compared to that, Neung In Sun Won is an architecture that compromised the opinions of both the users and the architect. Buddhist decorations are except in very special cases, preferred not to be altered. This is the reason why most Buddhist buildings within the city have not escaped much from the traditional Buddhist architectural style. In the case of Neung In Sun Won also, such temple like building was requested. I, from time to time, come across modern within city temple proposals that have experimental forms. However, I am doubtful as to how many of those would actually be built. The question comes down to whether or not it would be possible to persuade the building owners. In the future, buildings that have escaped even farther from temple-like features would be built; however, just by comparing to Koo Ryeong Sa across the street, it could be said that Neung In Sun Won has broken the fixed ideas of temple forms. This holds most meaning. Alterations appearing from now on would be much easier when compared to Neung In Sun Won's breaking away from established forms.

Well Known Neung In Sun Won

Several days after the interview, I received a book of essays that my sister-in-law wrote. Reading through the writings on daily life episodes, the word "Neung In SunWon" caught my attention. The content was as follows. "I have been to a church famous for the sermons, and I also attended a temple called 'Neung In Sun Won' for a while. That is not all. In the year of Three Disasters, I, without hesitation, visited fortune tellers. The Buddhist priest of

겠는가.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자기의 책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아주 과학적이란 생각이 들었다(주연아, 시보다 짧고 사랑보다도 긴). 필자의 생각에도 능인 선원 이전의 사찰들과는 다른 좀더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불교기관이라고 생각된다. 현대불교의 문제점에 관한 서적들에서 논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세상이 변화하여도 변함(그들의 표현으로는 발전)이 없는 포교체제에 있는 듯 하였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다가가는 현대의 종교로서 살아남는 것조차 의심하기도 하였다.

한국불교는 최근까지도 - 현재에도 그러한 경향이 잔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 '처녀불교', '할머니불교'라고 칭해지기도 했다. 한국 불교는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가족의 행복을 바는, 다시 말해 신자는 대부분 노인층 어찌하고 신형형태는 주로 가족을 위한 가족적 신앙이라는 것이다. 이는 젊은 층과 남자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가족만이 아니라 사회적 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기독교계와 대비하여 흔히 불교에 대한 편평적인 평가의 밑인 것이다. 불교의 이러한 면은 기독교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재에도 대체로 사실이라 하겠으나 그래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에는 새로운 모습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불교 1,600여년의 역사상 처음있는 아주 주목스러운 일로 '교육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이 교육운동은 크게 분류하여 청소년부교, 乳, 幼, 兒, 敎, 育, 각종의 대학·학당·강좌의 개설, 2종의 인쇄매체의 보급, 방송운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능인 선원도 위의 교육운동에 기여하는 주요한 종교단체의 하나인 것이다. (박선영, 한국의 사회변동과 불교의 교육운동)

그런데 본 줄거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가족신앙의 근본은 어머니들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이었지만 하는 집안의 어찌로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우리의 어머니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점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으리라. 요새 텔레비전 인기드라마인 '황제의 강'의 신념에 어머니가 항상 기도 드리는 '영동할매'가 한 예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는 그저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가장 헌신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식들이 부당하게 잘되기를 바라는 비요리적인 기도는 아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자식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것을 보아, 그렇기 우리 나라의 기독교에서도 가족신앙의 문제점을 가늠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나라는 모성애가 강한 나라인 것이다. 그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나라를 지켜온 근본정신 중에 하나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영이들이 자식사랑이 지극한 이상 우리의 가족신앙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무력하다고 비난하는 지체가 문제인 것이다.

그것에 비하여 능인 선원이 갖고있는 시스템은 불교의 원래 형식이 기독교 또는 천주교(지광스님이 이전에는 천주교신자라?)의 형식과 절충된 듯하다. 법당 입구 진열대의 주보와 능인 선원 신문,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강조하는 지광스님의 말대로 선원내의 유치원과 학생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마치 필자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여러 복지시설과 흡사하다. 그것에 대해 필자는 대승불교가 현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긍정적인 대안으로 생각한다. 그 기능 면에서 절충되고 변화된다면, 기능을 담은 건축물에서 양식적으로 절충됨을 보여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 능인 선원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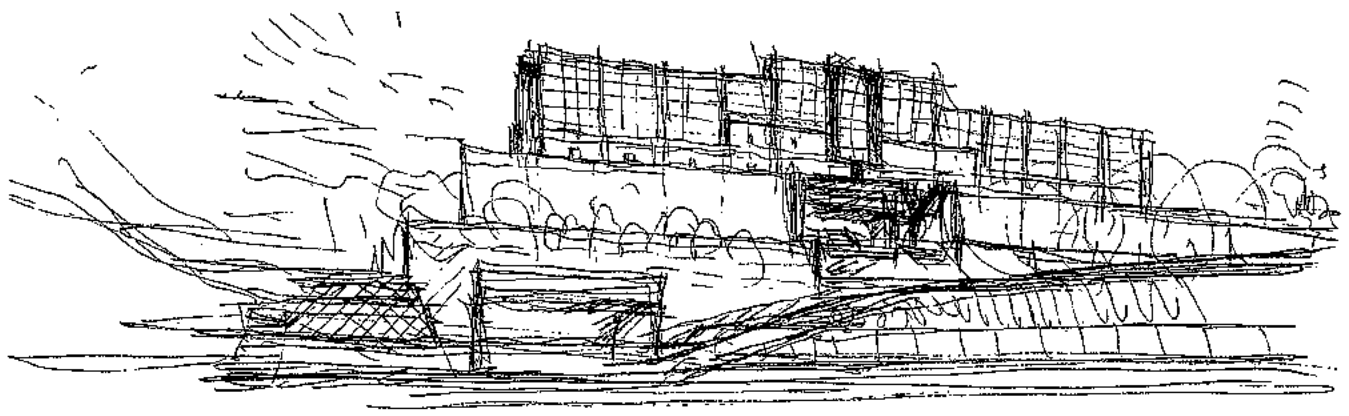
Neung In Sun Won, who graduated the Engineering Department at S University and had been a newspaper journalist for a while, gave very sophisticated sermon with sense of humor and wit that reminded me of college lectures. With my short knowledge, I was attached to the true principles of 'a reward in accordance with a deed'. Even if one suffers a misfortune in this world, wouldn't it lessen the burden if he thinks as he is paying for his sins in the former life? Don't all principles and reasons of life come out from one's own responsibility? I felt it was a very scientific reasoning."

I, also, agree that Neung In Sun Won is a Buddhist organization that more actively approaches the believers in more scientific system, unlike that of previously built temples. The biggest problem discussed in publications that deal with problems of modern Buddhism lies in maintaining the propagation system unchanged regardless of the continuously changing world. Some question its ability to survive as one of contemporary religions, if it is processed on in this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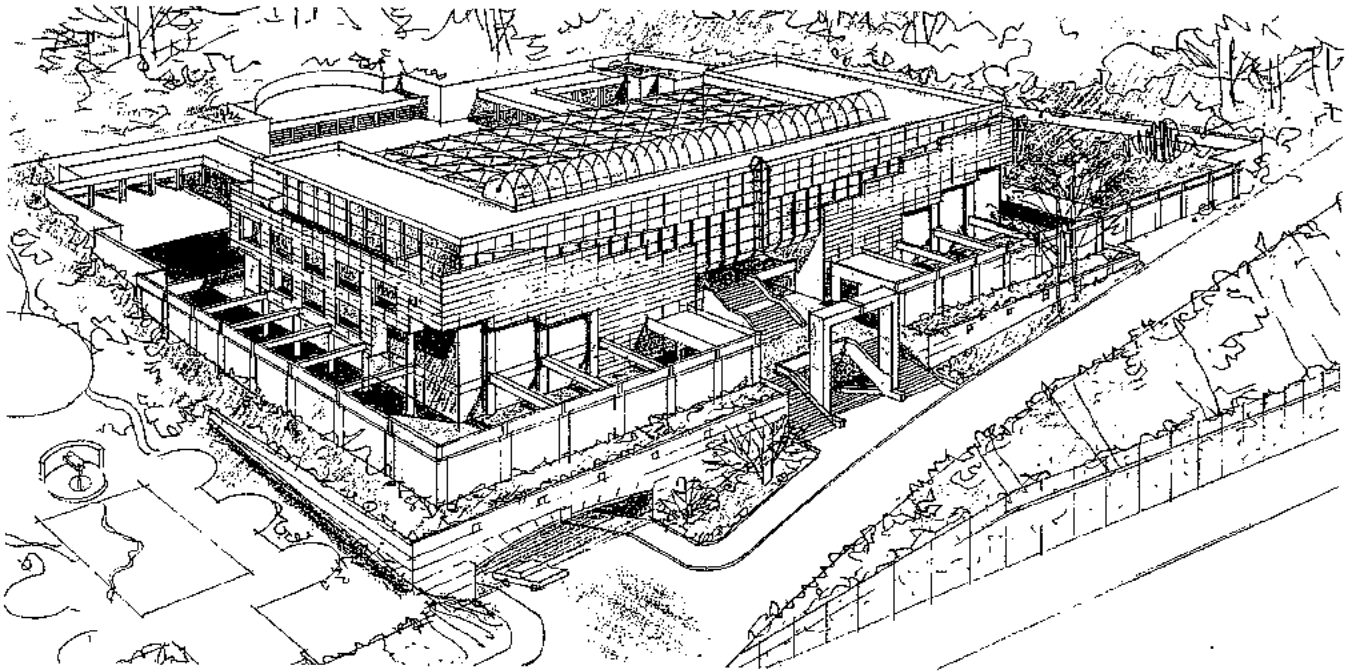
Even up till recently - even at present, such tendency exists, Korean Buddhism was called 'skirt Buddhism' or 'grandmother Buddhism'. Most believers of Korean Buddhism were women, mostly of old age, that pray for happiness of their families, with undulating faith pattern. Such comment, I believe, came from biased opinions that compared Buddhism to Christianity where the believers are composed mostly of young generation and men and where much interest is concentrated not only in family but also in social problems. Though even at present such characteristic of Buddhism relatively still exists, however, it could be said that much has changed nowadays. New appearance of Korean Buddhism has begun. This is something that could be called an 'educational movement' first to be enforced in 1,600 years of Korean Buddhism history, and worthy of much attention. Such educational movement includes propagating teenagers, educating infants, starting various college, school lectures, distributing various press materials, operating a broadcasting company, etc. Neung In Sun Won, also, is a religious organization that contributes to above educational movement. (Park, Sun Young, Korean social movement and Buddhist educational movement)

This is a comment that departs from the main subject, but, the undulating faith existing in our country can be considered to have originated from mothers.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passive housewives are not given opportunities to solve problems actively, perhaps, only thing that our mothers could do was to pray. An example can be found in currently popular soap opera, 'River of the Brothers', where the mother of 3 children always pray to 'Youngdong Grandpa'. Such prayer has its routes in sacrificing love of the mother wishing for welfare of her children, and thus, it is not an unethical prayer of improper request. Any mother that sincerely loves her child would not hope for her child to arrive at desired status through wrong ways. Even in Christian groups of our country, problem of wishing-luck-faith is being discussed. AS we can see from that, Korea is a country of strong maternal affections. This is one of the fundamental spirits that protected our country in times of difficulty. If so, as long as our mothers continue to have strong attachment to their children, our wishing-luck-faith tendency will not disappear, and the act of recklessly criticizing it, itself, will become a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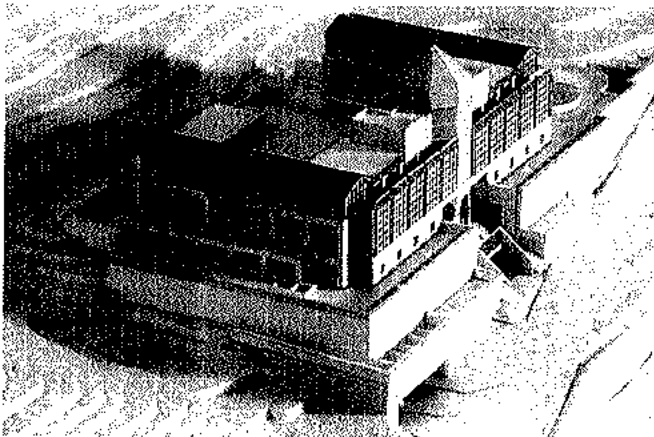
Compared to that, the system that Neung In Sun Won has seems like a compromise of original Buddhist style and Christian or Catholic style. The service order leaflets and Neung In Sun Won newspapers exhibited on the display table at the entrance of main hall, the ser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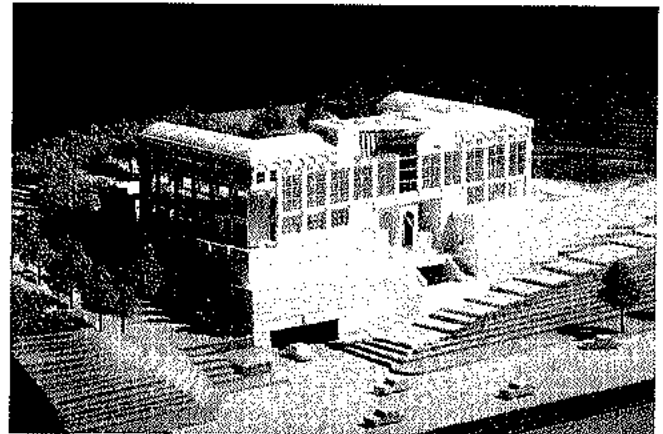
초기입면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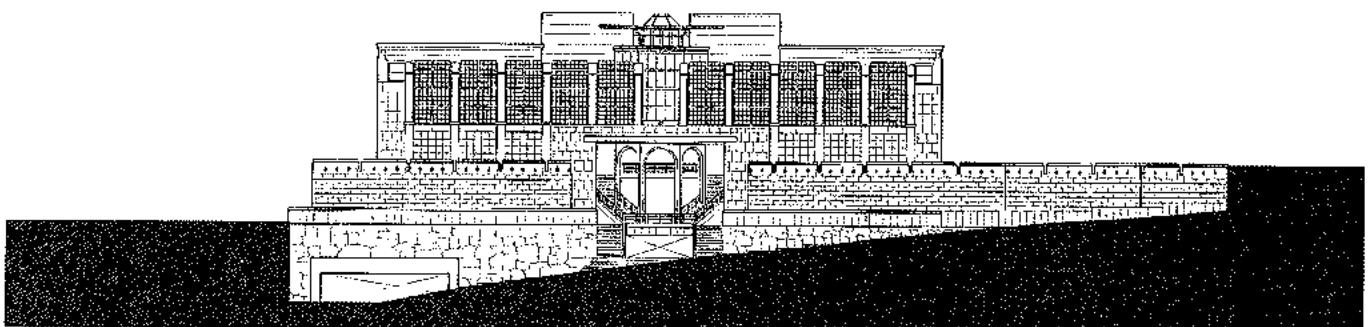
초기 대안 스케치



초기 변경안



최종안



정면도

시스템을 단편적으로 적용해보고 있는 단계라 할 때, 우리의 건축 역시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요소들을 단편적으로 차용해서 쓰는 단계라는 것 또한 같은 이치이며, 이 단편적인 성격은 우리 문화의 곳곳에서 같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동양문화는 근본적으로 단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양의 단편성과 수입된 서양의 체계성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문화를 우리는 맞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필자의 사교의 체계 속에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바탕에 미국에서 배운 서구적 사교본성이 뒤섞여 있을 것이다.

공자가 간단명료하게 한 구절로 맺은 말(주제)을 만일 서양의 학자가 취급했다면 10페이지는 쓸 것이라고 임어당(林語堂)이 한 말을 되새겨보면 동양의 학문은 서구의 조직과 논리학과 같은 체계의 학(學)이 아니고 명상적이고 직관적인 경구(警句)의 집합같은 경향이 있다. 불교사에서 천태종이 발달했다는 말하고 화엄종이 발달하고 또 다음에는 이미티의 티락산옹이 등장했다는 반야대론의 선종이 등장하여, 역사적인 현실채원과 실현 속에서 시련을 겪으며 성숙해가지 못하고, 연속성을 상실하고 망쳐서 그만 고전화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한다. 이 단편주의, 자연주의, 신재성, 비역사성, 비연속적인 동양의 특양 속에서 그나마 유지되어 온 불교를 다량으로 여기게 된다. 한국 기독교인의 30퍼센트가 정을 치러 다닌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성경해석의 사상적 예니치의 공공을 전적으로 사암학자의 노고인 방대한 유산에만 의존할 수 있는 행운아들이다. 그뿐아라, 기독교는 서양의 신인사회, 활동적인 사회, 논리와 역사주의의 조직사회 속에서 많고 많은 세말 동안 이미 이루어 놓은 세련된 숙련공과 같은 종교제도를 그대로 옮겨다 사용하기만 해도 되는 그런 행운아들이다. 게다가 한국사회도 더욱 서양화되어 가니 사암종교가 적응하기에는 금상첨화 격인 듯하다. 이에 비하면 천 수백 년 동안 변화없이 지내온 고유한 동양적 농경사회의 자연상태 속에서 익숙해 온 동양의 한국불교가 6·25이후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체질도 구조도 전혀 다른 서구의 신인명명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에 내던져진 격이 아닌가? 물론 우리 자신의 부족 탓이기도 하였지만 거대한 종단이 그렇게 민첩하게 적응하기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류양, 한국불교의 세 일 굴)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기존의 것을 버리고 혁신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서양의 기준에서 단편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왜 단편적인 것이 나쁜 것인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무엇인가? 좋은 것인가?

도시 속의 능인 선원

능인 선원을 통해 현대 도시 속의 종교가 갖는 의미와 용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이전의 전통 사찰에서는 사찰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 진입의 중요한 의례적인 한 부분이었고, 세속적인 공간에서 종교적인 성스러운 공간으로의 전이됨이 조용히 이루어졌었다. 그 전이선으로부터 주공간까지의 이동 또한 점차적으로 마음을 씻어내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반면 능인 선원 전면은 적극적인 신도들과의 만남을 보여주고

nursery within the temple and students, facility for the aged, all these features are quite similar to those of the church that I attend. I view such tendency as a positive way to adapt to current situations of Mahayana Buddhism. As far as functions are concerned, if compromised and changed, it seems only natural to also show compromise in architectural styles that hold such functions. If Neung In Sun Won is still in the trial period fragmentarily applying the new system, our architecture, also, is in the stage fragmentarily borrowing elements of tradition and modern architecture. This fragmentary characteristic is a phenomenon experienced in different fields of our culture.

Basically, oriental culture is considered to have fragmentary characteristics. But, from now on, we will find culture in which fragmentary characteristic of the East and the imported systematic characteristic of the West form a harmony. Now, even in my thinking systems, the way of thinking that I inherited from my parents and that of Western style which I learned living in U.S. are mixed together. If a Western scholar is to deal with what Confucius expressed in one brief sentence, he would have to write at least 10 pages. If we refer to what 'm Uh Dang said, studies of the East are not systematic studies like the structural logics of the West, but rather, are like the union of meditative and intuitive aphorisms. In the history of Buddhism, Chuntaejong is developed and stopped, then, Hwaumjong is developed, and then, Amida Buddha appears next, then, Prajna-para Zen Buddhism appears. With all these experiments and trials of experience, maturing was hindered and continuity was lost, becoming classic. This is the biggest weakness of Buddhism. It should be considered fortunate that Buddhism has survived in the oriental soil that has such fragmental, natural, sporadic, anti-historical, and anticontinuous character.

Thirty percent of Korean Christian population have consulted fortune tellers. Christians in Korea are very lucky ones that can simply bring over and use the sophisticated and skilled religious policy that the industrial society, the active society, and the systematic society of logic and history of the West have accomplished throughout many years. In addition, since Korean society is becoming more and more westernized, it would be most desirable for western religion to settle in. Compared to this, the oriental Buddhism of Korea, that is used to unchanging character of Asian farming society that lasted for hundreds of years, is thrown into the epochal whirlpool that is fastly changing to western industrial civilization of totally new structure and constitution. Of course, there would be some responsibility in one's own lack of ability; however, it will not be convenient for such a huge religious mass to quickly adapt to such situation.

(Hyu-Am, New Face of Korean Buddhism)

There can be two attitudes in accepting change. One is taking in the new gradually based on the existing, and the other is abandoning the existing for revolutionary change. At present, both phenomena are occurring at the same time for us. Though under the Western standard, that which is fragmentary is accepted negatively, why is something fragmentary so bad? What is development? What is good?

Neung In Sun Won within the City

Through Neung In Sun Won, I got to think over the meaning and function that religion within modern city has. In previous traditional temples, marking the territory of the temple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entrance, and transfer from worldly space to religious sacred space is quietly achieved. Movement from that line of transfer to main space, also, is an important process that cleans out the minds gradually. On the contrary, the facade of Neung In

있다. 이 건물 전체에서 기능적 성격이 가장 강조된 부분이 전면이 아닐까한다. 앞에 도착하면 먼저 눈에 띄는 주차장 입구, 대법당으로 내려가는 것과 동등하게 강조된 부대 복지시설로 올라가는 진입로, 한국적인 열주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건물을 소음으로부터 지켜주는 기능을 갖는 전면 스크린이 그러하다. 하단부의 확장적 마감은 이탈리아 팔라조 하단부의 러스티케이션으로, 위의 스크린과 함께 전면 이미지를 더욱 권위적으로 만든다. 심산 사찰의 긴 진입부를 압축시켜 대웅전의 이미지를 외부로 노출시킨 셈이다. 조선시대에 불교억압을 피해 들어간 사찰도 아니고, 신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자광스님의 의도를 고려해보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부처님의 권위성을 전면으로 노출시키는 것 또한 효율적이다. 사용자 측에서도 "실제 지상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전면이 웅대함"을 자랑거리로 삼았다. 이전의 사찰에서는 여러 개의 작은 매스로 나뉘어져 선적인 공간 경험을 유도했다면, 그 여러 기능들이 수직적으로 쌓이면서 효율상 방향 선택을 하도록 되어있다. 바쁜 현대 도시생활에서 지체없이 '여기는 장엄한 곳이다'라고 알리는 전면에, 필요한 용도를 선택해서 빨리 이르고 나올 수 있는 압축 동선이 중앙에 모여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시간이 계속되는 인터뷰 중에 한 여자분께서 틈틈이 들어와 차와 요구르트를 챙겨주었다. 매번 필자에게 먼저 주시는지만 필자 앞에 놓인 커피를 황선생 앞으로 옮겨놓으니 황선생께서는 다른 (간양)차를 드시라하시고 조용히 멀리하는 것이었다. 그 여자분께서는 수수한 차림으로 황선생을 극진히 챙기는 것이 역력하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에 누구시냐고 물어보니 황일인선생의 부인이시라는 것이다. 필자가 무슨 탐정같이 추리를 하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인께서 지극히 바깥분을 아끼고 존경한다는 것을 다스려보면 황선생이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살아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인터뷰가 다 끝나고 자정 10시 가까이 일과시계를 나오며 황선생이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옛날에 나는 우리 캡틴이 '너 이거 왜 엉해?' 하는 소리 한번 안 들었지. 알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밟고 일하는 것이었고 우리 세대는 일 속에 묻혀 살았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황일인선생이 열심히 살아오신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건축가가 처한 제반여건이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곳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의 여건들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모든 건축주나 건축관련인들이 건축과 학생들이 되어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더 열악한 여건들 밑에서 선배건축가들이 활동 온 것으로 알고있다. 즉, 우리나라의 현대건축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그들이 맡아왔다. 이만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마련해온 것이다. 능인 선원 명심행보살님처럼, 건축물을 사용하는 이들이 건축가의 의도를 그대로 옮겨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건축가의 의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자부심으로부터 좋은 건축물의 해석은 시작된다.

Sun Won shows active meeting with the believers. Perhaps, the part of this building that most emphasizes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 is the facade. The parking lot entrance, the way going down to the main hall, and equally stressed entrance way going up to subsidiary facilities, and the facade screen that has the function of protecting the building from noise, all are like that. The granite finishing of bottom part, as rustication of Italian Palazzo bottom part, makes the facade image more authoritative along with above screen. It is almost as if the long entrance way of mountain temples has been compressed, revealing the image of Dae Woong Jeon to outside. Since it is not a temple that believers escaped to in the days of Buddhism oppression in Chosun Dynasty, it may be a more effective idea to reveal the authority of Buddha directly on the facade, to correspond to Ji-Kwang priest's intention to approach the believers more actively. The users, also, held pride in "the facade which is grand compared to the scale of actual building above ground". In previous temples, the architecture was divided into several smaller masses inducing a linear space experience. In comparison, here, various functions are built up vertically allowing efficient selection of direction. To prevent any delay in this busy modern urban life a facade informing 'this is a solemn place' and compressed circulation enabling fast movement according to one's need have been gathered in the center.

In Conclusion

During the interview that went on for several hours, a lady came in time to time offering coffee and drinks. Once, she gave me the coffee first, and I forwarded it to Mr. Hwang implying he should have it first. She stopped me saying Mr. Hwang must have more healthy tea. It was obvious that the lady in conservative outfit cared much about Mr. Hwang. After the interview, I asked who it is, and to my surprise, I found out it was his wife. I am not trying to play detective or anything, but, Mrs. Hwang very unawkwardly and unaffectedly showed her respect and care for her husband. In other words, I could read from his wife's attitude that Mr. Hwang is doing his very best even in his most daily life.

Stepping out of Il-Gun building at around 10 o'clock after the interview, Mr. Hwang made such comment. "In the old days, I never even once heard my captain yelling 'Hey, why aren't you doing this?'. When given a work, it was only natural to work overnight. Our generation lived buried in work." There, of course, would be many places where the various circumstances that the architect is subject to are worse than those of our country. However, the situation in Korea are quite severe and can not be ignored. It is as so at present, and will continue to be as so unless all building owners or architecture related people have been architecture students. In the past, our senior architects had worked in even worse conditions. That is to say, they had taken responsibility of the most difficult stage of our modern architectural history. Their effort that enabled us to do architectural designing in at least this much improved circumstances can not be neglected. It is not often that building user can explain as it is the intention of the architect, like Myungshimhaeng Buddhist priest of Neung In Sun Won. It signifies that the user has that much pride in the architect's intention and from such acknowledgements, good architecture begins.

성공회대학교 종합관

SungKongHoe University General Hall

김석철 / (주)아키반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eok-Chul

건축은 대지에서 출발한다. 새로이 첨가된 건축물은 대지의 기운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며 대지가 가진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무량수전 앞뜰에서 내려다본 안양문이 주변의 풍광에 감동을 더하듯 건물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때 건물과 대지는 일체가 된다. 늘어나는 학생들을 위한 새 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체 학교 부지내에 필요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빈자리라고는 현재 종합관이 들어선 곳 정도였다. 거칠기 경사진 대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두가지를 생각하였다. 첫째는 이 협소한 경사지에 어떻게하면 대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건물을 앉힐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일전에 아키반의 설계로 완성된 본부, 도서관 그리고 기숙사로 둘러싸여진 광장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합관으로의 공간적인 연결을 만들어 주느냐하는 것이었다. 건물의 볼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지를 폈다. 경사면 쪽으로는 2개층이 땅속에 묻혔다. 이 부분에 빛과 공기를 주기 위해 선큰공간이 도입된다. 이 공간은 지하1층의 출입구와 일직선상에 놓이며 상승하는 계단에 의해서 상부로 이어진다. 선큰공간을 만들기 위한 2개층 높이의 옹벽이 완성된 후 건물과 선큰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원래 대지의 모습대로 복원된다. 대지의 원형을 보존하고 싶기 때문이다. 선큰공간은 건물내부의 복도와 평행하게 흐르는 2개층의 갤러리에 의해 상부로 지속된다. 건물의 내부와 외부가 하나의 얇은 벽으로 구축되는 것과 달리 갤러리와 선큰공간은 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공간적인 깊이를 제공해준다. 갤러리는 또한 복도라는 내부공간에 대응하는 내부적 외부공간이며 주변의 자연을 경험하는 장소가 된다. 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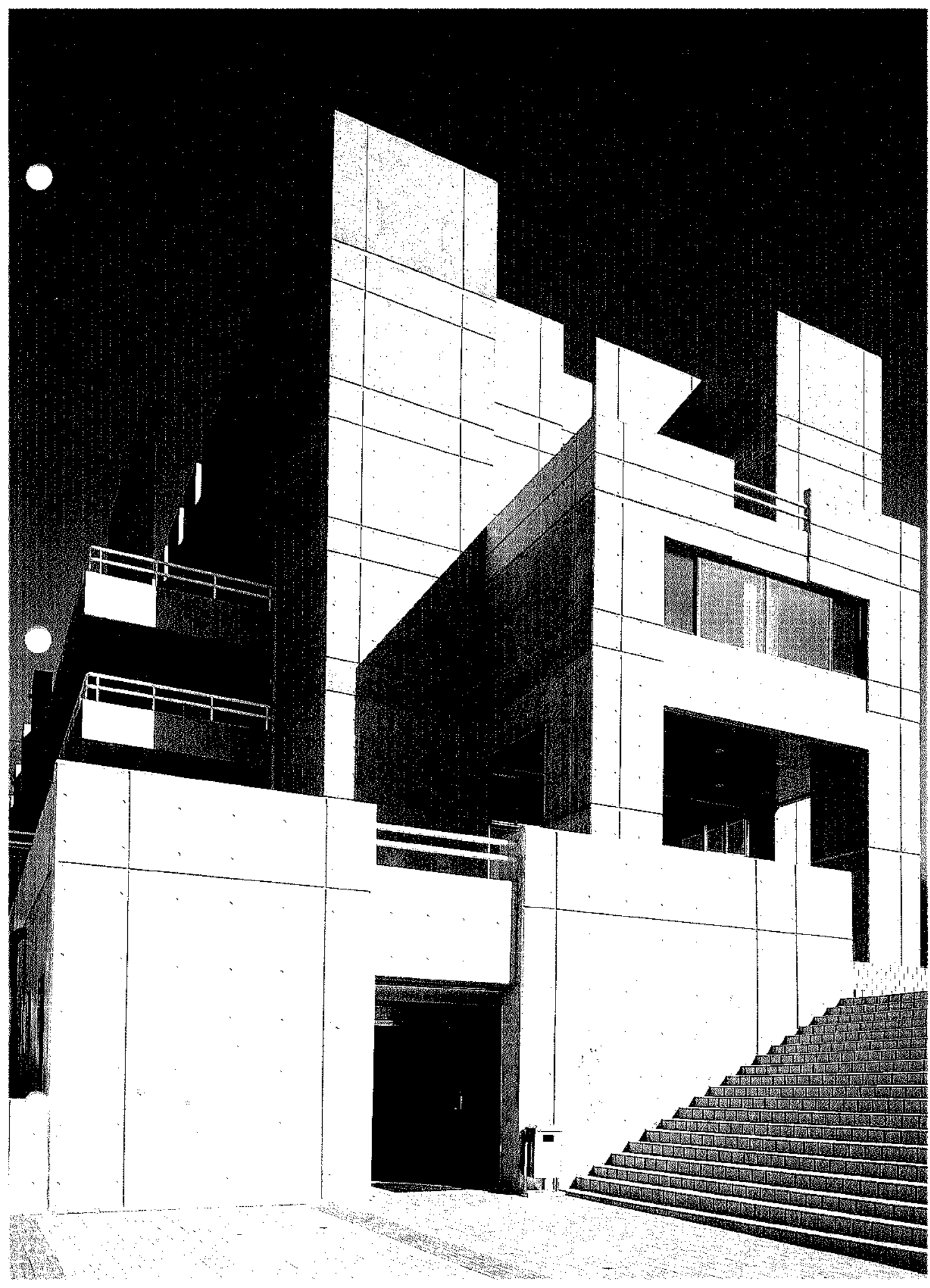
러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버려졌던 동산은 자기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공간은 흐른다. 본부광장은 대학정문으로부터의 공간의 흐름이 정점을 이루는 이 학교의 중심공간이 되었다. 여기서 일단 머문 흐름은 다시 도서관과 기숙사 사이의 모서리에서 작은 파빌리온과 마주친다. 몇단의 계단위에 서있는 파빌리온은 본부광장에서 종합관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초점이며 파빌리온에서 뻗어나간 회랑은 종합관의 내부로 이어진다. 파빌리온의 내·외로 들어올라가는 계단은 경사를 처리하기 위한 수직 옹벽의 높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준다. 경사지 반대편에서 드러난 건물은 아직도 너무 높았다. 그래서 최하층 1개 층을 기반으로 처리하여 본체의 높이를 감소시키는 시각적 효과를 주며, 또 이 계단은 기존 기숙사 건물의 3m 높이의 옹벽과 연속된다. 정면의 거대한 계단은 1개층의 높이를 공간적으로 연결해주며 계단위의 돌출된 포티코와 함께 건물정면에 상징성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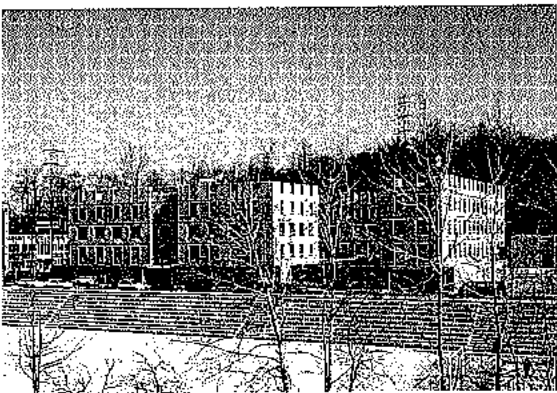
결국 이 건물은 기단, 갤러리, 파빌리온과 본체로 구성되며 다양한 내부적 외부공간을 만들어 머물고 싶은 장소를 제공한다. 건물의 내부공간은 가장 효율적인 중목도 형식을 취한다. 중목도의 양끝에는 화장실과 계단으로 구성된 홀이 위치하며 이곳에서 빛이 들어와 중목도의 어두움을 완화시킨다. 중목도를 형성하는 2열의 기둥을 묶어주는 넓적보와 외곽부의 콘크리트 옹벽위의 테두리보에 의해서 건물전체의 길이를 흐르는 한 방향슬램이 온전히 지지된다. 이렇게하여 노출천정으로 처리된 공간은 중간에 보가 없는 형태로써 자유로운 칸막이 벽과 3m의 층고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높이를 가진 방을 가능하게 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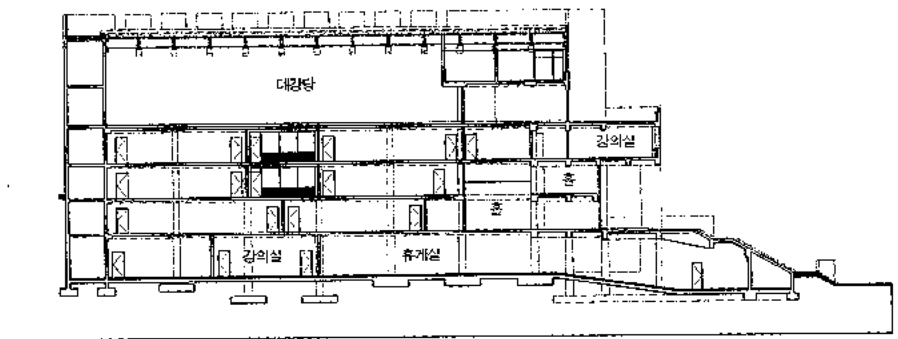
위 치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외 5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학교용지
대지면적	28,220㎡
건축면적	955.2㎡
건 패 율	16.11%
연 면 적	4,482.06㎡
용 적 률	40.77%

규 모	지하1층, 지상 5층
구조방식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철골조
주요내장재	바닥-우레탄, 비닐시트, 비닐타일 벽, 천장-비닐페인트
주요외장재	벽-노출콘크리트 지붕-콘크리트, Poly-Deck 패널
계획담당	박창근, 오동진, 우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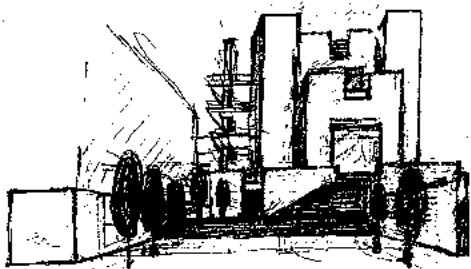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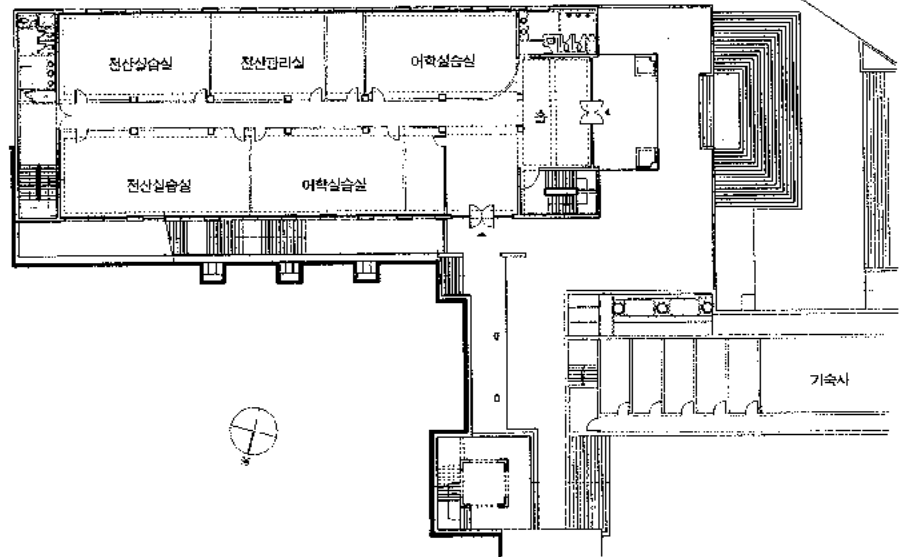
학교전경



형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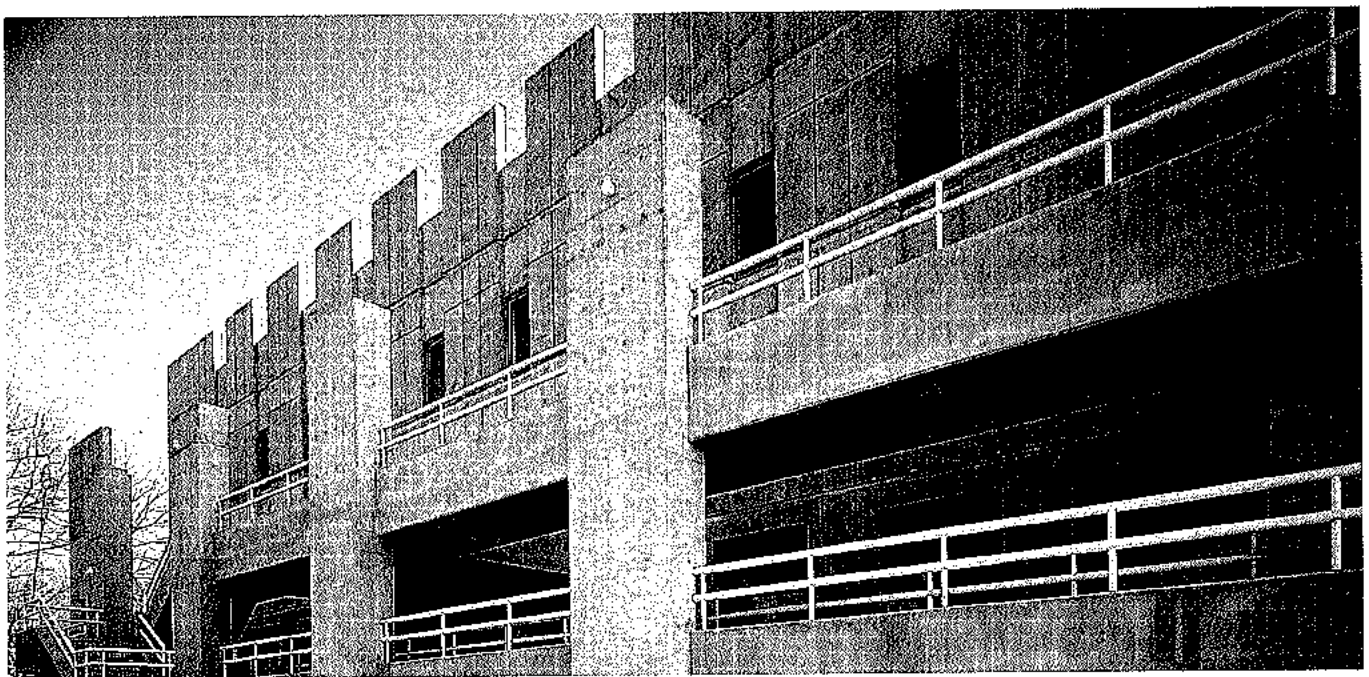
개념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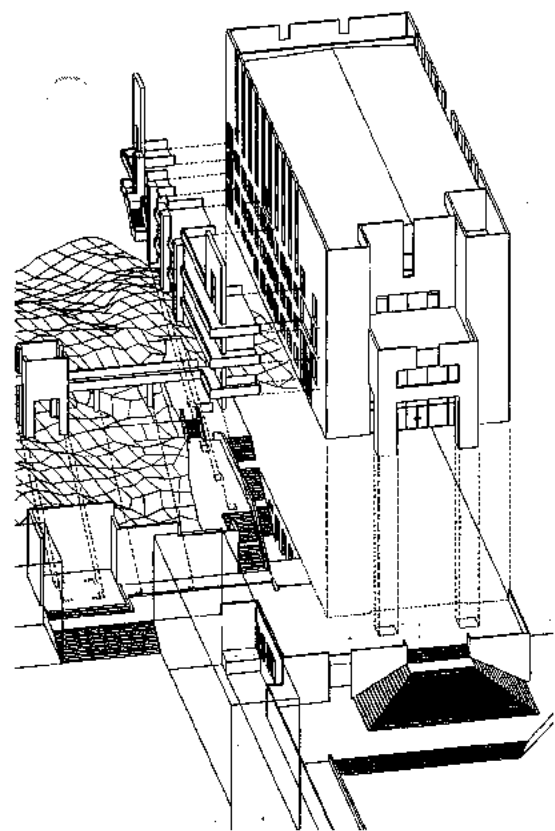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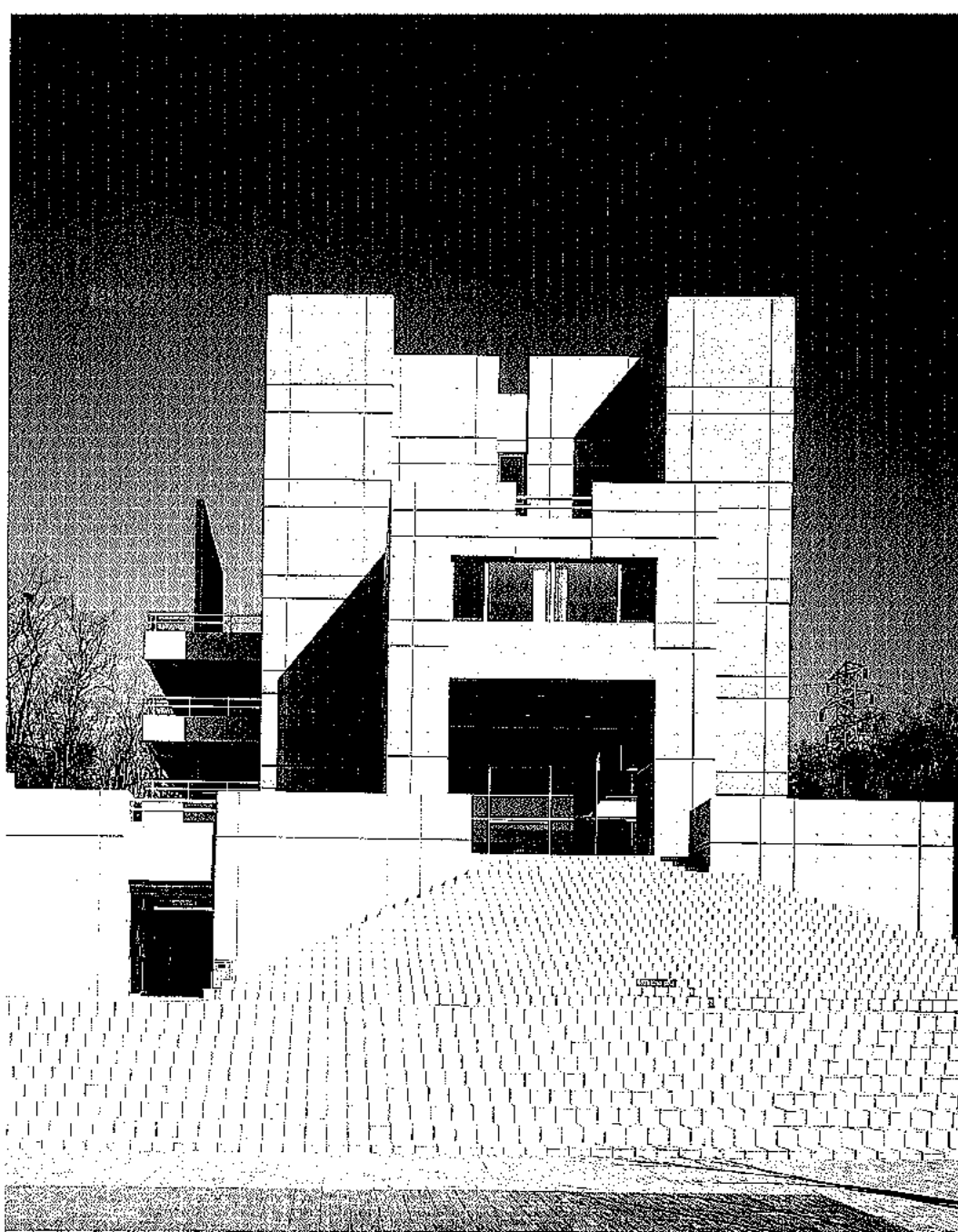
개념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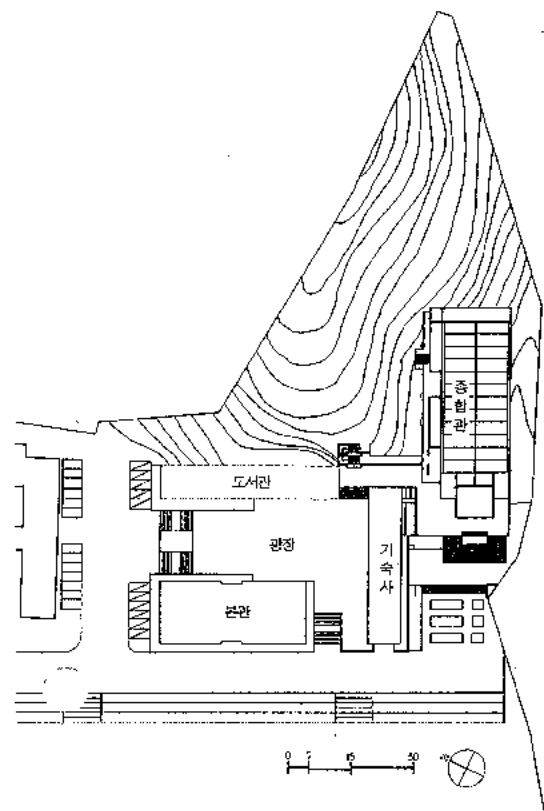
동측 벽면 및 계단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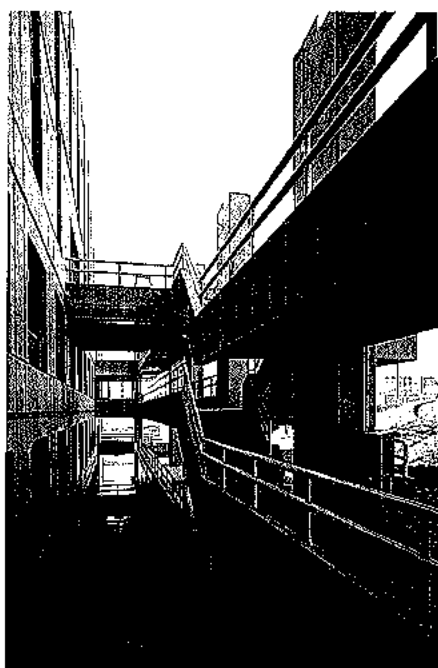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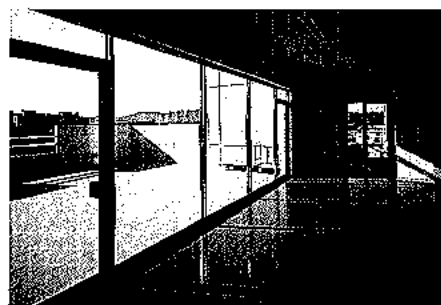
배지도



남측에서 본 외부계단실



1층 주출입구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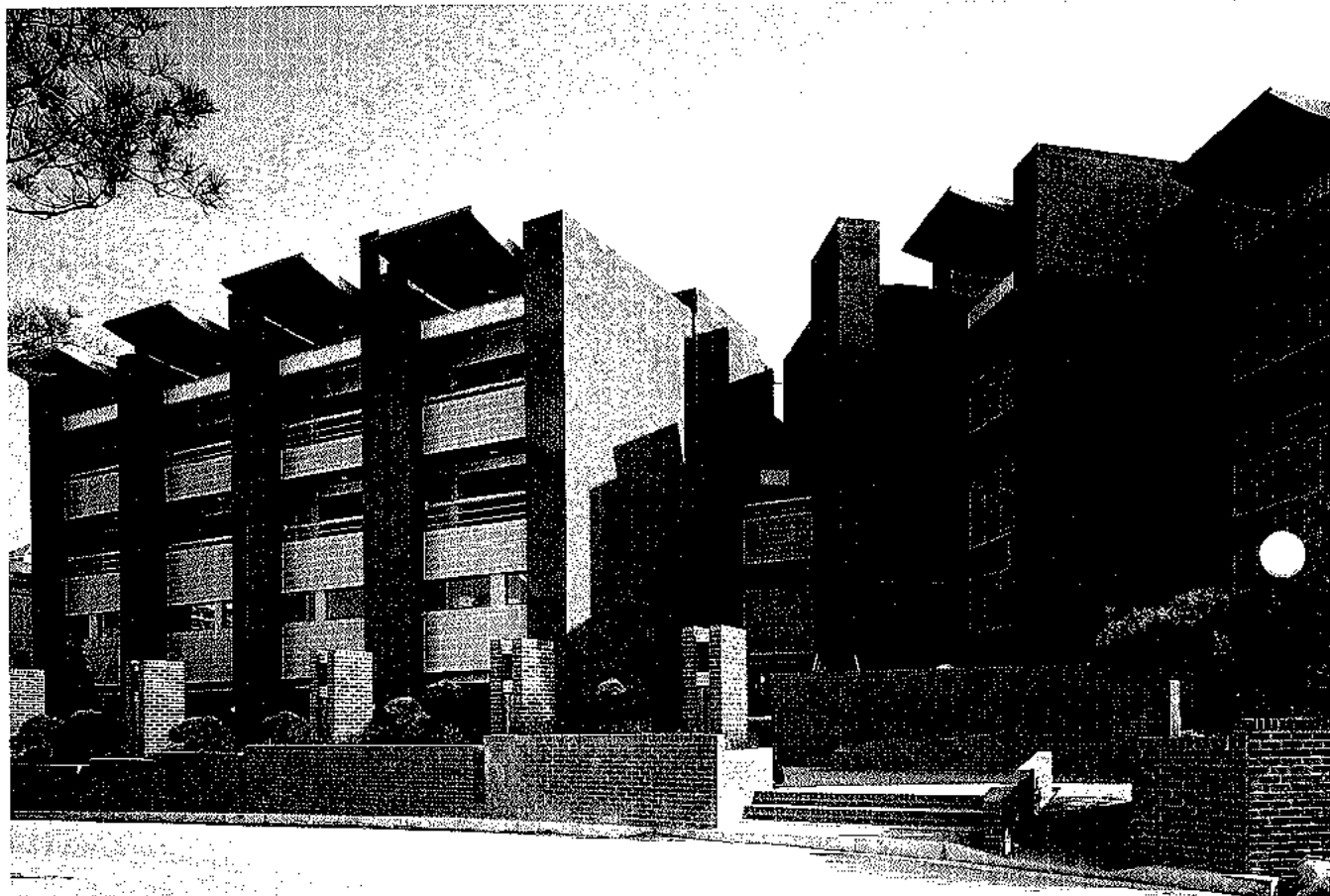


4층 강당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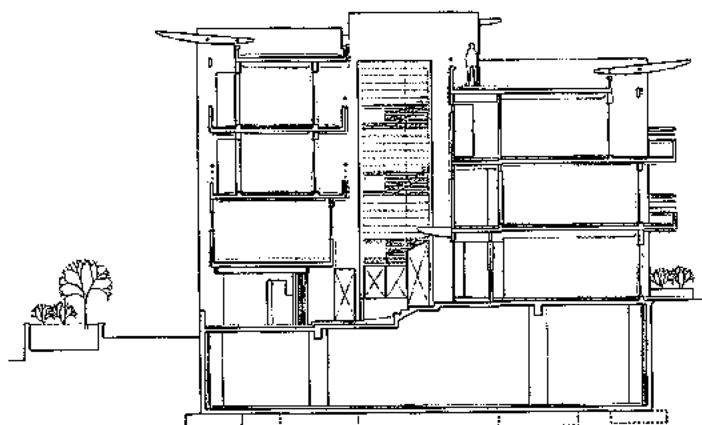
분당연립주택

Row House, Pundang

故 장세양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ang Sea-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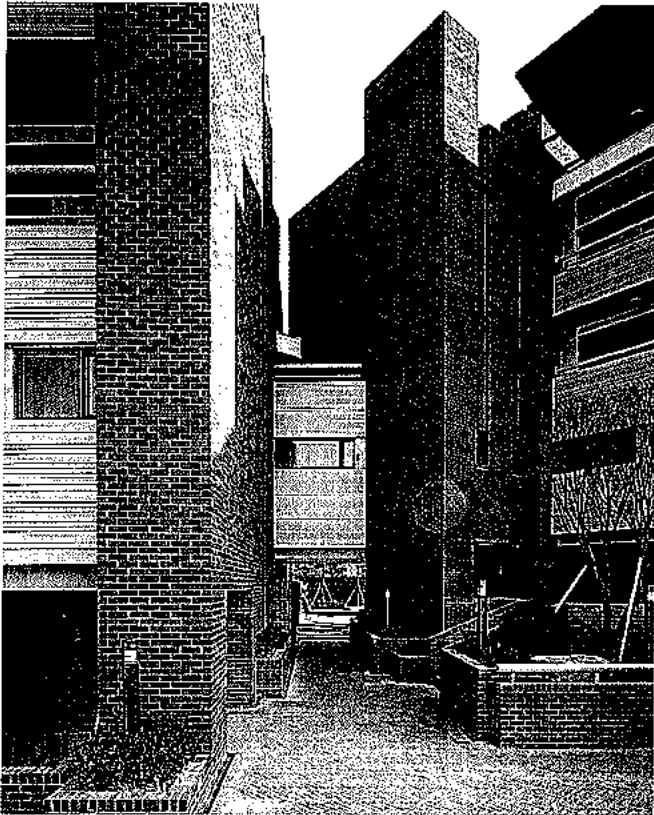
북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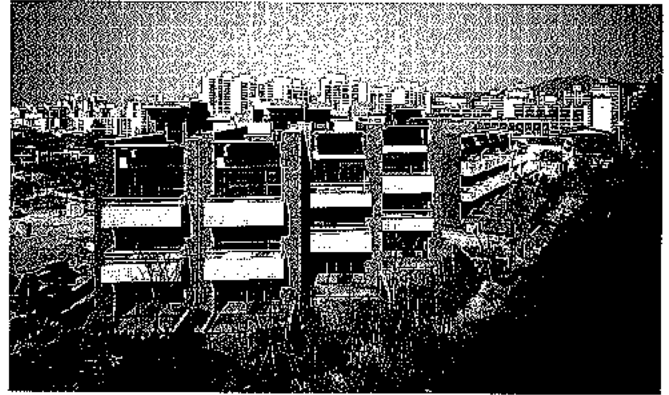
중단면도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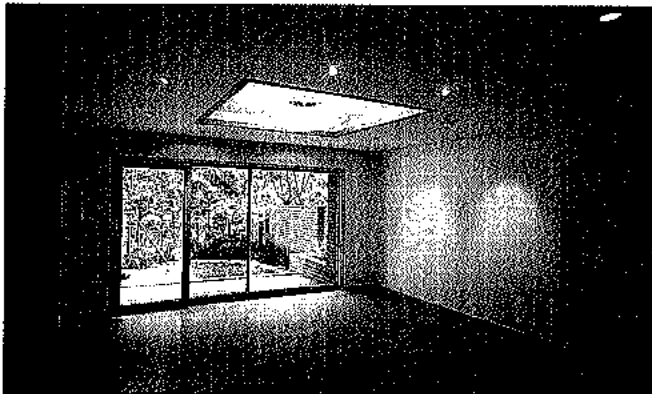
대지위치	분당신도시 특별설계구역 #3c-7-1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1,989.44㎡
건축면적	662.20㎡
연면적	2,264.54㎡
	지상 : 1,664.80㎡, 지하 : 599.7㎡
건폐율	33.3%
용적률	83.7%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세대수	8세대
주차대수	20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북쪽 주출입구와 두동을 연결하는 부분과 뒤돌로 나가는 동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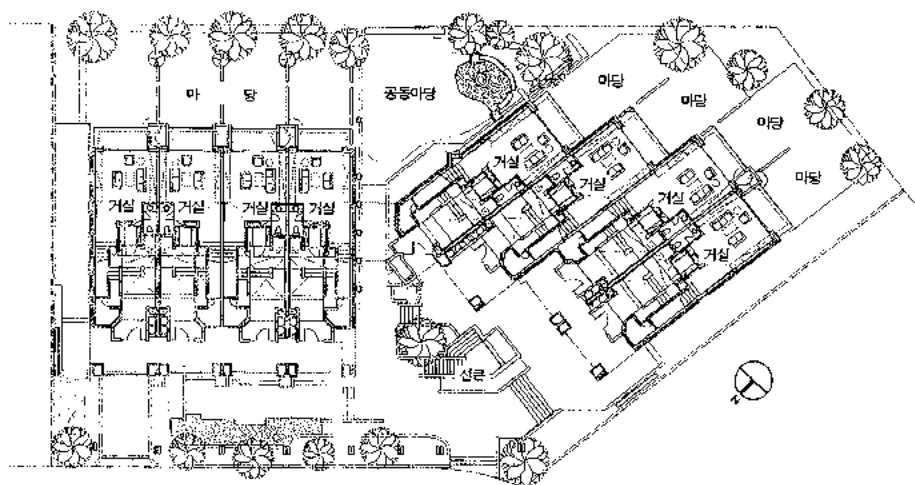
남측전경



1층 거실



종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실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빌라트-오페라 하우스

Villart - Opera House

전병직 / (주)코아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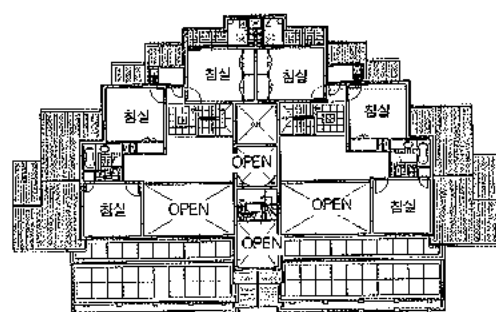
Designed by Core Architects

이 프로젝트는 아파트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대형화, 고급화한 19세대 사업승인 대상에 해당되지않는 19세대 빌라형 아파트이다. 사업성을 위해 최대규모의 개발을 원하는 건축주의 요구와 고급주거로서의 쾌적성 및 기능성을 높여 입주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정형화된 아파트 밀집지역에 랜드마크적인 효과를 주기위해 조형성을 살리려는 건축가의 의지를 반영한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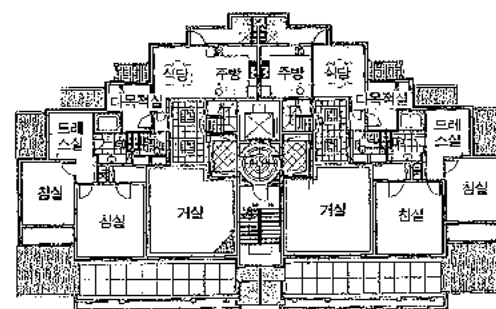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적 여건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을 기조로 최선설비를 적극 수용하여 기능상 상호 보완이 되도록 하였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용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여 공동주택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블록형태는 직통계단 및 EV, 홀을 중심으로 양측에 한세대씩 배치되는 형태로서 1층의 1세대는 피로티 형태로 홀 및 휴게공간을 계획하였고 최상부세대는 복층세대로 계획하였다.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 반사적인 공간, 반공적인 공간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매개 공간을 주어 거주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공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평면구성 하였다. 각 방에 딸린 독립된 발코니는 각각에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면서 외관에 조형성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서도 활용하였다. 형태 계획에 있어서는 고전적인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대중적인 접근이 가능한 단일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장중하면서도 동시에 편안하고 친숙한 외관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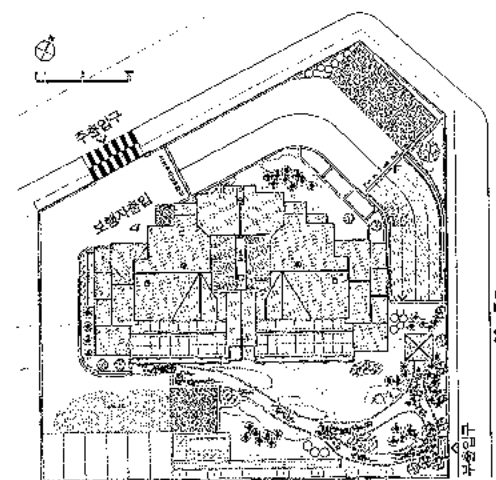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1,703.30㎡
건축면적	481.54㎡
연 면 적	5,109.63㎡
건 폐 율	28.16%
용 적 륜	248.68%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용 도	공동주택
외부마감	드라이브트
건 축 주	(주)한신공영
시 공 사	(주)한신공영



1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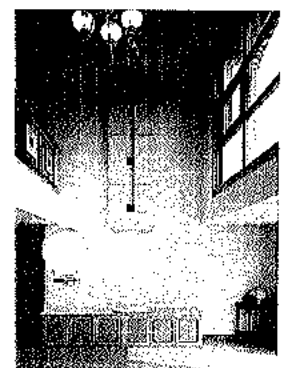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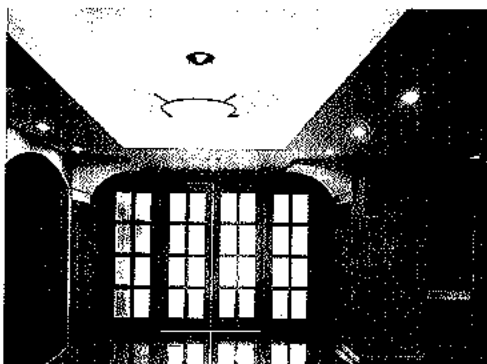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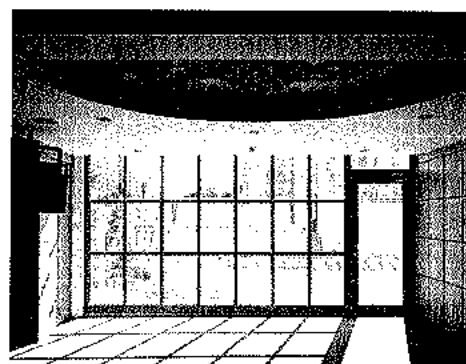
남측전경



북측세대 거실



1층 홀



공동 휴게실



북측도로에서 본 전경

인천 혈액원

Blood Bank at Incheon

안길원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Gil-Won

이 건물은 혈액원 및 인천 지사의 복합건물이므로 각 기능을 조화있게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생명의 존엄성을 소중히 한다는 적십자사의 기본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대지의 일부를 공공 정원으로 계획하였고, 축은 대지의 형상에 따라 전면도로와 동일하게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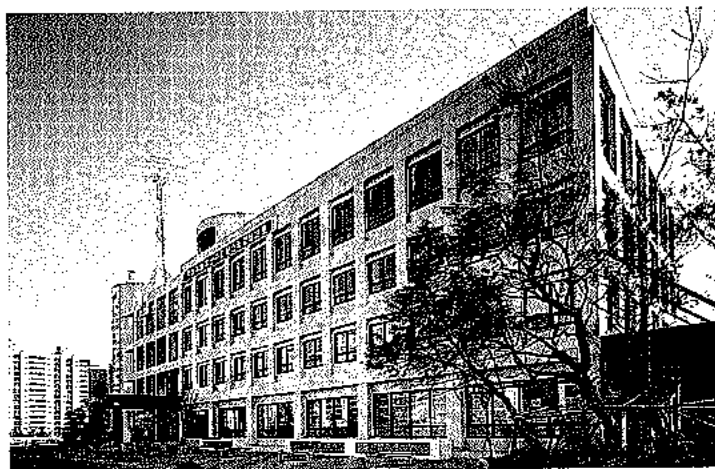
전입은 인천지사와 혈액원이 각기 별개의 홀 및 현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수직동선이 각층에서 겹치지 않게 독립코어를 형성했으며, 주차장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고 보행자 동선을 흡수하는 오픈화랑은 전면부에 설치하였다.

보차는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혈액 수송차량과 일반차량의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독립된 주차장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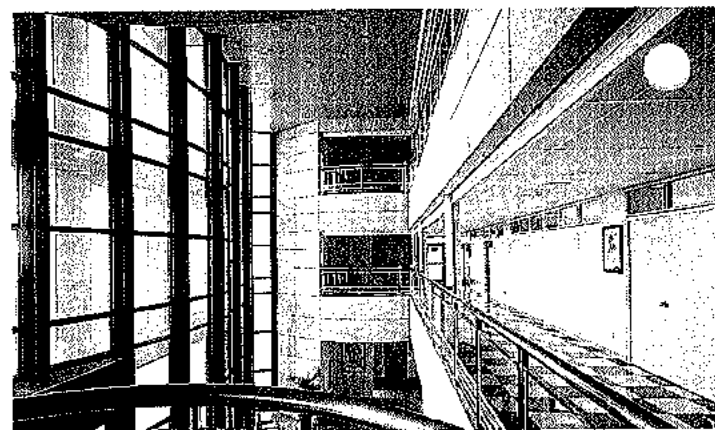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여 향이 좋지않은 북측에 공용공간을 유도하였고, 우천시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유리지붕의 화랑을 창고와 본건물 사이에 설치하였다.

동선의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대지내 차도의 막다른 끝엔 회전도로를 계획하였고, 후정은 일반인 및 혈액원 근무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수광장으로 계획하였다.

대지내 보차분리의 우선원칙에 따라 요양원을 포함한 전 대지 계획시의 내부 교통로는 계획 대지 배후의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북동측 전경



로비

건축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 택지개발지구 122블럭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의료시설 부지

총대지면적 23,579㎡

계획대지면적 9,919.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 인천지사 : 지상 3층, 지상 4층

- 혈액원 : 지하 1층,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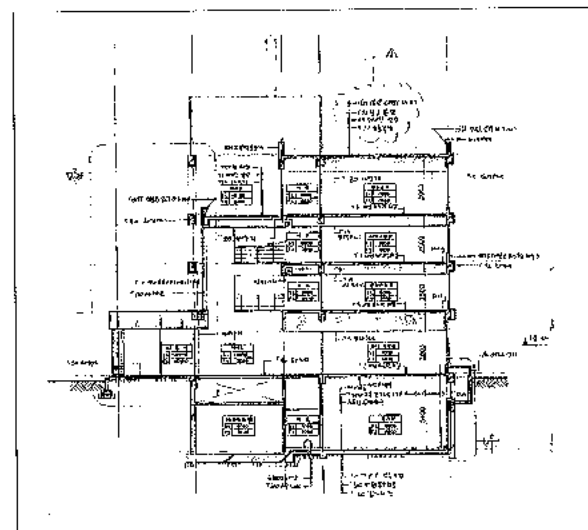
건축면적 1,081.68㎡

지상층 연면적 3,9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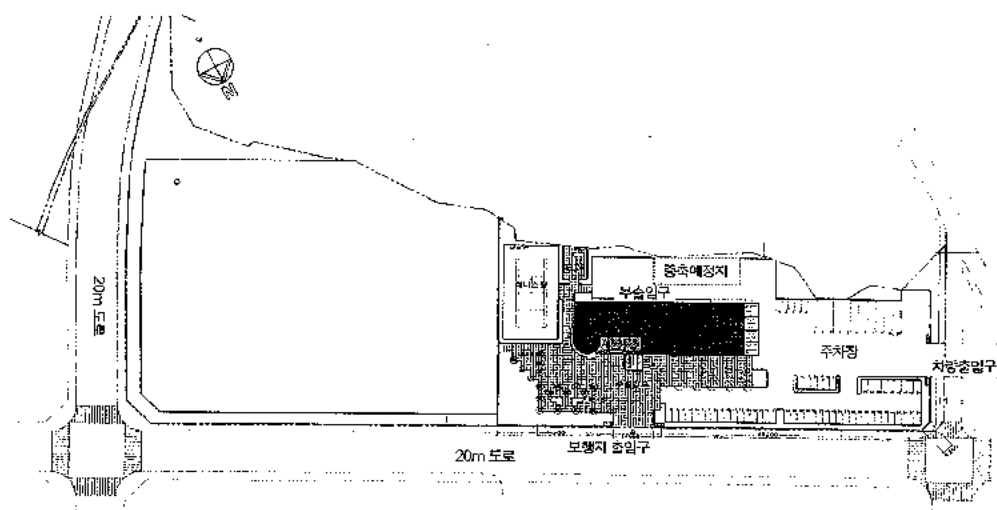
연면적 4,587.9㎡

건폐율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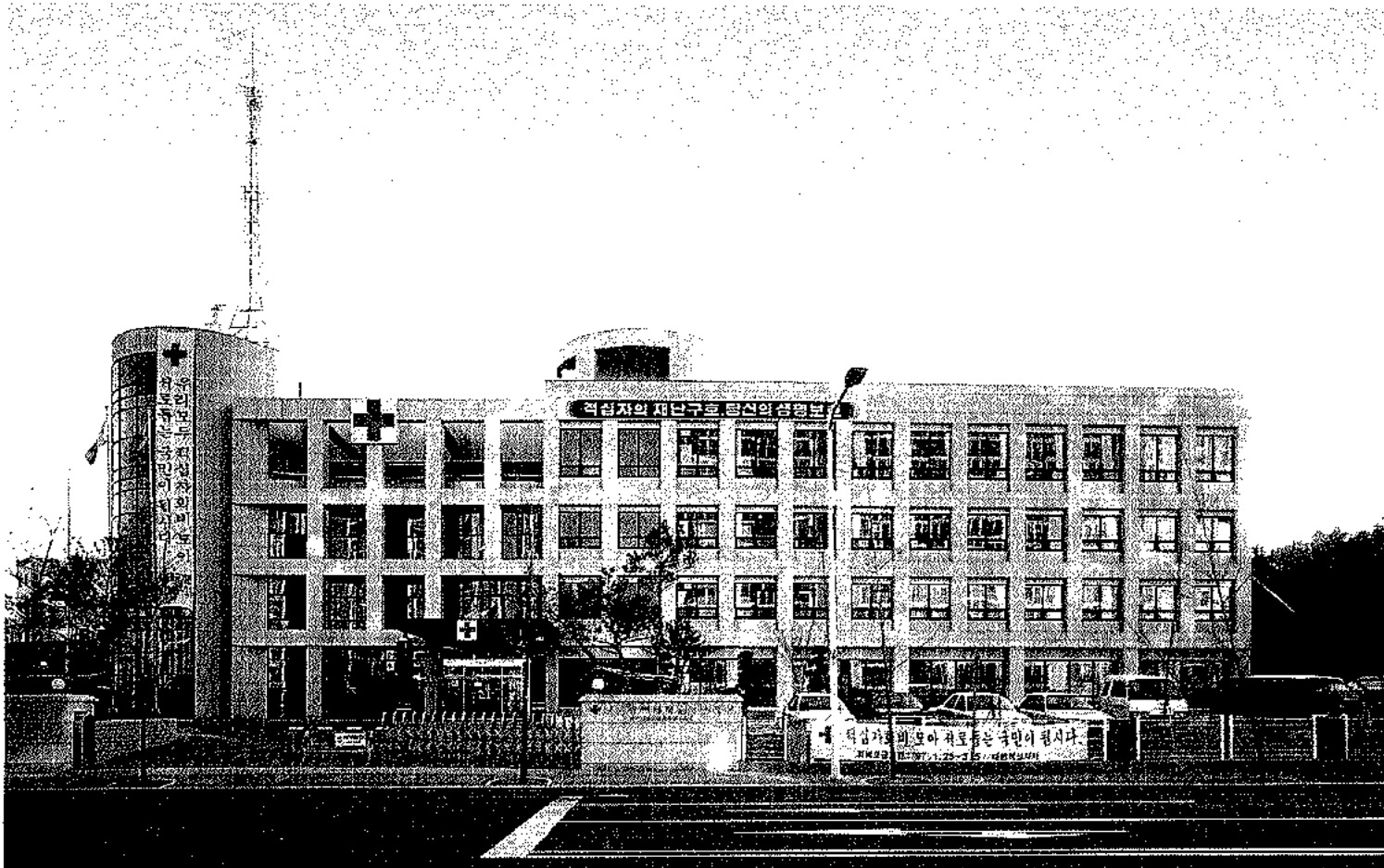
용적률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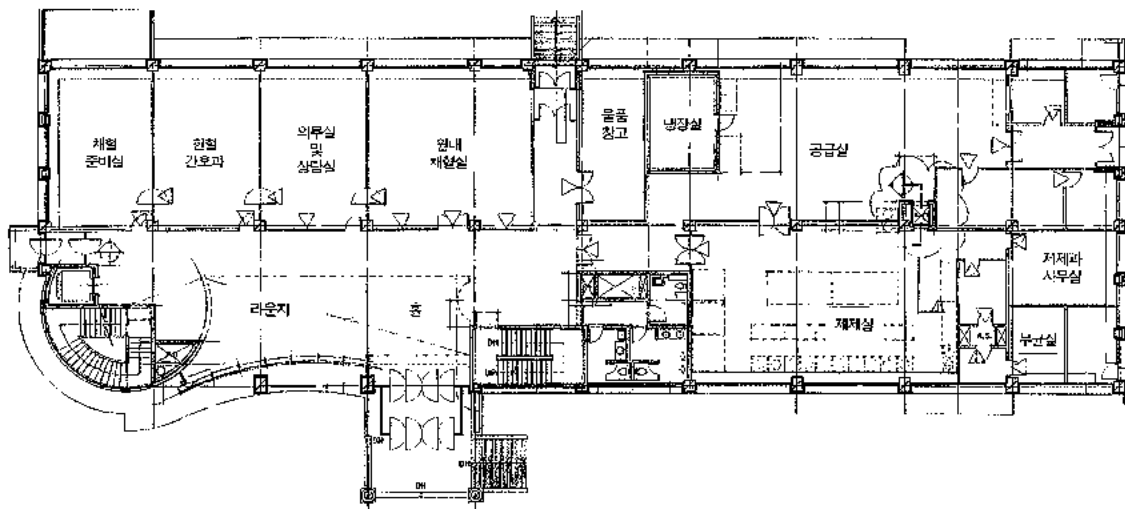
중단면도



배치도



동측 전경



1층 평면도

부천 YUSPO

Puccheon YUSPO

여운택 / 일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Yeo Un-Taek

부천 중등신사가지가 형성된 이후로 약대동 신흥로는 위치적으로 부천의 중심에 해당하지만 그 신흥로 한편으로는 아직도 부천 번영의 역사를 말해주는 군소공장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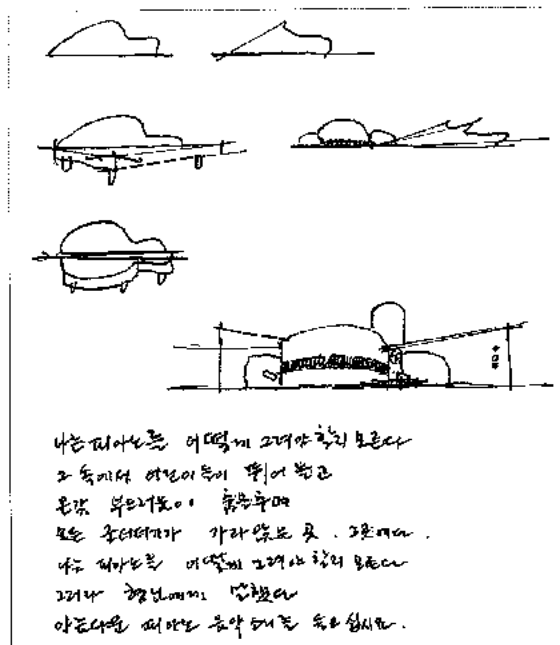
대로변의 풍경은 서서히 차가운 빌딩의 숲으로 바뀔것이다. 길 건너 마주하는 공장지대의 힘겹게 몰아쉬는 노환의 숨소리를 단절하고 싶지않은 본인의 심정은 모순일까. 사라져가는 영욕의 산업현장을 오랫동안 마주보고 있던 이 언덕에 세워지는 건물은 어떤 얼굴이어야 하는가!

갖가지 신소재를 동원하여 YUSPO(Young + Sports) 주위에 뻗뻗히 들어설 인접 건물들을 연상하며, 과거를 말해주는듯 의연히, 어찌보면 외로히 그들사이에 오랫동안 자리잡아 주었으면 하는 나의 마음은 욕심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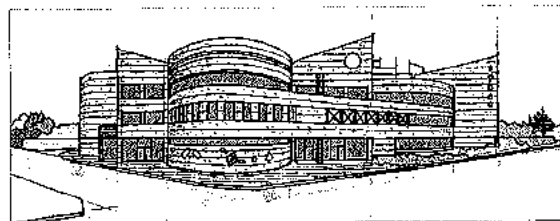
전문가를 뛰어넘는 건축주 이종화 형님의 칼라센스는 더욱 그 빛을 발하고, 맞은편 공장의 기계소리가 온은한 피아노 음악으로 바뀌면서 새로이 형성되는 사가지에 YUSPO는 서서히 서서히 융화되어 갈것이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산33-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미관지구, 고도지구
대지면적	1,653.0㎡
건축면적	934.16㎡
연면적	4,775.60㎡
용도	스포츠 시설 및 유치원
건폐율	56.52%
용적률	137.13%
규모	지하2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드라이브트
주차대수	42대
구조설계	승화구조 윤승춘
공사기간	1996. 1~1997. 1
시공	태평양개발주식회사
건축주	이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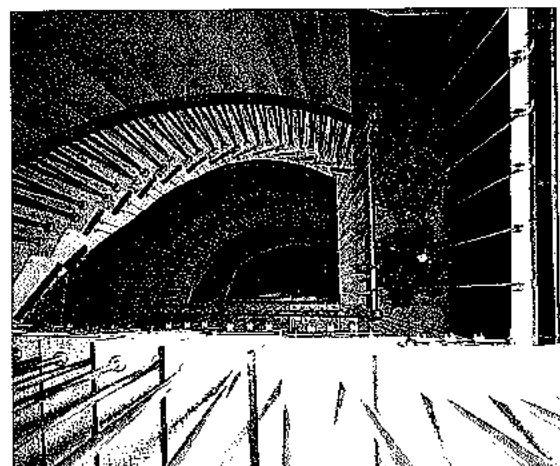


개념 스케치 및 작가단상



초기안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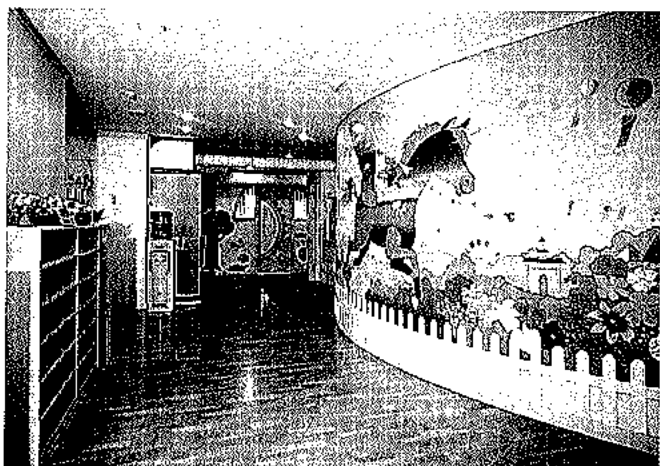
건축심의회에서 양날개를 잃었으며 본 설계과정에서는 주차구장이 바뀌어 굴뚝같은 타워가 생기는 등 이종고를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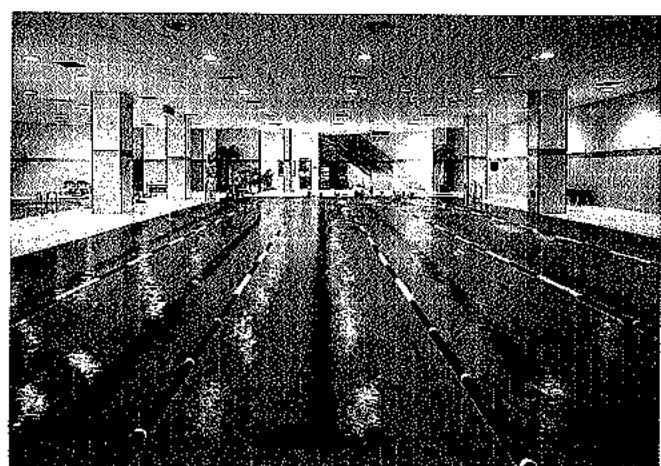
주제단상



남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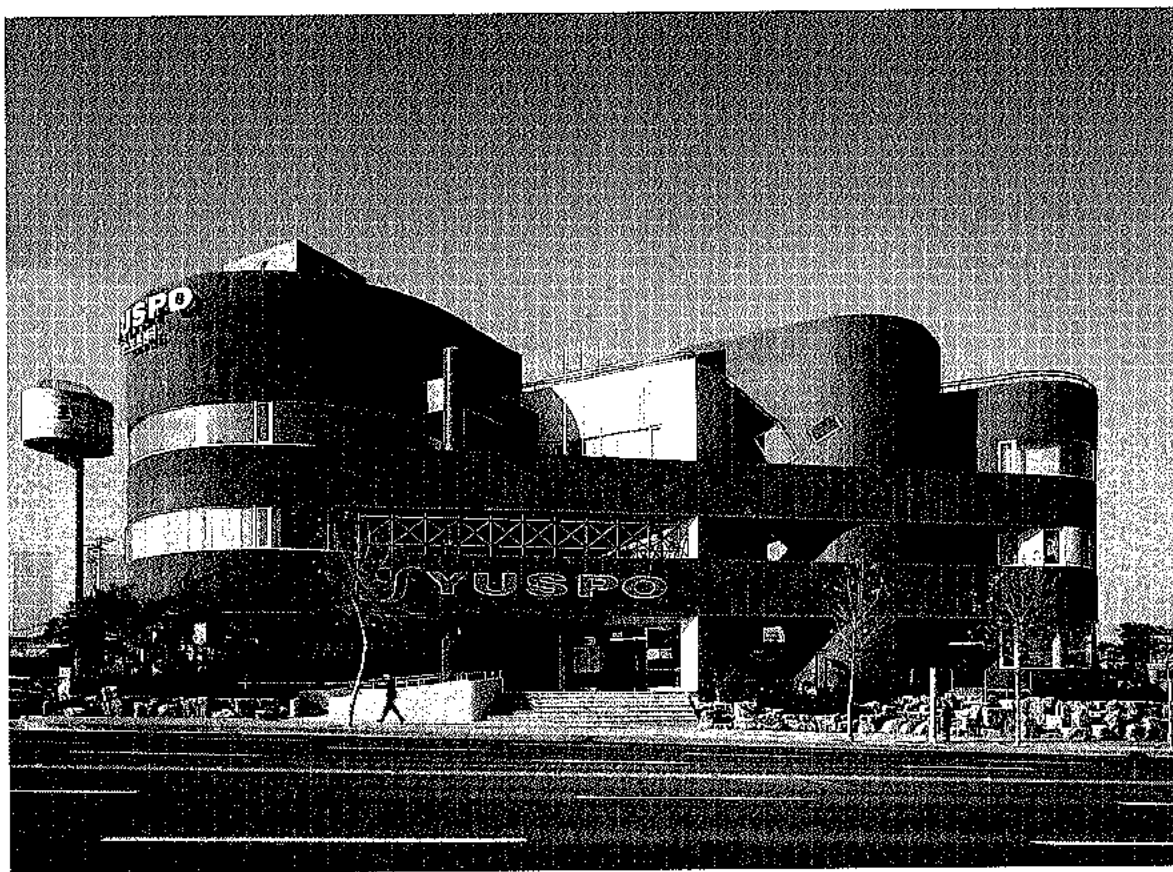
유치원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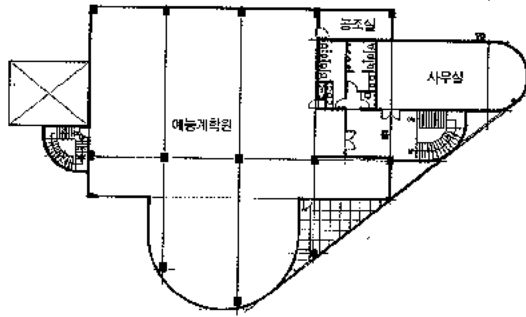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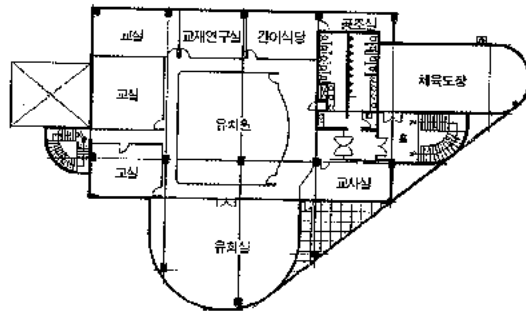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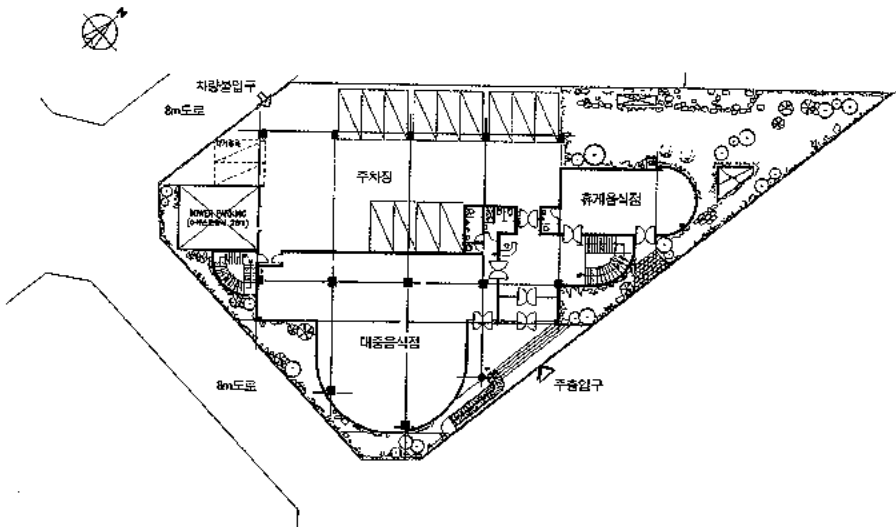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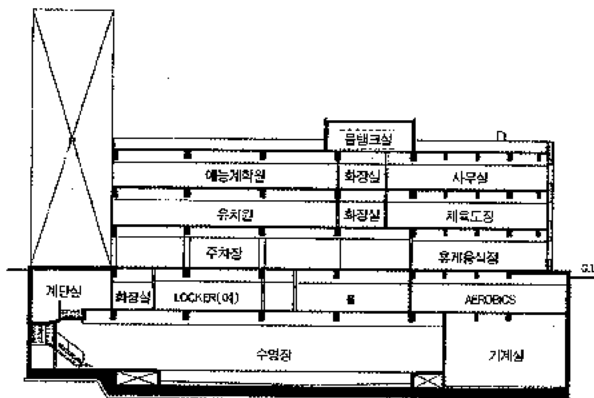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주단면도



주출입구 전경



전면 전입로

꽃마을 한방병원 Kkotmaul Herb Medical Center

문성운 / (주)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Designed by Moon Sung-Un

꽃마을 한방병원은 한약과 양약분쟁이 치열하던 시기에 추진되고, 시공되어진 병원으로서 법원 사거리에서 서울 고대 방면에 위치해 있다. 원래 기존의 6층 건물인 꽃마을 빌딩이 있었는데 병원 부지는 인접한 대지를 구입하여 증축 형식으로 별개의 병원건축을 하는 일이었다. 병원이 들어설 대지는 전면 폭이 좁고 후면으로 긴 형상의 대지였는데 후면부는 일조권 및 사선제한으로 비교적 제약사항이 많아 저층부로 계획을 하였다. 계획초기 단계에서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과 향후 병원건물과 연계하여 병원으로 활용계획이 있었으므로 기존건물과 전혀 별개의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는 없는 처지였다.

다행스럽게도 기존건물 전면에 주차공간이 있어 이 부분을 공개 공지로 활용하여 버스 정류장의 대기승객과 보행자의 휴식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며, 전면 35m도로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주차 진 · 출입로는 후면 8m도로에서 처리토록 하였다. 주차 계획은 거의 기계식 자동주차로 해결하였으며 외래환자 및 방문객의 순환을 고려하여 지상 주차공간을 충분히 배려할 수 없는 대지 조건이 아쉬운점으로 남는다.

일단 기존의 6층 건물은 현재의 용도로 당분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주차 부코아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만 설치해 놓고 시작하였다. 지하층은 설비계통 관계설과 주차시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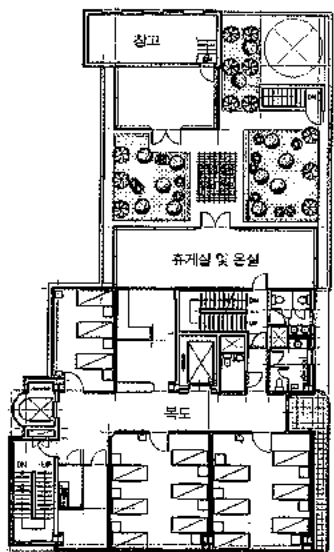
방 및 식당, 매점 등을 설치하고 X-선 및 CT촬영실도 마련하였다. 저층부인 1층에서 4층까지는 사무공간 및 진료실, 각종치료실 및 처치실을 두고 한 · 양방의 협진체제를 위한 각종 부속실이 밀집되어 있다. 고층부인 5층에서 9층까지는 입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단위는 병상수를 고려하여 2개층마다 너스스테이션을 설치, 상 · 하 및 수평적으로 환자 돌보기가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소한 대지관계로 지상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기에 기존건물의 옥상에 환자 및 방문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테라리움을 설치하여 일광욕과 함께 간단한 재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상층인 10층에는 입원환자 및 한약 조제를 위한 방문객을 위한 탕전실이 있고 연구 및 실험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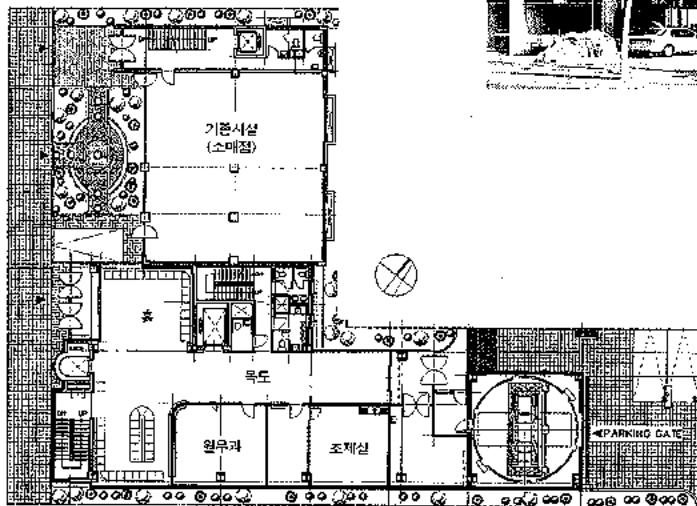
특히 최상층에 탕전실을 설치한 이유는 한약탕전시 발생하는 냄새의 환기가 용이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한 각층에 대기 및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골고루 배치하였으며, 휴먼자를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놓았다. 수직동선 처리는 일반 방문객 및 통원 환자를 위한 전망용 엘리베이터와 입원환자 및 물류수송을 위한 침대용 엘리베이터가 있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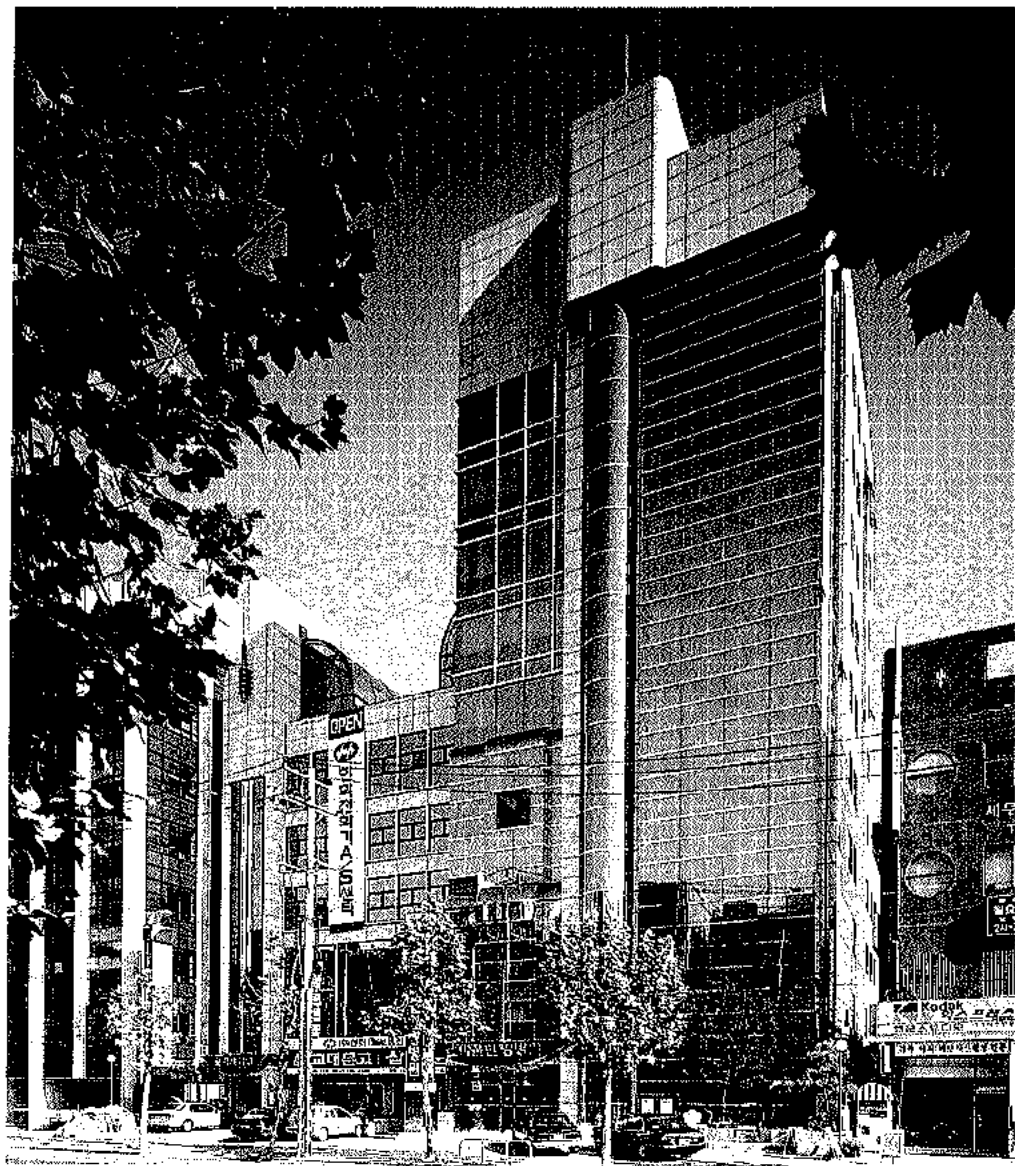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4, 5, 8호	외부마감	알마늄복합페널, 파스텔목충유리
지역지구	일반주거, 제2종미관, 주차장정비, 도시설계지구	설계담당	이종훈, 배성호, 김영호, 이은경, 박해경, 김남일, 이종찬, 최대길
대지면적	1,098.00㎡	구조담당	명구조
건축면적	646.28㎡	기계담당	맥엔지니어링
연 면 적	6,063.56㎡	전기담당	대주엔지니어링
건 폐 율	58.86%	토목담당	동양토목
용 적 륜	404.80%	건축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규 모	지하 2층, 지상 10층	시 공 자	코스모건설주식회사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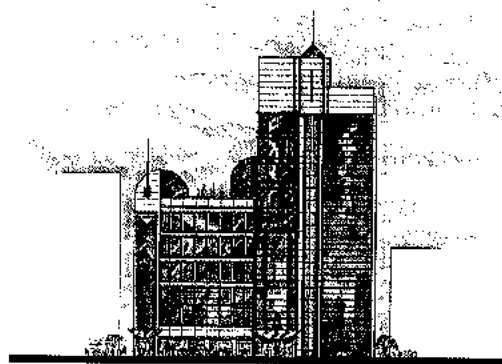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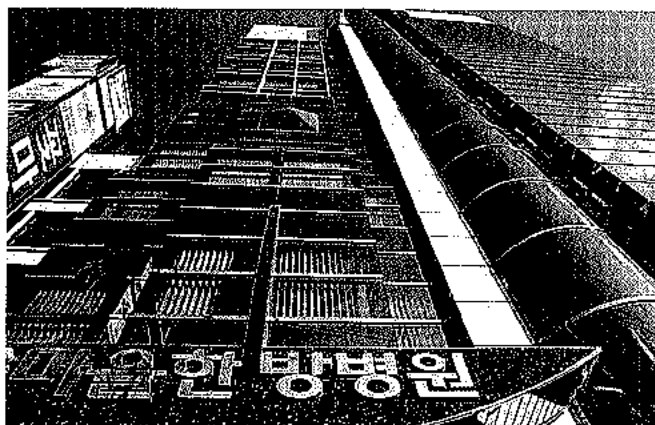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전경



정면 스케치



주출입구에서 올려다 본 모습



1층 로비

태경빌딩

Taikyung Building

김명준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경건축
Designed by Kim Myeong-Joon

올해로 사무소를 개소한지 10년이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대할때마다 가벼운 기대감과 적지 않은 두려움, 그리고 계획완료 후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아쉬움과 완공후의 대견함이 교차하는 작업들의 연속이었다.

이제 조그마한 일터를 마련하게되어 좀더 활력적으로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정진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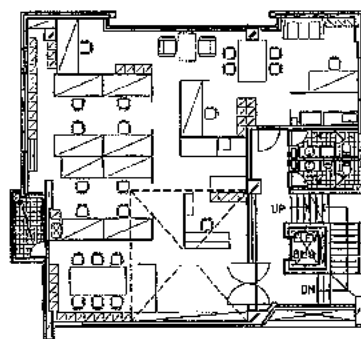
이 대지는 남부 순환도로와 송파대교가 교차하는 지하철 8호선 송파역 사거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전면은 50m 대로와 시설녹지가 위치하고 있어, 부지내 주 진입은 후면 8m 도로측이다. 넓지 않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사비도 가급적 절감하고자 지하층을 1개층만 계획하였고, 1층 일부에 파줄 주차를 위한 피로티와 전면 시설녹지로의 출입을 위한 휴게공간을 계획하였다.

코어계획은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여 층별 가용면적을 극대화하였고 사육으로 사용하는 7층과 8층은 Open Space로 연결하였고 자연채광을 위한 천장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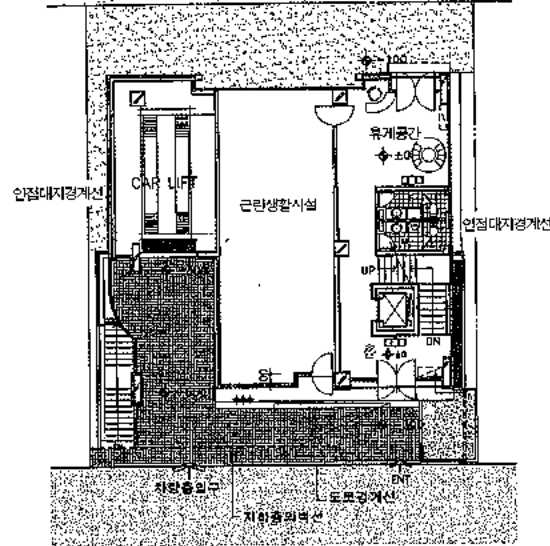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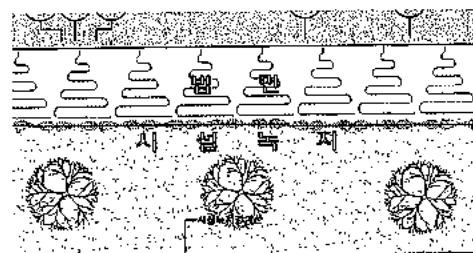
건물외관은 하얀색과 검색의 범랑패널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질감을 추구하였고 부드러운 곡선을 도입하여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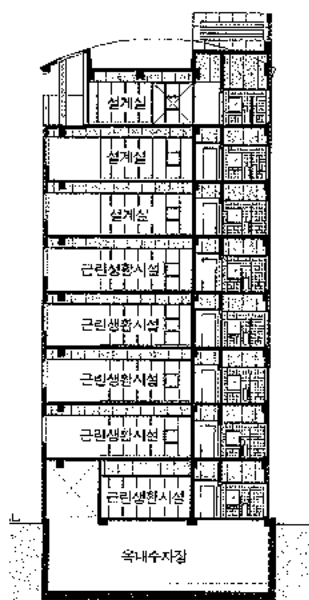
위 치	서울시 송파구 기락동 94-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2종미관지구
대지면적	331.90㎡
건축면적	185.13㎡
연 면 적	1,538.88㎡
건 폐 율	55.78%
용 적 륜	396.30%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8층
용 도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12대
조경면적	66.60㎡
외장재료	범랑 패널 + T=24복층 유리
계획담당	안부군
인테리어설계	동진아یدی
공사기간	1996. 3~199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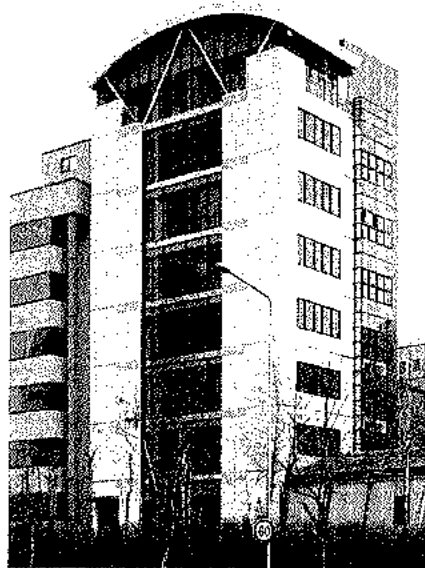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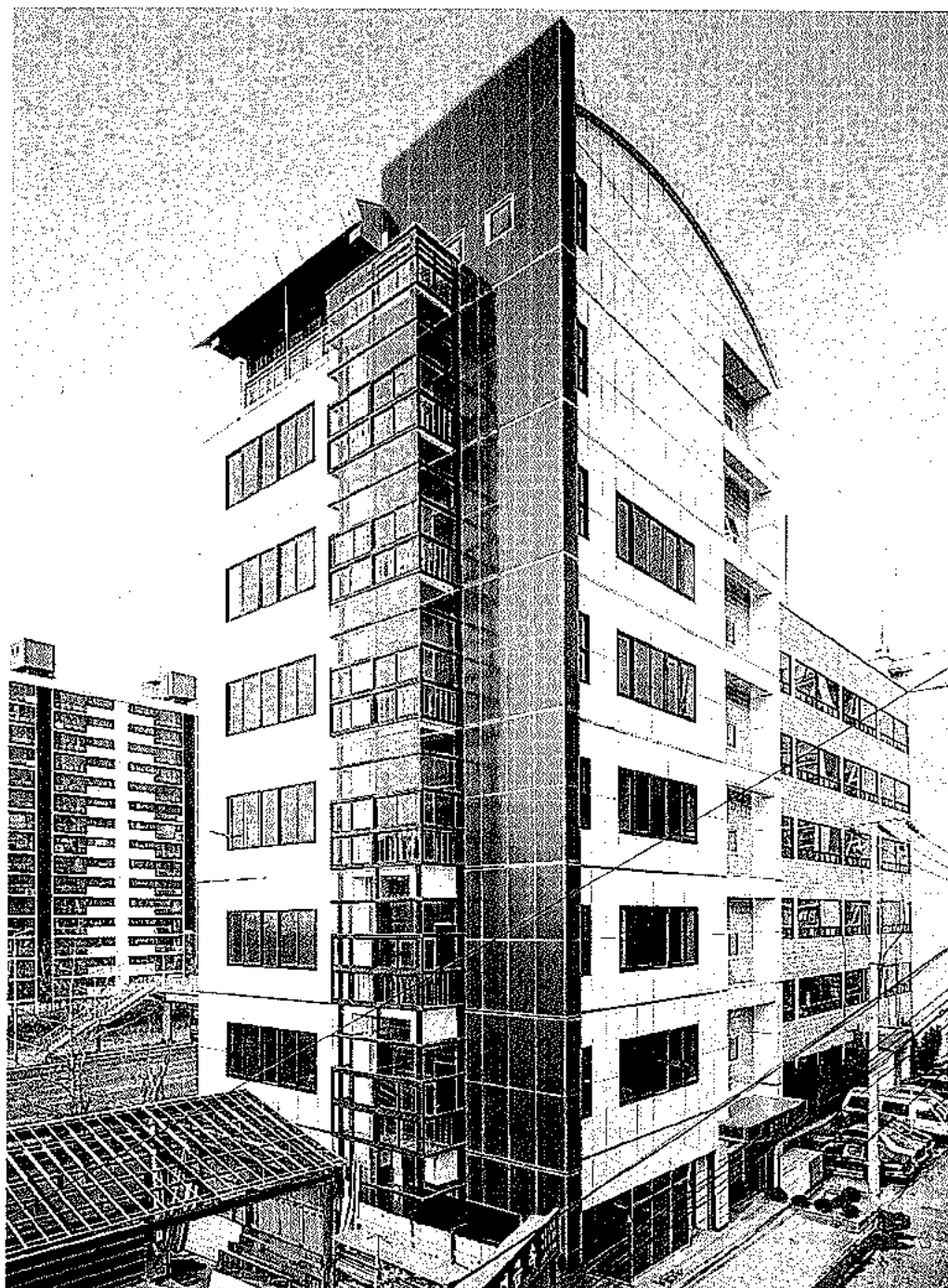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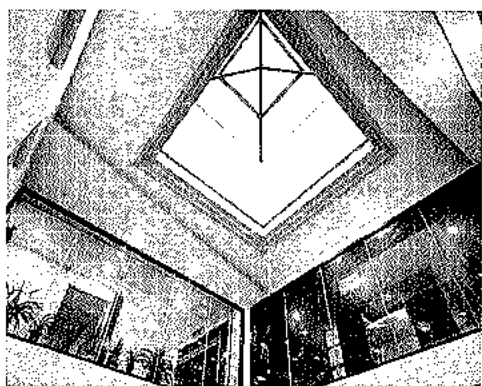
합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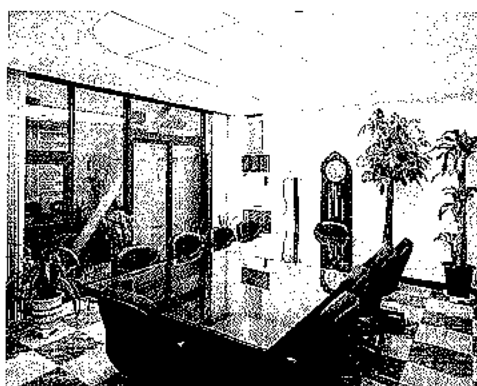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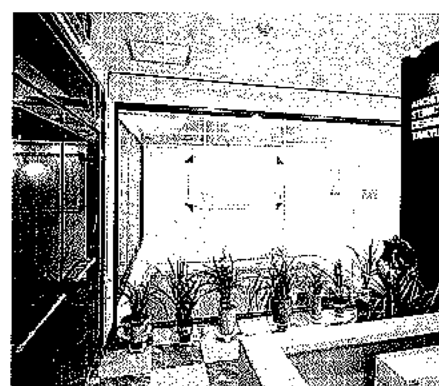
남동측 전경



7층에서 본 스카이라이트



8층 회의실



8층 홀에서 본 중정

한국의 건축가 9 - 김종업(1)

Korean Architect, Kim Chung-Up

김종업건축의 바탕 - 김종업의 일생

조인철 / (주)정림건축 Q.C부 팀장
by Zho In-Choul

이번호부터 소개되는 건축가 김종업편에서는 출생후 평양과 일본동경에서의 생활(1922-1945)을 시작으로 해방 후 남한에서의 생활(1946-1951), 유네스코주최 제1회 세계예술가회의에 한국대표의 한사람으로 참석하면서부터 르꼬르뷔제의 문화에서의 생활, 귀국후의 활발한 건축활동 시기(1952-1971) 그리고 또다시 9년간의 외국생활이후 남은 건축인생기(1972-1988)등으로 구분하여 먼저 김종업의 일생(1회: 부인 김병례여사와의 대담내용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다음 2회와 3회에서는 필자가 김종업 선생 생전에 대담한 내용을 정리·소개하고 그의 건축가로서의 역경(歷程)과 작품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싣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연 재 목 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 김종업 건축의 바탕
- 김종업의 일생
2. 대담내용
- 김종업 건축과 사머니즘
3. 대담내용
- 김종업과 르꼬르뷔제
4. 김종업 건축의 해석
-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5. 김종업 건축의 해석
- 김종업 건축의 어휘



김종업

김종업의 가계(家系)

김종업은 연안김씨의 후손으로, 그의 할아버지는 선비였으며, 할아버지의 술하에는 세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김종업의 큰아버지인 김영?(金永?), 아버지 김영필(金永弼), 그리고 아래의 작은 아버지 김영달(金永達)이라고한다.¹⁾ 큰아버지는 선비였고, 작은아버지는 학교의 선생이었으며, 아버지인 김영필은 평양의 명문학교인 평

양고등보통학교 출신으로 일제시대 당시 일본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던 시절에 군수를 지냈지만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버틸정도로 고집쟁이고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김종업의 아버지는 아들 하나를 두고 첫번째 부인과 사별한 후 두번째 부인을 맞게 되는데, 이 분이 김종업의 친어머니이신 '이영자'²⁾이다. 김종업은 북한의 평양시 진항리에서 태어났으며(1922년 3월 9일생), 주로 아버지쪽을 많이 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종업은 부친의 근무지에 따라 강동, 중화, 성천으로 다니면서 어린시절을 보내게 된다.³⁾ 김종업의 형제들을 살펴보면, 김종업의 형님인 김광업(金廣業)은 김종업과는 이복 형제이고, 동생들은 아래로 김인업(金仁業), 김훈업(金勳業), 여동생인 김정업(金貞業), 김보업(金堯業) 그리고 막내 남동생인 김도업(金道業)으로 김종업은 5남 2녀중 둘째였다. 형님인 김광업은 안과전문의로 서예에 조예가 깊은 분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말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형제는 김종업이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생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서로의 예술적 재능에 대하여 인정을 했으며 한때 둘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같이 개최하자는 계획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타계한 형님 김광업과 바로 아래 동생 김인업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은 현재 평범한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한다. 동생들 중

김중업은 현재 김중업 타계후 김중업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병의(安秉義)의 부인이기도 하다.

김중업의 친인척중에는 특히 의사(醫師)가 많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중업은 상류사회에 속한 가계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 환경속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家長)으로서의 김중업

김중업은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요꼬하미관립고등보통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그의 나이 21세였다. 그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 일본인 '다카기 사부로' (당시 '미쓰이'라는 회사의 중역)의 아들과 딸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했었는데 그집의 딸이 그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집안어른에게 알려짐으로써 일본 여인과의 결혼을 염려한 아버지의 뜻에 의해 서둘러 결혼하게 된다.⁹⁾ 김중업의 아내인 김병례는 김중업과 거의 같은 동네인 평양시 염전리의 규수(당시 19세)로 평양의 명륜보통학교를 거쳐 평양의 서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양가친척간의 중매로 김중업과 백년가약을 맺게된다. 김중업과 김병례의 슬하에는 장남인 김희조(金熙祖)와 김희검(金熙儉), 김희몽(金熙蒙), 김희성(金熙盛), 그리고 막내딸 김희정(金熙正?)으로 4남1녀를 두고 있다. 현재 김희조는 고모부인 안병의와 함께 부친의 건축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김희검은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건축일을 하고 있다.

김중업의 가족에 대한 사랑 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제자들에게 엄격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중업은 이복의 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했다. 북한에서 월남한 자신의 어린동생들(인업,훈업,정업,보업,도업)을 교육시키고 결혼시켰다. 물론 이러한 장남으로서의 역할은 부인의 헌신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부인 김병례여사와의 대담(1997. 1. 25 과천자택)

김중업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자의든 타의든 잦은 외국떠돌이 생활로 인하여 소홀히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인의 증언을 들어보면 김중업은 부인 김병례의 숨겨진 능력을 찾아내어 한명의 미술가로서 성장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김중업은 프랑스나 미국에 있을 때 종종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부인과 함께 찾다니면서 부인의 미술가로서의 소양을 키워 주었다고 한다. 한편 가장으로서, 김중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의 집에만 아프리예를 차리고 있을 때나 프랑스의 외유생활중에도 그의 부인으로서 만이 아니라 도면 컬러링을 맡은 한명의 설계요원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해내는 아내에게, 고독한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갈길과 처지를 이해해 주는 한여인에 대하여 무한한 연민의 정을 느꼈을 법하다. 김중업은 일과후 집에서는 별로 말이 없는 편이었으며, 밖에서의 스트레스를 혼자서 감당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부인이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비평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며, 부인이 옳은 평가를 할 때는 그저 한두마디만 언급할 뿐이었다고 한다. 김중업은 생전에도 부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자료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부인이 평양서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현명한 여성이었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월남하여 남한에서의 생활이나, 프랑스의 고독한 외유기간중에 자신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준 부인에 대한 인정(認定)이고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나 싶다.

한 인간(人間)으로서의 김중업

김중업은 일제시대였던 하였지만 상류 엘리트의 가정에서 별로 아쉬움이 없는 좋은 환경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중업의 아버지는 군수도 지냈고, 민선시의회의원도 지낼정도로 사회지도층 인사였다. 실제로 신임으로 오는 도지사, 시장, 경찰서장 등은 부임인사를 위해 김중업의 집을 다녀 갈 정도로 세력가였다고 한다. 한편 김중업의 형인 김광업은 '수양동우회(홍사단 전신)' 사건과 관련하여

1) 김병례(고 김중업의 미망인)와의 대담: 본문내용중 각주가 없는 것은 녹음된 대담(1997. 1. 25. 과천자택에서 PM4:30 - 7:30:최종 하단 사진)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2) 김중업, '한국적인 맛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 『김중업:건축기의 빛과 그림자』, 서울:열화당, 1994, p. 248-253: 그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3) 위의 책, p. 282.

4) 김중업, 앞의 책, p. 248.: 김중업선생은 어린시절(평양성천) 그가 살았던 자연환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산수가 수려한 그곳 성천의 기억은 어머니의 기억과 함께 마치 풀 뺨어진 서사시(敘詩)의듯 깊다.

읍(邑) 한쪽에 자리잡고 있는 관사의 넓은 뜰에는 늙은 느티나무며 향나무가 군데군데 서 있고 화단에는 이름모를 꽃들이 잘 가꾸어져 봄이면 앞을 다뽀여 일제히 피어 마치 관사는 로렐리의 화원 속에 묻힌 집 같고 여름이면 그 깊은 느티나무며 향나무의 짙은 녹색속에서 매미가 한두마리 울어댔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면 알뜰 보기에 이름두꺼만한 뽕충이 이름모를 개암나무를 펼쳐놓은 듯 넓은 관사 뜰위의 군데군데에 떠 있던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다. 혹은 여름인개가 자욱이 사방으로 퍼질 때면 온 뜰과 내리나보이는 읍내의 일각이 하얀 바다처럼 보이고 군데군데 우뚝 솟은 나무들은 흡사 바다의 암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새들은 재재거리면서 안개중 헤치고 하늘 드높이 밝은 곳까지 울라가 날개를 펼친 채 행방을 꼬이디가는 유리알같이 반짝이는 나무가지저 첫은 편지 울타리 위에 내려앉기도 하였다.

5) 김정동, 『꿈의 집: 김중업, 건축가로서의 회상과 전망』, 서울, (주)토탈다자판, 1981. 6, 통권 50호, p. 62.

6) 김병례와의 대담: 결혼당시 김중업의 막내동생 도업세의 나이가 4살이었다고 함

반일인사라는 명목으로 여러번 옥살이를 한적이 있다고 한다.⁷⁾ 어린시절 김중업의 공부는 4살 때 그의 할아버지(서당을 운영하셨다고 함)에게서 천자문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경림국 민학교를 7살에 입학해서 한학년을 월반하여 졸업하고 평양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부인 김병례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고등보통학교는 당시 서울의 경기고등학교에 비견될 정도의 명문고등학교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수재가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김중업은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집에서 가정교사를 두고 과외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정교사는 평양고등보통학교 선배인 '이재하'라는 사람으로 1.4후퇴후 부산에서 살았다고 한다.

김중업은 평양고등보통학교시절 공부도 열심히 하였지만 미술과 시에도 심취하였고, 당시의 미술교사인 '니노미야' ⁸⁾라는 일본인은 그의 미술적재능을 인정해 교내 미술부장을 시킨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지만 집안에서는 김중업이 시나 미술에 심취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김중업은 집안의 뜻을 거슬러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니노미야' 선생과 상의한 후 건축을하기로 결심하고 시의 건축, 아름다움의 건축을 일생동안 추구하게 된다.

사실 김중업의 건축인생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김중업은 일본으로 가서 건축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평양고등보통학교 4학년때(당시5년제) 동경 우라와 고등학교에 오시하였으나 낙방하고 일본의 고공에 뜻을 두게된다. 김중업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일본의 항구도시 요코하마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갖게 되는 데 마침, 요코하마고공의 건축과에 '나카무라준페이(中村順平)'라는 프랑스 '에콜 드 보자르(파리 미술대학 그로물교수문하생)' 출신의 주임교수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학교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정한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 요코하마고공은 동대(동경제대)하고 맞먹는 학교였다⁹⁾고 한다. 한학급에 학생수가 25명 정도였는데 한국인으로는 혼자였던 김중업은 입학후 교과과정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여 수석으로 졸업하게 된다. 이러한 학업성적으로 인해 후에 서울대학 교수로 부임할 때,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

한편 김중업은 소위 '요코하마 우찌코사바시 교회사건'에 연루되어 독립운동혐의로 체포되어 청각이 상할 정도로 물고문을 당하게 된다. 김중업은 여운형(呂運亨)의 여동생을 통해 당시 중경(重慶) 임시정부에서 오는 소식이나 지령을 전달하는 중간역할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모임을 갖다가 발각되어 체포된지 20여일 만에 요코하마고공의 교장 친구인 '다카기사부로'라는 '미쓰이' 군수산업회사의 중역의 보증으로 풀려난다. 그를 보증해준 일본인 '다카기사부로'는 김중업의 재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집에서 묵게하고 아들, 딸의 가정교사를 시키는데 그를 딸과 결혼시킬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

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중업이 요코하마고공을 졸업하자마자 집안에서 서둘러 결혼을 시키게 된다. 부인 김병례의 증언에 의하면 결혼후 일본에 갔을 때 김중업의 방에는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후에 그것이 르포르뷔제의 사진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김중업은 요코하마고공이라는 명문대학¹⁰⁾을 졸업하였지만 그것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기회가 있다면 당시의 건축가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르포르뷔제의 문하에서 건축을 배워보았으면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당시 르포르뷔제의 사무실 출신인 '사카구라 준조'의 사무소에 가기를 원했으나 요코하마고공 출신 선배(10년 선배인 사카모토 도시오)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고공출신의 선배들이 있는 '마쓰다하라다'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다. 3년간의 설계사무실 생활 동안, 일본은 전쟁의 막바지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중이었고 김중업 주위의 젊은 남성들은 징용으로 전쟁터에 끌려가는 어수선한 사회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런 와중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미군의 폭격기가 한일연락선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놀란 김중업의 평양집에서는 '부친위독'이라는 전보를 띄워 김중업으로 하여금 서둘러 일본생활을 청산하도록 한다.

일본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후 평남도청에서 기수생활(技手生活)을 하다가 3개월만에 그만두고 '조선주택영단'을 거쳐 '조선비행기'에 근무한다.¹¹⁾ 평남도청에서 시작한 공무원 생활은 그의 성격에 맞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상급과 장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그만두게 되고 자리를 서울의 '조선주택영단'으로 옮겨 기수생활을 하는데, 같이 근무하던 김순하(金舜可)¹²⁾가 가져온 '조선비행기공장' 설계와 관련된 아르바이트일을 계기로 경기도 부평소재의 '조선비행기' ¹³⁾로 옮기게 된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던 기술수첩의 이전 수속을 하던중 그가 일본에서 요코하마 우찌코사바시 교회사건과 관련된 것이 일본헌병대에 알려지게 된다. 김중업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기 직전에 친구 유홍상(劉泓相, 1944년 경성공업전문학교 1회졸업)이 알려주어 중화로 도주하여 집안끼리 서로 가까운 사이였던 장면박사 누님 딸 집에서 해방때까지 숨어지내게 된다.

해방되고 3일후에 평양으로 돌아온 그는 '요코하마 독립운동'의 전력을 인정받아 소위 '공청(共靑)'이라고 하는 '공산청년동맹'의 핵심역할인 연구부장직을 맡아 하게 된다.¹⁴⁾ 이러한 전력은 후에 김병례여사의 증언처럼 김중업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로, 빨갱이로 모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으로 이용되고 결국 1970년대에 강제 출국당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한과 북한이 이념상 갈라지게 되면서 그가 있던 북한은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는 모스크바로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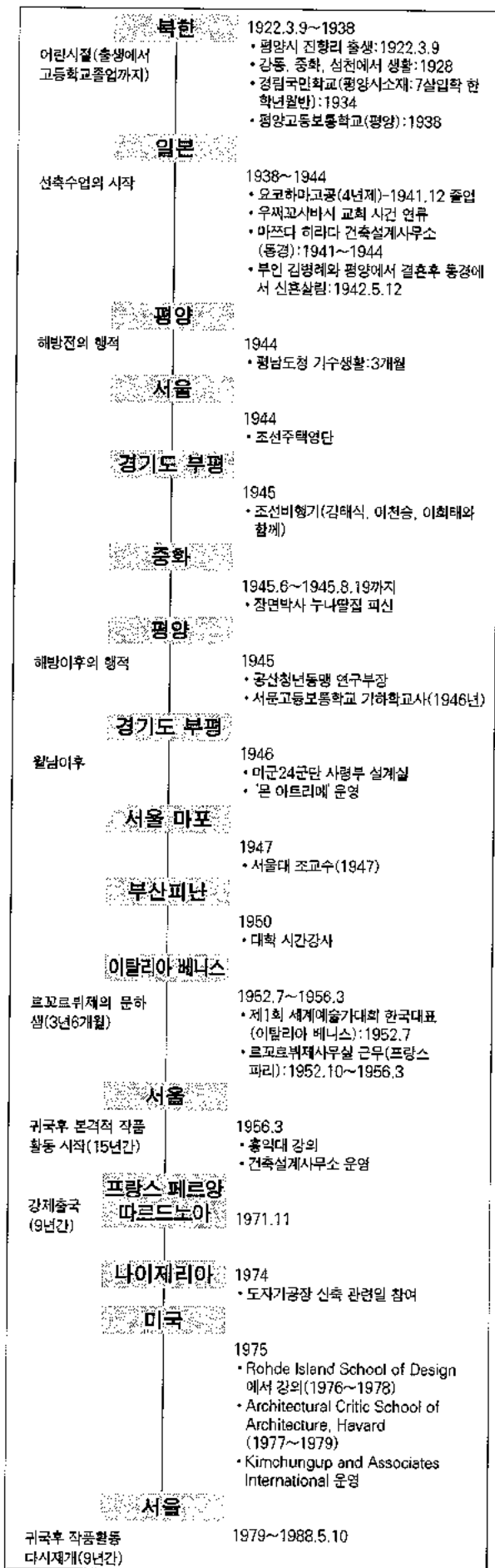


표2. 김중업 일생동반의 행적

명령을 받게 되지만, 공산주의의 한심한 교과서니¹⁵⁾와 폐결핵의 악화로 공산당조직에서 탈퇴하고 만다. 김병례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공산당은 김중업을 다시 설득 시키기 위하여 상당기간 그를 쫓아다니게 되는데, 김중업은 그들을 피해서 건축일을 그만두고 행상을 하거나, 전공과 거리가 있는 고등학교 교사¹⁶⁾를 하다가 결국은 남한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된다. 그러던중 우연한 기회에 단신으로 월남하게 된다. 이에대해 부인 김병례씨는 "번 집안에 문석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동경에 슬대학조각과'를 나왔는데 조각가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동차를 한 대 갖고 있었는데 관에서 지급한 건데 나도 후에 갈테니 먼저 가라고해서 3·8선까지 자동차로 시찰명목으로 와서 대낮에 3.8선을 넘어 버렸지요"라고 회상한다.¹⁷⁾ 월남파정에서 우연하게 만난 미군의 도움으로 경기도 부평에 소재하고 있던 미군24군단 사령부에서 설계일을 하게되는데 그곳에서 과거 해방전 서울의 '조선주택영단'에 같이 있었던 '박학재'를 만나게되고, 그는 박학재의 도움으로 설계일을 소개 받으면서 개인사무실을 열게 되는데 그것이 '몬 아트리에'이다. 개업초기는 미군관련시설인 식당, 교회 등을 설계하면서 사무실 운영 상태가 좋았었다. 따라서 평양에 있던 부인과 아들 회조가 월남하여 북한에서의 생활근거지를 남한(서울마포)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나 미군군속과의 불화¹⁸⁾로 일이 끊어지고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던차에 당시 서울대학 공대 학장이었던 김동일교수(평양고등보통학교 선배)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어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을 것을 권유받게 된다.

7) 김정동, 앞의 책, p.58.; 형남은 김병례(金炳萊)인데... 일제시대엔 중국 육살이를 했고, 일본은 내아메인이 며느리나 집안이 크고 세력이 있으니까 대신 자식을 불러다 혼을 내곤 했지요. 수 잉등우회(홍사단 전신) 사건이냐 하러 늘 형이 감옥갈 틀릭거렸지요

8) 김정동, 앞의 책, p. 58.; 중경야학하고 출신이었다고함.

9) 위략책, p.59.

10) 유일주, 『조식문화사』에 있어서의 韓國人建築家의 活動과 그 作品에 關한 研究, 『韓國近代建築史研究』, 서울: 故尹 建築院 후모논문집 편찬위원회, 1987.11, p.79.
: 1919년 이후 1945년의 解放前까지 工業專門—高工에서 배출한 建築人, 건축기술자(여기에 사공과 설계의 구별은 없다.)의 수는 60명 정도이며 그간 일본의 獨門大學에 유학한 기술자들이 적지않게 있었다. 그러나 그 태반이 1930년 이후에 사회에 진출한 것으로 밀어지여 전체 기술자들 창작(설계)에 종사한 사람은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1) 이영준, '뉴론적 사고를 거부하는 건축가, 김정동', 『공간』, 서울(주)공간, 1986.3, 동권, 224호, p.46.

12) 유일주, 앞의 책, p.79; 김중업은 전라남도목포를 거쳐 1934년이후엔 중독부, 1934년 이후에는 주택영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음.

13) 김정동, 앞의 책, p.61.; 박흥식씨에게 끌려서 '조선비행기'에 들어가지요, 서울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천승, 김태식, 이희태씨를 만나게 되지요.

14) 김정동, 앞의 책, p.61.
: 해방후 소위 공경(井耕)이라고 공산청년동맹 대장 노릇을 했요. 왜냐하면 요코하마 독립운동 시기의 연줄이 돼서요. 그때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해방을 무질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내손으로 '건축동맹'을 만들어요. 거기서 연구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요. 위원장은 로보트지요. 조선 공산당 차림지원을 받아 소위 이북5도에 있는 건축지제를 다모으고 책을 모아 싣은 5층빌딩인 월명의 '금천대 회관'을 합수하지요. '건축동맹회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위 5도의 건축 동맹원들을 재훈련시키는 활동을 하지요. 그때 김일성이 나타나서 설왕을 하고 난 사표를 제출해 버려요. 틀리잖은 거지요. 그러가지고 페방47의 진단서를 내고 말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병기운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공직에서 떠나지요. 그때 모스크바에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금전 공산주의에 현열을 느꼈던 배려...

15) 김병례, 앞의 대답: 표현을 그대로 옮김

16) 김정동, 앞의 책, p.61.;
: 부인 김병례가 졸업한 평양서문고등보통학교의 기하학 담당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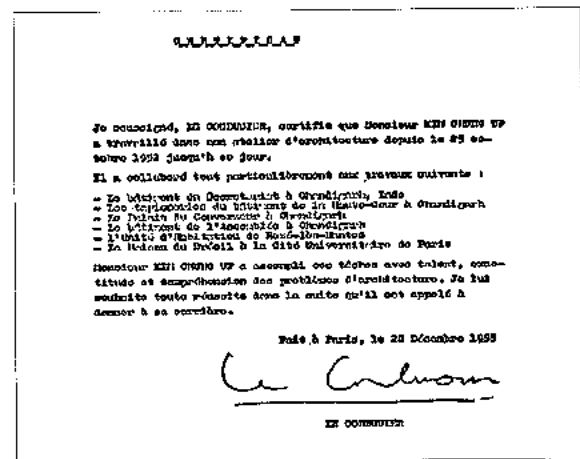
17) 김정동, 앞의 책, p.62.
: 그의 덕분에 대낮에 넘어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수상하다고 '서북청년회'에 잡혀가 열여섯지요. 그때 미군이 잡자를 타고오다 있어서 말리곤 나를 태우고 서울까지 데려왔죠. 저를 '롯데호텔' 맞은 편 'USIS' 자리인데 당시 24군단 사령부였어요. 거기서 스미스라는 소령을 만나요. 24군단사령부 정보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신문물 받게 되지요. 그땐 영어를 조금 했으니까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왔다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지요. 그 후 24군단 사령부 설계실에 설계원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박학재가 있었지요. 나는 설계실에 있는 것이 싫으니 설계도면을 밀리고 했지요. 그러가지고 '메스컴 시티'라고 부르던 부평 미군기지장에서 설계업무를 시작해요. 설계업을 시작한 것은 처음일 거예요. 그것이 46년 말인데 그때 '몬 아트리에'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식당, 교회 등의 일을 했지요. 당시엔 지금 돈 몇천만원씩 벌 데였지요. 서울에서 떠라는 바쁜 모두 환하고 다녔지요.

25세의 나이로 서울대공대의 전임강사로 들어가고 1년만에 곧바로 문교부조례의 규정에 따라 요꼬하마공에서 우등한 사실을 인정 받아 조교수로 임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초고속 진급이 동료, 선배교수들의 선망의 대상이면서 한편으로 시기의 대상이었다. 김종업은 후에 프랑스 르코르뷔제사무실에서 돌아와 서울대에 복직하기를 희망했으나 당시 전임교수였던 이균상¹⁸⁾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대 복직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김종업에게 있어서 학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더불어 김종업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조직의 상사나 건축주 등의 의견이 자신과 다를 경우에 자신의 이익이나 의견을 어느정도 양보하는 타협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결국 이러한 대쪽 같은 성격은 그의 아버지의 피로 부터 이어 받은 것이었겠지만, 자신의 근거가 없는 곳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친구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사회활동에 최대의 장애요인이었다. 전쟁중에는 설계일이란 거의 없었으므로 여러 대학의 강의를 맡으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 김종업이 책임져야 할 식구는 그의 어머니, 형의 가족, 동생들 그리고 자신의 처와 자식들이었다.

서울공대 전임 조교수, 한양공대 전임교수, 서울사대 시간강사, 이화여대 시간강사, 숙명여대 시간강사, 부산공업학교 전임강사 등의 강의를 하면서 전쟁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갔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술가들과 계속 접촉을 가졌고 그런 교우관계가 계기가 되어 1952년 7월 베니스에서 열린 제1회 세계예술가회의에 한국대표중의 한사람으로 참석하게 된다. 김종업은 잠깐 다녀올 생각으로 출발했으나 회의중 특별연사의 자격을 얻어 연설할 기회를 얻게되고, 그날 저녁

연회석상에서 의장단의 일원이었던 건축의 거장 르코르뷔제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에게서 자신의 연구실로 한 번 와보라는 말을 듣고는 돌아갈 비행기표를 돈으로 환전하여 가족들에게 그들의 생활비로 우송해 버렸다.

김종업은 베니스에서 빠리로 가서는 객사(客舍)²⁰⁾에 머물면서 르코르뷔제 사무실로 찾아가²¹⁾ 오랫동안 숙원하던 르코르뷔제문하에서 3년 6개월²²⁾ 동안의 건축공부를 시작한다. 그의 르코르뷔제사무실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조국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참담한 전쟁의 상황, 자신이 두고온 대가족의 식구들에 대한 걱정으로 그의 마음 속에는 하루라도 빨리 르코르뷔제를 극복, 자기화시키고 귀국해야 되겠다는 일념 뿐이었다. 당시 프랑스 생활에 대한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설계도면창고의 열쇠를 빌리기 위해 봉급²³⁾의 얼마를 창고지기에게 떼어주기까지 하면서 고풍 내나는 지하창고에 들어가 먼지 쌓인 르코르뷔제도면을 뒤지면



김종업이 르코르뷔제에게서 받은 경력확인서

프로젝트명	주요도면내용	작성날짜	도면번호(FLC)
Maison Jaoul	Maison A, B의 평면도 창단면도 pan de verre	1952. 11. 21~ 1953. 1. 6	9.961~10.017가운데 9점
Secrétariat, Chandigarh	기준층, 2층평면도, 파사드 창관볼록 평면, 파사드, 단면 옥상정원 평면, 단면, 파사드 배치도, 클럽, 강사로 램프 파사드	1952. 11. 6~9 1953. 2. 23~ 1953. 5. 6 1953. 10. 1~ 1953. 11. 24 1953. 11. 9~14	2.661~3.509가운데 약 97점
Palais du Gouverneur Chandigarh	Raj Bhavan 단면, 단면도, 전체배치도	1954. 5. 2~ 1955. 6. 7	3.803~4.504가운데 11점
Assemblée, Chandigarh	단면도	1955. 10. 24	3.029~3.032
Haute Cour Chandigarh	Tapiserie	1954. 3. 12~ 1954. 4. 1	5.870~5.974가운데 100여점
Villa Chandigarh	램프디테일	1954. 2. 10	6.832
Villa Sarabhai	종단면도, 횡단면도, 1층 도면	1954. 2. 13	6.694 6.701
Villa Shodan	파사드, 실내 인테리어	1954. 1. 30	6.412 6.420

표 1. 김종업이 르코르뷔제사무실에서 그린도면 (정안화, 파리滞留時 김종업이 르코르뷔제에게서 받은 영향에 관한 研究, p.56에서 발췌; 도면번호는 Foundation Le Corbusier의 도면 분류번호)

18) 위의 책, p.62.

: 그후 해리슨이라는 친구가 거기 군속으로 왔었는데 그와 충돌을 했지요. '내가 설계한 것을 집행하지 못하니 100년은 건디겠다. 기초가 이렇게 든든할 필요는 없다. 5년후에 우리는 칠수한다'고 떠들어대요. 나는 '한국은 동결선 10미터는 되어야 한다. 조적조는 인명피해가 없으니 충분히 저야 한다'고 대들었지요. 그것이 갑자기 걸려요. 미군 자체를 지나치게 낭비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만둬버리지요.

19) 윤일주, 앞의 책, p.79. : 통일안전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균상(李均相)은 충북무내무국건축과를 거쳐 1926년부터 고공교수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음.

20) 김종업, 작품집, p.252.

21) 정안화, 「파리滞留時 김종업이 르코르뷔제에게서 받은 영향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서울: 시단법인 대한건축학회, 1997.1, 통권 99호, p.50.

: 김종업은 베니스에서 파리의 르 코르뷔제 사무실로 직접 찾가지 않았고, 이때까지 주요도서들을 방문하여 서고고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행선지는 지금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그의 스케치북에 나타난 여행기록을 보고 추정해 보면, 베니스에서 출발하여 파렌체로 가서,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로마와 나폴리를 보고, 복싱하여 파사와 밀리노를 보고 파리로 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업에게는 최초의 유럽여행이었던 이 여행은 대략 5-6일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양 건축사에 등장하는 걸작들을 중심으로 여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알프스를 넘어 파리로 향하였다.」로 언급하고 있고, 김병래와의 대담에 의하면 김종업은 스쿠터(소형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여행했다고 한다.

22) 정안화, 앞의 책, p.56. : 김종업은 1952년 10월 25일부터 3년 2개월간 르코르뷔제의 사무실에서 일한 것으로 인공하고 있다. 부인과의 대담내용에 의하면 김종업은 1956년 3월에 홍익대에서 강의하는 조건으로 해리슨을 비용으로 귀국했다고 할.

서 수 많은 밤을 새웠다고 한다. 그는 르코르뷔제 사무실생활에서도 탁월한 재능과 성실성을 발휘하여 르코르뷔제에게 인정²⁴⁾(참고자료1)을 받았다고 한다.

김중업은 요코하마고공을 시작으로 르코르뷔제 문하까지의 기나긴 건축공부의 여정을 끝내고 귀국하여 자신의 건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1956년 3월에 그의 개인 건축설계사무실을 열게 된다. 그는 후에 1971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하기 이전까지 15년간 상당히 활발한 건축활동을 하였으며, 이때 그가 남긴 건축작품은 프랑스대사관, 제주대학본관, 유엔모지정문, 한국미술관, 진해해군공관 등의 문화재공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당시 아파트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그는 와우아파트의 붕괴로 오히려 관재를 입고, 도적 쫓 사건을 다룬 글로 필화를 입었다. 마침내는 성남시(당시 광주)의 정책을 공개비판했다는 누명으로, 1971년 11월에 3개월 여권으로 프랑스로 출국 당했다.²⁵⁾이것으로 인해 김중업은 타의에 의한 외국생활을 하게 되는데, 반체제 인사로 분류된 그는 여권의 연장도 안되고 귀국 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다 당시 설계했던 3·1빌딩의 설계비도 못 받은 채 당국의 세무조사에 의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어 성북동에 겨우 마련한 집과 사무실도 풍지박산이 되어버렸다. 어려운 시기에 북한에서 월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은 것처럼 그도 아무런 기반도 없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속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 그도 한 인간으로서 대다수의 사람들 처럼 자신의 기반이 있는 한곳에서 세월의 시류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15년간 다져온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 버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딸을 비롯한 자식과 아내를 뒤로 하고 또다시 여기저기를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100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페르 앙 따르드노아'라는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그의 병간을 위해 보내어진 아내와 돌아서 생활하게 된다. 김중업은 르코르뷔제(당시 유엔본부 건축위원)의 도움으로 유엔 본부에 제청하여 난민 패스포트인 레세 빠세(Laisser Passer)를 발급받아 여권 없이도 프랑스에서는 계속 머물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의 작품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곡회회관, 홍명조씨댁, 외환은행본관 등의 설계가 이어진다. 그러나 그가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그의 작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²⁶⁾ 외환은행본점의 현상설계는 그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의 부인과 단둘이서 완성한 작품이다. 부인으로부터 당시의 눈물겨운 회고를 들어보면, 언제 귀국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환은행본점 설계안을 작성하면서, 그들의 꿈과 소망을 제도판 위에다 그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들을 연습해오는 좌절감과 허탈감을 이겨냈다고 한다. 1974년말이 되어 김중업

은 나이지리아에서 도자기공장의 신축을 위한 설계제의를 받게 되는데 이때 나이지리아와 대한민국의 대통령간의 양해가 이루어져서 김중업은 출국여권을 재발급 받게 된다. 미망인의 중언에 의하면 김중업은 나이지리아 뿐만아니라 아니라 하버드대학 교수직 등의 여러제외가 있었던 미국으로 건너갈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재발급 받은 여권으로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미국 비자기간을 곧바로 연장했다 한다. 무국자의 생활을 청산한 김중업은 나이지리아 관련일을 3개월 정도 관여한후 미국의 '리즈디(Roh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의 교수직 제외가 있어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는 그곳에서 '로버트 타우'라는 사람과 함께 설계사무실(Kimchungup and Associates International)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미국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1979년에 9년간의 유랑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하게 된다.

이제 그는 60이 다된 나이에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내의 건축계는 그가 떠나기전의 상황처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르치긴 했으나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후배제자들과 경쟁하여 일거리를 가져와야 하고, 이미 기록권을 모두 가진 그들의 심의를 받아야 현상설계에 당선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지저분한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으며, 설계사무실의 운영도 쉽지 않았다.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각종 커미션으로 무장한 이사회는 사교성이 없는 영감탱이 예술가가 오직 자신의 재능하나만을 근거로 예술가적 소신을 지켜가면서 버티어가기에는 너무나 추잡하고 힘겨운 상대였던 것 같다. 결국 그는 건축가로서는 아까운 나이인 67세에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미망인의 이야기대로 살아생전에 그렇게 험담하던 사람들이 장례식장²⁷⁾에는 왜들 그렇게 많이들 모여 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갖지만 그의 작품은 남아있다. 혹시 건축선배나 원로들중에 그의 살아생전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좋지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말끔히 씻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에게 김중업, 김수근과 같은 세계적 건축가가 있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23) 김병래와의 대담: 김중업이 르코르뷔제 사무실에 입사할 당시에는 르코르뷔제의 문화생활은 통금을 받지 않는 상태로 입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중업은 고국에 두고는 부양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혼자만 어느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고 함.

24) 정인하, 앞의 책, p.46: 르코르뷔제사무실에서 김중업이 그린 도면은 표1참조

25) 김중업, 작품집, p.286.

26) 김병래의 중언에 의하면, 서울의 김중업 건축설계사무소는 당시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부인의 조카사위인 권화용(건축가)씨에게 운영을 맡기고 출국한 상태였다고 한다.

27) 김병래와의 대담: 장례당시 3일장을 계획했으나 외국에 나가있던 지식들의 권유를 고려하여 부득이 5일장을 치렀으나, 건축계의 각분야에서 몰려드는 운상객 때문에도 5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발인: 1988년 5월 15일, 오전10시, 강남성모병원

장지: 경기도 포천군 대촌면 서능곡원묘지

미완(未完)의 빈 공간(空間)

Unfinished

화엄학림(華嚴學林) 수도원 계획안

조인숙 / 다리건축
by Cho In-Souk

프로로그

인간의 美意識을 자극하는 要素가 作品속에 내제되어 있는가는 建築을 하거나 評價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름다움이 어떤 구체화된 형태에 담겨져 있어 그 형태 또는 그 로인해 만들어진 空間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좋은 건축을 했다고 評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들은 이러한 美意識이전에 원초적인 것들조차 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다.

년 전에 우연히 한 보살의 소개로 실상사(實相寺) 주지인 道法스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었고 그로부터 반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녹음이 우거진 어느 여름날 스님께서 전화로 찾으셨다. 그 무렵 마치 모 寺刹의 불전(佛殿)설계일로 전라남도 지방을 드나들던 참에 광주를 거쳐 88도로를 달려 남원으로 향했다. 지리산을 연꽃에 비유할 때, 그 연꽃의 核에 해당되는 위치에 신라시대의 古刹 實相寺는 자리하고 있다. 파노라마로 이어지는 지리산의 실루엣을 맘껏 누릴 수 있는 곳이

다. 도법스님께서는 '길 그리고 길'에서도 쓰셨듯이 韓國佛敎 최우선 과제인 바람직한 수행자의 相과 균형잡힌 수행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화엄사상과 정신을 깊이 천착해야 된다고 판단하시어 實相寺내에 華嚴學林을 창설하셨고 그곳에서 수도하고 있는 승려들에게는 그 다음단계로 계속 정진할 수 있는 소위말해 상급반의 수련시설이 필요하여 의논차 필자를 부르신 것이었다.

寺刹 뒤편 산 밑에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더 떨어진 곳에 전답이 많은데 그 중 몇필지가 팔릴 운명에 처했었다. 농부가 돈이 필요하여 염소치는 사람에게 내어놓았는데 절뒤에서 염소를 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여 스님께서 인수하시게 되었다. 그곳에 장차 수행자들을 위해 수도원을 짓고자 하셨던 것이다.

실상사 경내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는 文化財규범을 따라야 하므로 복원 내지는 修理이 외에 신축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는 그 규범을 따르고자 하면 경제가 뒷받침이 안되게 되어 있다. 사찰에는 돈이 없으니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佛殿이나 강당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142-1외
대지면적	6,810㎡(2,060평)
국토이용계획	준농림지역
계획규모	50평건물 4동(약200평)



대지현황

또는 무슨무슨 閹들은 기복신앙과 직결되므로 신도를 주머니에서 건축비가 나오지만 스님들 공부하기 위한 수도원을 지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경내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땅이 생긴 셈이었다.

思想이나 哲學이나 하기 이전에 寺刹 관련 건물설계에 대한 몇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는 시주자가 선포 내용을 수 있는 금액의 건물규모로 쪼개는 것. 둘째는 유지·관리비용이 최소일 것. 셋째는 사용자가 바뀌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스님들께서는 한 곳에 영원히 계시지 않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 건물이 실체화되는 것은 눈에 보이므로 돈 낸 보람을 느끼지만 사후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하는 시주자는 드물다. 보통 사찰은 신도들이 있으므로 유지관리비가 충당은 되지만 수도원은 관리비 충당이 불가능하다. 개인 또는 소규모 시주자가 선포 응낙할 수 있는 금액이란 대체로 일억원 미만이라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만일 한국식목조건축이라면 여덟 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 개량 신식으로 하자면 약 30평 정도의 규모까지도 어찌어찌 지어볼 수 있는 금액이니 계산은 금방된다. 일반 건물은 단일 건물일수록 공사비가 절감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나 사찰은 반대다. 건물 덩어리가 크면 시주자 모으기가 어렵고 따로이 관리를 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예를 들어 승려 한 분에게 필요한 수도공간이 평균 여섯 평이라 가정해보자. 열 분이 기거하려면 건물은 약 60평 정도 필요하므로 30여 평짜리 건물 두 채면 우선 된다. 건축비는 최소로 할 경우 약 2억 정도면 되겠지만 추후 생계유지비는 어찌할 것인가. 신도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불전을 일만 원 놓고 간다고 가정을 하면 승려 한 분을 후원하려면 몇 명의 신도가 정기적으로 와야 하겠는가? 최소 한분에게 약 200여 만원이 든다고 하면 승려 한 분당 신도 50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수도승들은 대개 하루에 한 끼 정도 잡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분의 수도승을 후원하려면 월 약 2천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숫자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이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 도법스님께 설명 드리기

를 전혀 금전적으로는 생산성이 없는 건물이므로 작게 지어서 건축비 및 유지관리비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돈벌이가 전혀 안되는 건물을 쓸 데 없이 크게 짓는 것은 적약이다. 부처님을 모시는 佛殿이야 장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수도원이다. 모습도 중요하지만 수도공간이라는 본질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과정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일이었다. 주어진 예산이 없으므로 규모나 공사비를 마음껏 책정할 수 있는 일이 사찰일이다. 아마도 누군가가 건물을 지어주기로 한 것 같고 필자의 소임은 기술을 보시(布施)하는 일이다. 사실 이런 경우 돈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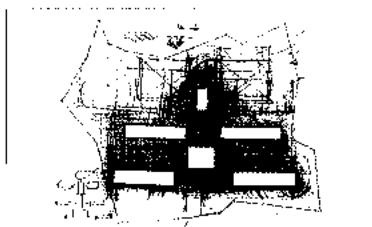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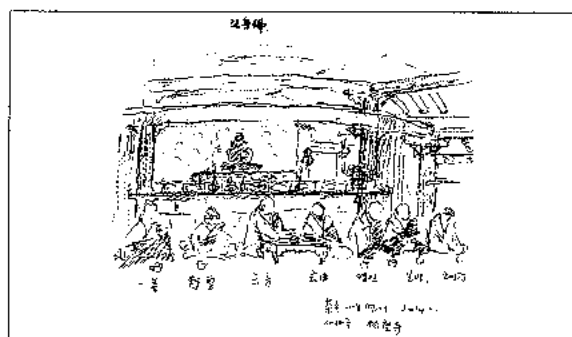
방향설정 및 기본구상안을 넘겨주기로 했다.

基地는 南高北低型으로 산 밑의 비교적 편편한 논이었다. 주위에 연못 및 관개용 저수지들이 있었고 사방으로 지리산이 눈에 들어왔다. 실상사까지는 불과 700~800m정도 걸어서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 열 다섯 분 내지 스무 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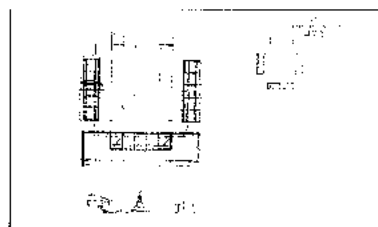
1)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과 지권인
수인(手印: 부처의 손기위를 꼬부리는 형태) 중에 지권인은 비로자나불이 결하는 것이고 이 형식은 일체의 무명 번뇌를 없애고 부처의 자혜를 얻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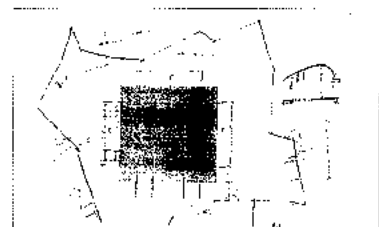
지권인(智拳印)



스케치 1



스케치 2



스케치 3

의 수도승이 기거할 수 있는 수도원을 짓기를 원하였다.

우선 中心空間인 부처님 모시는 殿을 한 棟 가운데 놓고 수도승들의 방은 佛殿을 向하여 병렬배치하고 단제로 모여서 함께 예불 올릴 수 있는 강당을 배치하였다. 수도승들이 정진하는 공간은 개인개인이 自然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루-방-툇그리고 외부공간으로 이어 한 방향으로 늘어놓았다. 너무도 교과서적이고 개인적이라 흡족하지 않아 다시 배치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中心空間을 정가운데 두고 그곳에 비로전을 놓았다. 비로자나불¹⁾을 四面佛로 새길 계획을 하고 수도승들의 空間으로 에워싸서 초기 가람배치 형태로 하였다. 수도승들이 조석으로 부처님을 대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것이다. 각자의 방에서 마루로 나와 예불을 올린다.

스님과 몇 번의 만남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생각이 다듬어져서 비로자나불에 대해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다. 이곳은 Advanced Class에 해당하는 승려들의 수도원이다. 과연 佛像이 필요할까?

이번에는 없애는 作業이 시작되었다. 像-Image, 佛像-Buddha Image, 상이 있고 없고의 實體의 문제는 아니리라. 中心空間을 비워 보았다. 즉 부처는 마음속에 存在하는 것으로 두고, 시작도 끝도 없는 빈 부분을 놓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도록 하는 배치였다. 깨끗이 다듬어진 부처님의 형상이 없는 빈부분을 예배의 대상공간으로 구성하여 座禪²⁾ 중간중간에 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승들의 개실에서 문을 열면 전체가 예불공간이 되도록 했다. 외부에서는 직접 진입을 통제하고 승려들은 각실의 방문을 닫으면 개개인의 參禪공간으로 독립되어 佛像이 있고 없음에 구애되지 않고 그 存在 자체조차 무의미해질 때 비로소 영원한 자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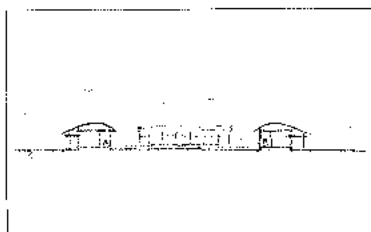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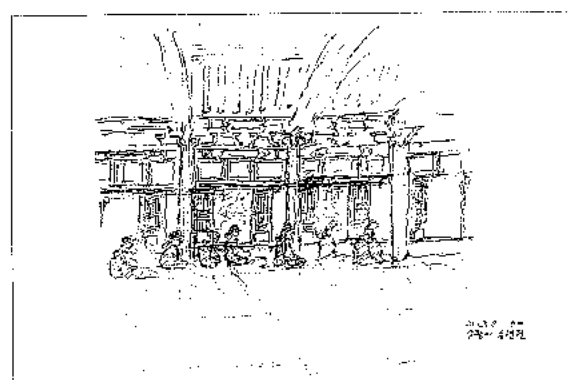
이 과정의 설명은 데리다의 "抹消(sous rature)"과는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 개념은 한 단어의 의미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우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독할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건물의 모양이나 재료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공간의 형상을 빈 공간으로 두었기 때문에 단순히 빈 것으로 출발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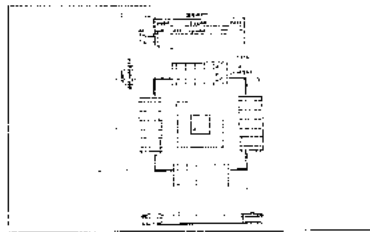
에필로그

비가 몹시 쏟아지던 가을날 아픈 몸을 이끌고 전주까지 간신히 운전하고 가서 전주에서 다른사람 차원으로 빗속을 뚫고 지리산을 향했다. 어둠속에 실상사에 도착하여 스님께 스케치를 넘겨드리면서 시주할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고 시주자와 직접 관련있는 설계자에게 도면 및 인·허가작업을 시키시라고 했다. 필자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음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신은 살아서 꿈틀거리지만 기능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시주자는 레미콘을 부어 단일 건물로 콘크리트박스를 지으려고 할 것이고 숨쉬는 건물을 계획한 필자의 의도는 묵사발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않고 내가 하면 절에서는 내게 지불할 돈은 없을 것이고 나는 협력설계비를 물어내느라 또다시 여기저기 품팔이를 해야 할 터이니 마음이 아파도 냉정히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 末宗의 空間들이 散在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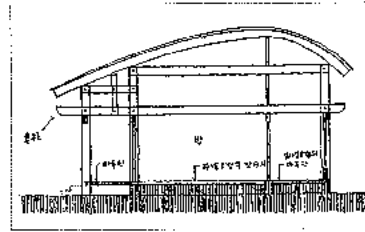
2) 참선의 예



스케치 3-1



스케치 3-2



스케치 3-3

협회소식 / 91

건축계소식 / 93

현상설계경기 / 99

계획작품 / 115

해외잡지동향 / 12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9

신입회원 / 133

게시판 / 137

이번호부터 협회내 소식과 건축계의 동향, 각종 정보, 공지사항 등을 한데 모아 「건축마당」을 새로이 신설한다.

이 날은 모든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소식을 전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코자 마련된 것으로 사무소의 소식이나 근황, 각종 사무소 공지사항, 작품(계획작품, 현상설계응모작품 등), 회원활동(건축기행단, 세미나 참석결과 등) 등 회원 주변의 애기들을 모아 엮어나갈 예정이다.

회원재워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협회소식 KIRA news

OECD워크숍, 대표 파견

건축사 등 전문직종의 국제거래 자유화 확대방안 논의

우리 협회는 WTO 및 OECD 가입에 따른 건축설계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코자 지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워크숍에 협회를 대표해 이정근 국제위원장을 파견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OECD가 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추진 중인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종에 대한 각국 규제개혁을 통한 국제거래 자유화 확대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사회 개최

제1회 임시총회 3월 27일에 개최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1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회

- 제1회 의안 : 97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97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3월 27일 (목) 오전 10시에 협회 강당에서 개최키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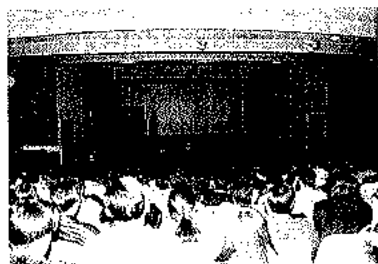
이사회 광경

- 제2호 의안 : 97전국건축사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97전국건축사대회를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올림픽 제1경기장(체조경기장)에서 개최키로 함.
- 제3호 의안 : 건축설계표준화교육 시행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건축설계표준화교육을 원안대로 시행하고, 예산은 예비비에서 사용키로 함.
-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다시한번 홍보키로 함.
- 제4호 의안 : 건축사보조원관리규정 시행중지 승인의 건
- 건축사보조원관리규정을 97년 2월 14일자로 시행중지키로 함. 단, 제1회 임시총회에 상정 폐지키로 함.
- 제5호 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운영·시행방안 조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현재 1부1과로 되어있는 조직을 1부 3과로 조정하고, 인원은 현행 8명에서 25명으로 조정, 인력관리비(연회비)는 현행 1만원에서 2~4만원(자격별 차등)으로 조정) 단, 협회의 통합관리로 인한 서울건축사회 인력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 검토키로 함.
- 제6호 의안 :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단,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함. (회원부: 직제 - 1부 1과→1부 3과, 직원정원 - 4명 → 25명)
- 제7호 의안 : 97년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제1회 임시총회에 상정 추진키로 함.

- 제8호 의안 :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계획(안) 승인의 건
- 우리 협회가 건설기술자교육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건설교통부에 원안대로 승인 신청키로 함. 단, 교육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의 승인후 협의 검토기로 함.
- 제9호 의안 : 「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서 제출 승인의 건
- 「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전국 회원들의 연명으로 관계요로에 제출키로 함.
- 전국회원 이외에 건축3단체 등 건축계 전반의 폭넓은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함.
- 건의문은 협회발전위원회 비상대책소위원회에서 작성토록 위임함.
- 제10호 의안 :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계비 경감 승인의 건
- 충청남도지사가 요청한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330㎡이하)에 대한 설계비 및 감리비를 50% 경감키로 함.

건축설계표준화교육 실시

관련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3월중 지역별로



교육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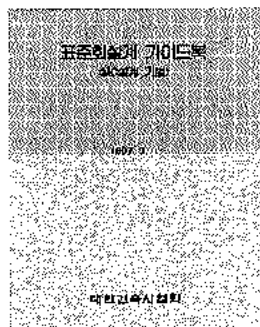
우리 협회는 건설분야 표준화의 조기 정착 등 정부시책에 부응해 동기준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 소속 실무자 등 관련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건축설계표준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정부가 건설분야 표준화 추

진계획의 일환으로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309호, '96. 9. 18)을 개정·공포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에따라 사전교육을 통해 동기준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협회외에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 총 5천 6백여명의 관련실무자들이 교육대상이다. 교육은 관련실무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중 18일 동안 12개 각 지역을 순회하며 매일 오전(09:00~12:30), 오후(13:30~17:00) 두차례씩 실시된다. 교육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1만2천원이며 공무원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표준화설계 가이드북」 발간

MC설계기법 소개



우리 협회는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이 개정되어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무에 적용된 표준화 설계도면 등에 대한 사례들을 취합·정리한 표준화설계 가이드북을 발간해 회원 및 관련단체 등에 배포했다.

이 가이드북은 MC의 배경, MC의 개념 및 이론, 벽식 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 지침, 안목치수 설계 활용방법, MC설계도 구성체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MC설계 도면 사례 등을 부록으로 실었다. 이번에 발간

된 가이드북은 3월 3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시행되는 건축설계표준화교육 때 교재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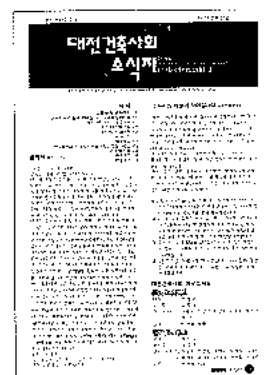
서울시건축사회, 등산대회 개최

회원 및 가족 등 참가

서울시건축사회(회장 이세훈)는 지난 2월 23일 정기산행 행사를 갖고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서울 원자동에 위치한 청계산 등반에 나선 이날 산행에는 소속 회원 및 가족 등이 참가해 모처럼만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산에서 초봄의 정취를 만끽하였다.

대전건축사회 소식지 발행

회원동정, 건축관련자료 등 담아 격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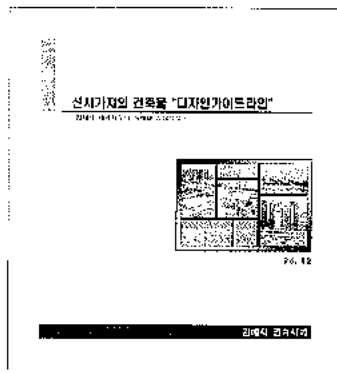
대전건축사회(회장 이영순)가 정보화시대를 맞아 지역건축문화의 활성화 회원간 정보교류의 확대를 위해 「대전건축사회 소식지」제1호를 발행했다. 격월로 발행되는 이 소식지에는 대전건축사회 소식 및 회원동정, 기고, 동호회 활동 상황, 건축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앞으

로 200여 회원들의 또하나의 눈과 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건축사회 「신시가지-디자인 가이드라인」 발간

김해시 내외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해시건축사회는 미래 김해시를 환경친화적 매력을 지닌 도시로 가꾸기 위해 「신시가지 건축물의 "디자인가이드라인" - 김해시의 내외지구 사례를 중심으로」란 제명으로 연구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서는 김해내외지구라는 장소특정적 상황과 개발진행중이라는 현실적 여건에 밀착해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도 한편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병행하고 있어 일반 신시가지 계획에 좋은 참조가 되고 있다. 김해시건축사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내외지구 상업지역의 가로망체계 및 도로구조의 개선, 내외지구 건축지침의 개정 및 관련 조례의 탄력 운용, 도시경관 기본계획 및 경관조례의 법제화, 도시디자인 전문가의 양성 등을 건의하고 있다.



건축계소식 news wide

건축역사학회, '97한·일 민가 심포지움 개최

'마을의 민가구성원리'에 대한 학술발표 및 토론 열려

한국건축역사학회(회장 박언곤)는 3월 8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한·일 민가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마을의 민가구성원리'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민가의 구성원리, 현존 마을의 민가구성 사례, 일본 丹波지방의 민가 등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 및 종합토론이 열려 임충신(마산대), 박명덕(동양공전), 전봉희(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일본측에서 永井規男(關西大), 福井幸洋(福井大) 교수 등이 강연과 발표를 했다.

문의 : 박명덕 교수 (02-610-1806)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개원

조형예술과 등 4개과 3월 개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이 오는 3월 석관동 교사에서 개원한다. 조형예술과와 디자인과, 공간연출과, 미술이론과 등 4개과에 80명정원(97년 입시에서 60명을 선발)의 규모로 개원될 예정인 미술원은 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교수가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정된 교수 중에는 동국대 예술대학장을 지낸 오경환 교수가 미술원장에, 민현식(건축-설계), 김봉렬(건축-이론) 교수가 공간연출과에, 전수천(평면조형), 윤동규(입체조형-설치), 안규철((입체조형-조소),

이주용(매체조형), 배준환(공예) 교수가 조형예술과에, 강태희(미술이론과) 교수가 미술이론과에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알바 알토 작품전 개최

작품전시 및 강연 등 알바알토 건축세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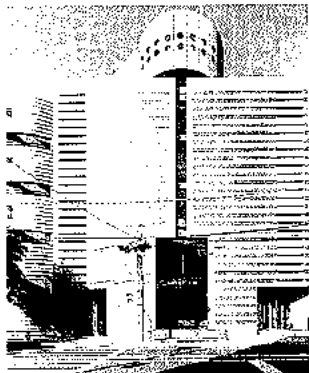
알바알토(1898-1976)와 그의 대표작 마이제아 빌라

핀란드 건축가 후고 알바 헨리 알토(1898-1976) 작품전시회가 지난 2월 5일부터 23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알바알토의 작품세계와 가구'란 주제로 문예진흥원과 주한 핀란드대사관, 알바알토박물관이 공동주최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알바알토의 대표작인 Panamio Sanatorium을 비롯해 그의 설계도와 모형, 사진 등이 전시돼 그의 작품세계와 경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전시 첫날인 5일에는 핀란드 알바알토 박물관장인 Markku Lahti씨와 최동규(서인건축), 최병훈(홍익대 교수)씨 등이 다양한 주제로 강연회를 펼쳐 알바알토의 건축세계와 생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핀란드 현대건축을 조감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마리오 보타 건축전 열려

대표작 「아트 갤러리」 등 22작품 전시돼

스위스를 주무대로 활동중인 스페인 태생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작품전시회가 지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한남동 로튼다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동경에 위치한 아트 갤러리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등 주로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돼 마리오 보타의 작품들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리오 보타는 현재 삼성그룹이 추진중인 복합문화공간 중 세라믹 박물관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타리울 갤러리, 일본(1985~1990)

건축동인 모임「웅마루」, 중국 도시탐사 기행

세계 각 도시 기행내용을 담은 「웅마루 6집」 발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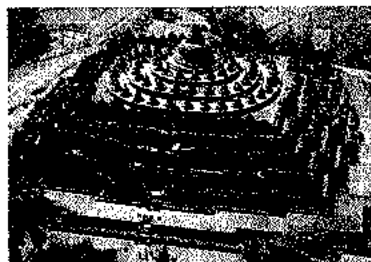
건축동인 모임「웅마루」가 지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중국내 주요 도시와 건축물들을 답사하는 도시탐사 기행을 다녀왔다. 「도시탐색 - 이 시대 우리가 사는 도시에 대한 반추」란 주제하에 그동안 일본, 홍콩, 유럽지역의 여러 도

시들을 탐색하며 진행해 왔던 해외 도시 기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중국기행에는 1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기행 목적지는 상해, 항주, 소주, 계림 등 중국내 주요 도시들이 대상이었다. 한편 웅마루 모임은 이번 기행을 포함해 그동안 진행해 온 세계 각국 도시들에 대한 건축기행내용들을 정리해 올 해안에 웅마루 6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한길회, 인도네시아 건축기행

주요 종교사원 석조건축물 등 답사

건축인 모임인 한길회(회장 윤석우)가 건축탐구를 위한 연례행사의 하나로 지난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해외 건축기행을 실시했다. 이번 기행은 보로부르(Borobudur) 불교사원과 땀막실링(Tampak Siring) 힌두사원 등 인도네시아내 불교·힌두교 문화권 지역이 답사코스였으며 기행에 참가했던 회원들은 일찍이 인도로부터 전파된 석조건축물들을 일목요연하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길회 회원들은 이들 사원외에도 기원전 7~10세기 무렵에 중앙자카르타 지역에 건립된 프람바난(Prambanan)의 Lero Jongrang Complex와 중앙자카르타로부터 전파되어 변형되어진 발리의 땀막실링(Tampak Siring) 힌두사원, 고아가자(Goa Gajah) 코끼리 동굴사원, 따만아이운(Taman Ayan) 사원 등을 답사하였다고 한다.



보로부르 불교사원 전경

아рки움 건축 답사기행

「르 꼬르뷔제의 확인」 주제로 사무소원 등 16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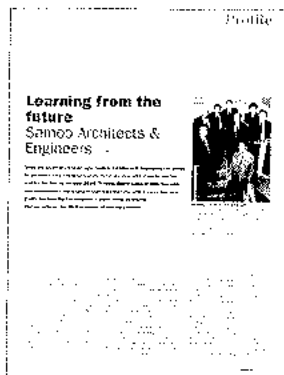


(주)건축사사무소 아рки움(대표 김인철)은 지난달 설날을 전후해 10일동안 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럽건축기행을 다녀왔다. 이번 건축기행은 「르 꼬르뷔제의 확인」이란 여행주제가 말해주듯이 스위스 취리히를 기점으로 리옹과 마르세이유를 거쳐 파리에 이르는 일정동안 르 꼬르뷔제의 작품세계와 그의 생각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이번 기행에는 사무소 직원 외에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건축주와 시공자, 실습생 등 모두 16명이 참가했다. 특히 사무소원들은 여행에 앞서 송인호 교수(서울시립대)의 특강을 통해 철저한 사전 답사준비를 한 후 롱상언덕, 라뚜렛 등 르 꼬르뷔제의 자취를 직접 둘러보았으며 또한 여행중에도 각자의 연구내용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英 World Architecture誌, 삼우설계 특집개재

200여 페이지에 걸쳐 커버스토리로 소개

삼우설계(대표 김창수)가 영국의 유력잡지인 World Architecture誌에 커버스토리로 특집으로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 유명잡지가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소개한 기사를 실은 경우는 흔하지 않았으나 삼우설계의 경우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해 커버스토리 특집으로 다룬 예는 흔치 않아 삼우측으로서는 이를 매우 의미있게 평가하고 있다. 삼우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W.A誌로부터 특집지면 배당을 통보받은 이후 12월말경 영국의 건축평론가 Timothy Ostier가 1주일간 삼우를 방문하여 준공 프로젝트, 설계진행과정 등을 취재하고 인터뷰 등을 벌였다고 한다. W.A誌지는 이번 특집에서 서울에서 느낀 평론가의 활기찬 인상과 한국건축문화의 특색, 삼우의 간략한 역사를 다루고 디자인과 연구개발에 관한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연수원, 오피스 빌딩 등 15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한 부분에서는 프로젝트에서 주어진 도전할 문제와 해결책들을 다루었다. 한편 삼우가 소개된 World Architecture Profile란은 W.A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특집란으로 지금까지 이 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설계사무소는 HOK, Norman Foster, NBBJ 등 50여개 사(社)이다.



주거학연구회, 일본주택계 방문

일본 주생활전반의 전시장 견학

박연심(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 장원건축) 회원을 비롯해 각 대학의 주생활학과 교수들이 주축이된 주거학연구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일본주택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연구회측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거품경제이후의 경기침체로 주택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자체 품질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고객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으며 주로 주부 및 노년층을 겨냥해 다양한 홍보물을 발행, 배포하는 등 직접 판매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잠재고객 확보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전국 곳곳에 주택 전시장 및 주생활 체험관, 주택실험실이 민간 양측에 의해 세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일본 방문기간 중 견



대하하우스 건물의 모형전도 (앞의 둥근 부분이 주택역사관 및 회의장)



USK프라자 건물 전경



대하하우스 주택역사관 내부

학한 주생활 전반의 전시장 리스트이며 연구회 측은 다음 기획에 견학내용들을 사진 등 확보를 통해 자세하게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명	시설내용	건립주체	위치
OZONE LIVING DESIGN CENTER	living information, life style lab, shop, show room, event & academy	東京 GAS	石新居 3-7-1, 東京
宇都宮 CODI-NATER PLAZA	건축자재회사로서 reform, refresh 공사 희망자 (end-user)에게 직접조업, 자료제공, home theater, computer simulation	大建工業	西新宿 7-5-25, 東京
USK PLAZA 21	지역수용자 대상 USK 기술 및 경영방탕 홍보, 21세기형 주거개발 제언	USK	竹林町 1063-3, 宇都宮
住宅都市試験研究所	미래주택연구, 실험연구시설(조명, 음향) 실험주택(you make 주택, 태양열 이용, 재택근무, 노인주택)	住宅都市整備公團 HVD	石川町 2683-3, 八王子
NATIONAL LIVING PLAZA	주생활에 관련된 제품홍보 실물사용 test, AV living room, home theater	NATIONAL	新橋 6-17-15 National Halls 1F, 東京
大京 ELSA관	주택건설업체 大京에서 판매하는 전국의 주택정보제공	大京建設	新宿 6-17-15, 東京
NHK STUDIO PARK	welcome, wonder, history, open, media, town 등 각종 studio를 구성하고 있다	NHK	港谷區, 神南 2-2-1, 東京
積水 HOUSE 종합 주택연구소(納得工房)	각종 공간 및 노약자 장애인의 실제적인 시설체험	積水HOUSE	木津町 興台, 京都 0774-73-1121
大하하우스	주택성능실험실, 실험실의 고객들의 관광공간, 건축자재 전시, 주택역사관	大하하우스工業	京都
HOUSE QUARE	주택정보 교류거점 건설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정보의 one stop 제공 28개의 住宅展示場, 도서관	요코하마시 건설성주택국 및 민간단체	中川町, 横浜
野村 LIVING CORE	노후주택홍보, 고객상담 Coordinate room-13개소	野村주택	横浜
大版 GAS SHOW ROOM	각종주택실험: 실습, 체험	大版 GAS	大版

「'97건축가협회상」발표, 시상

건축문화사옥 등 7점 수상

제19회 건축가협회 수상작이 발표됐다.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는 지난 1월 24일 올해 건축가협회상 수상작으로 건축문화사옥 등 7점을 선정하고 지난달 18일 오후 3시 문예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작들은 총 심사대상 작품 2백20점 가운데 예비심사에 통과한 22점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벌여 그 결과 최종심사에서 선정된 것이다. 심사는 김정식(심사위원장, 까치건축), 박길룡(국민대 교수), 오기수(스페이스·오), 윤석우(종합건축), 조구현(신세대건축)씨 등이 맡아 했다. 건축가협회는 또한 '97특별상 가운데 초평상 수상자로 고 장세양 공간대표를 선정하였으며 그가 설계한 경기도립박물관에 아천상을 수여했다. 또 엄덕문상은 삼성정밀화학복지관을 설계한 박 승(삼우설계)씨가 수상했다.

- '97건축가협회상 수상작 명단 (작품명/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순)
- 건축문화사옥 / 김광현(서울대 건축학과) / 산업도서 출판공사 / (주) 대민종합건설
- 부산방송국 리노베이션 / 이성관(한울건축) / 부산방송(주) / (주) 국제종합토건
- 삼보컴퓨터 사옥 / 정립건축 / (주)삼보컴퓨터 / LG건설(주)
- 신도리코아산공장 본관 / 민현식(기오현건축) / (주)신도리코 / 두산건설(주)
- 신정동 여성의원 / 최관영+정동명(일건씨엔씨 건축) / 이재춘 / (주)삼협특건
- 용문청소년수련장 / 김영설(건축문화)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한울종합건설(주)
- 휘닉스파크 콘도미니엄 / 유건(시·상건축) / (주)보광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건축분야 정보전산화 동향 워크숍

3월 28일 건축학회 대강당에서

대한건축학회 CAD분과위원회는 오는 3월 28일 대한건축학회 대강당에서 CAD분과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분야의 정보전산화 최근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건축분야의 정보전산화 개념과 정보전산화툴과 환경(CALS, VR, PDM, FM, GLS)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게 된다. 문의 : 대한건축학회 사무국(02-525-1841)

제6회 김태수 해외 건축여행 장학제

신청자중 자격심사 거쳐 우수자에 경비 지급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는 젊고 유능한 건축가들에게 교육과 해외건축여행의 기회를 제공코자 자격심사를 거쳐 우수자를 선발, 미화 1만달러의 해외여행 장학금을 수여한다. 수령자는 본인이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의 목적지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40세미만으로 2년제 전문학교나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현재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중에 있으며 이전에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면 된다. 선정방법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선정방법 및 제출자료 : 포트폴리오 심사 후 예선자 3~5명 선정
- 접수마감 : 1997년 4월 30일
-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접수처
- 주소 : Tai Soo Kim Partners 285 Farmington Avenue, Hartford, CT06 105

U.S.A

전화 : 860-547-197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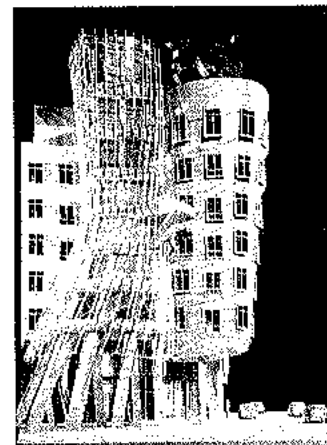
(주)TSK건축사사무소

전화 : (02)588-2703~5

「국립네덜란드 빌딩」 96년 최고 디자인 작품

美 시사주간 TIME지 선정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지가 뽑은 96년의 최우수 디자인 건축물에 체코 프라하에 세워진 '찌그리진 건물'이 선정됐다. 이 건물은 캐나다 태생의 미국 건축가 프랑크 게리와 크로아티아 태생의 블라디미르 밀루니치가 설계해 지난 96년 5월에 완공된 작품이다. 네덜란드 보험회사의 의뢰로 설계된 이 건물은 왼쪽부분을 찌그리진 원통형태로, 오른쪽 부분은 정상적인 모양으로 처리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찌그리진 원통형태의 타워는 외벽이 투명 유리로 돼 있어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며 앞에 위치한 몰다우강의 풍경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다. 3차원 컴퓨터작업을 통해 정교하게 설계된 이 건물은 중세 시대의 오래된 건축물이 원형대로 보존돼 있는 '건축박물관' 프라하에서 현대건축예술을 대표하는 건물로 남게 됐다.



국립네덜란드 빌딩 모형

'97서울 리빙디자인 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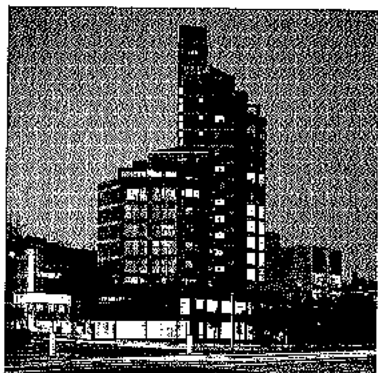
KOEX에서 3. 21~25일까지

디자인 하우스와 KOEX가 공동주최하고 월간「행복이 가득한 집」이 주관하는 '97 서울 리빙디자인 페어가 오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홈리빙 및 인테리어에 대한 최신 정보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가구류 전시관을 비롯해 부엌가구류, 욕실가구 및 시설품, 인테리어 액세서리, 주택정보관 등으로 각 전시관이 마련되며 이밖에도 홈패션 및 침장류, 벽재·창호재류 등 신상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제15회 서울시건축상 수상작 발표

「태평양파크빌라트」금상 수상

건원국제건축 한현호 회원이 설계한 태평양파크빌라트가 제15회 서울시건축상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 2월 25일 서울시는 95~96년까지의 기간중 준공된 건축물 31점을 대상으로 건축관련 전문가들이 심사를 실시해 이중 태평양파크빌라트 등 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상을 수상한 태평양파크빌라트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



금상 수상작, 태평양파크빌라트

물로 한정된 토지에 지층부와 고층부를 균형있게 배치해 주변지역 어디서나 입체감 있고 개성있게 보이도록 설계된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또 은상에 선정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설계자 / 간·삼건축 김지호)과 등촌동 다가구주택(설계자 / 로가후리건축 박종욱·이일훈)은 각각 주변환경과의 조화, 중간정원의 효과적 배치 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동상에는 서교동 다가구주택(설계자 / 아르키온건축 김민철), 이화여대 아산공학관(설계자 / 정림건축 김정철),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설계자 / 삼우설계 김창수) 등 3점이, 장려상에는 불광동 여성공동의 장(간·삼건축 지순), 연세의료원 안이비인후과 의원(설계자 / 삼연건축 전형근) 등 2점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3월 6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3월 6일부터 1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한다.

전통공예·건축학교 개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월 5일부터 강좌 열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일반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전통공예와 전통건축 및 문화재 보수기능을 가르칠 수 있는 강좌를 마련, 3월5일부터 개강한다. 강의는 1년 2학기제로 초급반과 연구반으로 나눠서 실시하며 모집과목은 초급반의 경우 입사, 한지, 화각, 단청, 표구, 채화칠기, 파혁, 민화, 불화, 자수, 매듭, 침선, 대목, 소목 등이고 연구반은 칠보, 자수, 화각, 소목, 표구, 단청불화, 파혁, 침선, 민화 등이다. 모집정원은 초급반이 과목당 15명이고 연구반은 과목당 10명씩이다.

문의 : 02-722-7734, 739-5987~8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대상 축소

발주기관 자체심의 확대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23일 중소기업의 설계심의를 발주청에 대폭 위임하고 대규모 중요공사만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서 하도록하는 내용의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개정중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공사비가 2백억원이상일 경우 발도록 돼있는 건교부 산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앞으로는 5백억원이상의 대상공사로 축소된다. 또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건교부산하 4개투자기관과 설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심의 없이 자체에서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로 현재는 공사비 3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심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1백억원이상 공사로 축소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설계심의의 내실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중앙위원회의 경우 3백명에서 5백명으로, 지방위원회는 1백20명에서 2백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설계심의실적은 중앙위원회가 3백18건, 지방위원회는 4백64건이나 돼 인력에 비해 설계심의회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심의부실이 우려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건교부는 밝혔다.

오토데스크 솔루션 97

국내 최대 CAD/CAM/CG/GIS기술 세미나

오토데스크코리아와 그 협력업체들이 고객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CAD/CAM/CG/GIS 관련 기술 세미나 및 전시회가 3월 4일부터 5일까지 잠실 롯데월드 호텔 3층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건축·토목·엔지니어링·인테리어 설계를 비롯해 배관·플랜트 설계, 기계·금형 설계, GIS·Mapping, 인터넷·인트라넷, 도면 및 기술정보 관리 등 각 산업분야별 우수 응용 프로그램과 활용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전시회기간중에 선진기술 이론 및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전문가 세미나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성공사례 세미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거림시스템(주), (주)건캐드, (주)소리건축, (주)청우시스템, 한국 씨·아이·엠(주) 등 관련분야 유망 업체들이 참가했다.

제6회 USA인스티튜트 국제설계경기

공공공간-석재의 흔적

USA 인스티튜트가 주최하는 제6회 국제건축설계공모전의 주제와 일정이 발표되었다.

1994년부터 해마다 개최돼 온 이 설계경기는 베로나에 있는 이졸로 피아자라는 공공공간을 재정 의하고 필요한 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당선작에게는 베로나 시장국이 실시설계 계약금으로 5백만 이탈리아리레를, 나머지 상금에 대해서는 USA연구소와 뉴저지 공과대학

이 수여한다. 주제와 주요 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 「공공공간-석재의 흔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공백이라는 이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오늘날의 건축을 할 것인가? 새로운 형식주의의 대두는 재료에 대한 지식과 실제 사용 그리고 건설의 방법과 분리된 테크닉스에 근거한 것이다. 건설의 재료가 이념적인 취지를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재, 대리석, 화강암 재를 가공하는 도시 중 하나이며,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베로나에서 네로나를 위한 작품을 한다는 것은 이론적 담론의 출발점과 필요조건으로서, 결과물로 나타난 건축의 구체성이나 재료성이 아닌 건축에서의 구체성과 재료에 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제기하는 것일 수 있다.

2. 일정

-신청마감 : 1997. 6. 10 (신청 즉시 자료우송)

-작품마감 : 1997. 9. 5. (Federal Express나 DHL만 접수함 /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심사 : 1997. 9. 26.

-시상 : 1997. 9. 27.

-발표 : 1997년 10월 15일

3. 심사위원 : 리비오 디미트리우(미국), 호제 글루스버그(아르헨티나), 블라 디미르 알세네(미국), 빈센조 파반(이탈리아)

4. 상금 : 1등- 미화 3,000불, 그외는 미화 20,000달러 내에서 USA 세미나에 참가할 경우 장학금 지급.

5. 작품제출 : 24인치×36인치 규격의 용지에 수직으로 배치할 것(최고 3장까지 가능).

작품설명문 영어 250단어 이하로 할 것.

6. 참가자격 : 전문가부문은 나이제한 없으며, 학생부문은 건축 및 유사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

7. 참가비 : 참가신청서와 함께 미화 150달러 납부

8. 접수확인 : 미국/001-1-212-727-2157, 한국/053-814-8443~4

9. 문의처 : 053-814-8443~4 (강병준), 02-543-6745 (김용주)

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방향 연구 종료

건축가협회, 문체부에 연구보고서 제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는 지난 1월, 그간 진행해왔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방향 연구'를 마치고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프로젝트는 건축가협회가 지난해 6월 문체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해 온 것으로 6개월여 동안 건축가협회의 총괄책임 하에 건축, 도시를 비롯 박물관학, 동·식물학, 생물학, 인류학, 생태학, 광물·지질학, 고생물학, 곤충학 등 자연사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들이 많아 컨소시엄을 통한 협동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연구위원들은 자연사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 국내외 주요 자연사박물관 현지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지표로 파악하는 한편 지난 해 10월에는 세계 여러나라 석학들을 초빙하여 국제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건축가협회는 이 연구가 한국 초유의 대형 종합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개발하려는 시발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입지결정단계는 물론 기본 기획연구(프로그램)단계를 거쳐 박물관건립의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을지로 2가 도심 재개발
대전도시철도 종합사령실
안산시 문화예술회관
고흥군종합문화회관
진해시청사
진주시청사
오산시 종합문화회관
안동한국국학진흥원
국방부 창동병원
내수구역 제3지구 도심재개발
광진구 도서관

을지로 2가 도심재개발

Urban Redevelopment of
Ulchiro 2-ga

대한주택공사(사장 김동규)에
서는 서울 도심의 낙후지역인 중구 삼각
동 7번지 일원의 을지로 2가 구역 제5지
구에 대한 건축계획을 확정, 국내 현상설
계사상 최고 금액인 83억원을 들여 현상
설계를 실시했다. 지하 7층, 지상 34층
으로 한수이북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층
수로 건설하는 이 지역은 전용 18~45
평 규모의 주택 3백호와 업무시설 3만 4

천평, 상업 및 문화체육시설 8천 2백평
등 총연면적 5만7천평의 대규모의 주상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보
행이 어렵게 되어 있던 명동과 을지로
종로 등에 지하보도와 Sky-Walk를 설치
하여 도심보행체계를 연결함으로써 유동
성이 확보되어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
며, 주거복합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교통
혼잡과 도시의 공동화현상 등 도시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상설계개요

- 공모방식 : 제한공개경기방식
- 공모일정
- 신문공고 : '96. 9. 30
- 접수마감 : '97. 1. 24
- 응모작품수 : 20점

▶ 심사개요

- 일시 : '97. 1.28(화) 10:00~18:30
- 장소 : 대회의실
- 위원 : 11인
강병기(구미전문대), 강홍빈(시립
대), 김진균(서울대), 임창복(성균관
대), 조성룡(도시건축), 이규목(시립
대), 원재무(한양대), 임종원(서울
대), 김학진(주민대표), 변영진(서울
시), 김창익(주택공사)

▶ 심사결과

- 최우수작 : (주)원양 건축사사무소(대
표 이종찬)
-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대표 박홍길)
- 가작(3점) :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
소(대표 이영희), (주)포스에이씨 중
합감리건축사사무소(대표 심인보) +
한울국제 건축사사무소(대표 최병
천), (주)토문 건축사사무소(대표 최
두호)

▶ 시상내용

- 최우수작(1점) : 1.3억원, 설계권
- 우수작(1점) : 1.1억원, 설계권

- 가작(3점) : 각 1억원

▶ 현상설계 접수현황

-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학중
- (주)포스에이씨 종합건축사사무소, 심인보
- (주)원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충언
- (주)동일 종합건축사사무소, 오봉석
- (주)간삼 종합건축사사무소, 지순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원, 박홍길
-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
-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안길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원도시, 변 용
- (주)정림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정철
- (주)우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규창
- (주)화산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서홍
-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림
- (주)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윤석우
-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각표
- (주)천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규봉
- (주)아키텐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우성
- (주)원양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종찬
- (주)창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종원
- (주)토문 종합건축사사무소, 최두호

▶ 최우수작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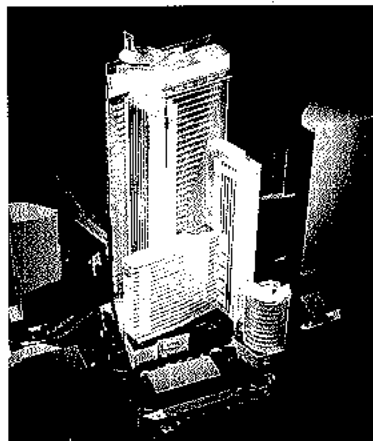
- 삼각동지역의 기존보행로인 동서축과
북악산과 남산을 연결하는 남북축을
주축으로 미래지향적인 건물형태로
계획되어, 서울도심의 새로운 심물로
서 식별성과 Landmark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 도시의 역사성과 삼각동지역의 장소
성 등 도시구조와 연계되는 연결구도
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건물의 공공
성과 공적인 기능을 분명히 반영하였
다.
- 저층부의 가로계획과 중앙광장이 유
입인구를 받아들이고 확산시키는데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어 상업기능과
쇼핑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 보행과 차량동선을 분리시키고 차량
진출입구가 대로변에서 떨어져 적절
히 분산계획되어 차량흐름이 원활하
다.
- 다른 응모작품에도 부분적으로 좋은
계획 등이 있는 바 좋은 설계개념은
수렴해서 토지수요자, 주택공사, 서울

시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발전시켰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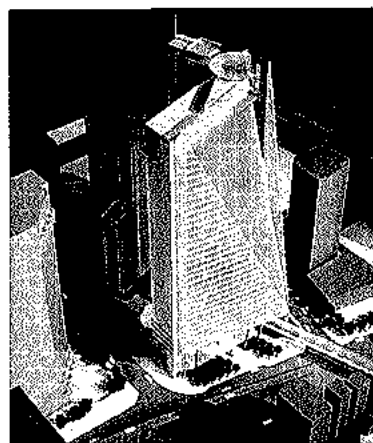
▶ 당선작 / 원양건축(이종찬 · 오승훈)



루시도



모형도 1



모형도 2

위 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제5지구)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2종미관지구, 방화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주거복합유도구역, 재개발구역

대지면적	12,098.40㎡(3,659.75평)
연 면 적	195,895.26㎡(59,258.05평)
용 도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공동주택)
층 수	업무시설-지하 7층, 지상 36층 공동주택-지상 45층
건축면적	7,130.45㎡(3,659.75평)
건 폐 율	58.94%
용 적 륜	1,095.33%

이번 현상설계는 종로, 을지로, 명동을 잇는 을지로 2가 도심재개발 구역내에 시행될 Project로서 업무, 주거, 상업시설이 복합되어 도심 공동화 현상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2000년대 도시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도 컸지만 많은 부담이 가는 계획이었다.

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Issue는 기시행된 16, 17지구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과 삼각동이라는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어떻게 건축에 접목시킬 것인가 또한 도심지내 상업업무시설과 복합된 주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가 하는 것 등이었다.

종로 관철동에 있는 Sky Bridge, 을지로 지하보도와 연결 및 기존 16, 17지구 지하층과의 연결 등은 다양한 Event 행사의 장인 Center Plaza와 상업시설 등과 연계하여 집객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며 이는 16, 17지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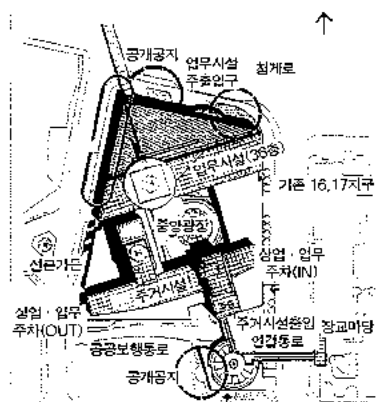
첨단 IBS 빌딩으로 건립될 업무시설 빌딩은 기존 삼각동의 보행축을 살리고 그 축과 도로축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삼각형 요소에 의해 이곳의 장소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것이며 지역 Land Mark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기대된다.

도심지내 업무, 상업시설과 복합으로 건립될 주거건물은 Residential Hotel과 Apartment의 중간적 성격으로 계획하였으며, 양호한 일조조건 및 조망, Privacy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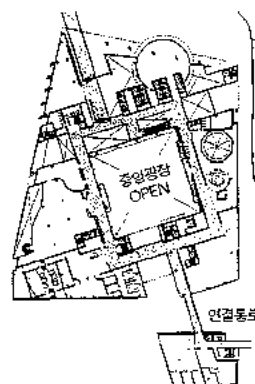
위의 각 시설들을 각각 독립적 이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본계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복합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Design Develop 과 정에서 기본계획때의 아쉬움을 해소하고 개념을 더욱 충실히 반영해 본 Project가 향후 도심 환경조성 및 재개발사업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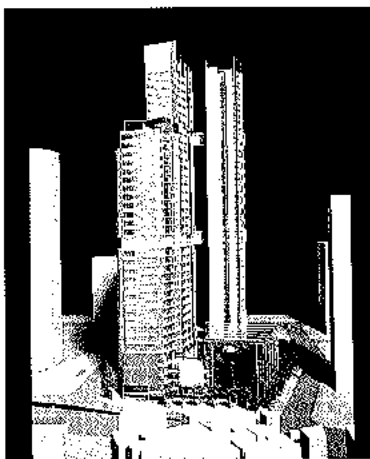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 우수작 / 건원건축(곽홍길)



모형도



투시도

대지면적	12,098.40㎡
건축면적	6,596.97㎡
연면적	192,730.46㎡
건폐율	54.50%
용적률	1,093.49%
업무시설	111,532.27㎡
주거시설	-전용 18평 : 60호 -전용 25평 : 96호 -전용 34평 : 119호 -전용 45평 : 30호
상업시설	27,869.21㎡

매스 및 배치 계획(Massing)

- 전면부에 오피스, 후면부에 아파트를 수평분리하여, 주요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 상업시설의 매스는 종로-명동 보행축을 따라 저층부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촉진한다.
- 오피스와 아파트 매스는 도시 문맥(Urban Context)에 어울리도록 저밀고 중화를 지향하여 지역의 랜드마크(Land Mark)적 성격을 부여하고, 저층부 상업시설은 도시가로의 시각적 연속성(Street Axis)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아파트 매스는 장교 마당을 내려다보는 후면부에 배치하여 좋은 전망을 확보하도록 한다.
- 토지 원소유자를 위한 10,000㎡의 운영 관리를 위해 독립된 건물을 계획한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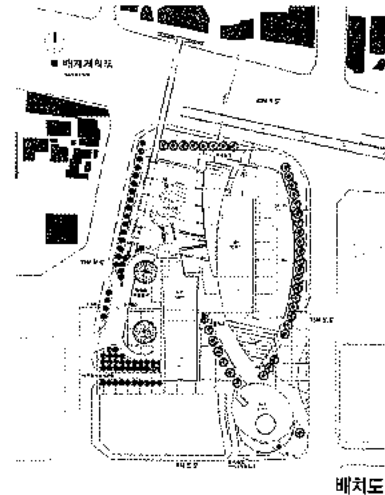
- 아파트 및 오피스/상업시설의 독립된 출입동선 확보와 동시에 각 시설의 활발한 이용을 위한 상호 연계를 도모한다.
- 아파트의 독립된 로비/라운지를 확보하며, 도심 아파트의 고품격화를 추구한다.
- 또한, 독립된 로비 및 시큐리티(Security) 시스템은 각 시설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 오피스 로비의 대형화는 아트리움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형태의 로비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 토지 원소유자를 위한 10,000㎡ 공간을 별도 처리하여, 사후 건물의 별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한다.

단위 평면 계획

- 재택근무공간(Home Office)을 배치하여 도심형 아파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 가변형 평면 도입 및 넓은 거실 공간의 배치로 새로운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다.
- 복층형 형식에 있어서는 2개층에 걸친 조망권을 확보하여, 도심 아파트에 장점을 부여한다.
- 각 실에 샤워 공간을 확보하여, 룸메이트(Roommate)에 대한 고려와 동시에 진보된 주거공간을 계획한다.
- 각 실별로 반침공간(Closet)을 설치하여, 편리한 주거형태를 제시한다.
- 독립된 안방공간(Master Zone) 계획으로 아파트의 고급화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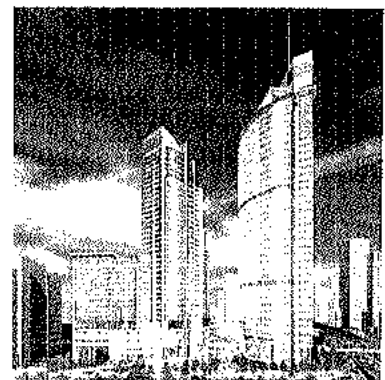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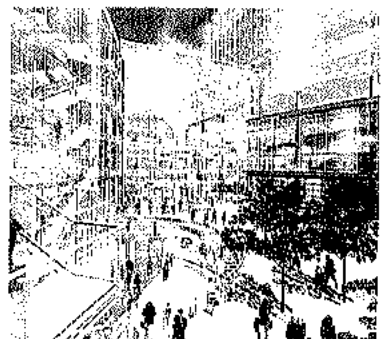


배치도

▶ 가작 / 희림건축(이영희)



투시도



부분 투시도

건축면적	6,445.49㎡(1,949.76평)
건폐율	53.28%
연면적	206,412.10㎡(62,439.66평)
지상	128,247.88㎡(38,794.98평)
지하	78,164.22㎡(23,644.68평)
용적률	1,060%
주차대수	1,564대
협력설계	Kaplan/McLaughlin/Diaz
계획총괄	이영희, 이석문, 정영균
계획담당	지광석, Steve Ryder
계획	강은석, 조남승, 홍용숙, 김동

훈, 허진, 구연희, 김대열, 현
상민, 오현석, 신수진, Steve
Kelly, Tom Wornson
투 시 도 Michael Sechman &
Association
모델제작 Henry Spengler
프리젠테이션 홍관선, 김선주, 변미경,
이행숙, 이은희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재개발
구역과 낙후된 도심지간의 연결을 통해
도시미관의 향상을 도모함과 함께, 주상
복합시설로 개발함으로써 도심공동화 현
상을 막고, 인근의 장교마당과의 연계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주 목적으
로 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가
장 주안점을 둔 목표는

첫째, 기존 삼각동 지역의 역
사성, 장소성의 반영

둘째, 랜드마크성 부각

셋째, 도심환경 개선에 공헌하
는 공공성의 확보

넷째, 주변 도시 콘텍스트에
부합하는 축의 설정

네가지이며, 이를 위해 건물의
배치계획이 가장 중요한 설계포인트가
되었다. 특히 주상복합건물로 개발이 되
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업무시설, 주
거시설, 상업시설간의 기능과 동선 혼재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배치
의 개념이 계획 초기부터 표현되어야 했
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다룬 기능은 주
거기능으로써 주거기능은 첫째, 남쪽에
배치되어야 하며, 둘째, 가능한 업무기능
과 떨어져서 사생활을 보장하여야 했으
며, 셋째, 각 주호간에 사생활을 보장하
고 최대한의 분양성을 확보해야 했다.

그 결과로 나온 가장 효율적이
며 바람직한 배치는 저층의 기단부를 상
업시설로 삼고, 그 상부의 남향에 대해
45°의 축을 가지고 회전하여 있는데, 이
것은 주거동간의 시선간섭을 막고, 동시
에 사무동에서의 시선을 최소한으로 차
단하는 효과를 가지며, 각 주호에 최대한
으로 개방된 조망을 확보하게 한다. 이러
한 효과로 거주성의 증진을 꾀함은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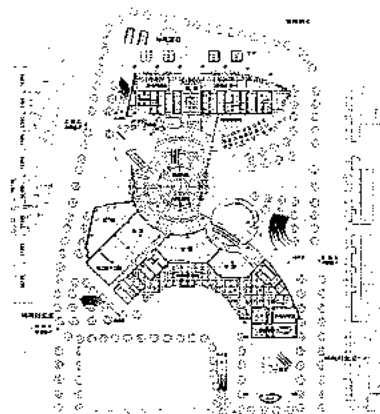
분양성도 함께 높일 수 있었다고 본다.

건물의 외관은 기존 도심의 다
른 건물과의 차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단지내 건물간의 통일성을 획득하기 위
하여 상부의 곡선요소를 도입하였다. 특
히 주거부에 있어서 다양한 발코니 형상
은 각 주호의 서비스면적의 극대화를 꾀
하며, 특색있는 건물외관 형성에 일조하
고 있다.

기단부의 형태는 크게 두 개의
원이 마주보고 있는 형상으로 이러한 형
태는 기존 삼각동에 있는 가로,의 이미지
를 표현함과 함께 대지의 서쪽에서 동쪽
으로의 강한 흐름을 형성하고 대지내의
넓은 중앙광장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장교광장과 개념적이면서도 실제
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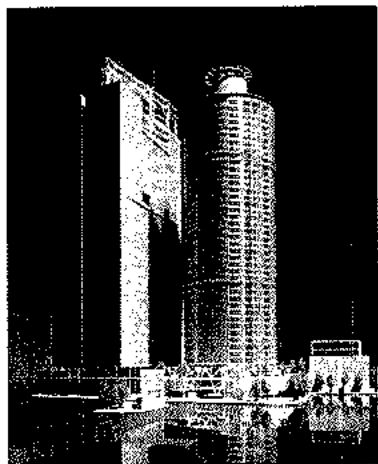
주거동과 사무동에 연결하는
유리의 아트리움은 광장의 개방감을 극
대화하면서 광장에서의 시민들의 활동에
활력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더
불어 보행자 중심의 광장을 형성하기 위
해, 차로를 지하로 유도하였으며, 종로와
을지로를 연결하는 '스카이라이프'의 동
선흐름은 보행자 흐름을 자연스럽게 한
다. 이러한 설계는 지상에서 보행자의 편
안한 활동을 보장하며, 광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동선의 혼재를 막고 기능간의
분리를 추구한 결과로, 저층부에서 상업
시설의 구성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으나,
상업시설로 가득찬 공간보다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의 휴식처
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에 부합하는 만족스러운
설계였다.



1층 평면도

▶ 가작 / 포스에이씨(심인보) + 한울국제건축



투시도

위 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도심
재개발구역(삼각동 · 수하동
일원)

사업면적 16,926㎡(약 5,120평)

대지면적 12,098.4㎡(약 3,660평)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2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방화지구, 주
거복합유도구역, 재개발구역

-배치계획

- 동서 Open Space축의 연결과 재개발지구의 상징적, 기능적, 중심적 구축
- 주변시설과의 유기적 조화를 통한 역동적 분위기 조성
- 다수동의 분산배치를 지양, 집중적 고층저밀화로 저층부의 Open Space와 녹지공간을 확보
- 3층 Level에 종로축(관철 Plaza), 명동부터의 삼각동축(삼각Laza), 장교마당축과 Over Bridge를 설치, 보행자전용 산책로를 자연스럽게 도입

-업무시설

- 북측 대로변 배치로 50m 도로에서의 정면성 확보
- 전면 배치에 의한 대로의 소음으로부터 Open Space 및 주거시설의 쾌적성 확보

-Sunken Plaza(Open Space)

- 대지의 중심점에 방사형 배치 원형 타워의 Landmark적 성격 강화
- 지하 원형공간의 형성으로 공간적 위요감 형성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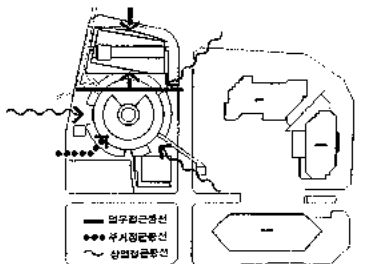
- 원형 중앙배치로 초고층화, 하부 필로티 처리로 최대 개방공간 제공
- 북측 측벽처리에 의한 업무시설로부터의 프라이버시 확보
- 초고층화와 원형형태로 인한 주거에서의 다양하고 양호한 도시경관 조망 확보

—상업시설

- 원형광장을 중심으로 배치, 광장의 활용도 제고
- 지하부상업시설(젊은 계층 대상)과 지상부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업무종사자 대상)의 심도에 따른 성격차별화로 위계형성

—문화시설

- 장교마당과의 시각적 호응
- 문화시설의 집중배치로 이용의 효율성 제고
- 대중의 접근성과 인지성 확보 차원에서 배치



보행동선 개념도

▶ 가작 / 토문건축(최두호)



루시도

대지면적	12,098.40㎡
건축면적	684.97㎡
연면적	193,778.616㎡
건폐율	56.25%
용적률	1,098.79%
사업용적률	1,601.69%
녹지율(조경면적)	16%
업무시설	109,442.92㎡

주거시설 아파트(형별)

- 전용 18.27평 62호
- 전용 25.01평 95호
- 전용 35.95평 130호
- 전용 45.24평 32호

상업시설 26,213.696㎡

계획총괄 이 민, 손 진

설 계 팀 이수열, 이숙희, 윤성석, 박봉근, 박귀영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서울에 대한 거시적 해석과 계획지의 미시적 해석이 일치하는 점을 찾고, 개별 건축물의 표현 욕구로 점철된 현 서울의 난잡한 도시이미지에 대한 개선방향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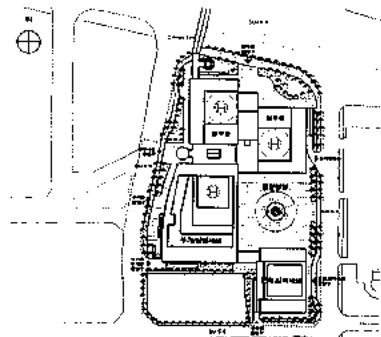
강북과 강남의 지정학적 특성을 볼 때 4대문 안에 들어서는 대규모 건물군으로서의 특수성을 살린다. 이는 건축어휘의 과시적 측면과 high-tech 이미지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을 지양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도시조직이 대규모 업무시설로 치환되는 철거 재개발 방식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직위적 환경 조성을 피하고 접지성 높은 기존 도시조직의 특성을 수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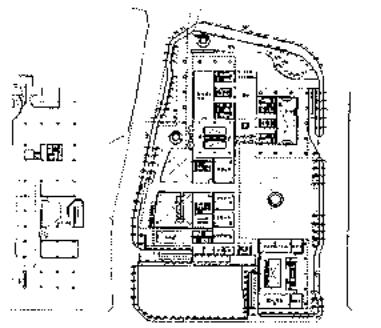
- 집객시설 및 중앙광장을 매개로 인접한 16, 17지구와 적극적 연계를 모색한다.
- 도심 초대형 건물에 있어 Dimension 감각의 회복과 Monumentality의 확보를 위해 오피스동은 2개동으로 분리 Twin-Tower로 한다.
- 북한산과 남산,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자연 녹지체계의 흐름상에 놓여 있는 Green Tower로써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 주거동에 중정을 도입하여 수직, 수평 Circulation에 공간적 쾌적함을 부여하며 Community의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심 주거에 적합한 다양한 단위 평면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생활양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을 살린다.
- 종로와 명동을 잇는 중간지역으로서의

계획지의 특성을 고려, 유동인구를 모을 수 있는 위치에 문화, 집객시설을 두고 이를 단지내의 Focal Point로 삼는다.

- 상업기능은 접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로 작용하며 중앙광장 및 기타 외부 공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도록 한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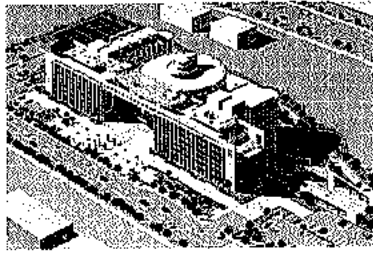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전도시철도종합사령실

Taejon Subway Headquarters

대전도시철도종합사령실 설계를 위한 현상설계경기가 실시되어 지난 2월 5일 정원건축(박윤웅)+성원·백림건축(이명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6개 작품이 참가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서한건축(신국범)+신화건축(김인수)안이 선정됐으며 가작은 청전건축(정덕훈)안이 선정됐다.

▶ 당선작 / 백림건축(이명진) + 정원건축(박윤웅)



조감도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 지구
대지면적	약 31,000㎡
대지조건	부지 북쪽으로 계룡로 50m 도로 동측에 25m 계획도로
건축면적	5,593.37㎡
건폐율	18.04%
연면적	25,891.75㎡
용적률	83.52%
주차대수	294대(장애자 전용주차 4대) 지하주차 : 68대, 지상주차 : 226대
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트러스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외부마감	컬러복층유리, 화강석, AL복합패널

현장조사시 계획대지는 50m 도시계획도로 후면에 놓이고 버가 자리고 있는 한가로운 전경이었으며, 멀리 박산 및 계룡산을 배경으로 하는, 특별한 도시계획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은 미개발지 상태였다.

종합사령실이라는 건물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특별한 용도 및 건축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계획안은 두가지의 건축적 요구를 Concept으로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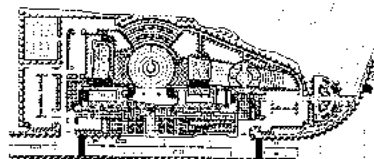
첫째로 풀어야 할 과제는 과도 기적 성격, 즉 지하철이 운영되는 동시에 건설되는 과정과 궁극적으로는 지하철 운영요원만 남는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개의 각각 다른 Mass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령실 Zone을 따로 떼어내어 한 덩어리로 계획하였으며, 건설운영팀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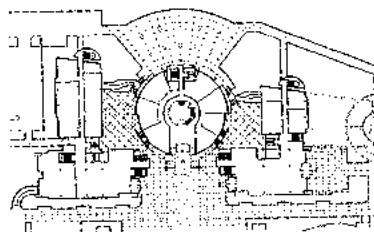
을 따로 따로 3개의 Mass로 계획, 각 Mass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성하되 서로의 Mass를 잘 연결시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둘째, 사령실의 Mass는 계기판을 관찰하는 내부기능을 고려, 한 곳에서 계기판을 잘 볼 수 있는 원형 Mass를 계획하여, 내부의 기능이 외부에 은유되도록 형성하였으며, Security가 요구되는 공간이므로 다른 Mass에 둘러싸여져 있는 형상으로 구성하여 종합사령실의 이미지를 표출토록 노력하였다. 나머지 건설운영팀과 지하철운영팀의 Mass는 대지의 긴 방향의 전면도로의 도시계획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면도로와 평행한 방향의 Mass와 대지의 Orientation에의 남향에 면하는 자연적축으로 형성된 Mass를 설정하였다.

외부계획은 대지 내측부에는 건물의 필요한 시설들을 구성하고 50m 도시계획도로에 면한 부분에는 가로공원을 구성하여 가로변의 경관을 고려함과 동시에 Public Space로 할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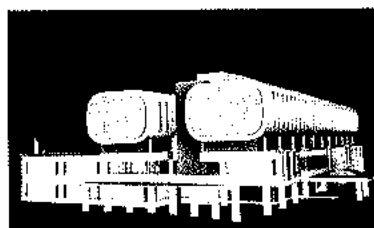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 우수작 / 서한건축(신국범) + 신화건축(김인수)



CAD 모델링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고도제한지구 (24m)

대지면적	약 31,000㎡(9,377평)
건축면적	5,255.38㎡(1,589.75평)
연면적	25,373.72㎡(7,675.52평)
건폐율	16.95%(법정 20% 이하)
용적률	61.57%(법정 100% 이하)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R.C)
주차대수	245대(육외 : 137 육내 : 108)
조경면적	13,175㎡(3,985평)
공개공지면적	1,664.70㎡(법정 5% 이상)
주요외장재	화강석, 알루미늄패널, 컬러복층유리

평면계획

- 공간의 융통성과 적응성 및 공업적 생산성 시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기구배치 및 공간, 조명, 전화 등의 설비조건을 전반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종합체계화된 모듈(Module)을 채택하였다.
- 각 부서별로 대기공간을 계획하여 이용자와 직원이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공간을 설치.
- 회의실 등에는 대기실, 준비실 등을 확보하여 운영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로비(Lobby), 홀 등의 공간에는 전시공간 등 대인홍보 및 복지기능을 확충 시킴.
- 상층부 운영사무실은 중앙코어(Core)에 의한 1블럭(Block)의 평면형태로 단일형태의 평면을 취하고 저층부 사령실 부분은 개별의 평면형태를 취하여 단위 평면이 통합되도록 하고 그 결절점에 코어(Core)가 형성되는 중앙코어(Center Core)형식을 취함.
- 상층부의 운영사무실 평면 형태를 정방형으로 집중배치하여 창측면으로부터 내벽까지의 깊이가 12m 이하로 유지하여 양호한 일조 및 시계를 확보하였다.
- 저층부에 사령실 기능을 집중배치하여 도시철도 운영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최첨단 장비의 수용에 대한 보안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 운영사무실 구역(Zone), 사령실구역(Zone), 후생복지구역(Zone)을 총별 및 동선별로 분류하여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유기적 연계가 되도록 공간배분하였다.

입면계획

• 앞서 서술한 대지분석에서 동측의 진출입면과 원거리에서의 접근인 북측의 계통로(폭 : 50m)면 유성지역의 고층 시각 및 도시계획도로(폭 : 40m)의 서측면등 건물 4면의 입면상징성이 고르게 대두되고 있는 바 동, 서, 남, 북측입면 모두 정면성이 요구되는 시각적 랜드마크(Land Mark)로서의 역할 수행가능한 독자성을 부여한다.

-신뢰 및 안전성

- 저층부 각종 사령실은 견고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위해서 석재를 사용, 일반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에 대한 강직한 인식을 유도하였으며 대중교통 시스템(System)에 의한 교육적 측면 제고로 도시 교통난 해소의 신뢰성에 적합한 효과를 조성하였다.
- 중간층의 복리후생등은 옥상정원과 함께 종합사령실 근무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개방공간으로 넓은 유리를 설치, 개방성을 유도하였다. 상층부의 운영사무실은 첨단 이미지를 상징하는 금속성(알루미늄) 원통으로 계획, 도시철도의 객차를 연상하도록 구성하였다.

-주변환경에 순응

- 본 대상지 전면의 도시계획도로(폭 25m)의 도로를 의식한 축을 형성 대지의 외적환경 흐름에 순응하여 장래 개발 예정인 남측 도시환경에 위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표면을 처리하였다.

-공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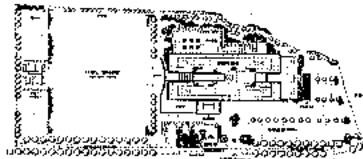
- 주출입구 정면의 진입광장을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일반시민에게 개방, 휴식 및 휴게공간 제공함.

-첨단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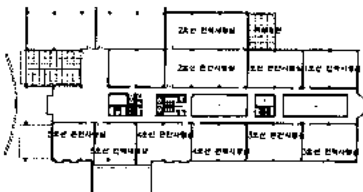
- 첨단 사령실 기능을 상징하는 독창성을 지니며 단순한 매스(Mass)를 조형요소로 도시철도의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이미지 쇄신

- 관공서 건물의 천편 일률적인 정면 진입에서 오는 관료적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초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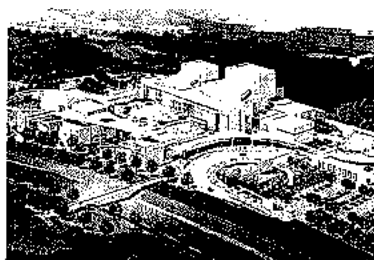
안산종합문화회관

Ansa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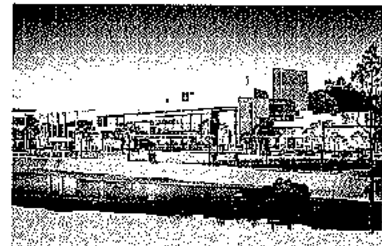
안산시에서는 2천년대의 국제적 행사에 대응하고 시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문화예술창달의 장이 될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2월 13일 성립건축(임장렬)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12개 작품이 참가한 이번 설계경기의 최우수작은 안산 대응건축(최의준)안이, 우수작은 공시인건축(최부득)안과 진우건축(김동훈)안이 각각 선정됐고, 기작으로는 포스에이씨건축(심인보)안, 엠앤디이건축(이각표)안, 그리고 두우건축(박용수)안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 성립건축(임장렬)



조감도



투시도

위 치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산 95번지
지역지구	문화시설건립지역
대지면적	71,000㎡(21,478평)
건축면적	28,644㎡(8,665평)
연 면 적	28,644㎡(8,665평)
건 폐 율	17.89%
용 적 륜	40.34%
사업기간	1996년~2001년(6년 예정)
시설규모	대강당-2,011석 중강당-705석 소강당-220석 전시장-향토자료실(대), 중전시실, 기획전시실, 보존자료전시실 연회장-270평 규모 국제회의장-192석 아외공연장-2,000석 규모
주차대수	658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일부철골조
부대시설	문화광장, 조각공원, 분수대, 가로공원
계 획	마영준
설계담당	김문준, 전철상, 최은정, 이민순, 장선도, 김근용, 전상균, 이민호, 은주희

계획안의 대지는 남측에 중앙로와 북측에 화랑로를 양옆으로 두고 두 개의 도로를 잇는 25m도로를 전면(서측)에 둔 남북방향의 긴 비정형으로 동측에 사가지고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은 화정천을 경계로 종합운동장 부지와 면하여 있다.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은 일차적으로 화랑유원지의 개발과 고잔공원의 활성화에 따른 시민들의 동선을 대지내로 유입시켜서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보행자의 흐름이 계획된 문화공간을 체험

하면서 부지남측의 고잔역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보행자축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서측의 운동장이 가지는 보행자의 동적인 흐름이 중앙의 문화광장에서 여과되어 정적인 흐름으로 변화되어 공연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 것이다. 부석사 전입구에서 보여주는 상승하는 전위공간을 통한 공간바꾸기가 본 계획안에서는 주전입부의 계단과 지형의 레벨차를 이용한 문화(중앙)광장의 조성에서 보여진다. 또한 문화(중앙)광장은 공간뒤집기를 통한 또 하나의 내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문화(중앙)광장은 전면(서측) 주전입구를 통한 보행자 동선과 북측 부전입구를 통한 보행자 동선이 충돌함으로써 지나쳐버리는 보행공간이 아니라 행위가 발생하는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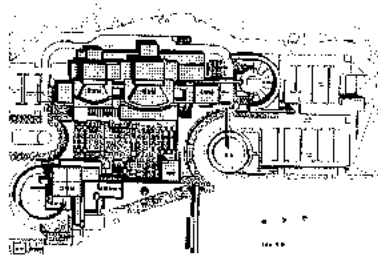
건물의 배치계획에 있어서 중앙의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공연동과 전시·관리동 두 개로 나누어 기능상의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야외전시장을 화랑유원지 및 고잔공원의 녹지와 연계시키도록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공연장에서 관객동선과 출연자·서비스 동선을 분리하였고 객석과 무대의 가변을 통하여 공연형태에 따른 관객과 공연자와의 일체감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시장 계획에 있어서는 화랑에 의한 최우공간을 계획함으로써 내·외부공간이 동시에 체험되어지고, 인위적인 것(의도되어진 전시물)과 자연적인 것(건물에서 바라보이는 환경)이 교차하여 전시됨으로써 관람객의 느낌이 고조되도록 하였으며 관람시 발생하기 쉬운 피로감을 풀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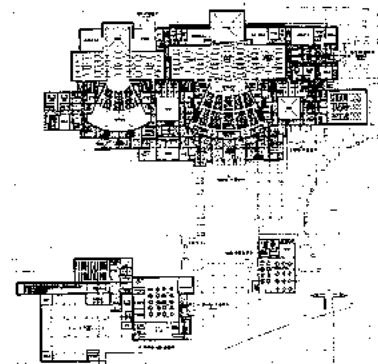
입면계획에 있어서는 문화회관의 조형성을 강조하여 매스에 의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물의 형태에 내부공간의 기능이 나타나도록 계획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리듬감과 통일감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토

취법면을 따라 건물 및 시설들을 전개시키므로써 토취법면에 대한 관람객의 시선을 보장하였다.

본 종합문화회관의 건립으로 안산시 문화예술창달의 장이 될 뿐 아니라 다가오는 2000년대의 국제적 행사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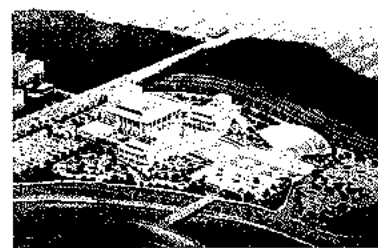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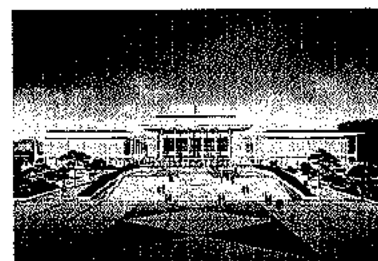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최우수작 / 대웅건축(최의준)



조감도



투시도

지역지구	문화시설 건립지역(자연 녹지 지역)
대지면적	71,000㎡(21,477.5평)
사업기간	1996년~2001년(6년 예정)
사업비	약 700억 정도(추정)
용도	관람·집회 시설(공연장/전시장/회의실)
건축면적	8,887㎡(2,688평)
연면적	29,040㎡(8,784평)
용적률	20.68%
건폐율	15.52%
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부대시설	야외공연장/조각공원/상징조형물/광장
주차시설	총 1,004대 육내 142대, 육외 862대
계획담당	최의준, 신재형(대웅건축)+박재송
설계담당	박광희, 이무학, 이장규, 김종현, 김홍섭, 허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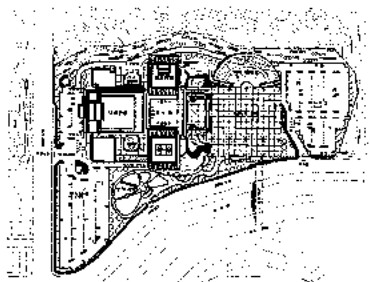
모든 예술이 복고와 모던을 반복하면서도 그 뿌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듯이 더욱이 그 용도가 문예회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최근 모든 건축물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 형태까지 발전을 한데해도 마지막까지 전통성을 지켜야 할 성격을 지닌 건축물이라 전제하고 본 계획에 임하였다. 또한 도시의 연역이 자연 취락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일해 공업도시로 계획되어졌으며 전원도시 성격이 부여된 도시이며 또한 전세향, 김홍도를 배출한 예향이라는 사회적,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있는 곳의 종합 문예 회관이기에 공간의 구성과 조형의 요소를 그 배경에서 찾으려 노력하였다.

배치계획에 있어 도시의 주된 도로에서 정면성, 인지성을 중시하고 도심축에 부합되는 안정된 향을 채택하였으며 계획부지에 진입하는 방법과 공간구성을 한국건축의 전개방법을 바탕으로 부지 형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우각진입 방법을 취하였다. 그리고 과정적 공간(Processional Space)을 거쳐 누하진입을 통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매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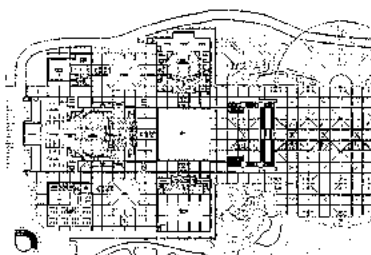
간(Inter-mediate Space)에 도달 할 때 각각 주요 공간으로의 접근을 가능케 하므로써 공간의 적절한 분절과 전개, 유기적 조합을 시도하였다.

입면의 형태는 현대적 건축 어휘로 설명될 수 있는 전통적 분위기와 형성을 중시하였다. 임해 공업도시로서 서해안 시대에 진취성을 상징화함에 있어 배와 노의 형태를 Design의 Motif로 삼고 이를 다시 반복하므로써 단합된 진취성을 조형화하였다. 재료는 안정감 있는 석재를 사용하고 김홍도의 작품 '무동'을 부조로 입면에 사용하여 문화 예술의 전달임을 강조하고 한국적 전통 문양을 현대 건축의 입면요소로 활용하므로써 한국적 분위기 연출을 시도하였다.

외부 공간도 한식 주택의 주거단위인 間(8尺×8尺)을 내외 공간의 기준 Module로 사용하여 친밀감을 도모하였고 이를 10배로 하여 외부공간의 Module로 사용되 이 첫수는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가능거리와 일치하게 되며 이 기본 Module의 정점에 휴게공간, 수목, 조명 등을 안배하므로써 공간의 위계와 쾌적성, 친근감을 도모코저 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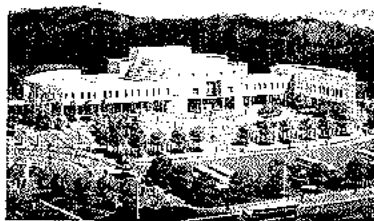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고흥군 종합문화회관

Koheung Cultural Center

전남 고흥군에서는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마련을 위해 종합 문화회관 건립,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총 14개 작품이 응모, 서림건축(김영기)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1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의 최우수작은 토형건축(오금열)안이, 우수작은 영창건축(문출성)안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 서림건축(김영기·강봉원)



조감도

대지위치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산 14-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운동장 및 문화시설
대지면적	113,300㎡ 중 39,200㎡ (11,860평)
건축면적	3,186㎡(964평)
연면적	4,861㎡(1,470평)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트러스
주차대수	91대(버스 23대)
외장재	외벽 - 화강석 버너마감+노출 콘크리트워 불소수지페인트 창호 - THK18 파스텔 북층유리+칼라북층유리 지붕 - 우레탄 도막코팅+동판지붕
설계담당	한진옥

문화시설의 의미 및 특성

문화시설이란 '문화가 표현되는 시각적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문화'라는 기능 또는 행위패턴을 담을 수 있는

물리적 형태로서 그 표현에 쓰이는 시설물(조형물)및 영역(Territory)등의 포괄적 의미를 포함하면서 또한 도시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행위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목적홀의 기능과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공연장을 말하며 문화적 행사를 비롯하여 집회, 공공행사 등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공간으로 시설규모는 도시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지분석 및 배치개념

기존의 시가지에서 벗어난 위치에 도심의 확장이나 분산의 개념과는 달리 종합문화회관 및 체육시설군을 형성하는 단지내, 북측의 공설운동장 계획과 배면의 산줄기, 전면 35m도로 등의 외부조건을 수용하면서 단지 전체의 통일성 확보와 문화회관의 정체성(Identity)확보가 필요했다.

형태·공간 분석

공설운동장의 타원형에 상응하여 문화회관의 형태 및 외피를 구성하는 '막'을 원형으로 구성하여 유사성(Homogeneous)을 확보하였고 도로측과 평행한 건물측에 사선의 축을 갖는 공설운동장과 구분되는 축을 형성하여 상호간의 독자성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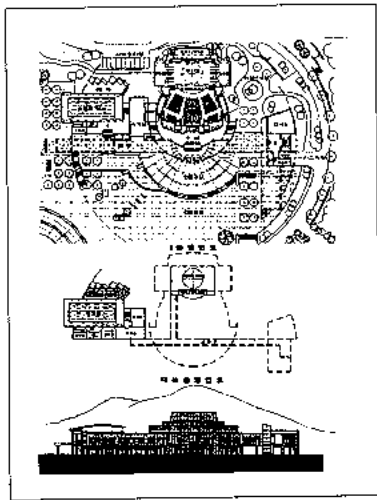
통일성과 독자성의 애매모호한 형태와 공간사이에는 문화회관 원형의 중심축인 인간적 스케일의 회랑공간을 원형을 밖으로 이끌어 내면서 형태적으로는 원형과 상충하는 다양성을, 공간적으로는 거대한 기능적 공간들(공설운동장, 문화회관)사이를 인간적 스케일의 공간(회랑)이 연결토록 했다.

기능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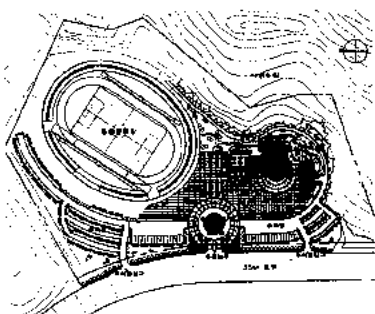
대공연장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기능군들이 독자적인 형태를 갖도록 구성하여 상호 독립된 동선과 상호관립된 형태군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한 소강당, 수영장을 공설운동장과 같은 선상에 위치시켰으며 전시

실은 배면의 산줄기와 전면, 측면의 인공적인 광장 및 야외조각장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평면도 · 일면도



배치도

진해시청사

Chinhae City Hall

진해시는 지난해 12월 새 청사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접수된 총 9작품 가운데 (주)부림종합건축(김호·이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우수작에는 부산 시공인 건축(김승익)안을, 장려작에는 진해 예창건축(주재근)안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 설계경기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초고속 국가정보망을 수용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사로서 지역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미래지향적인 청사를 건립한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이번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변민욱(진해시 부시장), 최평호(진해시 총무국장), 이강로(진해시 건축과장), 이규명(진해시의원), 김호일·임형준·이광태(경남대 교수), 서유석(창원대 교수), 고성룡(경상대 교수), 이시화(경남 개발연구원), 이영희(척원건축 대표), 김규태(함도건축 대표)

▶ 당선작 / 부림건축(김호·이진)



조감도

위 치	경남 진해시 풍호동 30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24,042.97㎡(37,523평)
건축면적	8,910.75㎡(2,695.5평)
연 면 적	19,810.3㎡(59,258.05평)/ 시청사-15,427.0㎡(4,666.6평) 의회-4,383.3㎡(1,326.0평)
건 폐 율	7.18%
용 적 륜	12.93%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규 모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계획 604대
설계담당	송우진, 이재진, 이현경, 박희석

대지는 기존의 진해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잇는 교통보적 위치에 있으며, 서쪽으로 진해만이 펼쳐져 있고 북·동·남측으로는 공원과 주택단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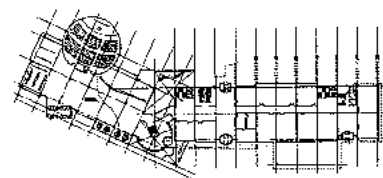
기본적인 배치개념은 경사지를 최대한 활용한 배치, 장래증축을 고려한 외부공간의 융통성 부여, 부지주변시설과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지의 중앙에 시청사를, 후측에 의회청사를 배치하였다.

방문객들의 이용빈도수에 따라

민원동과 행정동으로 분리하여 상호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풍호공원과의 연계를 가능한 확대시키기 위해 조각공원, 야외집회장 및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청사의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입면계획의 기본개념은 기존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대형형태에서 이탈을 전제로 건물매스의 분절 및 결합, 직선과 곡선의 변화, 비대칭적이고 대지 상황에 부합되는 형태를 추구해 첨단 시청사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본 프로젝트의 설계주안점은 주변환경과 도시의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주어진 대지에서의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아름다운 시청을 보고 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민원동 1층 평면도



단면도

▶ 우수작 / 시공인 건축(김승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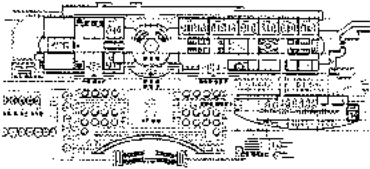
조감도

입지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청사로서의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시청사로서의 제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기능 및 각 동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청사를 계획하도록 하였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건축환경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래 증축을 대비한 마스터 플랜 개념을 도입하여 부지 내 건립될 시설물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1층 평면도



횡단면도

진주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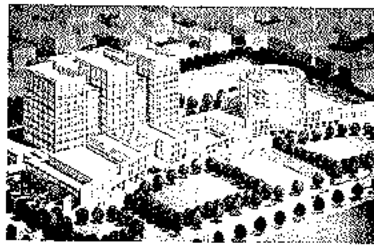
Chinjoo City Hall

진주시는 현 2청사 부지인 상대동에 새 청사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주)일신설계건축(정태복)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했다. 총 21개 작품이 참가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남산건축(이항설·박성하)안이, 가작은 축건축(조재철)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설계경기를 통해 부지 8,667평에 건립될 시청사 신축공사는 총 533억여원이 소요되는 비교적 큰 프로젝트로 오는 2천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올 12월 착공예정이다.

이번 설계경기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구영민(인하대 교수), 김영(경상대 교수), 문태섭(한양대 교수), 이강훈(경남대 교수), 오인환(경상대 교수), 조성기(부산대 교수), 조용수(동아대 교수), 하재영(경북대 교수), 신태웅(진주시 도시개발 국장), 이병인(진주시 건축과장), 최태문(예총경남지부장), 박종수·박태진(진주시의원)

▶ 당선작 / 일신설계(정태복)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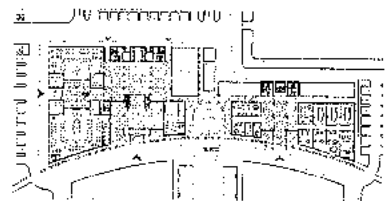
위 치	경남 진주시 상대동 284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28,651.37㎡(8,667.00평)
건축면적	7,072.60㎡(2,139.45평)
연 면 적	56,092.80㎡(16,968.00평)/ 시청사-25,591.00㎡, 시의회-3,637.60㎡, 지하주차장-26,867.20㎡
건 폐 율	25.0%
용 적 륜	90.0%
규 모	시청사-지하 3층, 지상 10층 시의회-지상 2층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층 고	3.9m
외부마감	화강석, 컬러 복층유리, 반사 유리, 컬러 알루미늄
주차대수	917대

서부 경남의 교육, 문화예술,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외적으로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구조, 기능, 미를 갖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축물로서 선진 지방화시대의 중심공간이 되기 위한 과학화, 정보화 개념을 도입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

상대적으로 많은 기능과 접근동선을 수용해야 할 행정업무 기능 및 민원 공간을 부지의 폭이 깊고 접근도로의 폭이 넓은 서쪽에 두고, 의회동은 동쪽에 위치시켜 서로의 독자영역을 확보하였다.

동진로상에서의 강한 정면성과 시각적인 구성을 필요로 하는 부지 내에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전면공원을 형성하여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의 다목적광장과 녹지를 제공하고, 가로변의 쾌적성 증대를 꾀하였다.

서로 어우러진 볼륨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성은 공격 커뮤니케이션 공간들의 감동적인 연속성에 의해 강화되며, 전면의 시민공원에서 방문자들은 먼저 대규모 집회 및 공공행사를 위한 시민광장으로 들어서게 된다. 광장은 성벽을 통과하여 기단부 속으로 확장되어 들어가 건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위한 상징적인 조각광장과 로비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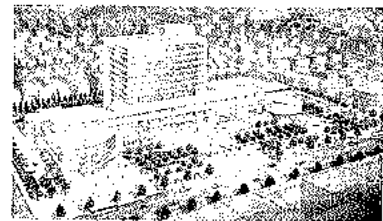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횡단면도

▶ 우수작 / 남산건축(이항설·박성하)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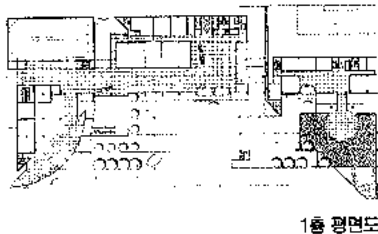
대지면적	28,652.5㎡(8,656.34평)
건축면적	5,613.7㎡(2,139.45평)
연 면 적	58,989.7㎡(17,821.66평)
건 폐 율	19.6%
용 적 륜	85.2%
규 모	지하 3층, 지상 1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 트러스조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및 흑두기, 착색복층유리
설 계 팀	장용준, 박남균, 이희원, 전성진, 신광재, 강한희, 권혁봉, 강인수, 오준걸, 김은배, 김정아
조경계획	동심원 조경설계연구소(안계동)
컴퓨터 그래픽	이오연, 윤현주, 박해진, 안수연, 김형훈
투 시 도	기영학(I.L.미국)

미래 시청의 주된 기능은 지자체의 행정업무기능은 물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중심시설로서의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두 기능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의 초점을 맞추었다.

저층부에 진주성곽의 이미지를 살린 중심동선공간을 선형으로 매스화하였고, 고층부 행정동은 투명한 시정을 표현하는 커튼월로 외장하여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하여 건축역사의 전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진주시의 유구한 역사 위에 선 현대적인 진주시점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민원동은 시민 가까이 있다는 인상이 들도록 전면도로 쪽으로 돌출시켰으며 민원기능과 대강당 기능 및 전시홍보실 기능을 연계 배치하여 향후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가능토록 하였다. 의회동은 회의장을 민주적인 형태인 원형으로 돌출시켜 수경공간과 어울린 누각처럼 처리하여 전통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행정동은 대지 중앙에 고층화시켜 정면성과 현대성을 부여하였다.

외부공간 계획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지역사회에 열린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대지 전면을 최대한 개방하여 시민공원과 집회광장의 개념을 복합시켰으며, 인접 시장의 기능을 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대지 위치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고, 향후 시청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이 가능토록 여지를 남겨 두었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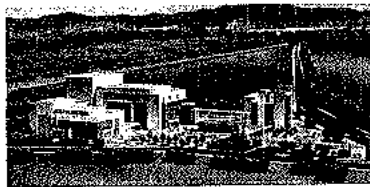
오산시 종합문화회관

Osan Cultural Center

오산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향토문화의 전당으로서 손색없는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주)부림건축(이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설계경기에는 총 3개 작품이 접수되어 오산시청건축위원회, 시의원, 여성단체협의회와 문화계인사들의 심의를 거쳐 당선작이 선정됐다.

5천여평 부지에 건립될 이 프로젝트는 올 3월 착공될 예정이다.

▶ 당선작 / 부림건축(이진)



조경도

위 치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6-9번지 외 30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6,850㎡(5,097.1평)
건축면적	3,357㎡(1,015.6평)
연 면 적	7,830㎡(2,363.5평)/
건 패 율	19.92%
용 적 륜	30.15%
건축규모	공연장-지하 1층, 지상 2층 여성회관-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외부: 철골조)
외부 마감	벽/화강석 버너미감, 흑두기, 금속패널 창호/알루미늄 새시, 북층유리
주차대수	86대
조경면적	6,750㎡
설계담당	하상수, 송우진, 한대진, 심재훈, 윤태경

본 계획안의 대지는 오산시가 지와 북동쪽으로 약 1km 가량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대지 남쪽으로 20m도로와 접해 있고, 이 지역에 약 12,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현재 택지개발 작업중이다.

서쪽으로는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등이 오산시의 문화예술단지로서 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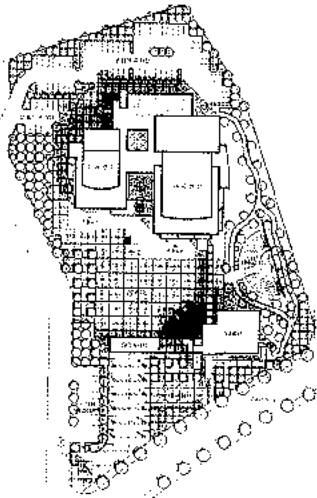
대지 및 주변 현황은 북쪽으로는 오산천 및 고수부지가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평지에 잡목이 자라고 있다. 원경으로 나즈막한 산들이 멀리 보이고 있다. 대지의 특성상 진입축과 방위축을 동일하게 하여 건물을 자리 잡고, 20m도로쪽 정면에 보행광장과 여성복지회관을 배치했다.

보행광장과 상징 게이트를 지나면 대지의 중심위치에 시민광장을 설치하여 이 장소를 중심으로 동선이 각 시설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면 우측에는 대공연장, 좌측에는 소공연장을 설치하고, 동쪽에는 야외공연장 및 시민의 휴식을 위해 조그마한 공원을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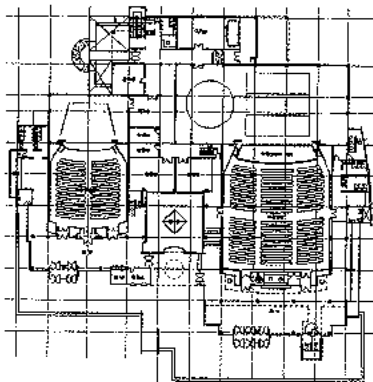
대지의 뒷편에는 공연지원시설을 배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고수부지의 주차장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여성복지회관은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대지의 전면에 배치하고 전용주차장도 함께 설치했다. 시설물들은 기능에 따라 공연시설, 공연지원시설, 전시/교육시설, 관리시설로 분류하여 서로 유사한 기능을 조닝하여 계획했고,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중앙에는 채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중정을 설치했다.

입면의 기본개념은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수평선의 반복으로 통일성을 추구했으며, 상징탑, 상징원주, 상징게이트 등에 오산시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했다. 단면 개념은 최대한 양호한 가시선 확보를 위해 발코니 형식을 채택했고,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도입, 로비 및 공용공간의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배치도



1층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한국 국학진흥원

Koreanology Promotion Center

안동시에서는 지난해 11월 한국국학진흥원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9개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동남아·태권축(전재우) 이가건축(이상현) 공동인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1차 심사에서 4작품을 선정한 뒤 2차심사(12월 27일)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우수작은 정주건축(정시훈)안 이, 가작은 SF도시건축(이중연)안이 각각 선정됐다.

최종심사를 맡은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정양모(국립중앙박물관장), 김동현(문화재연구소장), 강석원(한국건축가 협회장), 유희준(한양대교수), 전명현(홍익대교수), 김일진(영남대 교수), 강문영(경북대 교수), 유하성(안동 건설도시 국장), 박원서(한국국학진흥원 이사)

▶ 당선작 / 동남아·태권축(전재우) + 이가건축(이상현)



모형도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 33번지외 53필지
대지면적	119,866㎡(36,260평)
연 면 적	19,882.14㎡(6,044.60평)
지역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 도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건축면적	6,641.72㎡(2,009.12평)
건 폐 율	5.54%
용 적 륜	13.65%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 트러스, 목조)
주요외장재	화강석 버너 마감, 페어그라스, 자연석 쌓기, 한식 기와외기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139대

계획의 기본개념

본 계획에서는 주어진 자연조건에 순응하는 기존 정신을 철저히 준수한다. 따라서 모든 건물이나 길들은 산을 끌어내면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고, 많은 양의 흙을 옮기는 것을 삼가한다. 대지내의 경관보존과 토목 공사량을 최소화하고, 또한 향후 확장에 따라 소용되는 가용면적상의 여유를 부여한다.

건물은 기능별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그 속에 제각기의 마당이 마련된다. 한국적 공간의 특성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이 시각적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있다.

전면 도입부 광장

전면 보행광장에서 홍익의 집까지 이르는 녹도는 외부세계와 국학원을 이어주는 완충지대로 정신적 순화를 위한 준비공간으로 설정한다. 여기에 전통적인 홍살문, 지경문, 일월문을 원형 그대로 재현시켜 국학원의 상징적 장치물로 채택하여 전통적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홍익의 문

큰 스케일의 홍익의 집과 작은 규모의 전통문 3개(三門)가 한자리에서 만나기에는 그 크기에 지나친 대비를 이룬다. 이를 완충시키고 홍익의 집의 격도 한층 높이는 의미에 또하나의 문을 설치

한다. 이 문은 홍익의 집과 일월문 사이에 위치하여 국학원의 궁지와 권위를 표상하는 힘찬 조형물로 인지될 것이며, 기능적으로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보행자에게 수직 통로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였다.

홍익의 집

본관에 해당하는 집으로 연구, 학습, 홍보, 관리가 이루어진다. 집은 'ㄱ' 형으로 배치하여 한가운데 마당을 둔다. 이 마당은 홍익의 문을 통하여 큰 다리를 건너 거대한 필로티 공간과 만나게 된다. 마당은 강당, 식당, 홍보실과 인접하여 다수의 인원이 움직여도 넉넉할 것이다. 마당의 동쪽에도 작은 필로티가 있어 기존 도로로부터 서비스 차량의 접근을 돕는다.

전면동과 후면동을 연결해주는 동서 양쪽동은 층을 낮추어(서쪽 식당동 1층, 동쪽연구동 2층)각기 연결회랑을 설치하여 휴식장소나 우천시의 이동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서쪽산과 동쪽산의 조망을 가능케 하였다.

회랑

강당옆으로 골계단을 오르면 연구동 및 필로티를 만나고 마주보이는 곳에 박물관이 있다. 필로티 측면으로 튀어나온 회랑의 추녀가 회랑의 시작을 알린다. 회랑은 넓은 마당을 한바퀴 돌고 박물관 측면에서 멈춘다. 회랑의 북측에서도 지형에 따른 층 분리가 일어난다. 따라서 두 개의 회랑층을 만든다. 아래층 뒀는 벽으로 막히고, 2층의 회랑은 누각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회랑박물관 1층과도 연결된다. 회랑의 한 면은 전시벽으로 처리되어 있다.

장관각

해안사 장관각과 유사한 구조로 자연적으로 통풍을 해주어 관각의 보존에 유의했다. 박물관과의 편의를 도왔다.

박물관

유물의 전시, 수장, 연구를 목

적으로 하는 박물관은 내부가 오픈되어 천창으로부터 빛을 받는다. 각 실은 밝고 명랑하다. 중앙에 회랑을 둘러 실들의 소통이 편하게 되어있다. 1층 서측면으로 연결된 회랑은 박물관의 전시동선과 이어져 옥외전시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생활관

생활관은 기존도로가 동쪽산에서 서쪽산으로 길을 바꾸는 자리에서 진입하게 된다. 건물은 지형에 따라 두 번 완만히 절곡되어 외부에서는 유연한 형태미를 유지하고 내부에서는 지루하지 않은 복도를 만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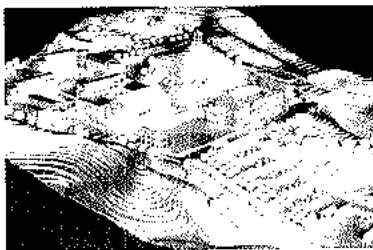
국궁장

연구원 후보자를 여유있게 확보한 윗쪽 기존도로에서 활터는 그보다 한층 밑에 위치한다. 활터의 지붕은 도로와 같은 레벨로 확장되어 차량의 방향전환에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활은 남쪽 건너편 언덕에 표적을 향하여 쓰아진다. 활터는 우천시에도 시위를 당길 수 있게 되어 있다.

정자 및 전망대

계획대지내의 제일 높은 동쪽산 290고지에서 전망대를 두고, 바로 그 밑 280 고지에서 정자를 설치하여 안동호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 우수작 / 정주건축(정시춘)



모형도

한국국학진흥원이 국학연구와 교육, 홍보라고 하는 우리 전통문화에 관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과 그 부지가 한국 전통문화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안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전통건축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였다.

대지 중앙의 구릉 일부를 깎아 가용지를 만들어내어 입구의 좁고 긴 대지를 대규모 주차장과 진입과정 공간으로 설정하고, 전면에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전면에 연수, 행정 본관(홍익의 집)과 우측에 전시동을 직교로 배치하여 주공간을 삼고, 본관 후면으로 생활관과 장차 증축될 고전학교를 각각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홍익의 집과 전시동은 대지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건물의 전후공간을 전통공간 수법인 누하진입방법으로 연결시켰다.

본 프로젝트를 끝내면서 아직도 우리는 전통의 문제와 자연의 문제에 대해 의문을 남겨두고 있다.

과거의 건축형태를 현대건축에서 재현해도 좋은가? 자연은 어떤 경우에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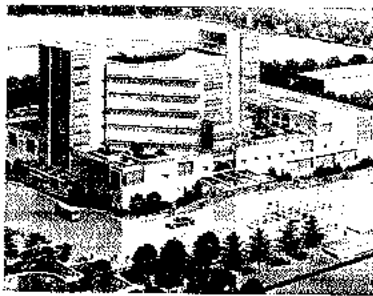
국방부 창동병원

National Defense Ministry Hospital

이 프로젝트는 제30야전군 및 수도권 북부지역 중심 진료기관인 창동병원의 현대화 및 군의료의 질적수준 향상과 지역장병들의 사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방부창동병원에서 주관, 무영건축, 정림건축, 우일건축, 신한건축 등 4팀이 참가한 지명현상설계로 치뤄졌다.

작품의 예술성, 설계계획의 합리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경제성 및 공공성, 도시환경문화의 기여도를 창동병원측에서 제시한 배점표에 따라 심사한 결과 무영건축(안길원)안이 당선적으로 선정됐다.

▶ 당선작 / 무영건축(안길원)



조감도

위 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626
대지면적	50,446.51㎡(15,260.00평)
건축면적	8,045.31㎡(2,433.71평)
연 면 적	27,668.65㎡(8,369.77평)
건 폐 율	15.95%
용 적 륜	48.36%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이 프로젝트는 대지축과 건물 축을 일치시켜 군병원으로서의 통일된 군제미와 정면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보행자 주진입부와 차량 주진입부를 분리시켜 각 기능별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명확한 보, 차 분리를 유도했으며, 병동은 인왕산, 수락산 등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관망하기 용이하도록 마름모꼴 형태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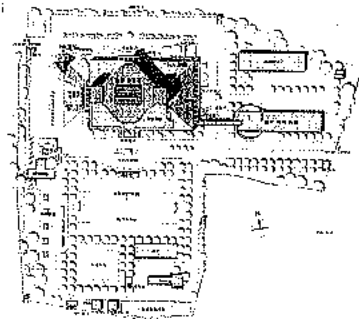
중앙에는 아트리움을 두어 자연채광을 도입함과 아울러 쾌적한 병실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환자전용 복도와 일반인 및 의료진을 위한 주통행복도를 분리하여 쾌적하고 정숙한 병실분위기를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병실 중앙부를 삼각형 형태로 배치하였다.

외래환자들을 위해서는 중간대 기소를 두어 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검사실은 1층의 외래진료부와 3~7층에 있는 병동 상이에 배치하여 내부동선을 단축하였으며, 응급실은 차량진입구로부터 가장 쉽게 인지 및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부를 응급부와 인접배

치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도록 배려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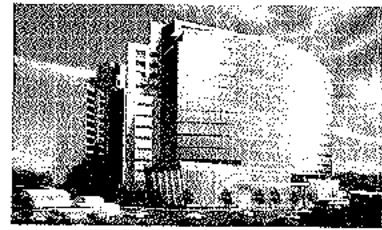
내수구역 제3지구 도심재개발

Urban Redevelopment of Naesoo 3rd Distr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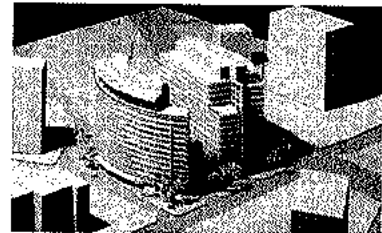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쌍용건설 주관 하에 지난해 11월 29일 지명설계로 이뤄졌으며, 쌍용건설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조합측의 승인을 받아 무영건축(안길원)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지명설계에는 건원건축, 내외종합건축, 무영건축, 한·공간환경 건축 등 4팀이 참가했으며, (이들 4팀 은)참가 전 2천만원의 설계비를 받았다. 당선작에게는 실시설계권이 주어졌다.

▶ 당선작 / 무영건축(안길원)



투시도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60번지 일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재개발지구, 3종미관지구
대지면적	9,290.00㎡(2,810.23평)
건축면적	5,170.78㎡(1,564.16평)
연 면 적	99,173.84㎡(30,000.08평)
건 폐 율	55.66%
용 적 륜	627.75%
조경면적	법정면적 이상 설치(15% 이상)
공개공지	법정면적 이상 설치(10%이상)
규 모	지하 5층, 지상 1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	THK18 반강화파스텔복층유리+스톤패널
디자인담당	김광배, AIA
디자인팀	천복운, 신상직, 박유정, 김상기, 정성현
컴퓨터그래픽	정기수, 김수진, 화이나트

주상복합인 이 프로젝트는 내수동 도심재개발에 의해 개발되는 프로젝트로 그 성격상 높이 제한과 용적률의 최대화 등 제약조건이 많았다. 포디움 부분에 상가가 형성되며 사무동과 주거동의 큰 매스를 수용해야 하기에 우선은 단일 건물로 가야할 지 두 건물로 가야할지의 결정이 필요했다. 단일 건물로 갔을 때 높이 50m를 넘지 못하는 제약을 안고 일정규모의 용적률을 수용하려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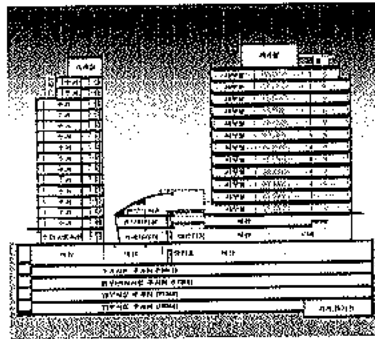
준중 편면이 지나치게 깊어지기에 먼저 두 건물을 분리시키는 매스 스터디를 시작하였다.

북측의 전면도로인 내자동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획도로이기에 사무동의 위치는 일단 전면도로를 향하고 주거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남향 빛을 수용하기 위해 주거동의 남측 배치는 거의 필수적이었다. 두 동간의 거리를 가능한 이격시키기 위해 가장 접근했을 때를 기준으로 18m의 거리를 유지하였고 그 사이에 포디움이 낮게 아트리움을 형성하여 개방공간을 이루어 상가 기능을 가지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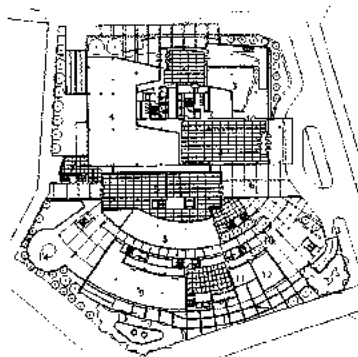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지 사방이 높지 제한으로 고층건물이 형성되지 못하고 사방에 펼쳐진 산경은 본 건물의 역동적인 제스처로 커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또한 사무동 전면부에 형성되는 저층부 3개층은 보행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스케일상 좀 더 세분화되고 부정형적인 분절을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용적을 수용으로 전반적으로 길어진 두 건물에 보행자를 위한 시야와 개방감을 위하여 각 건물의 양단 부분에 두 개층은 필로티로 계획하였다.

사무동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적을 수용에 의해 매스 자체가 남북방향으로 길어진 감이 있어서 그 중간에 가벽을 도입하여 시선을 차단, 남측에서 보든 북측에서 보든 건물의 절반만을 감지토록 하여 건물 깊이에 의한 중압감을 해소시키고자 하였다. 서향으로는 차양을 도입하여 그림자에 의한 입면효과를 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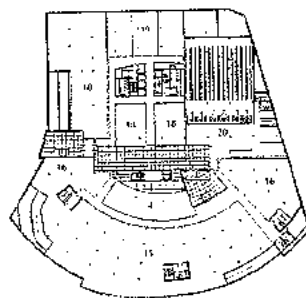
주거동의 경우 북측에 위치한 사무동으로 인해 유닛 배치가 평복도로 배열될 수 밖에 없었기에 3개의 코어를 도입하여 각 유닛에 프라이버시를 주고자 했다. 외부로 향한 주거동의 남측 입면은 15개층의 원만한 곡선의 수평적인 입면 요소들이 주 요소이며, 그러나 지루한 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외벽면에서 어느정도 돌출한 양 단의 두 개의 수직적인 기둥이 입면에 그림자를 떨어뜨리며 리듬을 깨도록 계획하였다.



중단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광진구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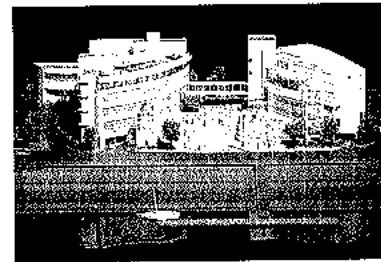
Kwangjin-gu Library

서울시 광진구에서는 도서관 건립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지난해 10월 31일 **이데아건축(이종상+이종수)**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20개 작품이 참여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담건축안이, 가장**

은 **엑토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 이데아건축(이종상+이종수)



모형도

도서관

위 치	광진구 광장동
지역지구	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1,912.4㎡
건축면적	1,051.98㎡
연 면 적	3,917.31㎡
건 폐 율	55%
용 적 륜	184.74%
규 모	지상 5층

문화센터

대지면적	1,587.4㎡
건축면적	565.3㎡
연 면 적	2,391.78㎡
건 폐 율	35.61%
용 적 륜	122.75%
규 모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주요외장재	알미늄복합패널, 화강석버너 구이, 복층유리
설 계 팀	차경준, 이형주, 이정순, 김태 형, 황재덕

'지역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계획부지는 도서관 입지로는 부적절한 위치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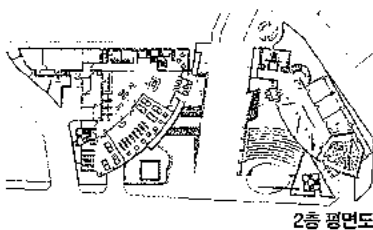
이러한 장소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도서관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강변 산책로와 연계하여 매력적인 장소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건물의 배치는 두 필지로 나뉜 부지의 넓

은 쪽 필지를 도서관 용도로 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용 건물로 계획하여 강변쪽으로 A자 형으로 계획하였다.

가장 주목한 점은 도서관 부지가 삼습침수지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두 건물의 현관 위치를 한강 침수위보다 높게하고, 면적에 비해 건물이 크게 보이는 것 또한 지하층 침수를 대비해 모든 기능들을 지상에 두었기 때문이다.

또하나 계획시 고심한 부분은 법 적용의 문제였다. 계획에 적용해야 하는 도서관법시행령에 의하면 "구립도서관의 열람석 수는 800석 이상 장서수 9만권 이상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도서관을 계획하면 현재의 수험생 위주의 독서실화된 도서관으로 되어버린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정보, 사교의 장소로서 정상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 부재'라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2층 평면도



확단면도

계획작품 process works

한국산업기술대학

창원자전거 경기장

교원공제회 전북회관

운양재일교회

지온 어린이집 숙소동

충북대학 병원 응급진료센터

한동대 효암관

수유 279

Rose Garden Apartment

한국장학회관

중원오피스텔

일산올림픽 스포츠센터

논현동 갤러리

고려대학교 법학관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상림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조감도

대지위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업단지 3가 101번지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제4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49,512.45㎡(14,977.45평)
연면적	31,961.78㎡(9,663.39평)

건축면적	12,885.96㎡(3,897.99평)
조경면적	9,345.64㎡(3,772.86평)
건폐율	26.03%
용적률	59.29%
주차대수	188대/법정 : 99대 이상
구조	R.C조, 철골조(체육관)
주요외장재	적벽돌 치장쌍기, 12mm 복층유리

21세기가 불과 4년여 앞으로 다가온 작금의 시기에 지구촌 국가간의 경쟁력 우위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중 기술력의 우위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기술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UR타결이후 국가간의 기술경쟁이 대기업,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력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은 학문과 실천과의 복선형 계속교육체제를 완성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이 강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절한 열린 교육체제의 신대학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이 project는 시범기술대학이란 명칭으로 3개월간의 Master Plan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4개월 동안 진행하여 왔다.

기술대학이 가지는 특성상 경기도 시흥시 사회국가 공업단지내에 위치하여 주변에는 반월공단 남동공단이 인접해 있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2시간내 거리에 있으며, 남서쪽으로 담수호와 서해바다, 북서쪽으로는 바다와 접한 옥구도, 북동쪽으로 군자봉과 무등산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공단과 주택지간의 폭 80m, 높이 6m가량의 완충녹지대가 캠퍼스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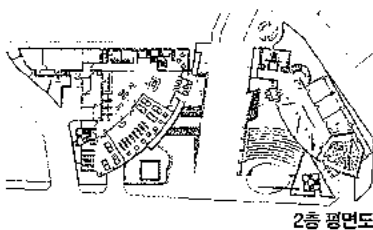
2,40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시설은 대학의 Core로서 도서관 및 학생회관, Soft와 Hard로 구분되어진 강의실습동, 그리고 지원시설로서 행정동들이 어울려 70×50m의 중앙중정을 이루고 있다. 또 주출입구로 20m도로에 접한 운동장 및 주차장은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부지전면에 배치하였으며

은 쪽 필지를 도서관 용도로 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용 건물로 계획하여 강변쪽으로 A자 형으로 계획하였다.

가장 주목한 점은 도서관 부지가 삼습침수지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두 건물의 현관 위치를 한강 침수위보다 높게하고, 면적에 비해 건물이 크게 보이는 것 또한 지하층 침수를 대비해 모든 기능들을 지상에 두었기 때문이다.

또하나 계획시 고심한 부분은 법 적용의 문제였다. 계획에 적용해야 하는 도서관법시행령에 의하면 "구립도서관의 열람석 수는 800석 이상 장서수 9만권 이상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도서관을 계획하면 현재의 수험생 위주의 독서실화된 도서관으로 되어버린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정보, 사교의 장소로서 정상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 부재'라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2층 평면도



확단면도

계획작품 process works

한국산업기술대학

창원자전거 경기장

교원공제회 전북회관

운양재일교회

지온 어린이집 숙소동

충북대학 병원 응급진료센터

한동대 효암관

수유 279

Rose Garden Apartment

한국장학회관

중원오피스텔

일산올림픽 스포츠센터

논현동 갤러리

고려대학교 법학관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상림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조감도

대지위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업단지 3가 101번지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제4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49,512.45㎡(14,977.45평)
연면적	31,961.78㎡(9,663.39평)

건축면적	12,885.96㎡(3,897.99평)
조경면적	9,345.64㎡(3,772.86평)
건폐율	26.03%
용적률	59.29%
주차대수	188대/법정 : 99대 이상
구조	R.C조, 철골조(체육관)
주요외장재	적벽돌 치장쌍기, 12mm 복층 유리

21세기가 불과 4년여 앞으로 다가온 작금의 시기에 지구촌 국가간의 경쟁력 우위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중 기술력의 우위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기술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UR타결이후 국가간의 기술경쟁이 대기업,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력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은 학문과 실천과의 복선형 계속교육체제를 완성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이 강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절한 열린 교육체제의 신대학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이 project는 시범기술대학이란 명칭으로 3개월간의 Master Plan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4개월 동안 진행하여 왔다.

기술대학이 가지는 특성상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 공업단지내에 위치하여 주변에는 반월공단 남동공단이 인접해 있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2시간내 거리에 있으며, 남서쪽으로 담수호와 서해바다, 북서쪽으로는 바다와 접한 옥구도, 북동쪽으로 군자봉과 무등산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공단과 주택지간의 폭 80m, 높이 6m가량의 완충녹지대가 캠퍼스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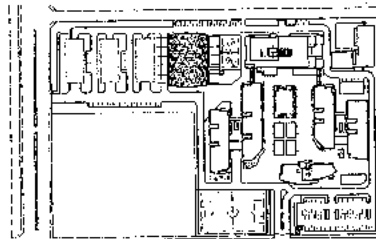
2,40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시설은 대학의 Core로서 도서관 및 학생회관, Soft와 Hard로 구분되어진 강의실습동, 그리고 지원시설로서 행정동들이 어울려 70×50m의 중앙중정을 이루고 있다. 또 주출입구로 20m도로에 접한 운동장 및 주차장은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부지전면에 배치하였으며

외곽지역에 기숙사, 체육관을 배치하였다. 주요건물들은 각각이 크고 작은 중정을 가지도록 Mass를 구성하며 매립지의 특성인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지하에는 대학의 동맥 역할을 하는 공동구(평균 폭 2.0×높이 1.8m)만이 각 건물간의 연계를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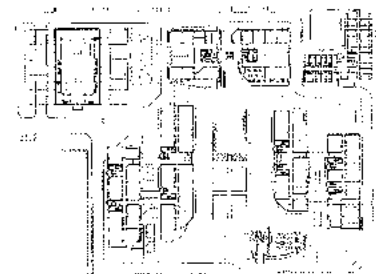
중앙 중정의 전면에 나와 위치적으로 다소 대학의 정면을 막고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행정동은 건물1층의 절반이상을 피로티로 구성하여 캠퍼스 내부에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Mass의 형태도 곡선으로 유연함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최소한의 층고를 가지도록 하였다.

학습성격에 따라 Soft와 Hard로 구분되어진 2개군의 강의·실습동은 각각 2개동의 건물로서 구성되어 실습장비 자체의 하중과 실습실의 반입이 용이하도록 저층부에 두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학과의 구성은 층별로 구성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강의·실습동은 기술대학의 목적을 만족하고 각실들이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한 중독도 Type이며, 각동은 2개의 브릿지로서 연계를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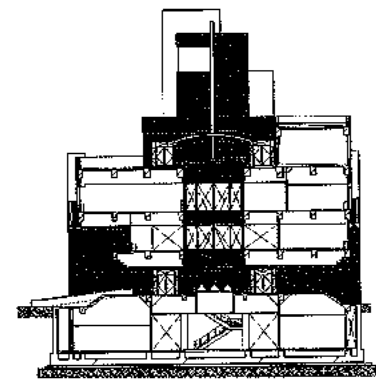
캠퍼스내 최상층이며 유일한 지하층을 가지고 있는 학생회관은 지하층에 식당 Zone과 Power Plant로 구성되며, 전면으로 채광과 환기를 고려 수공간을 갖춘 썬큰가든으로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조성한다. 그리고 지상1층은 부지 후면의 녹지와와 시선 및 동선을 고려하여 건물의 남북을 관통하는 피로티로서 적극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2,3층은 도서관과 컴퓨터 관련실들로 구성되고 강의·실습동과의 동선을 고려, 브릿지로서 연결되도록 하여 각동의 효율을 한층 높여주게 하였다. 일반대학과 달리 4계절 가동되는 기술대학은 인접한 해안성 기후를 고려하여 전천후 활동공간인 체육관을 학생회관과 육외농구장 주위에 배치하였다. 비교적 대학 캠퍼스로서 부족한 육외휴게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관과 강의동 옥상에서 옥상조형물을 설치하여 옥상정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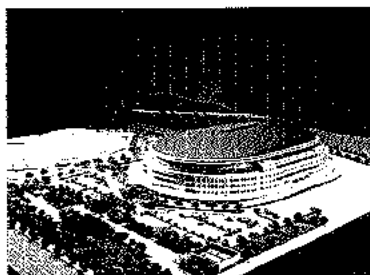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학생회관 횡단면도

창원자전거 경기장

노형래 / (주)건설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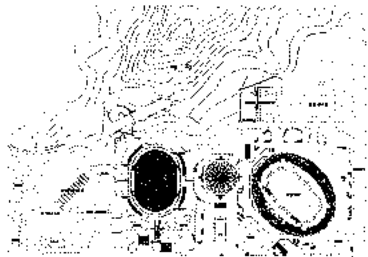


조감도

대지위치: 창원시 두대동 종합운동장 부지내

대지면적 50,500㎡
건축면적 25,680.21㎡
연면적 37,576.49㎡
PISTE제원 333.33m×10.2m
설계담당 고종준, 김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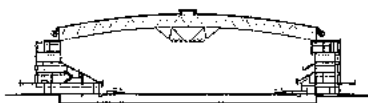
본 자전거 경기장은 1차적으로 '97 전국 체전을 목적으로 계획되었고 더불어 지방 재정의 확충 및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로서 '97전국체전 이후에는 경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대지는 창원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존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였으며 주변 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계획하였다.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명쾌한 Zoning으로 경기, 관람, 선수, 관리의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경륜장으로 사용시 무리가 없도록 경륜에 필요한 시설(투표소, 수표 교환소, 휴게·흡연실, 스텝코너 등) 및 설비 시스템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다. 1층에는 선수관련시설 및 관리운영시설이 위치하며 2층~5층까지는 관람객을 위한 시설로서 구성되었고 중앙통제실, 사진판정실 등이 5층에 계획되었다. Stand는 자전거 경기의 트랙인 Piste의 곡선과 관람객을 위한 가시선의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타원형으로 계획되어 다른 경기장과는 다른 변화있는 실내공간이 구성되었다. Piste는 경륜으로 전환시에는 400m 길이의 Piste가 선호되나 지붕 Span이 과대하게 되므로 333.333m의 Piste로 하였고 넓이는 경륜이 용이하도록 10.2m로 계획하였다. 또한 Piste의 재료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사고시 부상을 감소를 위하여 아스팔트로 계획하였다. 형태에 있어서는 단일의 거대 Mass에 의한 폐쇄감 및 위압감을 해소하기 위해 Deck를 설치하고 콘크리트의 조소적 특징을 이용하여 다양한 음영대비 효과로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보행자의 출입이 빈번한 1, 2층 부분에는 화강석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좀더 친밀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창호는 깊은 각실내부에 자연 채광의 효과적 사업을 위해 수직적 창호로 계획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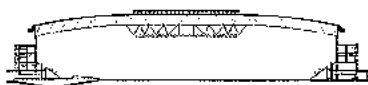
정면도



횡단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대한교원공제회 전북회관

김연석 / (주)일건 아이에스건축



투시도

대지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9-1

대지면적	3,488.70㎡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3종 미관지구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4층, 지상15층
건축면적	2,105.09㎡
건폐율	60.34%
연면적	25,507.46㎡
용적률	484.45%
주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리, 칼라복층유리
설계담당	고홍각, 김윤범, 장해순, 김태형, 구본호, 김하태, 유한집
구조설계	썬구조
전기설비	나라기술단
기계설비	보우기술공사

본 건물은 대한교원공제회의 전라북도 지역 회원들의 복지시설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부지는 전주시의 신개발 지역인 서신타지개발지구의 백제로와 서부 우회도로가 교차되는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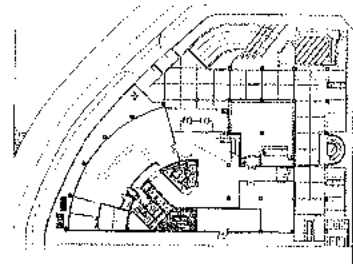
배치계획을 보면, 도로의 교통섬으로 생긴 부채꼴의 대지상에 도시축을 중심으로 연결로비 좌우에 고층동과 저층동을 배치하였으며 전면 백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보차의 주진입로 계획하였다.

평면계획은 대지면면부에 순응하는 부채꼴형의 고층부는 주로 업무부분으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조망감을 극대화하는 편심 Core와 무주공간으로 사무환경의 향상과 공간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고려하였으며 Core 뒤쪽으로 2개층 높이의 Sky Park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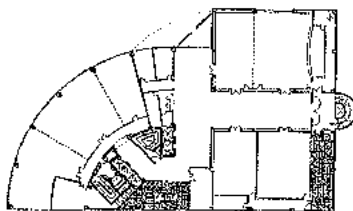
그리고 이용자가 많은 불링장, 예식장, 근린생활시설이 수용되는 저층부는 고층 업무시설과 동선을 분리시켰다. 지하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방법으로 명쾌한 동선과 고효율의 주차장(219대)으로 계획하였다.

입면계획에 있어서는 전주시 신개발 지역의 젊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고층부는 곡면형의 유리커튼월로 하였으며 최상부는 Land Mark가 되도록 시도하였고, 저층부는 중후한 느낌의

석재를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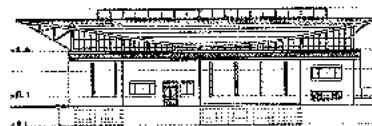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온양제일교회

최영집 / 건축사사무소 탐



좌측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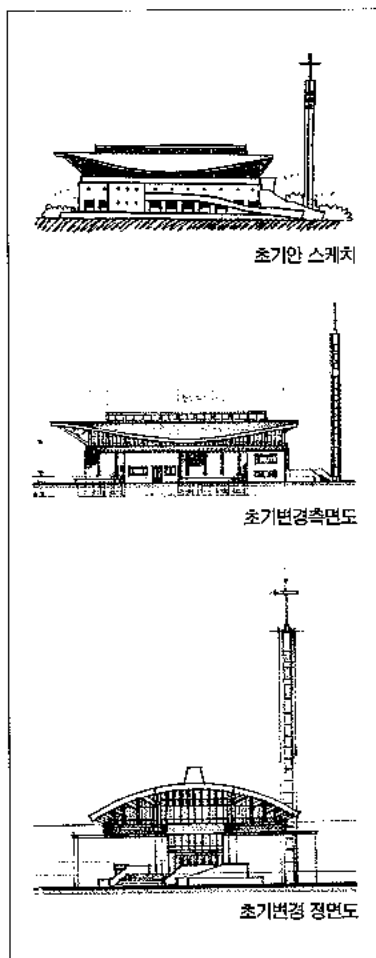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남 온양시 권곡동 219-45, 19.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8,610㎡
연면적	4,360㎡
건축면적	1,677㎡
건폐율	19.50%

용 적 륜 31.65%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Gluelam
 주차대수 옥외 67대

후암동 영주교회에서 국내 최초로 계획하여 실현시켰던 Gluelam 목구조를 조금 더 발전시켜 유선형의 다이내믹한 구조미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도록 한 계획이다. 온양 신시가지의 넓은 대지에 새로 아산시로 편입된 지역인데 1,200석의 낮고 넓은 본당에 아주 적합한 구조시스템이 될 터이고 형태의 상징성과 더불어 외장재로 등이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줄 것이다.

본당까지 아주 편하게 진입하는 현관과 적극적인 지하 드라이브 에리어 계획은 교회건축에서의 건축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준다.

내부는 빛이 충만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성전건축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느낄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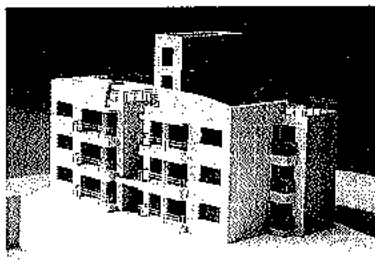
초기안 스케치

초기변경축면도

초기변경 정면도

지은 어린이집 숙소동

김호경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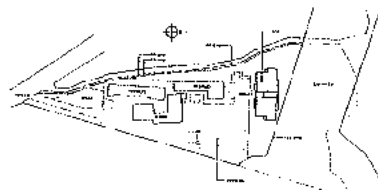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25-4와 3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
 대지면적 4,158.45㎡
 건축면적 797.42㎡
 연 면 적 1,952.72㎡ (중축면적 : 847.52㎡)
 건 폐 율 19.18%
 용 적 륜 46.96%
 구 조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마 감 외벽 - 외단열재 위 드라이 비트 마감
 창호 - 컬러알미늄 후레임, 12mm 복층유리

과거의 어린이집(고아원)은 부모없는 어린이나 집없는 어린이들의 수용능력을 충족키 위해 단지 기숙사 형태의 평면 형식으로 지어져, 생활환경이나 정신환경 등 열악한 제반시설속에서 어린이들은 주변의 사랑이 없는 유년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은 점점 고아들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를 확인한바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들의 생활환경 자체가 양적인 면 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충족되어질 수 있는 건축형식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본 지은 어린이집 또한 기존건물 2개동은 어린이들의 숙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어린이들이 먹고 자는데에 필요한 생활조건만이 충족되어 질 수 밖에 없는 시설에 불과하다. 또한 시설자체도 노후되고 열악하기만 하다. 따라서,

본 신축 숙소동은 기존의 수용시설의 형식에서 벗어나 각 단위 세대별로 보육사를 중심으로 각각의 생활이 절제되고 구속적인 면에서 탈피한 자유롭고 편안함속에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본 시설을 새로운 개념의 보육시설로서의 시험적인 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족적인 생활속에서 사랑과 희망이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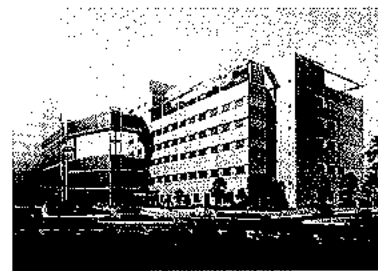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충북대학 병원 응급진료센터

노태학 / 아래아 (주)건축사사무소



투시도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개신동 62번지의 21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 시설녹지, 학교 도시계획시설
 대지면적 62,150㎡
 건축면적 1,319.59㎡
 연 면 적 8,634.27㎡

규 모 지하 1층, 지상 8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외장 화강석 물갈기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진료센터는 충북대학교가 의료환경의 개선과 시민 이용의 편리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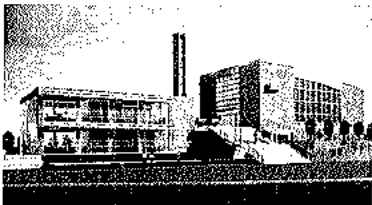
대지내 건물 위치는 기존 병원과의 조화 및 접근성, 그리고 향후 신축 예정인 복지관, 기숙사, 주차빌딩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평면은 기능별 조닝과 합리적인 내부 동선 체계와 통제체계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입면은 기능을 볼륨상 단순 명쾌하게 표현하여 매스의 단순화를 추구하는 구성을 함으로써 순수기능을 강조하였다.

단면은 평면모듈과의 조화 및 기계설치에 따른 소요 높이를 감안하여 층고를 결정하였고 층별 관련시설들을 기능적으로 배치하여 상호유기적 공간을 형성토록 하였다.

한동대 효암관

최동규 / 서인종합건축



투시도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번지
지역지구 개발촉진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부속용도 학생회관, 예배당
대지면적 229,996㎡
건축면적 832.79㎡
연 면 적 1598.84㎡
규 모 지상3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 장 재 AL-Sheet(Corrugated Type)동판
건 축 주 한동대학교

한동대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포항 외곽에 자리하고 있다.

효암관은 한동대 캠퍼스내에 학생회관과 예배당을 계획하는 프로젝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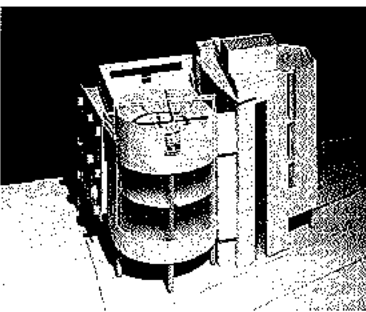
계획대지는 진입로 초입에 도로보다 5m 정도 높은 언덕배기에 자리했다.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기존 건물군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계획대지내에서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였다. 언덕위에 596석 규모의 예배당과 마당을 두어 옥내외에서 종교행사가 이뤄지게 했고 245평의 학생회관을 2개층으로 투명유리로 마감하여 빛들을 통해 원경의 바다가 캠퍼스내로 조망되도록 하였다.

주진입 계단을 사이에 두고 조각전시장과 작은 수공간을 구성해 다소 황량한 느낌이 드는 캠퍼스에 청량제 역할을 할 작은 원터를 마련했다.

예배당 외부는 수평선과 온빛 비늘을 연상케하는 금속재질로 마감하였고 예배당 측면에 돌출된 작은 발코니는 어떤 Performance를 기대하며 만들어 본 것이다.

수유 279

전은배 / 전이 도시환경건축



모형도

위 치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79-23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최고 고도지구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대지면적 413.70㎡
건축면적 231.35㎡
연 면 적 991.75㎡
건 폐 율 55.93%
용 적 륜 181.96%
규 모 지상4층 지하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스티코 스프레이, 외단열
마감, 목재
설 계 1996.1~19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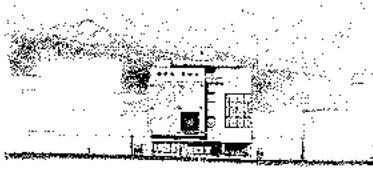
도봉산 기슭의 아름다움을 지닌 장소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대하며 마음속에 다짐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었다.

절대고도 제한 때문에 지붕에 대한 여유 있는 변화시도가 어려운 점이 아쉬웠고 기능도 중국식 레스토랑이어서 중국 특성이 나타나야 하는 난해한 숙제들이 주어진 프로젝트였다.

도로 전면에 기둥없이 넓은 활용공간을 두고 후면에는 서비스 공간이 모여있도록 공간을 분절하여 계획하여 내부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끈한 화강석으로 외장을 마감하여 말끔한 모습이 되기보다는, 외부에 인공의 목재벽과 거친 스티코뿔철로 마감하여 뒤에 있는 도봉산의 숲과 조우하는 모습이 되도록 하며, 곡면의 벽체는 구름과 대응하는 장치가 되기를 원했다. 중국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면에 벽감(Niche)과도 같은 개구부를 내어서 그곳에 그곳 성격을 들어내는 조형물을 두는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간이무대가 있는 옥상정원에서의 경관 향유와 멋진 활용이 기대된다.



정면도

Rose Garden Apartment

최명철 / (주)단우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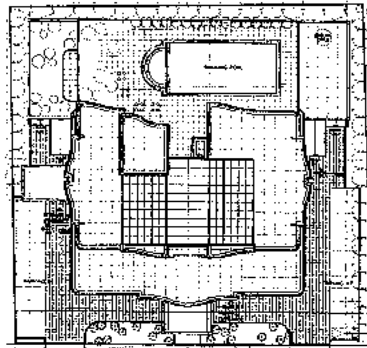


투시도

대지위치	6 Ngoc Khanh Street, Hanoi, Vietnam
대지면적	3,850㎡
용도	주상복합(APT 96세대)
규모	지하1층, 지상1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2,481.97㎡
연면적	18,175.63㎡
건폐율	64.47%
용적률	439.73%
최고높이	55.95m
주차대수	106대(육내 84대, 육외 22대)
외부마감	1~4층 - 화강석 5~16층 - 드라이아이트
구조설계	민우구조
기계설비	하나기업
전기	서울IB

이 건물은 다용도 복합건물로서, 고층부분 APT가 주용도이며, 저층부분은 슈퍼마켓, 상점, 사무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 Concept은 APT 거주자들과 상업시설 이용자들의 동선을 확실히 분리하는 것이다. 거주자들은 건물의 왼쪽으로 진입해서 Elevator를 이용하고, 상업시설 이용자들은 건물 전면으로 진입해서 Lobby내 계단을 이용하게 된다. 사무실 계획에 있어서는 임대자가 공간을 구획할 수 있도록 Open Plan & Module을 주원칙으로 하였다. 4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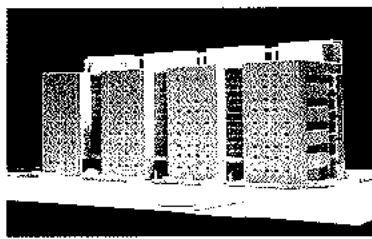
거주자들을 위한 서비스공간으로 헬스클럽, 세탁소, 사우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후면 지붕에는 옥외수영장이 있으며, Privacy를 위하여 화단이 둘러싸고 있다. APT는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고, 각 세대는 거실에 접한 Balcony를 갖고 있다. 지붕층은 휴식과 스포츠공간으로 제공되며, Pergola로 덮이게 된다.



배치 및 1층 평면도

한국장학회관

김언철 / (주)아르키움 건축



모형도

위치	서초구 서초동 1720-2
지역지구	일반주거, 주차장정비, 고도(최고), 도시설계
대지면적	1,327.8㎡
용도	업무시설
건축면적	774.27㎡
연면적	8,323.67㎡
	지상 : 3795.87㎡
	지하 : 4527.80㎡
건폐율	5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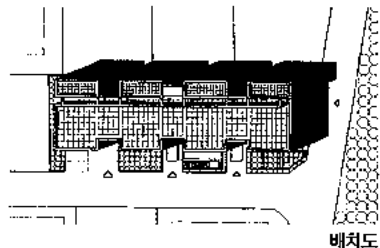
용적률 285.88%

규모 지상5층, 지하4층

향나무가 길 가운데 서있고 대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 일대를 법조단지라고 부른다. 도시계획 증명에 기재되지도 않는 법조단지에는 모한 규정이 있다. 법조단지의 시작이 된 청사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단지 내의 건물은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5층 이하이거나 높이 18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제한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자잘하고 겸손한 모양을 요구한다.

두 개의 필지가 합쳐진 좁고 긴 대지에서 5층의 업무공간이 만들 수 있는 자세는 다시 나누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나누어진 단위들이 다시 결합되어 전체를 이루도록 하는 방법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모임을 위하여 열고 닫힘의 반복이 이루는 연속 효과를 상상하였다. 단순 반복이 되풀이되는 연장선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가늠되지 않는다. 비어 있거나 가설 건물이 등성이고 있는 주변의 풍경이 고도제한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조바심으로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8미터 도로에 면하게 될 가로의 풍경에 나누어서 연속되는 형식이 얼마큼은 몫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높은 것뿐만 아니라 긴 것도 불경스럽게 보일지 모른다는 농담이 작업중에 있기도 하였지만 인공위성들이 하늘에 가득한 정보화 시대에 건물의 높이로 무엇을 지키려는 발상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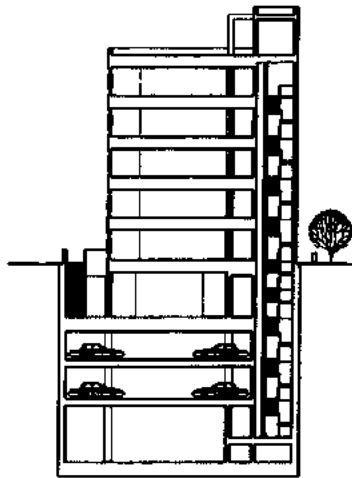
이 안은 96년 10월의 지명 설계경기에 서 선택되어진 것이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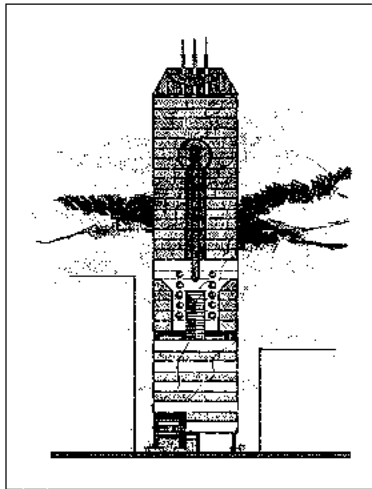
2~5층 평면도



단면도

중원오피스텔

문성운 / 이상도시종합건축



스케치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 25-8
지역지구	일반상업, 미관2종, 최저고도지구
대지면적	587.50㎡
건축면적	469.60㎡
연면적	8,379.60㎡
건폐율	79.93%
용적률	1,28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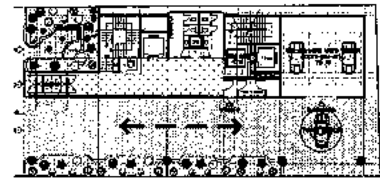
지층면적	822.18㎡
지상면적	7,557.51㎡
규모	지하2층, 지상17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벌랑페널 + 파스텔복층유리
설비방식	중앙공급 냉, 난방
주차대수	70대
용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모든 작업에 있어서 상업성과 영리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작가의 의도를 마음대로 표현하기가 무척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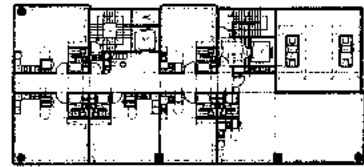
그것은 건축사 자신이 건축주나, 발주처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리하여 공공 부분을 최소화하고 임대 및 전용 부분을 극대화시켜 놓은 후 자주 외관의 형태만 가지고 장난 아닌 장난을 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이것은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 "일"이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다. 그래서 좋은 건축은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원오피스텔은 "일"로 받아들이었던 작업이었다. 대지의 전면 폭이 불과 16m를 조금 넘는 곳에 용적률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발주처의 지상 명령에 처음부터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 둘씩 지워버려야 했다.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써 마지막까지 설득해서 얻어낸 것은 주차공간을 내부 깊숙히 끌어들이므로 해서 생긴 대지 내의 빈 공간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1층 부분은 전체가 공용부분에 해당이 된다. 메인 로비와 휴식공간으로 구성되며, 옥외는 주차 통로와 공개 공지가 형성된다. 2층부터 6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입주자와 일반 인근 주민을 위해 제공되며, 7층에는 오피스텔 입주자를 위한 옥상 정원과 휴식공간을 마련하였다.

오피스텔 부분은 주로 원룸형식으로 구성된다. 주차방식은 부득히 지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건물 내장형 주차 타워로 해결했다. 외관 형태는 전면 폭이 좁은데 반해 층수가 높으므로 자칫 전체적으로 지루하고, 불안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어, 저층, 중층, 고층부의 패턴을 변화시켜 분절시키는 수법을 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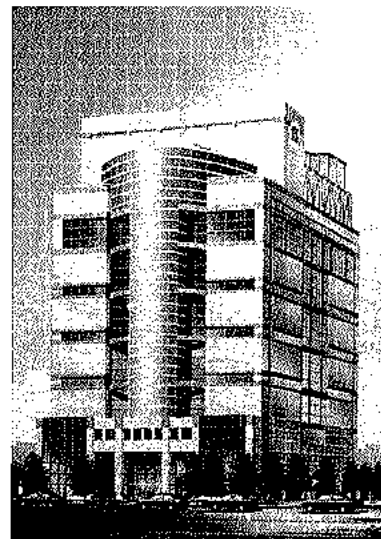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8~15층 평면도

일산올림픽 스포츠센터

이영희 / (주)화림종합건축



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801, 801-1
지역지구	도시설계구역,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3,716.50㎡
건축면적	5,593.25㎡
연면적	36,021.75㎡
건폐율	69.78%
용적률	524.79%
규모	지하6층, 지상10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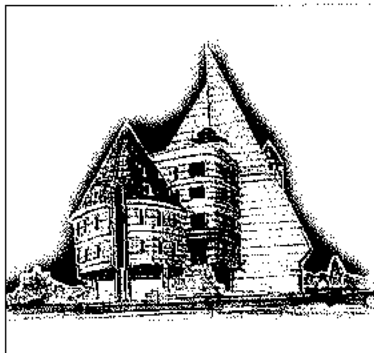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74.35m
주요용도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관 람집회시설, 업무시설
외부 마감	파스텔 복층유리+AL하나무 패널
주차대수	284대(육내: 251대, 옥외: 33대)
조경면적	642.90㎡
공사기간	1995. 5~1998. 3
건축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

일산올림픽 스포츠센터는 일산 신도시내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 구현 및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문화 공간 제공, 생활체육연구의 저변확대, 건 강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으로 헬스클럽, 에어로빅, 수영장, 볼링장, 실내골프연습장 등과 다 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대지내를 관통하는 보행자 전용도로 및 지하2층을 지하철 마두역과 연결시킴으로써 문화공간의 적극적인 수용역할을 긴밀하게 하고, 입면구성은 정면성 및 상징성을 위해 건물 정면부에 커튼월 천창을 설치한 장방형 격자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논현동 갤러리

여운택 / 일진종합건축



CAD 모델링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2-3
대지면적	504.40㎡
건축면적	296.06㎡
연 면 적	1,424.10㎡
건 폐 율	58.79%
용 적 른	201.91%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고지를 점령하고 올라가는 승리의 깃발, 또한 그 투혼을 기리고자 세워지는 승전의 탑. 이러한 개념속에서 본 설계는 다루어졌다.

강남 연주로대로 YMCA회관 맞은편 언덕,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강남의 주거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이곳 사람의 말에 의하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지역 개발 초기에 바로 이곳에 올라 진두지휘 하셨다 하니 그 의미가 또한 깊지 아니한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된 강남의 그 진원지에 비록 적은 규모지만 기념비적 탑을 세우는데 일조한다는 마음가짐은 헛된것이 아닐 것이다.

본 설계는 원추형 지붕의 고전적 외관과, 그 건물의 축에 상징적 화강석탑을 심어 주므로 해서 건물 전체가 탑의 몸체로 화합하는 개념으로 유도되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신선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멀리 나가서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바로 이곳에서 대하여 옥외 전시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므로써 인접 주민들 이 일 에 참여 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정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관

권영욱 / 공간환경종합건축



투시도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 풍치지구
건축면적	3,947.3㎡
연 면 적	29,528㎡
용 도	교육연구시설
규 모	지하2층, 지상7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	133대
외장재료	화강석 혹은기+화강석 버너

교육시설인 이 프로젝트는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의 본관(사적 285호)과 중앙도서관(사적 286호)의 후면에 위치하여 건축됨을 고려하여, 두 건물과 같은 이미지로 계획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설정하고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신축될 건물은 기존 건물들이 저층인 것을 감안하여 전면 테크를 설치함으로써 시각적 개방감을 유도하고 법학관의 앞마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두운 공간이 될 수 있는 지하층에 중정을 설치하여 빛을 끌어들이므로써 학생들 공간이 밝은 분위기가 되도록 하였다. 이 건물은 화상강의실, 모의법정, 종합법률정보센터, 국제회의실, 법학도서관, 중앙공급식 냉난방 공조설비 등을 갖추어 미래지향적 건물로 운영될 계획이다.

Architecture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U

건축문화

신건축

Architecture

96년 12월호

12월 호는 건축가들 자신이 설계한 주택들의 의미와 그 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유리 재료의 특징을 살리는 James Carpenter의 디자인 세계, 건축주의 대화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가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건축설계사무소의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어 있다.

건축가 자신의 주택설계에 대하여

건축가에게 있어 자신의 주택을 설계하는 것은 큰 모험이기에 대부분은 남이 설계한 주택에서 살기 마련이다. 그것은 자신이 건축주인 만큼 남의 간섭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지만,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성되어 버린 자신의 주택 작품에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자비로 새로운 건축가의 탄생을 알리는 기회로도 활용되어 왔다. John Soane, Victor Horta, Konstantin Melnikov의 주택들을 비롯하여 Frank Lloyd Wright, R.M. Schindler, Philip Johnson, Charles Moore 그리고 근래의 Frank Gehry의 자택 설계는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러나 결코 지을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작품이 될 것이기에 그 건축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최근의 자택 작품들로는 ▶근대적 재료와 형태가 돋보이는 TEN Architects의 멕시코 노튼 주택 ▶이성적인 실험 작품이라 할 정도로 명확한 기하학적 구성이 강조된 O.M. Ungers의 독일 필른 자택 ▶버지니아 숲 속에 위치한 Peter Waldman의 자택 ▶Wright 전문 학자 Anthony Alofsin이 설계한 텍사스 자택 ▶극소적인 디자인의 뉴욕 Tsao & McKown 아파트 ▶철골조를 바탕으로 한 캘리포니아 Kappe + Tamuri Architects의 자택이 대표적이다.



TEN Architects의 멕시코 노튼 주택

James Carpenter의 유리 디자인

유리와 빛을 이용하는 속칭 "유리 예술가"로 알려져 있는 Carpenter는 건축물의 커튼 월이나 계단과 같은 건축분야에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모든 경우에 건축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건축물과 완전하게 통합되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의 작품들은 특히 고도의 구조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건축적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하와이의 퍼스트 하와이안 은행의 반사유리 벽면, 뉴욕의 밀레니움 빌딩의 부분 입면, 샌프란시스코 국제 비행장의 천정 유리 조각들 등의 대표작이 소개되어 있다.

건축설계사무소의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건축설계회사들의 대표 중 90%가 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으로는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고백한다. 그렇기에 건축계의 업무에서 야근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그 결정방법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일이 많다. 조사에 의하면 정액봉급제를 채택한 설계 또는 시공회사의 42%가 시간외 수당을 시간제로 지급하지만, 그중 68%가 관련 법규에 명시된 평소 한배반의 수당 대신에 한배만을 지급한다고 한다.

멀티미디어 시장

영화나 게임에서 컴퓨터그래픽에 의한 공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3차원적 공간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건축가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 아울러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별도로 컴퓨터그래픽 디자인부를 두어 설계의 표현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View By View, Eyecandy, CORE, David Williams 3dMedia 등 대표적인 회사들과 그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기타

▶뉴욕에 등장한 Rem Koolhaas 디자인의 소형 미술관 ▶Gehry에 의해 제시된 음악박물관 계획 ▶시카고 예술 재단에서 열린 항공 관련 디자인전 ▶베를린 시내에 등장할 Gehry의 수상목합건을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기고 ▶신종 CAD 프로그램, 워크스테이션, 플로터와 그 기능들에 대한 간단한 안내 등이 게재되어 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97년 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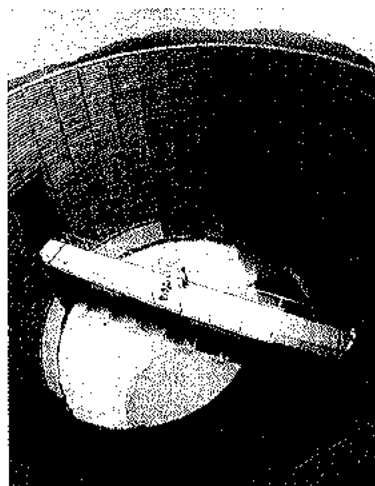
1월호에서는 나무재료를 이용한 건축물들을 주제로, 역사와 지역적 기원과 Tadao Ando,

David Chipperfield의 작품 등 현대 건축의 예들을 소개하고 있다.

목재 건축

나무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정감 어린 재료이다. 그것은 아주 초기부터 건축에 사용되었으며, 그렇기에 건축에 대한 우리의 생각 중 많은 것이 나무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도릭 오더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비례감까지도 나무의 형상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산림 지역 면적과 더불어 그 건축적 사용도 줄어가는 상황에서 목재가 갖는 의미는 더욱 강조된다.

최근의 우수한 목재건축작품들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효고 나무 박물관

▶Tadao Ando의 일본 효고 나무 박물관

아시아 주변국들과는 다르게 일본은 비

교적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식목일 45주년을 맞아 오픈된 Ando의 나무 박물관은 효고의 산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것을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띠고 있다. 직경 46m의 큰 원추형으로 된 강한 기하학적 형태에, 그 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판들의 텍스처와 배열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하늘을 향해 열린 이 원추와 그것을 가로지르게 되어있는 통로로 구성된 극소적이고 품위 있는 디자인은 방문자들에게 자연세계 보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유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David Chipperfield의 영국 강과 배 박물관

지난 10년간의 해외 건축활동에서 습득한 경험과 디자인 과정, 건축재료에 대한 생각들(그는 건축 계획과정에서 재료의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잘 활용된 이 작품에서 Chipperfield는 전통적인 건축형태에 대한 재해석, 지상 레벨의 입면, 배-홀에서 유리로 된 투명한 저층부 위에 놓인 육중한 나무 지붕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고 말한다. 서비스 하는(받는) 공간 등 Louis Kahn의 킴벌 박물관에서 받은 영향이 드러나기도 하는 이 작품에서, 지붕은 참나무의 옛 재료를 사용하여 앞으로 시간의 흐름을 더욱 아름답게 보여줄 것이다.

그 외에 ▶Walters and Cohen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번 미술관 ▶Jensen & Skodvin의 노르웨이 로리 창고 ▶Burkhalter & Sumi의 스위스 쾰리히버그 호텔 증축 ▶Burkhalter & Sumi의 스위스 라우펜버그 학교 ▶Ross Barney+Jankowski Architects의 미국 일리노이 주 도서관 증축 ▶Bernard Desmoulin의 프랑스 프레주 전쟁 묘지 명상 센터 ▶David Mitchell과 Julie Stout의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택 ▶Bohlin Cywinski Jackson의 미국 뉴욕 주 아디론덱스 주택 ▶Blue Sky Architecture의 캐나다 밴쿠버 주택 ▶Terunobu Fujimori의 일본 도쿄 주택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영국 '강과 배 박물관'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Wickham & Associates의 영국 음식점은 파리의 생동감 있는 옛 음식점들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고 ▶Varis Arquitects가 설계한 바르셀로나의 화려하고 미국적인 풋볼클럽 바 ▶역시 Varis Arquitects가 설계한 은은한 분위기의 바르셀로나 레스토랑이 소개되어 있다.

기타

▶아일랜드의 국립 미술관에 대한 설계 경기에서 Daniel Libeskind의 안을 누르고 당선된 Benson & Forsyth의 계획 ▶주위 자연과의 조화된 건축을 자랑하는 밴쿠버 중심가에 지어진 로마 콜로세움 형태의 공공도서관(Moshe Safdie 설계)에 대한 비판 ▶〈관람도 건축과 근대주의 전통〉 등 최신 건축 서적에 대한 소개가 다루어져 있다.

Architectural Record

97년 1월호

새로운 형식과 디자인으로 바뀐 1월호에는 Steven Holl의 일본 치바 마쿠하리 주거단지, Fer-



nau & Hartman Architects의 캘리포니아 티핑 빌딩. Tod Williams와 Billie Tsien의 피닉스 미술관이 근작 소개로 다루어져 있고, 미국의 성공적인 건축설계사무소들의 경영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건축물 종류에 따른 기획 특집에서는 근래에 다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도심의 주거계획들을 다루고 있다.

최신 작품 소개

▶ Steven Holl의 일본 치바 마쿠하리 주거 단지 (설계 과정 일지)

80년대 말 미국 건축가로서 일본에서 작품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국에서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다는 것과 아울러 예술성에 대한 배려가 전통적으로 더 많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90년대에는 사정이 달라졌으며, 이 작품은 Arata Isozaki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던 후쿠오카 집합주거와는 아주 다른 과정을 통해 건축되었다. Isozaki와 같은 중간조종자가 없는 상태에서 Holl은 일본 건축주들과 직접 힘겹게 상대하면서 "고요하고 무거운" 건물군과 "동적이고 가벼운" 구조물들이 조합된 주거단지를 설계하였다.



▶ Fernau & Hartman Architects의 캘리포니아 티핑 빌딩

지상 주차장, 사무실, 주거, 정원을 복합시킨 3층 건물로, 근래 도심 디자인에서 지향되는 소규모, 복합 기능적, 보행자 위주의 친근한 건물의 성격을 두루 충족

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 티핑빌딩

▶ Tod Williams와 Billie Tsien의 피닉스 미술관

사막지역에 자리잡은 도시 피닉스에는 근래에 중규모의 현대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최근 완공된 피닉스 미술관 중축안은 서남부 지역의 모티브들을 추상화한 형태를 차용하였으며, 피닉스 도시 건축의 독특한 특성을 확립하는데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피닉스 미술관

미국의 성공적인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디자인과 더불어 경영이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성공적인 대중소 규모의 건축설계 사무소들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마케팅, 프로젝트 계획, 직원들에 대한 보상, 재정 경영, 변화에 대한 유동성에서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프로젝트에 관련된 전략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기간 신속성을 요하는 계획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한다. 2.수준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업무를 평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3.프로젝트팀은 소집단으로 묶어 원만한 커뮤니케이션과 작업 흐름을 도모한다. 4.예산에 관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영 자료를 예산과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5.업무수행과 시공 방법에 대한 자사의 사전을 만든다. 6.회사가 맡기에 너무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별도의 그룹을 만든다. 7.두개의 팀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첫 번째 팀이 우

선적으로 책임을 지는 반면 두 번째 그룹이 품질관리와 인원보강을 맡는다. 8.공정, 경영, 업무 수행에 관계한 일관된 접근법을 제공하는 공정 안내서를 만든다. 9.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인, 자문가, 건축주들과 통화한다.

연속기획 - 도시의 주거단지 계획

신 도시주의자들의 이상적, 전통적인 주거단지 계획이 그 2세대들에 의해 다시 등장하고 있다. 1991년에 결정된 그들의 "아와나 강령"은 이러한 주거단지 계획이 주거, 상점, 직장, 학교, 공원, 공공시설을 모두 유기적으로 포함하면서 가급적 도보나 자전거에 의해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양한 경제계층과 나이층이

공존하는 것, 공원, 녹지, 광장 등의 유형으로 개방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래에는 도심과 제3세계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미국 플로리다의 흥타운 계획, 에콰도르의 인케 마을 계획, 미국 미시간의 웨버 블록, 미국 워싱턴 주의 머서 아일랜드 타운 센터, 미국 일리노이의 파크사이드 등이 소개되어 있다.

기타

▶메탈 루핑에 대한 기술적 정보 ▶CAD 업계의 구조와 현황 ▶신제품으로 빛을 발산하는 유리 블록, 각종 마감 재료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번호에서는 J. Fuses, J. M. Viader의 헤로나 대학 본부건물의 증·개축과 Abalos & 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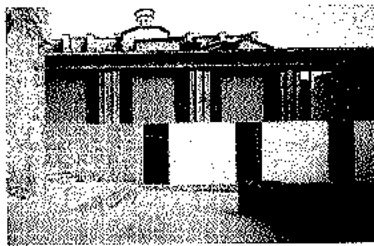
rreros의 Gordillo House를 포함한 5작품, Alex Wall의 그들에 대한 에세이, Kerry Hill의 호텔건축 3제와 주거건축 2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의 작품에 대한 에세이는 Tan Hock Beng이 맡았다. 그와 1996년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UIA 회의에 대한 Clara Jimenez Xiberta의 보고서 '도시에서 있어서의 건축의 현재와 미래'가 실렸다.

Josep Fuses, Joan Maria Viader

▶헤로나대학 메인빌딩의 증·개축 (스페인, 헤로나 1987-1994)

작가가 증개축에 참여한 건물은 "Les Aligues"라 불리는 건물로 16세기때부터 헤로나의 전형적인 공공건축물로 인식되어져 있었다. 17세기에는 대학건물로 쓰여졌었으나 그후 방치되기까지 여러 용도로 쓰여져 왔다. 증·개축작업이 시작되었을때 이 건물은 폐허의 상태였으며 오직 성 도미니크 광장에 면한 메인 파사드와 남은 교회의 파사드만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정을 중심으로 기존의 파사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건물동과 기능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졌다. 작가는 이 건물 주위에 잔존해 있는 것들-로마네스크의 벽, 14세기의 벽, 바로크양식을 보이는 도미니크 수도원, 그리고 16세기 대학의 모습을 보이는 장대한 파사드-이 시대를 달리함에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숙감과 평안히 감싸여진 일체감을 갖고 있는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헤로나대학 메인빌딩 증·개축

Inaki Abalos & Juan Herreros

▶Gordillo House (스페인, 마드리드 1993-1995)

이 주택이 랜드스케이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해 이 건물의 매스는 단순한 육면체로 정해졌다. 평면은 코어를 중심으로 각실이 연속되어지게 배치되어 있다. 실용성과 거주성을 중시한 이 주택은, 전통적인 현실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가정적인 면을 살리고 있는 기능적인 집이다. 이 주택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또하나의 말은 '(안에서)보는 것은 가능하나 (밖에서)보여지는 것은 불가능한 집'이다.



Gordillo House

▶Town Hall and Cultural Center (스페인, 코베냐 1993-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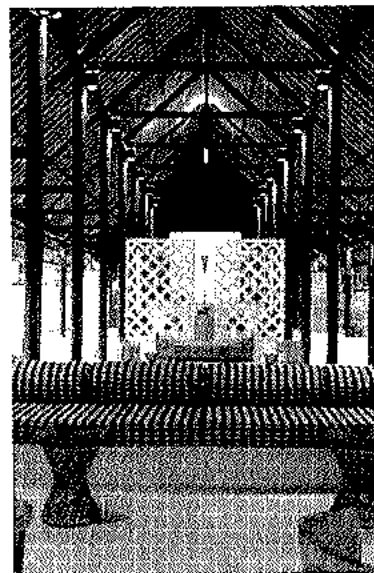
이것은 근접한 비행장의 영향으로 급성장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코베냐에서 계획한 시청사와 문화센터이다. 불행히 이 시설물은 몇개로 쪼개어져 실현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의 컨텍스트에 맞추어 가는 것이 작가에게 가장 커다란 과제였다. 작가는 건물의 성격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러시아식 미니어처를 재현한듯한 기념비적 건물과 모더니티 사이에서의 갈등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해소해 냈다고 한다.

이 외에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내무성의 본관빌딩 (스페인, 마드리드 1991-1993) ▶주변의 스페니쉬 기와를 얹은 집들과 대조를 보이는 정방형의 Municipal Gymnasium (스페인, 시만카스 1989-92) ▶Usera의 Public Library에 대한 계획안이 소개되었다.

Kerry Hill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활동한 그의 작품들에서는 모더니티와 그 지방의 문화적 정취를 모두 맞출 수 있다. 그의 호텔작품들은 동남아의 이국적 향취로 가득차 있으며 싱가포르의 오피스 빌딩은 심플하고 세련된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The Serai-Resort Hotel

▶The Serai-Resort Hotel (인도네시아, 발리 1991-1994)

이 호텔은 저예산의 여행을 즐기는 여행자를 위하여 계획되어졌다. 2층건물 4개동으로 구성된 이 호텔은 건물 어디서라도 거대한 수영장과 해변을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다. Serai에서는 이 고장 고유의 천연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코코넛 나무나 오코색 석재, 대나무, 티크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지붕모양과 개방된 공간은 발리섬의 이국적 정취를 느

끼게 하고 있다.

▶The Datal-Resort Hotel (말레이시아, 프라우 랑카위 1989-1993)

750ha에 걸쳐진 열대우림속에 위치한 이 호텔의 대지는 4개의 중요한 자연적 요소를 갖는다. 바다, 해변, 열대림, 그리고 잘 발달된 예코 시스템이다. 건축가는 손상되기 쉬운 자연경관을 위해 호텔의 위치를 통상적인 리조트 호텔의 위치인 해안가에서 300m 후퇴하여 해발 40m의 열대림 속에 자리잡게 하였다. 그 대신 수영장과 바를 포함한 비치클럽을 해안에 건설하였다. 마찬가지로 현지의 재료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건물의 매상을 줄이고 각 요소요소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전체적인 외관의 크기를 감소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이 외에 ▶깊이있는 벽체와 그 사이로 도입되는 빛이 아름다운 The Chedi - Hotel (인도네시아, 반당 1991-1993)과 ▶Pulai Spring - Apartment (말레이시아, 조호 바루 1994-진행중) ▶Office and Apartments (싱가포르 1993-건설중)이 소개되었다.

건축문화

97년 2월호

이번호에서는 작품특집으로 아오키 준, 사또오 토시히로, 타카오 후지끼, ADH Architects, 세지마 카즈요와 니시자와 류의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Jacques Herzog 와의 인터뷰, 그리고 제30회 건축문화 논문공모의 입상작품에 대한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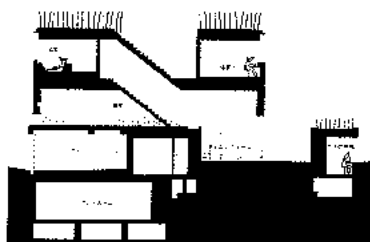
작품특집

▶O (아오키 준 설계)

2층 바닥의 높이는 기존의 담의 높이와 맞추어져 있다.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 지면에서 가깝다. 어느 공원의 바닥을 옮겨놓은 듯한 2층 바닥면은 지면과 연결되어 어디까지라도 확장되어갈 것처럼 느껴진다. 대지 전체를 기반으로 만드는 일, 이것이 O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다. 기단에 4개의 원형 구멍이 만들어지고 이들 원형의 벽들은 대지 한계선까지 닿아 있으며 건물의 안으로 파고들기도 한다. 수평적 사선의 확장과 함께 드럼형의 공간을 통해 수직의 공간적 확장도 경험케 하고 있다.



O(아오키)



단면도

▶K빌딩 (ADH architects)

물품의 반입, 방문자의 진입, 16번 국도의 소음 등을 클라이언트와 상의한 결과 1층은 창고, 2, 3층중 16번 국도에 면한 부분을 오피스, 북측의 주택가를 면한 쪽을 사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기(共起)와의 관계에서 구조는 철골조로 결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주지만 다양하고 세심한 재료의 선택으로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으며 사원들의 주거부분은 온화한 느낌을 주

도록 하고 있다.

▶멀티 미디어 공방 (세지마 카즈요+니시자와 류)

현립학교의 부속시설인 이 건물은 미디어 아트에 종사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작품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활동을 함께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장소이다. 광대한 녹지의 캠퍼스 내에 건설된 이 건물은 높은 층고를 갖는 스튜디오나 아틀리에로 인하여 상당히 커다란 볼륨을 갖게 되었다. 수평적인 주위경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건물전체를 1.8m가량 지하로 묻었으며 옥상광장의 입구를 통한 진입이 제시되었다. 이 옥상 광장은 입구광장인 동시에 옥외전시나 축제 등의 이벤트가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작가들은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녹지의 캠퍼스나 옥상광장을 포함한 각각의 스페이스가 일정한 서열이나 상하관계를 갖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 놓이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제30회 건축문화 논문공모 입상작 발표

'慣性飛行'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던 이 공모전에 下出賞(대상)에 '영화, 아트, 건축'이라는 부제가 달린 '관성비행'을 출품한 토시나가 쓰요시씨(29)가 당선되었다. 가작1席에는 같은 제목에 '건축'이라는 우주선과 사회라는 우주'라는 부제를 단 나루세 노리유키씨(25)의 논문이, 가작2席에는 카와이 에이스케(25)씨의 'P-1'가 선정되었다.

Interview - Jacques Herzog

Herzog & de Meuron은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와 ETH를 졸업한 동료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1978년 이들이 Basel에 그들의 오피스를 처음 연 이후 스위스의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이들은 국제적 관심을 받아왔으며 특히 런던의 Tate Gallery of Modern Art의 국제현상공모에서 커미션을 얻음으로써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들은 최근 일본에서 그들의 작품전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그들의 건축과 도시계획에 관한 비

전에 대해 미야게 리이씨의 토론하게 되었다.

신건축

97년 2월호

작품소개로는 와세다대학 이시아마 오사무 연구실에서 설계한 '히로시마 하우스', '觀音寺'와



토오끼 신의 '오카야마현 생물과학 종합 연구소' 등 22개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특별기사는 '밀레니아 싱가포르 (Millenia Singapore)/ 싱가포르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다루어졌다. 연재물로 'TOKIO계획 1997'과 '新·CAD 강좌'가 연재되고 있다.

작품

▶觀音寺 (와세다대학 이시아마 오사무 연구실 설계)

작가는 이 건물을 無形의 형태를 지닌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동경의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 절은 불규칙한 대지의 모습 만큼이나 그 모습이 기괴하다. 작가는 이 모가난 삼각형 모양의 대지와 만나게 되므로써 자신의 '형태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토오따 종합병원부속 노인 보건 시설 (와따베 카즈오 설계)

전체적으로 산뜻한 느낌을 주는 이 노인 보건시설은 중량감있는 형태를 피하여 주위의 산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랭지라는 기후조건을 감안하여 채광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단체'시설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의 작가가 유의한 점들을 들자면



觀音寺 계단

1. 열린시설 만들기 2. 단계적 그룹화와 선택성-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부터 공공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공간의 그룹화를 도모했으며 식사의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등의 공간의 선택성을 높였다. 3. 공간의 연속성과 장애의한 생활리듬의 확인 4. 확장에 대응하는 다양한 거실형태 5. 고령자를 위한 특별한 시설계획-각각 객실에 세면·위생시설 설치, 자연환기와 더불어 가동되는 환기 시스템, 오존 유니트의 설치 등이다.

특별기사

▶밀레니아 싱가포르

이번에 소개된 '밀레니아 싱가포르 프로



토오따 종합병원부속 노인보건시설



배치도

젝트'는 인접한 호텔과 쇼핑센터를 축으로 하는 '마리나 스퀘어'와 오피스를 중심으로 하는 '센 텍'의 블록,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화시설인 '디 에 스포라나도'로 마리나 센터를 구성하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센트 웨이, 시청 주변을 하나로 묶어 '다운타운 코어'를 만드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되어 소개되어진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 The Ritz-Carlton, Millenia Singapore (Kevin Roche John Dinkeloo & Associates) ▶ Millenia Tower (Kevin Roche John Dinkeloo & Associates) ▶ Centennial Tower (Kevin Roche John Dinkeloo & Associates) ▶ Conrad International Centennial Singapore (John Burgee & Associates) ▶ Millenia Work (Philip Johnson / John Burgee & Associates)

연재물

▶TOKIO 계획 1997 - Project 02 Junction City

자동차는 새로운 진화를 하고 있다. 21세기에는 크게 그 모습을 바꿀 것임에 틀림없다. 건축이나 도시도 역시 차세대 자동차와의 새로운 공존의 형태를 모색해가면서 진화할 것이다. 'Junction City'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junction'과 하우징이 복합 진화한 컴플렉스 인프라 스트럭처의 구상인 것이다. 퍼스널한 개인공간이 끊이지 않고 움직이며 변화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은 여태까지 없었던 City Scape를 만들 것이다.

〈번역/최원준, 강상훈〉

설계도서 신고현황

(97년도 1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월분 7백8십4만7천8백72㎡ 보다 3.2%(2십4만8천8백22㎡) 감소한 7백5십9만9천50㎡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월누계 7백8십4만7천8백72㎡ 보다 3.2%(2십4만8천8백22㎡) 감소한 7백5십9만9천50㎡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2월분 1천1백1십5만3천9백11㎡보다 31.9% (3백5십5만4천8백61㎡) 증가한 7백5십9만9천50㎡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부 산	913,874	1,213,929	300,055	32.8
인 천	230,797	514,205	283,408	122.8
대 전	37,275	89,281	52,006	139.5
강 원	61,414	85,518	24,104	39.2
충 북	130,885	294,608	163,723	125.1
충 남	185,744	276,981	91,237	49.1
전 남	79,364	115,960	36,596	46.1
제 주	36,298	59,849	23,551	64.9
감소지역				
서 울	3,542,948	3,217,537	(325,411)	-9.2
대 구	688,542	172,191	(516,351)	-75.0
광 주	141,877	67,595	(74,282)	-52.4
경 기	1,015,004	762,280	(252,724)	-24.9
전 북	195,501	183,725	(11,776)	-6.0
경 북	149,097	143,803	(5,294)	-3.6
경 남	439,252	401,588	(37,664)	-8.6
합 계	7,847,872	7,599,050	(248,822)	-3.2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용 도	12월분	1월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666,656	582,989	(83,667)	-12.6
다 세 대 주 택	261,222	313,260	52,038	19.9
연 립 주 택	115,249	150,707	35,458	30.8
아 파 트	4,830,418	2,613,432	(2,216,986)	-45.9
근린생활시설	1,571,188	1,230,894	(340,294)	-21.7
종 교 시 설	113,602	54,880	(58,722)	-51.7
의 료 시 설	57,360	39,823	(17,537)	-30.6
교육연구시설	520,970	304,776	(216,194)	-41.5
업 무 시 설	422,018	280,253	(141,765)	-33.6
숙 박 시 설	272,709	204,249	(68,460)	-25.1
공 장	816,281	651,991	(164,290)	-20.1
기 타	1,506,238	1,171,796	(334,442)	-22.2
계	11,153,911	7,599,050	(3,554,861)	-31.9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월분)

구 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500	2,609	732,082	1,883	1,935	582,989	(617)	(674)	(149,093)	-20.4	
다 세 대 주 택	591	620	289,736	526	573	313,260	(65)	(47)	23,524	8.1	
연 립 주 택	83	84	95,437	76	78	150,707	(7)	(6)	55,270	57.9	
아 파 트	93	227	3,437,963	111	322	2,613,432	18	95	(824,531)	-24.0	
근린생활시설	2,059	2,189	1,063,679	2,189	2,261	1,230,894	130	72	167,215	15.7	
종 교 시 설	73	74	75,186	61	65	54,880	(12)	(9)	(20,306)	-27.0	
의 료 시 설	14	18	54,223	21	24	39,823	7	6	(14,400)	-26.6	
교육연구시설	79	103	328,997	106	120	304,776	27	17	(24,221)	-7.4	
업 무 시 설	78	84	248,439	75	75	280,253	(3)	(9)	31,814	12.8	
숙 박 시 설	74	77	72,006	164	193	204,249	90	116	132,243	183.7	
공 장	505	649	605,899	509	738	651,991	4	89	46,092	7.6	
기 타	645	766	844,225	773	931	1,171,796	128	165	327,571	38.8	
합 계	6,794	7,500	7,847,872	6,494	7,315	7,599,050	(300)	(185)	(248,822)	-3.2	()=마이너스

용도별 합계 현황(1월분)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1,778	1,821	562,497	97	106	19,349	8	8	1,143	1,883	1,935	582,989
다세대주택	516	562	310,778	9	9	2,449	1	2	33	526	573	313,260
연립주택	76	78	150,691	0	0	16	0	0	0	76	78	150,707
아파트	111	322	2,613,432	0	0	0	0	0	0	111	322	2,613,432
근린생활시설	1,956	2,030	1,165,154	204	202	53,459	29	29	12,281	2,189	2,261	1,230,894
종교시설	39	43	42,910	21	21	11,942	1	1	28	61	65	54,880
의료시설	12	15	32,847	8	8	6,246	1	1	730	21	24	39,823
교육연구시설	21	23	78,482	79	89	218,264	6	8	8,030	106	120	304,776
업무시설	52	52	269,406	16	16	5,051	7	7	5,796	75	75	280,253
숙박시설	135	163	185,555	27	28	17,389	2	2	1,305	164	193	204,249
공장	273	450	463,571	231	283	183,922	5	5	4,498	509	738	651,991
기타	538	663	893,290	214	245	188,760	21	23	89,746	773	931	1,171,796
합계	5,507	6,222	6,768,613	906	1,007	706,847	81	86	123,590	6,494	7,315	7,599,050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591	1,594	3,542,948	1,648	1,661	3,217,537	57	67	(325,411)	-10.1	
부산	535	767	913,874	799	1,137	1,213,929	264	370	300,055	24.7	
대구	1,023	1,064	688,542	285	285	172,191	(738)	(779)	(516,351)	-299.9	
인천	244	249	230,797	391	406	514,205	147	157	283,408	55.1	
광주	194	241	141,877	86	104	67,595	(108)	(137)	(74,282)	-109.9	
대전	98	98	37,275	138	143	89,281	40	45	52,006	58.2	
경기	1,283	1,412	1,015,004	1,119	1,308	762,280	(164)	(104)	(252,724)	-33.2	
강원	226	234	61,414	230	254	85,518	4	20	24,104	28.2	
충북	199	226	130,885	236	337	294,608	37	111	163,723	55.6	
충남	144	116	185,744	305	233	276,981	161	117	91,237	32.9	
전북	115	117	195,501	108	108	183,725	(7)	(9)	(11,776)	-6.4	
전남	190	212	79,364	217	235	115,960	27	23	36,596	31.6	
경북	241	353	149,097	309	353	143,803	68	0	(5,294)	-3.7	
경남	627	732	439,252	527	639	401,588	(100)	(93)	(37,664)	-9.4	
제주	84	85	36,298	96	112	59,849	12	27	23,551	39.4	
합계	6,794	7,500	7,847,872	6,494	7,315	7,599,050	(300)	(185)	(248,822)	-3.3	()=마이너스

지역별 합계 현황(1월분)

구분 건축사회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530	1,542	2,971,060	118	119	246,477	0	0	0	1,648	1,661	3,217,537
부산	706	1,020	1,112,700	85	105	91,760	8	12	9,469	799	1,137	1,213,929
대구	225	225	145,173	53	53	21,644	7	7	5,374	285	285	172,191
인천	330	345	408,870	43	43	33,458	18	18	71,877	391	406	514,205
광주	62	72	45,182	24	32	22,413	0	0	0	86	104	67,595
대전	101	105	70,500	24	24	15,650	13	14	3,131	138	143	89,281
경기	956	1,131	651,556	153	167	94,138	10	10	16,586	1,119	1,308	762,280
강원	193	215	77,349	34	36	7,678	3	3	491	230	254	85,518
충북	204	297	288,290	27	35	6,182	5	5	136	236	337	294,608
충남	242	182	242,477	63	51	34,504	0	0	0	305	233	276,981
전북	82	82	173,118	26	26	10,607	0	0	0	108	108	183,725
전남	150	165	84,055	56	59	29,249	11	11	2,656	217	235	115,960
경북	236	269	116,868	70	81	24,440	3	3	2,495	309	353	143,803
경남	408	474	322,454	116	162	67,759	3	3	11,375	527	639	401,588
제주	82	98	58,961	14	14	888	0	0	0	96	112	59,849
합계	5,507	6,222	6,768,613	906	1,007	706,847	81	86	123,590	6,494	7,315	7,599,050

용도별 지역별 현황(단독주택)

구분	건축사회	1997년 1월 누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서 울	824	825	271,507
부산	부 산	105	132	21,765
대구	대 구	107	107	30,920
인천	인 천	63	63	25,226
광주	광 주	3	4	514
대전	대 전	42	42	12,794
경기	경 기	322	339	99,428
강원	강 원	69	76	12,830
충북	충 북	34	34	8,806
충남	충 남	55	46	25,019
전북	전 북	8	8	1,746
전남	전 남	17	17	2,758
경북	경 북	57	59	17,157
경남	경 남	152	158	47,037
제주	제 주	25	25	5,482
합계	합 계	1,883	1,935	582,989

용도별 지역별 현황(다세대주택)

구분	건축사회	1997년 1월 누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서 울	90	90	43,757
부산	부 산	227	248	132,691
대구	대 구	7	7	3,837
인천	인 천	35	35	27,744
광주	광 주	9	9	2,159
대전	대 전	17	22	12,036
경기	경 기	81	89	46,536
강원	강 원	3	3	0
충북	충 북	4	17	9,613
충남	충 남	8	5	5,559
전북	전 북	0	0	0
전남	전 남	5	5	1,423
경북	경 북	3	3	1,913
경남	경 남	33	36	23,388
제주	제 주	4	4	2,604
합계	합 계	526	573	313,260

용도별 지역별 현황(연립주택)

구분	건축사회	1997년 1월 누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서 울	45	45	64,254
부산	부 산	13	15	18,697
대구	대 구	0	0	0
인천	인 천	0	0	0
광주	광 주	0	0	0
대전	대 전	0	0	0
경기	경 기	13	13	15,646
강원	강 원	1	1	1,386
충북	충 북	0	0	0
충남	충 남	2	2	48,864
전북	전 북	0	0	0
전남	전 남	1	1	994
경북	경 북	1	1	753
경남	경 남	0	0	113
제주	제 주	0	0	0
합계	합 계	76	78	150,707

용도별 지역별 현황(아파트)

구분	건축사회	1997년 1월 누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서 울	48	58	1,310,659
부산	부 산	20	156	607,677
대구	대 구	1	1	16,582
인천	인 천	5	20	138,877
광주	광 주	1	3	11,910
대전	대 전	1	1	11,039
경기	경 기	4	14	51,249
강원	강 원	1	1	377
충북	충 북	6	33	170,207
충남	충 남	2	1	64,308
전북	전 북	2	2	127,394
전남	전 남	0	0	0
경북	경 북	3	3	4,483
경남	경 남	17	29	98,670
제주	제 주	0	0	0
합계	합 계	111	322	2,613,432

용도별 지역별 현황(근린생활시설)

구분	건축사회	1997년 1월 누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서 울	379	381	335,773
부산	부 산	271	333	150,567
대구	대 구	86	86	46,528
인천	인 천	194	194	143,214
광주	광 주	48	48	15,540
대전	대 전	47	47	28,977
경기	경 기	324	343	172,204
강원	강 원	81	84	22,692
충북	충 북	107	112	47,123
충남	충 남	133	84	38,407
전북	전 북	50	50	16,227
전남	전 남	115	116	56,883
경북	경 북	146	152	66,460
경남	경 남	176	195	81,225
제주	제 주	32	36	9,074
합계	합 계	2,189	2,261	1,230,894

용도별 지역별 현황(종교시설)

구분	건축사회	1997년 1월 누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서 울	17	17	25,510
부산	부 산	8	10	4,122
대구	대 구	3	3	1,826
인천	인 천	1	1	1,928
광주	광 주	2	2	1,621
대전	대 전	1	1	28
경기	경 기	6	6	4,173
강원	강 원	3	3	2,635
충북	충 북	2	2	1,273
충남	충 남	3	3	2,817
전북	전 북	3	3	1,795
전남	전 남	2	2	1,708
경북	경 북	2	2	378
경남	경 남	4	4	2,000
제주	제 주	4	6	3,066
합계	합 계	61	65	54,880

용도별 지역별 현황(의료시설)

건축사회	구분	1997년 1월 누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3	3	7,403
부산		2	2	8,541
대구		3	3	1,273
인천		0	0	0
광주		0	0	0
대전		0	0	0
경기		4	4	3,627
강원		1	1	2,073
충북		1	4	4,965
충남		3	3	1,291
전북		2	2	5,007
전남		0	0	0
경북		0	0	0
경남		2	2	5,653
제주		0	0	0
합계		21	24	39,823

용도별 지역별 현황(교육연구시설)

건축사회	구분	1997년 1월 누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22	22	138,850
부산		10	14	66,405
대구		4	4	3,843
인천		6	6	10,419
광주		0	0	0
대전		14	14	16,110
경기		22	23	37,831
강원		5	5	2,963
충북		2	2	5,629
충남		4	4	3,007
전북		2	2	1,728
전남		5	5	5,904
경북		4	4	1,898
경남		6	15	10,189
제주		0	0	0
합계		106	120	304,776

용도별 지역별 현황(업무시설)

건축사회	구분	1997년 1월 누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35	35	243,631
부산		14	14	22,980
대구		4	4	3,437
인천		0	0	0
광주		0	0	0
대전		0	0	0
경기		5	5	3,052
강원		3	3	64
충북		3	3	2,341
충남		1	1	623
전북		0	0	0
전남		5	5	3,529
경북		1	1	172
경남		1	1	152
제주		3	3	272
합계		75	75	280,253

용도별 지역별 현황(숙박시설)

건축사회	구분	1997년 1월 누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6	16	46,878
부산		16	25	13,481
대구		10	10	9,174
인천		9	9	10,944
광주		8	9	6,189
대전		4	4	3,161
경기		27	28	31,462
강원		26	32	27,742
충북		9	10	4,264
충남		7	11	12,029
전북		2	2	2,416
전남		15	16	14,300
경북		10	12	7,905
경남		1	1	707
제주		4	8	13,597
합계		164	193	204,249

용도별 지역별 현황(공장)

건축사회	구분	1997년 1월 누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44	44	164,960
부산		28	71	54,962
대구		27	27	35,504
인천		27	27	25,777
광주		8	15	11,493
대전		3	3	2,256
경기		151	220	148,259
강원		10	12	2,511
충북		41	85	32,322
충남		37	32	45,417
전북		14	14	11,947
전남		13	21	9,891
경북		29	47	21,314
경남		66	107	82,512
제주		11	13	2,866
합계		509	738	651,991

용도별 지역별 현황(기타)

건축사회	구분	1997년 1월 누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25	125	564,355
부산		85	117	112,041
대구		33	33	19,267
인천		51	51	130,076
광주		7	14	18,169
대전		9	9	2,880
경기		160	224	148,813
강원		27	33	10,245
충북		27	35	8,075
충남		50	41	29,640
전북		25	25	15,465
전남		39	47	18,570
경북		53	69	21,370
경남		69	91	49,942
제주		13	17	22,888
합계		773	931	1,171,796

신입회원 entrant

〈'97. 1/1~1/31 기준〉

강근웅: 1956년생/청주대/(주)범한종합건축사
사무소/597-6217/서초구 서초동
1543-11(301호)

강길선: 1963년생/인하대 대학원/(주)원남건
축사사무소/32-2291/전남 나주시 중
앙동 48-9

강명호: 1965년생/울산대/건축사사무소 원건
축/53-5400/경북 안동시 남문동 179-
13

강재익: 1957년생/전북대/건축사사무소 이상
건축/452-0700/전북 군산시 조촌동
872-11

강치암: 1960년생/홍익공전/삼리건축사사무
소/3401-321/송파구 가락동 57 서원
빌딩 3층

강형찬: 1965년생/동의대/시티디자인 건축사
사무소/751-4288/부산시 수영구 광안
동 89-13 화목오피스텔 609

강홍구: 1961년생/강원대/건축사사무소 건아/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369-31/243-
9933

경창구: 1960년대/충북대/현술건축사사무소
/486-6727/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7

고근식: 1943년생/동아대/(주)보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588-4489/서초구 서초
동 1420-8

고영환: 1958년생/부산산업대/건축사사무소
태원/554-8360/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339-6

고정환: 1948년생/영남대/건축사사무소 유림
건축/474-8011/대구시 남구 봉곡동
588-43

공유성: 1965년생/충북대/선건축사사무소
/53-4711/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0-2

구성록: 1958년생/영남공전/우호건축사사무
소/74-2740/경북 포항시 죽도동 106-
1

구자민: 1948년생/영남대/현대 건축사사무소
/41-6980/경남 진주시 본성동 7-6

국중훈: 1956년생/원광대/삼정종합건축사사
무소/226-6678/전북 전주시 오산구

중화산동2가 604-5

권산호: 1935년생/영남대/영산건축사사무소
/756-0666/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7-
2

권석진: 1955년생//부원건축사사무소/973-
1219/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87-10

권육기: 1960년대/한남대/건축사사무소 아키
빌/626-4781/대전시 동구 용전동 72-
24

권진수: 1961년생/가람건축사사무소/74-
0900/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10-
14

김경오: 1967년생/청주대 대학원/누리건축사
사무소/867-2011/충남 연기군 조치원
읍 시농리 1-7

김경우: 1962년생/송원공전/(주)경일건축사사
무소/225-3337/광주시 동구 동명동
2301-1

김광조: 1965년생/한양대/(주)건원국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527-1071/강남구
역삼동 678-36

김구진: 1957년생/대전건축사사무소/436-
8070/경북 김천시 신음동 1283-5

김명렬: 1963년생/원광대/건축사사무소 인·
토/62-4292/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
안리 96-2

김명만: 1965년생/청주대/가나건축사사무소
/936-8870/충남 보령시 동대동
1321-1

김무경: 1960년생/영남대/현대건축사사무소
/425-2800/대구시 중구 대봉2동
727-30

김미양: 1969년생/충남대/건축사사무소 가향
/824-0026/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63-25

김민수: 1968년생/한남대/(주)수성건축사사무
소/488-0851/대전시 서구 갈매동
273-34

김민호: 1965년생/경북산업대/건축사사무소
동남/37-0084/경북 영천시 문외동 38

김상식: 1959년생/건축사사무소 공평/962-
7770/대구시 동구 율하동 953-1

김성무: 1964년생/울산대/제우건축사사무소
/51-0002/제주시 이도1동 1179-4
양암빌딩 7층

김성배: 1958년생/인덕공전/김성배 건축사사
무소/878-6722/경기도 의정부시2동
591-1

김성훈: 1960년생/서울산업대/건축사사무소
맥토/651-9162/전남 여수시 문수동

119-3 남춘빌딩 301

김왕은: 1963년생/영남대/예인건축사사무소
/761-8070/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275-11

김연승: 1960년생/건축사사무소 정원/549-
1300/충남 아산시 온천동 1720

김영도: 1962년생/계명실전/건축사사무소 반
석/458-4477/경북 구미시 원평동
1050-14 에덴빌딩 303

김영식: 1957년생/전남대 대학원/건축사사무
소 이상건축/226-2192/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54-1

김영운: 1962년생/경기대/연건 건축사사무소
/668-005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
미동 110-11

김왕선: 1956년생/고려대/건축사사무소 도심
건축/573-4883/서초구 양재동 111-5
성초빌딩 2층

김용문: 1959년생/홍익대/문예건축사사무소
/547-1210/강남구 논현동 91 중앙빌
딩 302

김우기: 1965년생/충북대/김우기 건축사사무
소/656-8633/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2-5

김원영: 1948년생/경기대/강운순건축사사무
소/873-0160/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
내리 620-6

김은수: 1960년생/건축사사무소 태한/471-
0795/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82 산성
빌딩 402

김은숙: 1968년생/원광대/명성건축사사무소
/253-5131/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
동 1587-11

김재욱: 1958년생/인하대/(주)종합건축사사무
소 정우그룹/571-5981/강남구 도곡
동 453-16

김재경: 1957년생/경기대/송백건축사사무소
/928-2258/성북구 삼선동5가 299-1

김종성: 1959년생/부산대 대학원/미래도시건
축사사무소/3444-861/강남구 논현동
203-1 거평타운A동 816

김종순: 1959년생/건국대/정우 건축사사무소
/654-1438/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
미동 88-1

김종식: 1966년생/부산공전/건축사사무소 두
레/464-2800/부산시 도우 초량3동
1161-40 금택빌딩 803호

김주열: 1962년생/청주대/두열건축사사무소
/221-1083/충북 청주시 상당구 유암
동 120-3

김주원: 1960년생/삼척공전/(주)신화엔지니어

링 종합건축사사무소/632-3224/대전
 시 동구 용전동 143-21
 김진기:1962년생/충북대/정호건축사사무소
 /56-7018/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
 3가 87-4
 김진호:1956년생/홍익대/(주)토인종합건축사
 사무소/501-4271/강남구 대치동
 911-7 삼정빌딩 4층
 김태석:1962년생/목포실전/동아건축사사무
 소/79-4321/전남 목포시 용당1동
 1183-15
 김희경:1962년생/인하공전/(주)동원종합건축
 사사무소/553-2211/강남구 역삼동
 613-22
 김희정:1968년생/부산대/건미건축사사무소
 /241-6207/부산시 중구 동광동2가 4
 나해선:1962년생/동양공전/(주)에은라인 건
 축사사무소/565-9440/인천시 서구 마
 전동 697-20
 노종식:1965년생/건축사사무소 김달/755-
 1650/대구시 동구 신천3동 139-5
 류시복:1962년생/경북공전/종합건축사사무
 소 문영/53-6678/경북 문경시 모전동
 866-6
 문영태:1945년생/경북건축사사무소/565-
 4490/대구시 서구 내당동 230-10
 문창용:1944년생/부산대/(주)서강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465-2551/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96-4
 문태순:1955년생/제주실전/건축사사무소 태
 윤/57-1388/제주도 제주시 아도이동
 1173-23
 문현주:1965년생/수원공전/(주)정원 건축사
 사무소/39-0079/경기도 수원시 팔달
 구 인계동 1032
 민성식:1961년생/홍익대/비전건축사사무소
 /39-734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
 동 1036-11
 민현규:1945년생/전북대/조은건축사사무소
 /816-3082/동작구 노랑진동 240-25
 박경수:1958년생/한양대/(주)해인건축 종합
 건축사사무소/529-1493/강남구 도곡
 동 518-7
 박광중:1964년생/안양공전/우석건축사사무
 소/406-5166/경기도 안산시 877-12
 대아빌딩 307
 박균환:1963년생/경북산업대/(주)고도건축사
 사무소/753-6210/대구시 동구 신천3
 동 123-1 태성빌딩 2층
 박기태:1961년생/충북대/백경 건축사사무소
 /59-4326/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166-11

박등근:1965년생/울산대/서영건축사사무소
 /60-1275/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1285-9
 박동환:1960년생/인천전문대/상주건축사사
 무소/536-5959/경북 상주시 우양동
 278-4
 박무승:1953년생/방송통신대/(주)에진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546-6156/강남구
 논현동 272-32
 박상진:1965년생/한남대/삼인건축사사무소
 /253-3355/대전시 중구 대서동 248-
 289
 박성재:1960년생/경희대/건축사사무소 예가
 건축디자인그룹/355-5422/은평구 갈
 현동 463-3 동원산업 4층
 박성재:1963년생/경남대/한솔건축사사무소
 /89-6370/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5
 경남은행 5층
 박승희:1963년생/청주대/(주)원일종합건축사
 사무소/587-1456/서초구 서초동
 1625-1 해양빌딩 501호
 박시남:1957년생/청주대/건축사사무소 (주)
 이일건축/56-0021/충북 청주시 상당
 구 우암동 110-2
 박영민:1964년생/목원대 대학원/명신건축사
 사무소/68-3333/경남 울산시 남구 신
 정3동 590-7
 박재일:1959년생/대전공업대/내포건축사사
 무소/32-0798/충남 홍성읍 오관리
 113-36
 박재홍:1960년생/송원공전/홍건축사사무소
 /375-6282/광주시 서구 쌍촌동 966-
 22
 박찬곤:1959년생/부산공전/건축사사무소 범
 성/514-8862/부산시 금정구 무곡3동
 64-8, 9
 박찬석:1958년생/한서건축사사무소/561-
 2277/인천시 서구 연희2가구 15블럭
 12롯데
 박찬익:1960년생/건국대/모노조형건축사사
 무소/52-4122/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
 내리 546-1
 박춘호:부산산업대/건축사사무소 이상향
 /241-7607/부산시 서구 서대신동2가
 35-6 흥원빌딩
 박태환:1964년생/영남대/대경건축사사무소
 /743-1874/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1812
 박현수:1962년생/홍익대/(주)화산건축사사무
 소/221-0474/경기도 수원시 팔다루
 인계동 982-2
 방성식:1961년생/건축사사무소 탐/452-

8556/전북 군산시 조촌동 866-13
 배석권:1957년생/성부건축사사무소/841-
 7356/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4동
 220-14
 백광열:1964년생//동광건축사사무소/851-
 8008/충북 충주시 철금동 1014
 백승호:1956년생/구경건축사사무소/326-
 0315/미포구 성산동 51-17 성산빌딩
 306
 서보현:1962년생/계명대/상명건축사사무소
 /471-6251/대구시 남구 대명8동
 2025-19
 서재홍:1958년생/원광대/건축사사무소 가가
 건축/706-759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79-8
 심도재:1964년생/부산산업대/건축사사무소
 가전/816-0400/부산시 진구 범전동
 400-23 대한빌딩3층
 성순백:1958년생/명지대/경원건축사사무소
 /82-5591/경기도 안산시 고전동 522
 손경수:1957년생/대전공업대/(주)한림 건축
 사사무소/485-8300/대전시 서구 탄방
 동 1411번지
 손영만:1949년생//건축사사무소 예산건축
 /35-1333/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74
 송재원:1961년생/동의공전/유림건축사사무
 소/29-3558/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
 리 191-7 침학프라자 702
 신동호:1956년생/목원대 대학원/(주)아키
 포럼건축사사무소/462-6887/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0-3
 신인철:1960년생/수원공전/미도건축사사무
 소/618-6832/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0-2 금산빌딩 301
 신현열:1959년생/홍익대/건축사사무소 파스
 텔/44-2300/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64-23
 신형중:1964년생/울산대/태경건축사사무소
 /73-3605/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1동
 632-15
 심상연:1955년생/홍익대/가람건축사사무소
 /52-7627/강원도 태백시 황지3동 2/1
 263-23
 안규범:1964년생/동아대/플러스건축사사무
 소/637-1040/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97
 안용근:1964년생/경상대/건축사사무소 진원
 /52-0071/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동
 185-3
 안종덕:1960년대/(주)환건축사사무소/85-
 8877/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53-3
안홍준: 1962년생/울산대/신우건축사사무소
 /258-7757/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1315-3
안홍준: 1961년생/원광대/샘건축사사무소
 /33-1820/전북 정읍시 연지동 253-
 12
양영수: 1962년생/한양대/(주)원일종합건축사
 사무소/587-145/서초구 서초동
 1625-1 해방빌딩 501호
양익모: 1957년생/제일환경건축사사무소
 /857-5041/관악구 신림동 1474-23
양창식: 1959년생/대전건축사사무소/722-
 0692/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08-38
염양규: 1964년생/염건축사사무소/367-
 7490/광주시 서구 농성동 330-21
오보환: 1963년생/명지대/건축사사무소 대성
 건축/375-8782/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69-36
오상희: 1961년생/대전공업대/태영건축사사
 무소/535-0585/대전시 서구 갈매동
 397-9
오세득: 1964년생/충북대/(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632-3224/대전시
 동구 용전동 143-21
오요한: 1963년생/원광대/건축사사무소 삼현
 /225-9345/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
 산동2가 570-13
오치홍: 1960년생/조선대/건축사사무소 한우
 리/광주시 북구 신안동 156-1
우중식: 1962년생/제일종합건축사사무소
 /555-2852/경북 문경시 모전동 866-
 6
원삼희: 1959년생/서울산업대/원건축사사무
 소/562-6000/인천시 서구 연희2지구
 19B 1-1LT
유재원: 1953년생/단국대/(주)창우종합건축사
 사무소/515-4057/서초구 잠원동 39-
 15 은양빌딩 5층
유중공: 1959년생/건국대/(주)나래건축사사무
 소/389-2635/은평구 녹번동 83-46
윤석동: 1960년생/대전공업대/가림건축사사
 무소/524-9194/대전시 서구 용문동
 227-1
윤인석: 1963년생/단국대/건축사사무소 더성
 /858-6222/관악구 신림동 15가 4 일
 신빌딩 302
윤화수: 1953년생/동의공전/명성건축사사무
 소/853-6697/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1331-2
이경태: 1957년생/(주)대호건축사사무소

/571-2650/서초구 양재동 16-7
이광일: 1964년생/영남공전/삼전건축사사무
 소/33-8282/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
 리 271-5
이근무: 1960년생/관동대/이건 건축사사무소
 /651-8101/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76-3, 4번지
이근원: 1959년생/단국대/(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632-3224/대전시
 동구 용전동 143-21
이근화: 1963년생/대전공업대/건축사사무소
 인생본/55-4594/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943-9
이기화: 1961년생/인하공전/우미그룹 종합건
 축사사무소/419-9085/송파구 송파동
 135-18 백상빌딩 404
이길재: 1962년생/조선대 대학원/(주)종합건
 축사사무소/514-0340/강남구 신사동
 534-18 이레스빌딩 3층
이난숙: 1966년생/경북대/건축사사무소 세형
 /763-4241/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375-7
이동렬: 1963년생/대구대/지현건축사사무소
 /64-0432/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01-1
이두필: 1958년생/전북대/두산건축사사무소
 /452-6583/전북 군산시 조촌동 753-
 1
이맹기: 1961년생/인하공전/(주)미래·환경건
 축사사무소/523-7790/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74-44 대원빌딩 2층
이문규: 1960년생/홍익공전/충무건축사사무
 소/548-3950/충남 아산시 온천동
 1455
이만수: 1955년생/전북대/(주)금강 종합건축
 사사무소/252-6570/전북 주시 완산구
 서신동 780 태양빌딩
이변열: 1963년생/단국대/건축사사무소 나우
 건축/587-6471/서초구 방배동 981-
 29
이병인: 1958년생/관동대 대학원/미래건축사
 사무소/828-6507/대전시 유성구 봉영
 동 538-8 동아리조트O/T 1904
이상렬: 1959년생/계명대/건축사사무소 신명
 /423-5400/대구시 중구 동인4가
 274-10
이승우: 1961년생/청주대 대학원/(주)한림 건
 축사사무소/485-8300/대전시 서구 탄
 방동 1411번지
이영규: 1963년생/원광대/오경건축사사무소
 /225-9136/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
 동3가 34-7

이영식: 1964년생/명지대/선명건축사사무소
 /848-8707/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
 동 205-7
이영달: 1962년생/계명대/(주)원일종합건축사
 사무소/587-1456/서초구 서초동
 1625-1 해방빌딩 501호
이원호: 1966년생/대양건축사사무소/375-
 8077/경기도 오산시 우너동 752-20
이육미: 1968년생/경원대/(주)부림종합건축사
 사무소/569-1730/강남구 역삼동
 770-9 성환빌딩 7층
이정복: 1956년생/원광대/건축사사무소 탑
 /452-8556/전북 군산시 조촌동 866-
 13
이종철: 1952년생/가나건축사사무소/223-
 237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7-4
이준수: 1961년생/전남대 대학원/삼정종합건
 축사사무소/226-6678/전북 전주시 완
 산구 중화산동2가 604-5
이증원: 1964년생/동아대/명성건축사사무소
 /388-5533/경남 양산시 웅상읍 덕계
 리 724-27
이진규: 1962년생/울산대/무이건축사사무소
 /853-2433/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384-11 동림빌딩 401
이철환: 1965년생/건축사사무소 라인/75-
 5917/경북 포항시 남구 대동동 70-22
 3층
이태영: 1966년생/원광대/건축사사무소 아이
 /563-6474/강남구 삼성동 165-8 성
 우빌딩 3층
이태오: 1962년생/동아대/오성건축사사무소
 /241-4321/부산시 중구 중앙1가 22-
 10
임연웅: 1956년생/동국대/이키센건축사사무
 소/3476-484/서초구 방배동 852-19
 동서빌딩 401
임인택: 1963년생/도고건축사사무소/943-
 9077/대구시 북구 산격4동 1449-3
임재웅: 1961년생/서울대/건축사사무소 O. C.
 A/597-0670/서초구 서초동 1466-8
 두경빌딩 B-2
임채룡: 1960년생/울산공전/동진 건축사사무
 소/75-0114/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1284-1
장만호: 1966년생/청주대 대학원/토단건축사
 사무소/526-3085/대전시 서구 갈매동
 343-33
장보익: 1964년생/경남대/건축사사무소 영남
 /57-8826/경북 안동시 안락동 77-7
 화성빌딩 2층

장춘기:1961년생/전주공전/장건축사사무소
/723-7880/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1-6

전동석:1963년생/청주대/태건축사사무소
/221-3685/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
로3가 321

전승택:1961년생/원광대/노아건축사사무소
/452-1300/전북 군산시 조촌동 898-
10

전옥영:1952년생/원광대/건축사사무소 세원
건축(주)/220-3333/전북 전주시 완산
구 중화산동 649-2

전태휴:1963년생/강원대/솔건축사사무소
/646-0377/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22-22 2층

정광일:1960년생/동산실전/동산건축사사무
소/511-0062/광주시 북구 임동 60-
15

정권영:1958년생/대전공업대/건축사사무소
사실공/489-0430/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7

정보설:1960년생/조선대/건축사사무소 포림
/512-4900/광주시 북구 풍향동 593-
25

정용훈:1964년생/충북대/정훈건축사사무소
/272-8352/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
동 1124

정운화:1953년생/한양대/(주)정서건축사사무
소/549-7481/강남구 논현동 192-16
송진빌딩 4층

정원우:1959년생/홍익대/(주)다박설계 건축
사사무소/406-9390/송파구 가락동
70-14 대원빌딩 201

정은주:1965년생/충북대/(주)세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532-2991/대전시 서구
용문동 227-1

정인설:1961년생/건축사사무소 신유원/622-
0998/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8-9

정종성:1961년생/원광대/미도건축사사무소
/425-2306/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51865

정진관:1958년생/경남공전/종합건축사사무
소 미조·서진/465-7674/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3-5 초록강남빌딩 4층

정창국:1960년생/경상대/건축사사무소 협동
/31-4566/경북 영주시 가흥1동
1458-16

정태영:1964년생/목원대/(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632-3224/대전시
동구 용전동 143-21

조기승:1961년생/건축사사무소 명성/549-
2257/충남 아산시 온천동 1510

조동준:1955년생/인덕공전/(주)청양건축사사
무소/505-3355/인천시 부평구 청천1
동 168-2

조연성:1957년생/전주대 대학원/현대건축사
사무소/381-0101/광주시 서구 쌍촌동
966-23

조영수:1964년생/전북대/(주)금강 종합건축
사사무소/252-6570/전북 주시 완산구
서산동 780 태양빌딩

조인성:1964년생/준경공전/부길 건축사사무
소/523-7937/대전시 서구 갈마동
427-21 다이아몬드4층

조재관:1962년생/충북대 대학원/합도건축사
사무소/682-7810/경기도 부천시 원미
구 현의동 121, 121-22

조준호:1963년생/전남대/일호건축사사무소
/528-1577/광주시 북구 중흥동 806-
1 한성빌딩 5층

조철현:1961년생/관동대/(주)바로 종합건축
사사무소/535-4760/서초구 서초동
1706-4

진병영:1965년생/건축사사무소 전원/63-
8887/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71-1

최광수:1958년생/고려대/건축사사무소 예안
/525-3028/서초구 서초동 1359-28
서일빌딩 2층

최철환:1962년생/영남대/정건사 건축사사무
소/424-0580/대구시 동구 신천1동
740-4

최병철:1966년생/청주대 대학원/최병철 건축
사사무소/257-2986/대전시 중구 부사
동 99-6

최상갑:1959년생/동의공전/미상건축사사무
소/891-3883/부산시 부산진구 개금1
동 546-5

최양기:1966년생/인덕공전/건축사사무소 건
축원/876-0550/경기도 의정부시 의정
부1동 508-1

최윤식:1965년생/조선대 대학원/(주)구암건
축사사무소/576-0950/강남구 포이동
258-3

최인찬:1964년생/영남대/(주)공간건축사사무
소/75-6700/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
동 58-13

최종철:1963년생/울산대/건축사사무소 건웅
/721-0056/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
남동 32-2

최천수:1961년생/경기대/에인건축사사무소
/383-3535/은평구 녹번동 83-6 301
호

최 훈:1964년생/울산대/최훈건축사사무소

/60-7597/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1285-9

최희주:1960년생/원광대/한울건축사사무소
/281-7654/전남 목포시 상동 1023-2

태원상:1966년생/홍익대/창원건축사사무소
/33-1937/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77-23 2층

하민중:1964년생/경상대/건축사사무소 범한
/45-8224/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425-4

하태규:1963년생/건축사사무소 세종·경우
/515-9477/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23-13

한갑수:1958년생/조선대/9주)해인이엔지 건
축사사무소/723-8009/전남 순천시 조
례동 1601-9

한상훈:1963년생/(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673-7151/광주시 서구 서동 112

한성수:1959년생/동아대/건축사사무소 한구
조/469-1306/부산시 동구 초량3동
46-11

한인복:1955년생/서일건축사사무소/567-
6626/대구시 서구 평리동 1217-10

형상묵:1953년생/전북대/건축사사무소 이상
건축/226-2192/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54-1

허경우:1959년생/동양공전/에봉건축사사무
소/3273-515/마포구 서교동 463-28
공암빌딩 3층

허선구:1956년생/동국대 대학원/화산건축사
사무소/468-6963/부산시 동구 초량동
1162-5

허정행:1962년생/부산대 대학원/(주)건원국
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527-1071/
강남구 역삼동 678-36

하태석:1993년생/건축사사무소 세원건축
/648-1203/경남 통영시 북신동 38-3
대린상가 206

홍중무:1961년생/인덕공전/토·우건축사사
무소/74-0545/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26-1

황규형:1964년생/건축사사무소 두성/85-
3551/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51-3

황상묵:1953년생/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전
남대 대학원/226-2192/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54-1 251-3

건축사협회 임시총회 개최

3월 27일 오전 10시 협회 강당

대한건축사협회 97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오는 3월 27일 오전 10시 서초동 건축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전국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는 96년도 회계결산과 97년도 추경 예산(안) 승인 등 기타 주요현안에 대한 안건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주)연희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감리, 건축구조
견적, 행정직 모집

(주)연희종합건축사사무소는 활기찬 미래에 동참할 건축인을 찾는다.

■모집부문 및 자격

부 문	인 원	자 격
건축설계	○○명	경력 3~5년
감리	○○명	초급이상
건축구조/견적	○명	경력
행정	○명	고졸이상 PC 가능자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기재)
- 자기소개서(참여작품 요약 및 희망분야 명기)
- 자격증 사본(소지자)

■전형방법

- 서류전형후 면접

■제출기간

- 수시접수

■제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07-6 연희빌딩

(주)연희 종합건축사 사무소

TEL : 322-8456~8

FAX : 322-8459

(주)한진종합건축사사무소

경력사원모집

(주)한진건축이 미래의 꿈을 함께 펼쳐나갈 의욕적이고 창조적인 새기조를 찾는다.

■모집부문

- 계획 및 설계(경력 5년 이상) 3명
- 감리(경력 2년이상) 약간명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FAX 접수가능)
- 기독교인 환영

■접수마감

- 97년 3월 31일까지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4-5 코스모빌딩 4층

TEL 587-0011~3

587-2351~2

FAX 587-0031

마루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 감리(간부 · 경력 · 신입)
사원모집

(주)마루건축은 건축설계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건축문화창조에 동참할 인재를 찾고 있다.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개별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인원	응시자격
설계직 (간부 · 경력 · 신입)	○○명 ○명 ○명	건축사 및 기술자격증 소지자 무대 • 경력: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CAD 운용 가능한자 • 신입: 졸업예정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감리직	○○명 ○명 ○명 ○명	• 해당 기업사 및 기술자격증 소지자 • 감리: 감리경력사 및 감리표 독이부자 무대 • 신입: 졸업예정 및 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희망부문, 직위, 급여, 연락처명기)
- 자기소개서(경력사항을 중심으로 참여 Project별 상세히 기록)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신입사원에 한함)
- 해당분야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감리협회 또는 전근무지 발행)
- 감리 교육 수료증 사본(수료자에 한함)

■접수방법

- 기간 : 수시접수, 수시모집
- 접수처 : 창원시 웅호동 73-38번지 덕산빌딩 3층 (주)마루건축사사무소 (우:641-041)
- 문의처 : (0551)82-8443~4, 84-8444

FAX 82-4229

■기타사항

- 1) 근무예정지 : 본사 및 경상남도 일원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동백건축사사무소

경력사원모집

(주)동백건축에서는 건축의 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자세로 함께 일할 인재를 찾고 있다.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우측상단에 모집부문 및 연락처 기재)

- 자기소개서(경력자는 설계실적 포함)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 모집부문(설계, 감리)

모집부문	인원	자 격	비고 (감리지역)
설계	○명	대리 및 과장급	
감리	○명	초급이상 ①공고졸 7년이상 ②전문대졸 5년이상 ③학사이상 ④건축기사 2급이상 소지자 ※①~④중 한부분만 해당 가능	서울지역 ①강남구 ②강서구 ③구로구

■ 제출방법

- 제출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20-149 대지빌딩 2층(우 : 143-190)
- 연락처 : TEL (02)454-7866
FAX (02) 454-6643

■ 전형방법

- 서류심사후 개별 면접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경력 및 신입사원모집

■ 모집부문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설 계	○○명	3년이상 유경험자
계 획	○○명	대학졸업자 및 '97
건 축		년 졸업예정자
토 목	○명	특급 이상자
기 계	○명	고급 이상자

※기사1급 소지자, CAD유경험자 우대

■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우상단 연락처 및 모집부문 기재)
- 자기소개서(설계실적을 충실히 작성바람)

■ 제출

- 제출처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47-9 신한빌딩 6층 관리실
TEL : 405-8123~5

(주)대영사 그룹건축사사무소

임·직원 모집

■ 모집부문

건축설계	인원	건축사(40세미만)
	경력및 신입	4년제 대졸(년중모집)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 연락처 및 사진부착
(FAX로 접수 가능)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면접
- 본사 내방 개별면접

■ 제출기간

- 1997년 2월부터

■ 제출처

-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 B/D 21호층 4호(우 : 100-013)
TEL (02)278-3011
FAX (02)263-0087

삼희건축사사무소

건축계획 및 설계부문 모집

■ 모집부문

- 건축계획 및 설계-실무경력 2년이상
- 감리-초·중·고·특급

게시판 이용안내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협회행사를 비롯해 회원 및 회원사의 소식·구인광고(무료)등 건축전반에 알리고 싶은 내용을 전달코자 「게시판」란을 신설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상단 연락처 기재
- 자기소개서(포트폴리오)
- 경력 및 참여 Project 기재
- 전형방법
- 서류전형후 면접
- 서류접수-우편·FAX·직접제출
- 면접-서류전형후 개별통보
- 제출문의처
- 강남구 역삼동 613-22 주미빌딩 1층
FEL 508-6937
FAX 556-8345

정와건축사사무소

정와건축에서 함께 일할 가족 모집

■ 모집부문

분 야	인 원	참 고
계획 및 설계	약간명	• 실무경력 4년 이상 • 실장 10년 이상 • A.P.T설계경력자 우대
ENG 산업 Plant 설계	약간명	• 실장 10년 이상 • 유경험자 4년 이상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첨부, 상단에 진환, 연봉, 희망분야 기재)
- 경력실명서(참여 Project 및 경력사항 기재)

■ 전형방법

- 서류심사후 개별면담

■ 제출기간

- 수시접수, FAX 및 우편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2-20 삼향 B/D 503호
TEL : (02)516-3027~8
FAX : (02)518-3165